

Connect **Better** Sustain **Together**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Contents

Overview

CEO Message	5
Business Overview	7
Sustainability Management Overview	10

Special Report

고객으로부터, 고객 곁으로	13
----------------	----

Material Topics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
기술 혁신(AI)	32
기후변화 대응	39

ESG Management

Environmental	60
환경경영	61
자연자본	62
순환경제	67
Social	72
구성원	73
안전보건	83
인권경영	91
고객중심경영	96
네트워크 안정성	101
공급망 관리	107
지역사회	119

Governance	130
기업 지배구조	131
윤리경영	143
컴플라이언스	152
AI 거버넌스	159
리스크 관리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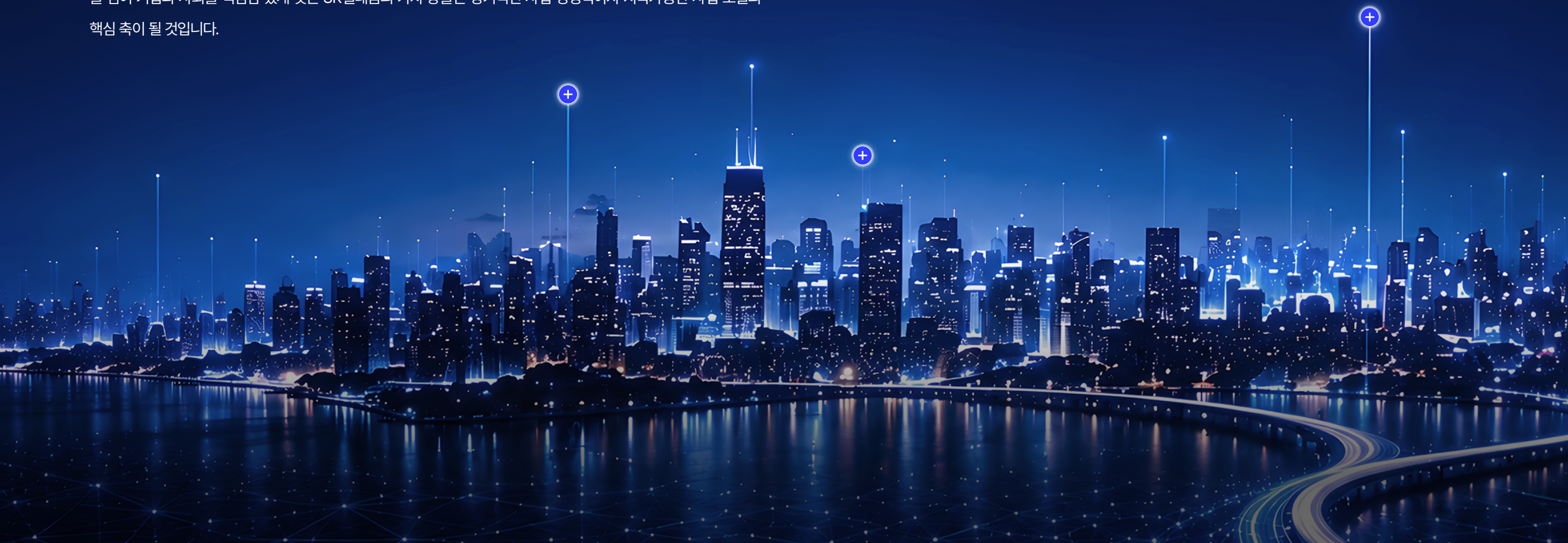
Appendix

중요성 평가	175
이해관계자 참여	182
재무제표	185
비재무제표	202
Index	225
About This Report	233

Connect Better

SK텔레콤만의 AI·통신 서비스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혁신적인 AI 기술과 견고한 통신 인프라를 융합하여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AI 개인비서 서비스를 필두로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관리와 구성원 AI 핵심 역량 육성을 통해 협력사 및 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다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기술의 연결을 넘어 기업과 사회를 책임감 있게 잇는 SK텔레콤의 가치 창출은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이자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Sustain Together

책임 있는 ESG 경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선제적인 중대 리스크 관리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2050 Net Zero 목표 아래 환경경영을 이행하며, Green AI 전환과 AI를 접목한 통신 인프라 전력 효율화로 환경 성과와 사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과 안전보건 측면에서는 신뢰받고 안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 Zero Trust 기반의 정보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보건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과 투명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Responsible AI 실천과 AI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를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혁신하는 SK텔레콤의 책임 경영은 신뢰의 깊이를 더해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오늘날 SK텔레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SK텔레콤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과 원칙 기반의 혁신을 통해 단단하고 오래 가는 SK텔레콤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기술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업(業)의 본질은 바로 '고객'에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오늘을 있게 한 근간이며, 내일의 성장을 이끌 동력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치를 제공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고객 지향의 가치는 SK텔레콤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객 중심 경영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직함과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고객과 사회가 우리의 행보를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ESG 성과를 투명하게 가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DJ BIC¹⁾ World 지수 편입과 WBA의 DIB²⁾ 평가 아시아 1위 달성은 SK텔레콤의 노력이 세계적 표준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며 소통하는 등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ESG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1) Dow Jones Best-in-Class

2) 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Digital Inclusion Benchmark

나아가, SK텔레콤은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의 안전한 기반이 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 전반을 강화하여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AI 기술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고객에게는 새로운 일상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SK텔레콤이 그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정 재 현

정 재 현



OVERVIEW

Business Overview	7
Sustainability Management Overview	10



Business Overview

회사 소개

회사 개요

SK텔레콤은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로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업의 본질은 고객'이라는 원칙 아래, 통신 본업의 품질과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AX(AI Transformation)를 가속화하는 이중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명	SK텔레콤(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설립일	1984년 3월 29일
임직원 수	5,316명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19개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T(04539)
회사 홈페이지	한글 www.sktelecom.com 영문 www.sktelecom.com/index_e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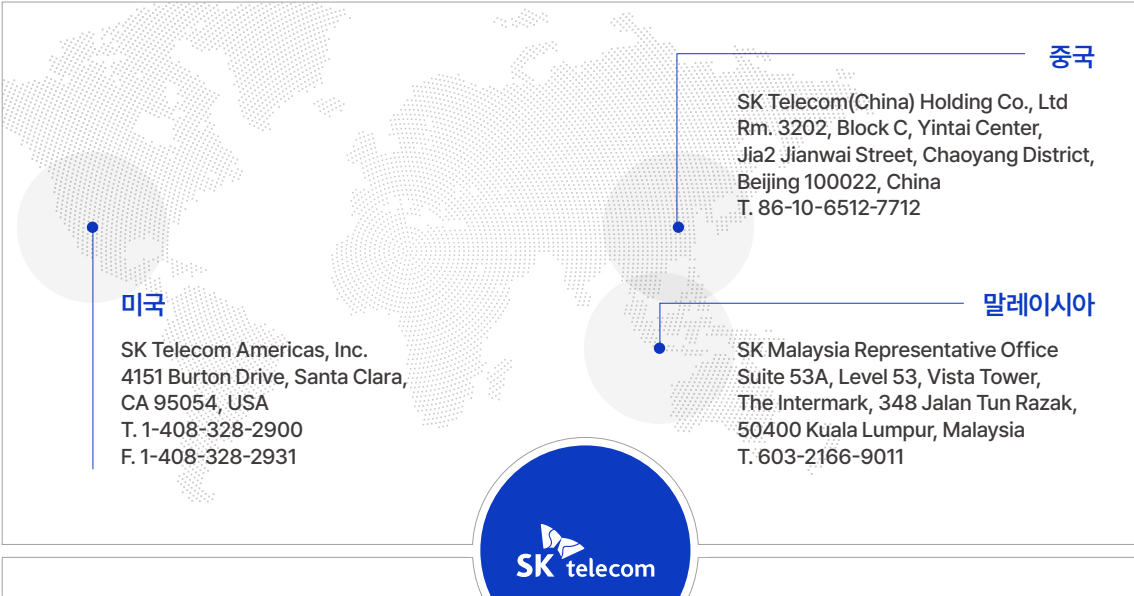
사업 개요(연결기준)

매출	17조 992억 원
영업이익	1조 732억 원
순이익	3,751억 원

신용등급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해외(S&P)	해외(Moody's)
AAA	A-	A3

*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글로벌 네트워크



SK텔레콤 연결대상 주요 종속회사

SK브로드밴드	피에스엔마케팅	SK오앤에스	SK텔링크
홈앤서비스	에스케이스토아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사업 소개

SK텔레콤은 고객의 일상을 혁신하는 '고객을 위한 AI'와 국가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AI'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AI

SK텔레콤은 인프라부터 서비스 접점까지 사업 전반에 AI를 전격 결합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일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AI 친화적으로 표준화한 AI 비즈니스 시스템과 품질을 최적화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를 구축하여 무결점의 통신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테크 역량을 바탕으로 요금제와 멤버십 등 상품 구조를 고객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재설계(Re-design)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AI 기반 고객 접점 혁신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시스템, 네트워크, 상품, 채널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반의 고도화를 통해 고객의 모든 순간에 차별화된 안심과 혁신적인 통신 라이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Business System

고객 서비스의 핵심 시스템을 AI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끊김 없이 연결되도록 하고, 데이터와 일하는 방식을 AI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Zero Trust 기반 보안과 모듈형 아키텍처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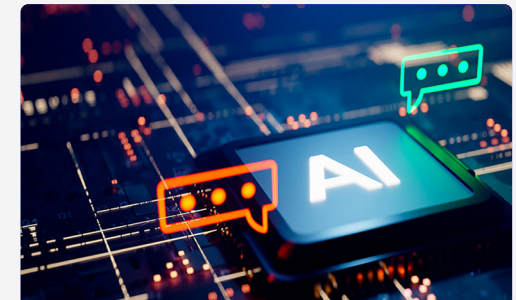
Autonomous Network

AI를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자율화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선 품질 관리, 트래픽 제어, 통신 장비 및 시설 운영까지 사람 중심의 운영 방식을 AI 기반 자율 구조로 전환해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고객 친화 상품 Re-design

요금제, 멤버십, 로밍을 비롯하여 고객 맞춤형 혜택 구조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품 구조를 탈피하여 보다 직관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편의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고객 접점 혁신

앱·웹·고객센터·매장을 AI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에 더욱 신속하고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통합 AI 에이전트와 고도화된 상담, 초밀착 오프라인 큐레이션을 서비스 전반에 도입하여 혁신적인 통신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대한민국을 위한 AI

SK텔레콤은 AI DC 기반의 AI 인프라 - A.X K1 모델 - A.(에이닷)으로 이어지는 국내 유일 AI 풀스택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소버린 AI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1GW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DC)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과 SK그룹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급 및 효율을 개선하는 AI DC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190억 개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B2C와 B2B 서비스 영역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전문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특화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인화 AI 에이전트(에이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일상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AI DC Inf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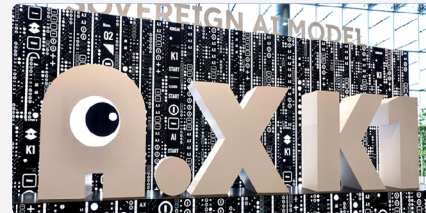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역에 1GW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DC)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자본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아시아 최대의 AI DC 허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AI DC Solution



AI DC 구축부터 냉각·서버·에너지·운영까지 밸류체인 전반의 솔루션을 확보해 높은 수준의 비용 효율을 갖춘 AI DC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합니다.

AI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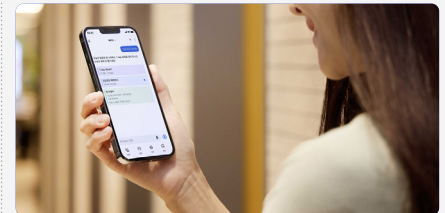
초거대 규모의 5,190억 개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통해 AI 모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빌리티, 통신, 라이프 등 일상 전반으로 B2C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조, 광고, 공공영역 등 산업 전반으로 B2B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조 AI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화학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모델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내 제조 전문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특화 AI 솔루션' 패키지를 개발하고 반도체, 에너지 등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AI Agent



에이닷전화를 통해 통화요약, 보이스피싱탐지, 통역콜 등 스마트한 통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성 기반의 개인화 AI 에이전트인 에이닷을 통해 노트, 일정, 브리핑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Management Overview

지속가능경영 비전

SK텔레콤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AI와 ESG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리더십을 유지하는 동시에 AI와 ESG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Global AI Company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사업 활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SK텔레콤은 AI로 통신과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원칙 아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AI를 제공하며, AI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감으로써 'DO THE GOOD AI' 비전을 실현합니다.

나아가 'Connect Better, Sustain Together'라는 방향 아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로 더 나은 연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파트너·고객·사회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SK텔레콤만의 AI·통신 서비스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DO THE GOOD AI

Connect Better, Sustain Together

Connect Better

"AI 기술 기반 더 나은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Sustain Together

책임 있는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고객

혁신적 고객 경험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정보 격차 해소

협력사·스타트업

공급망 동반 성장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협업

기후·환경

2050 Net Zero 목표
환경경영 이행

정보보안·안전 보건

신뢰받는 정보보호 및
안전보건 체계 확립

윤리·지배구조

투명한 거버넌스 및
Responsible AI 실천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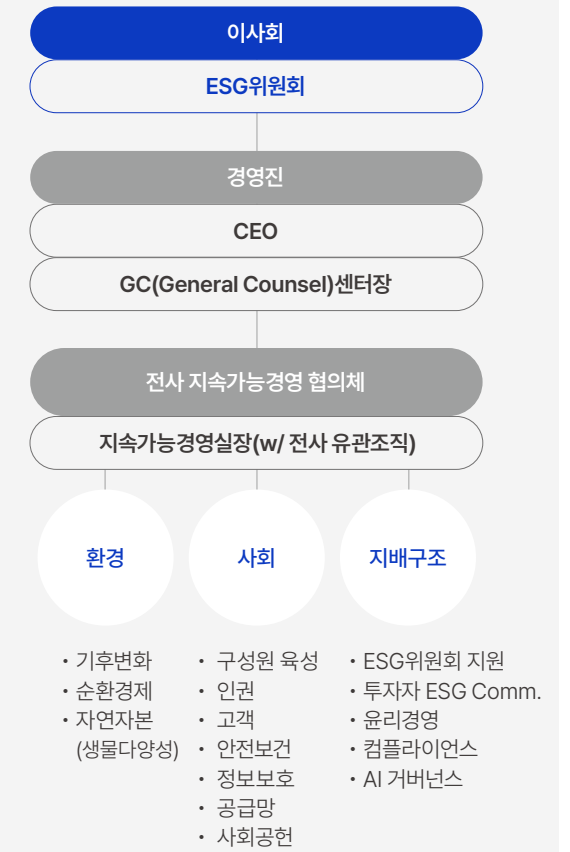
SK텔레콤만의 AI·통신 서비스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서 지속가능경영 현안을 의결하며, 지속가능경영실은 전사 ESG KPI를 기반으로 전사 조직이 주체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

SK텔레콤은 이사회 산하 5개 소위원회 중의 하나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과 성과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조직은 지속가능경영실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실은 전사 ESG KPI 설정 및 관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 간 ESG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영진 간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사 지속가능경영 컨트롤타워로서 조직별 ESG KPI 설계 및 관리,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창출,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 등 기존 활동뿐만 아니라 전사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속가능경영 개선을 위해 단위 조직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실은 주주총회, 애널리스트 세미나, 기자간담회, CEO 메시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TF 운영과 재생에너지 조달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RE100 이행을 강화하여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물론, ICT Family사(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ESG 경영을 리딩하고 ESG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Family사를 대상으로 한 ESG 세미나를 분기별로 기획하여 각 사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실행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경영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화 기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ICT Family사가 모두 참여하는 기후공시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결 기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실은 전사 지속가능경영 컨트롤타워로서 각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사적 역량을 모아 AI 기반 ESG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며 Global AI Company로의 실행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대외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성과

SK텔레콤은 AI 및 통신 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E) 측면에서는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기후 정보 공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환경제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S) 영역에서는 AI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뢰 회복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안이 강한 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 프로세스, 조직 역량은 물론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한층 강화된 고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고도화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사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AI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AI 자가진단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선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외 ESG 평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DJ BIC World 지수 편입 및 국내외 주요 ESG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등급을 유지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 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ESG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통신사 중 7개만 속한 DJ BIC World 지수에 17년째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MSCI ESG 평가에서 A등급, KCGS 종합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고 WBA DIB 평가에서 200개 글로벌 선진 ICT기업 중 아시아 1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계획

환경 Environmental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 2025년 탄소배출량 목표(105.2만 톤 이하) 달성
- 2025년 RE11 달성, 2030년 RE65 목표
- 자연자본 보전, 순환경제 체계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사회 Social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보안이 강한 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프로세스/조직/역량 및 시스템 전반적 개선 추진

지배구조 Governance



선진적인 Governance 강화

-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고도화
- ESG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사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AI 거버넌스 원칙 기반의 자가진단 프레임워크 구축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S&P Dow Jones
Indices
A Division of S&P Global

DJ BIC World Index
17년째 편입

MSCI

MSCI ESG평가
A등급

한국ESG기준원

KCGS 종합평가
A등급

World
Benchmarking
Alliance

Digital Inclusion Benchmark,
WBA 200개 글로벌
선진 ICT기업 중 아시아 1위

Special Report. 고객으로부터, 고객 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약속

"가장 낮은 시선으로 '기본'을 되돌아보며,
고객 신뢰의 본질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시간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근간이자 내일의 성장을 이끌 유일한 동력은 바로 '고객'임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기술적 시스템의 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맡긴 일상의 무게를 온전히 체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에 SK텔레콤 전 구성원은 2025년을 '고객 중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프로세스가 당연히 정답이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기업의 자기만족이 아닌, 고객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안심에서 시작됩니다. SK텔레콤은 이제 외형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가장 낮은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차원의 보완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를 고객 신뢰라는 본질 위에 새롭게 설계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시작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일상을 지키는 것이 우리 업의 시작이자 끝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고객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SK텔레콤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객의 안심을 위해, 고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 한 분 한 분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떤 설명보다, 어떤 약속보다 먼저 고객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고객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안심의 의미였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때까지

고객의 불안을 가장 먼저 해소합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불안 해소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비정상 인증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운영했으며, 유심 정보가 탈취·복제되더라도 타 기기에서의 통신 접속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고객의 단말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인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가입 고객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했으며, 유심 복제 등 사이버 침해 피해 발생 시 외부 기관과 연계해 전액 보상을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기업 보험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100배 확대하여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유심 인증키 및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정책 개선 등 핵심 보완 조치를 이행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객께 감사를 전합니다

SK텔레콤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책임의 표현으로, 약 2,400만 명의 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패키지'를 운영했습니다. 8월 한 달간 통신요금 50%를 자동으로 할인해 드렸으며, 12월까지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T멤버십 제휴 할인율도 주요 브랜드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월별 테마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이어갔습니다. 사고 이후 해지를 선택하신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고객 감사 패키지는 단순한 보상의 의미를 넘어,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 한 분 한 분께 SK텔레콤이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이 계신 곳으로

고객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SK텔레콤은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령층과 도서벽지 거주 고객을 위해 5월부터 전국을 직접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등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며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을 직접 찾아 유심 교체와 보안 안내를 지원했습니다.

SK텔레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매장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직접 안심을 전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법과 모바일 안심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그것이 SK텔레콤이 실천하는 고객 안심입니다.

어디서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고객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매장에서도 보안 안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T 안심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 안심매장 마크가 부착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은 누구나 SK텔레콤 보안 서비스 상담과 가입, 휴대폰 보안 설정 지원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싱·스미싱·해킹 등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사실 확인과 추가 피해 차단, 관련 기관 신고 안내 등 즉각적인 조치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T월드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T 안심브리핑'을 통해 고객의 통신 보안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S 운영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 음성스팸 차단 현황 등 고객의 보안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 더 가까이에서 쌓겠습니다."

고객의 안심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우리의 첫 번째 답이었다면,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은 SK텔레콤이 앞으로 오래도록 이어가야 할 약속입니다. 신뢰는 한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의 정보보안 체계를 바꾸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영에 직접 연결하고, 그 변화를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SK텔레콤은 그 과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보안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신뢰 회복은 즉각적인 조치를 넘어 구조적 변화에서 완성됩니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업계 최대 수준인 7,000억 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2배로 확대하고, 보안 기술과 시스템 강화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기금 100억 원을 출연해 국내 인재 육성과 보안 스타트업 지원 등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보안 의사결정의 무게와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부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Red팀을 신설했습니다. Zero Trust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도입해 모든 접근에 대한 철저한 인증과 권한 관리, 망 세분화, AI 기반 통합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 전반의 최우선 원칙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SK텔레콤은 보안 거버넌스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실시간 감시·차단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설치 등 약속한 보안 강화 조치를 완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보보호백서](#)

고객 중심의 변화를 조직 전체로 확산합니다

SK텔레콤은 CEO 직속 '고객가치혁신실'을 중심으로 고객 신뢰 회복 활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혁신실은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 불편을 발굴·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2025년 말 고객가치혁신실 산하에 고객경험(CX)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객 니즈를 수집·분석하고 서비스 개선과 중장기 고객가치 향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가치혁신실은 전사 Working Group으로서 고객신뢰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아 고객·시장 인식 성과 지표를 경영진에 제공하며, 고객 중심 변화가 SK텔레콤 전체의 방향이 되도록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듣고, 반영하고, 변화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경영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5월, SK텔레콤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법률, 심리학, 소비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뢰 회복 활동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격주 정기 회의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한 자문이 이루어지며 2년간 운영됩니다. 출범 이후 2026년 초까지 12차례의 정기 회의를 통해 중장기 신뢰 회복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뢰 회복 활동이 내부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외부의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합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회사의 변화 방향이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온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이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경영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에 '고객자문단'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자문단의 역할을 고객과 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고객 소통 플랫폼'으로 더욱 확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구성된 100명의 자문단은 월 1회 정기 미팅을 통해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제안하며, 상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현장 기반 피드백 체계'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객이 있는 현장에서, 변화의 답을 찾습니다

2026년 3월, SK텔레콤은 창립 42주년 기념일을 '자축하는 날' 대신 '다시 듣는 날'로 전환했습니다. CEO를 비롯한 전체 임원과 고객신뢰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센터, 대리점, 공항 로밍센터,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전국 고객 접점을 직접 방문하며 고객의 바람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노인대학을 찾아 어르신 고객과 함께 디지털 안심 교육을 진행하고 고객의 불편과 바람을 직접 경청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경영진이 상담사와 나란히 앉아 실제 고객 콜을 함께 청취하며 고객의 감정과 맥락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이 날의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각 접점에서 수집된 고객의 목소리와 인사이트는 조직 전반에 공유되어 서비스 개선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고객 경험과 구성원의 의견은 기존 제도와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고객의 목소리를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SK텔레콤이 추진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핵심 방향입니다. SK텔레콤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고객 앞에 다시 서는 날'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더 가까이에서 쌓겠습니다."

SK텔레콤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편익만큼이나, 이를 수용하는 고객의 신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부서의 대응 차원을 넘어, 전략 수립, 실효성 검증, 상시 모니터링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내부 시각의 객관화'에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을 넘어 고객의 눈높이에서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외부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을 수용하고, 고객 자문단의 검증을 거치고, 현장 실무 그룹의 실행력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고객신뢰위원회가 객관적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자문단은 현장 기반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전사 35개의 유관 조직이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고객 신뢰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신뢰회복 활동을 전파하는 앰배서더 '고객신뢰위원회'

고객신뢰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내부의 시선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짚어내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객관적인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독립 기구로서 SK텔레콤의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이 고객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되도록 관련 활동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고객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 인사이트 등 4개 전문 분과를 신설하여 각 영역에서 더욱 실질적인 가치 혁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제언과 활동 결과는 일시적인 수습을 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혁신하겠다는 SK텔레콤의 의지 표현입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 향상 방안을 실행하며, 그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뢰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고객신뢰위원회 Message



“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은 언제나 '고객의 시선'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

안완기 위원장

“ 기업과 고객의 관계가 진정한 신뢰로 깊어지는 길은, 결국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신종원 위원



“ 고객 신뢰 회복의 중심은 충실한 약속 이행입니다.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약속했던 정보 보호투자, 고객지원 등의 약속이 숫자로, 객관적 데이터로 확실히 이행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손정혜 위원

“ "어제의 해결책이 오늘의 문제점이 된다." 트렌드 격변의 시대에 어제의 성공체험에 매몰되지 않으며, 오늘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노력, 내일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

김난도 위원



“ "설레던 첫 개통부터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전 생애 변화를 함께하는 SK텔레콤 고객들에게, 다양한 고객의 조건과 니즈를 고려하는 회사의 노력은 단지 미덕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실행의 열매를 맺을 때 고객 한 명 한 명의 경험은 깊어지고 신뢰는 오래 머물 것입니다. ”

김채연 위원

"고객과의 신뢰, 더 가까이에서 쌓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신뢰 경영 성과를 최종 검증하는 현장의 목소리 '고객자문단'

SK텔레콤은 고객이 일상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서비스 이용자로 구성된 고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자문단은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들로 구성되어, 실사용자의 관점에서 가감 없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접점의 여론을 수집하여 SK텔레콤에 전달하는 '신뢰 안테나'로서 서비스 개선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고객자문단은 시장 반응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인 고객신뢰위원회의 자문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현장 기반 피드백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고객자문단 Message

"수많은 고객 중 한 사람이지만, 제 의견이 실제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단 활동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진정성 있게 사후 처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제 의견이 실제 변화로 이어진다고 느낄 때 SK텔레콤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고객 신뢰란 한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꾸준한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나가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기업, 오랜 시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SK텔레콤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듣고, 반영하고, 변화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서비스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의 변화는 이미 서비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T멤버십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일마다 하나의 혜택만 선택해야 했던 '0 day' 방식을 '0 week'로 확대해 매월 첫째 주 5일 동안 자유롭게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VIP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에이닷 노트는 고객이 일상의 기록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 생성, 폴더 관리, 앱 내 직접 편집, 선택 공유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불편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영에 연결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체계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0년 이상 장기 고객을 직접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담 절차 간소화 및 전담 상담원 배치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고객군별 맞춤 전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반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선까지 경영의 모든 단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해, 반영하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 SK텔레콤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고객과 함께, 오래가는 SK텔레콤

“

SK텔레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모습, 진정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고객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합니다. 고객의 신뢰가 SK텔레콤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업(業)의 본질인 고객이라는 기본과 원칙 위에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영의 기준으로 삼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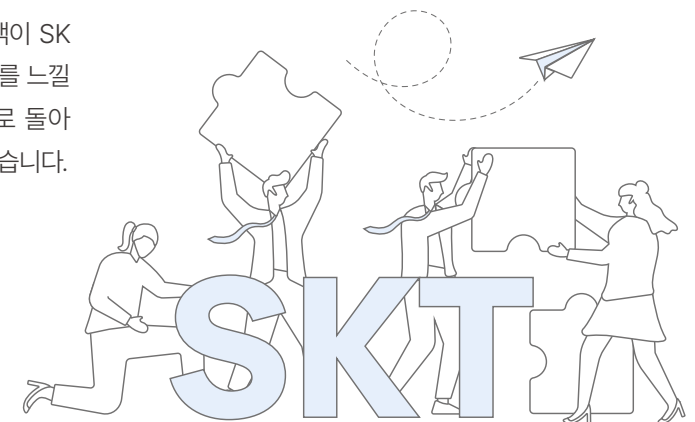
정재현 CEO

SK텔레콤이 나아갈 미래

2025년, SK텔레콤은 고객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고객의 안심을 위해 직접 찾아가 고객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SK텔레콤의 보안 체계를 다시 세우고, 고객 신뢰위원회와 고객자문단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SK텔레콤의 경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지난 42년간의 기록을 축하하는 대신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향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매일이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고객의 한 마디, 현장에서 들은 작은 불편 하나도 SK텔레콤은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서비스로 이어지고, 서비스가 다시 신뢰로 돌아오는 선순환.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SK텔레콤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입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바를 기준으로 경영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품질·보안·안전이라는 기본과 원칙 위에서 고객의 기대에 응답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입니다. 고객이 SK텔레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서 안심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것. 고객으로부터 시작해, 고객 곁으로 돌아오는 것. 그 방향을 향해, SK텔레콤은 나아갈 것입니다.



Material Topics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
기술 혁신(AI)	32
기후변화 대응	3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위임 사항

SK텔레콤은 이사회와 ESG위원회의 총괄 아래 CEO를 비롯한 주요 최고 경영진이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 최상위 기구로서 전사 RM(Risk Management)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RM회의는 CEO를 위원장, CISO와 C-Level 및 실무임원으로 구성하여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의 검토 및 심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 사업의 검토 및 추진 지원, 연간 정보보호 추진 계획 및 성과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보안 거버넌스 운영규정, 위임권한, 직무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은 정보보호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과 하위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역량 및 향후 개발 계획

보유 역량

SK텔레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이사회 전문성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재무, 법무/컴플라이언스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안 전략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 계획

SK텔레콤은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과 정보보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매년 모든 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결정기구가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통찰력을 유지함으로써 SK텔레콤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 방법 및 빈도

보고 방법

SK텔레콤 이사회는 정보보안 현황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CISO로부터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현황과 민감 정보 보호 현황에 대해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사적 영향이 있는 중대한 정보보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직접 CISO와 소통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CISO는 이사회의 조언과 지침에 따라 수행한 업무 결과를 다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고려 방식

이사회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이슈가 SK텔레콤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중요 요소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전략 및 목표 점검 시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내 이사회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현황 및 조치, 조치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절충 고려

SK텔레콤은 보안 인프라 강화 등에 따른 단기적 비용 지출보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예방을 통한 장기적인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객관적 진단과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통해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보안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방식

SK텔레콤은 정보보안 관련 조직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별 이행 목표를 수립하여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의 달성 현황과 진척 상황을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여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경영진에 대한 역할 위임 및 감독 방법

SK텔레콤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절차는 정보기술 분야 1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2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보유한 CISO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당사는 CISO가 이끄는 통합보안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공격, 서비스의 중단, 고객 및 민감정보의 탈취 및 변조 등의 공격을 식별 및 예방하고, 고객을 스팸·스미싱·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ISO 직속의 Red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d팀은 공격자의 관점에서 SK텔레콤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며, 공격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PO(Chief Privacy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CFO(Chief Financial Officer) 등 주요 최고 경영진이 전사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전담 조직

정보보안 전반의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기능은 통합보안센터 산하 4개 실,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전담하고 있으며, 기업 내 정보보안 정책 수립, 보안 운영 및 관제, 보안 위협 대응, 보안 아키텍처 관리, 보안 기술 개발·적용 등 전사적 보안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은 CPO(Chief Privacy Officer) 조직이 전담하고 있으며, CPO 산하에는 2개 팀이 배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개인정보 처리 체계 운영, 내부 점검 및 사고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여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통제 및 절차

CISO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전사의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CISO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바탕으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CEO에게 관련 현안을 직접 보고함으로써 경영진 차원의 신속한 통제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관리 절차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내에서 다른 내부 기능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CISO는 법률, 인사, 시설 및 기업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전가 방안으로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매년 보험 내용 및 보장 수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전 영역에 걸친 보안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사 차원의 위험 관리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거버넌스



전략

정보보안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보안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SK텔레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였습니다. 식별된 각 요인이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함과 동시에, 영향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범위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식별한 주요 위험 요인은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노후 장비와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구조적 취약점과 외부 공격에 의한 데이터 및 서비스 안정성 위협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침해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침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리스크, 그리고 AI 및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의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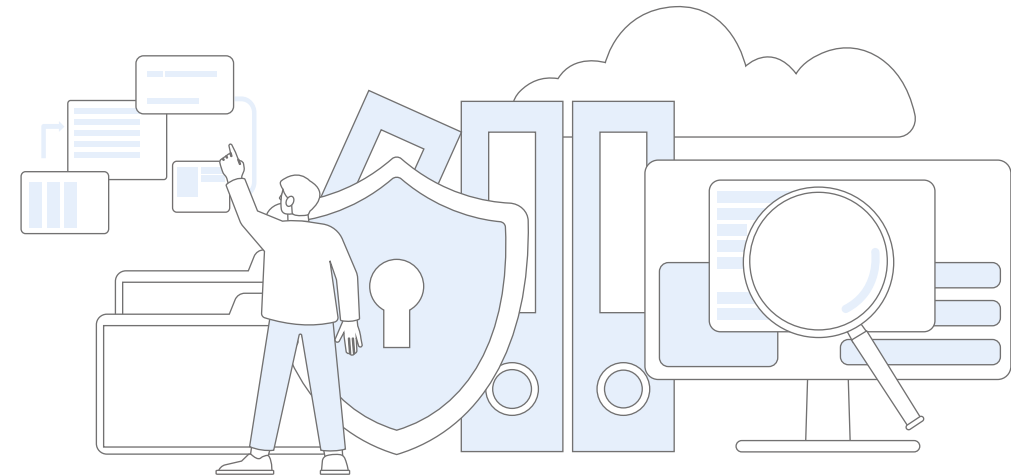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정보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회 요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도화된 보안 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신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개선을 주요 기회 요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위험	위험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	
	위험2 사이버 침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	●	
	위험3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	●	●	
기회	기회1 시장 경쟁력 향상		●	●
	기회2 고객 만족도 개선		●	●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 기간범위

SK텔레콤은 정보보안 위험 및 기회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은 동일하게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전략 의사결정 계획기간과 정보보안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범위와의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현재 및 예상 영향

SK텔레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SK텔레콤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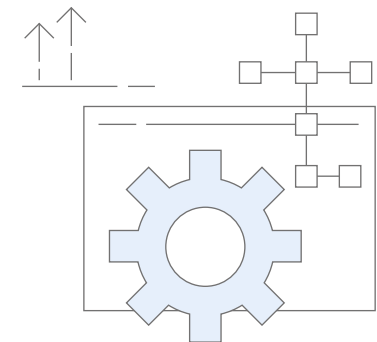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내부 자원 및 인력 투입 확대	재무적 손실 및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사이버 침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백업 체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발생	서비스 복구 과정에서의 리소스 투입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	보안 인프라 고도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 지출 증가	강화된 보안 기능을 위한 지속적 개선 운영비용 증가
기회	시장 경쟁력 향상	선제적 보안 기술 투자 및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을 위한 전략적 비용 투입	고도화된 보안 체계를 핵심 경쟁 우위로 활용하여 보안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군 대상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구조 개선
	고객 만족도 개선	고객 만족 개선을 위한 개발 리소스 투입	신뢰도 향상에 따른 고객 해지율 감소로 마케팅 및 신규 고객 유치 비용 절감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관련 조직의 일시적 과부하	공급업체 대상 보안 관행 검토 프로세스 강화
	사이버 침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공급업체 대상 엄격한 스크리닝 및 품질 관리 요구 강화	서비스 마비로 인한 사업 중단 피해 보상 가능성 증대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	신기술 전환에 따른 보안 비용 발생	아키텍처 복잡도 증가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 발생
기회	시장 경쟁력 향상	가치사슬 생태계 전반의 보안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협력 체계 강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안정적 서비스 공급망 기반의 시장 입지 강화
	고객 만족도 개선	가치사슬 내 보안 교육 강화 및 사고 예방 활동 비용 발생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 수익 창출

집중된 영향

통신 산업은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국가 기간망을 운영하는 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법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정교화와 대고객 접점에서의 보안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인 관리 영역으로 식별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사슬 전반의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사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요인들이 단기적 재무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임을 인식하여 전사적인 대응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이 언제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제반 서비스 제공과 품질 개선 등 고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1

개인정보 수집

SK텔레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 (Opt-in 방식)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고지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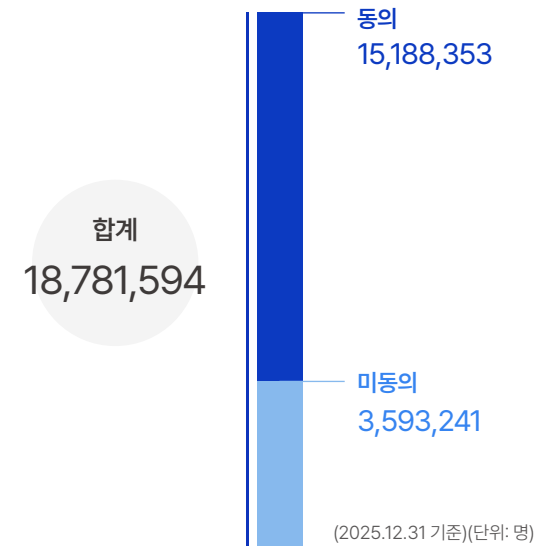
고객 정보의 제3자 기관 제공은 고객이 동의하거나 별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의 요구' 또는 '거래/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험1

정보보호 활동

 정보보호 정책과 전략에 의한 정보보호 투자, 위험관리, 보안 성과관리, 관련 법규 및 규제 준수를 통한 전사적인 보안 거버넌스 강화	 개인정보와 핵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식별, 암호화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을 통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축
 IT 인프라 및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클라우드, 계정 및 접근통제(IAM), Zero Trust 대응 체계 등 보안 아키텍처 고도화	 ISMS-ISMS-P,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점검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의한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크로스 체크 활동을 통한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강화
 리더 및 구성원 인식제고, 개발·운영자 대상 보안 교육 확대, 투자사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 과정 운영 등 주요 직무자 및 전체 구성원 대상 정보보호 변화 관리 및 교육 지속 강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해킹 공격의 탐지·분석·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위협 탐지 및 대응 역량 확보
 정기적인 시나리오 기반의 침해사고 대응 모의 훈련, 백업 및 복구 훈련, 재해복구 훈련 등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 역량 및 복원력 확보	 AI 기반 보안운영, 자체 개발 AI 보안기술 사외 확산, AI를 통한 사기방지기술 고도화 등 신기술 환경의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보·광고 수신 동의¹⁾ 현황



1) 현재 사용 중·정지 서비스 대상 이동 전화 서비스 기준

개인정보보호 이슈 고지 내용

- 
- 고객이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보존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
 - Opt-out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
 - Opt-in 동의 필요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청
 -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청
 - 데이터 수정 요청
 - 삭제 요청
 - 캡처된 정보의 속성
 - 수집된 정보의 사용
 - 정보가 회사 파일에 보관되는 기간
 - 정보보호 방법
 - 제3자 공시정책(민간·공공기업)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보안인식 제고 활동

위험1

SK텔레콤은 매년 임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과 계약직, 협력사 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적용하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정보보호 실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담당자, 위치정보취급자, 가명/익명정보취급자, 개발자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직무 또는 정보보호 관련 직무 담당자는 차별화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또는 긴급한 보안 위협을 공유하고 강조하기 위해 정보보호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법정 필수 정보보호 교육 현황

교육명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기간	4.6~4.29 (보수교육 11.12~12.5, 12.8~12.31)
방식	SK그룹 교육 플랫폼(mySUNI) 온라인 교육
결과	5,265명 중 5,028명 이수(이수율: 95.5%)

보안 교육 이수율

95.5%



2025년 직무별 특화 정보보호 교육 현황

직무	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이수자/대상자)
정보보호담당자	오프라인 정보보호 특화교육	100% (103/103)
위치정보취급자	온라인 위치정보 보호교육	100% (29/29)
가명/익명정보 취급자	온라인 가명 정보교육	100% (15/15)
SOC ¹⁾ 개발자/운영자 ²⁾	온라인 보안 교육 ³⁾	100% (2,339/2,339)
웹/모바일 APP개발자 ²⁾	온라인 보안 교육 ⁴⁾	75% (1,586/2,120)

1) 고객정보보호센터

2) 협력사 포함

3) 개인정보보호법, SK텔레콤 보안정책, 근무체계/절차등

4) 최신 공격기법 및 Secure Coding 가이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보장

위험1

SK텔레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나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T월드 홈페이지 내 'myT' 페이지나 114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또는 회원 탈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험1

SK텔레콤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고객 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고객 정보에 대한 열람, 제공, 정정에 대한 권리 행사를 요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요청 대응

위험1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과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에 의거해 정부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법정 제공 기준과 방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마다 반기별로 통계 자료를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와 보고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제한에 따라 진행되거나 이용자의 잠재적 권리침해 요소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내부 실사를 진행해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보안 업무절차 자동화

위험2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속도를 극대화하고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시뮬레이션 및 대응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 이벤트 발생 시 확정된 침해 지표(IOC)를 기반으로 보안 긴급 점검부터 상황 파악,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된 트리거와 표준화된 규칙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절차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 인지 단계부터 조치 완료까지의 인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술적인 긴급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 고도화를 통한 침해 예방

위험2

SK텔레콤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 공격 탐지·분석·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보안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주요 보안 이벤트 발생 시 사전에 정의된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SOAR(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기반으로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위협 탐지 결과를 표준화된 플레이북에 따라 자동으로 분석·전파·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Red팀 활동을 통한 침해 예방

위험2

시스템 보안 진단과 해커 관점의 전술, 기법, 절차(TTP)를 정기적으로 시뮬레이트하는 침투테스트를 실시하여 잠재적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개선함으로써 전자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Zero Trust 기반 정보보안 고도화 추진

위험2

SK텔레콤은 Zero Trust 보안 원칙에 기반한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통합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해 인증·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EDR을 활용해 단말 위협 탐지 및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Micro Segmentation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를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접근과 침해 확산을 방지하는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위험2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인지부터 조사, 대응, 복구,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으며,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DDoS 등 주요 사고 유형별로 상세 액티비티를 정의했습니다. 특히 매뉴얼(Runbook)만으로도 담당자가 역할과 책임을 즉시 파악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일례로 코어망 장비의 랜섬웨어 감염 및 정보 유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서비스 복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업 고도화를 통한 회복탄력성 강화

위험2

SK텔레콤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핵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전반에 이상징후 탐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B에 대한 원격지(Off-site) 백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백업저장장치를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상황에서의 복구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활용한 복구 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AI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 추진

위험3

SK텔레콤은 AI Company로의 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 배포하여 AI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와 함께 AI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학습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비식별 기준 수립 및 프로세스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 이행을 위해 AI서비스의 보안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체계 강화

위험3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 거버넌스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NAPP(Cloud Native Application Protection Platform) 통합 솔루션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자산, 설정, 권한, 워크로드, 취약점 등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설정 오류, 과도한 권한, 취약한 워크로드 등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개발/운영 단계에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현재 재무적 영향

SK텔레콤은 식별된 위험 및 기회 요인으로 인한 재무영향 발생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시장의 인식이 중대한 수준으로 훼손될 경우, 당사는 법적 청구, 과징금 및 벌금, 고객에 대한 금전적 보상, SK텔레콤 평판의 타격, 고객신용 하락 등을 포함한 심각한 법적 책임과 재무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SK텔레콤의 재무 상태, 영업실적 및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내에는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13,479,100만 원) 및 과태료(960만 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 외에는, 과거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인한 SK텔레콤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 재무적 영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분석한 재무영향 발생경로를 통해 단기적 영향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투자 계획

SK텔레콤은 2025년부터 5년간 7천억 원(정보보호공시 기준)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전략

정보보안 회복력

정보보안 회복력 평가

SK텔레콤은 예기치 못한 보안 사고 발생 시 비즈니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회복력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방어 체계 점검을 넘어, 실제 침해 사고 발생 시 SK텔레콤의 복구 역량이 사업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및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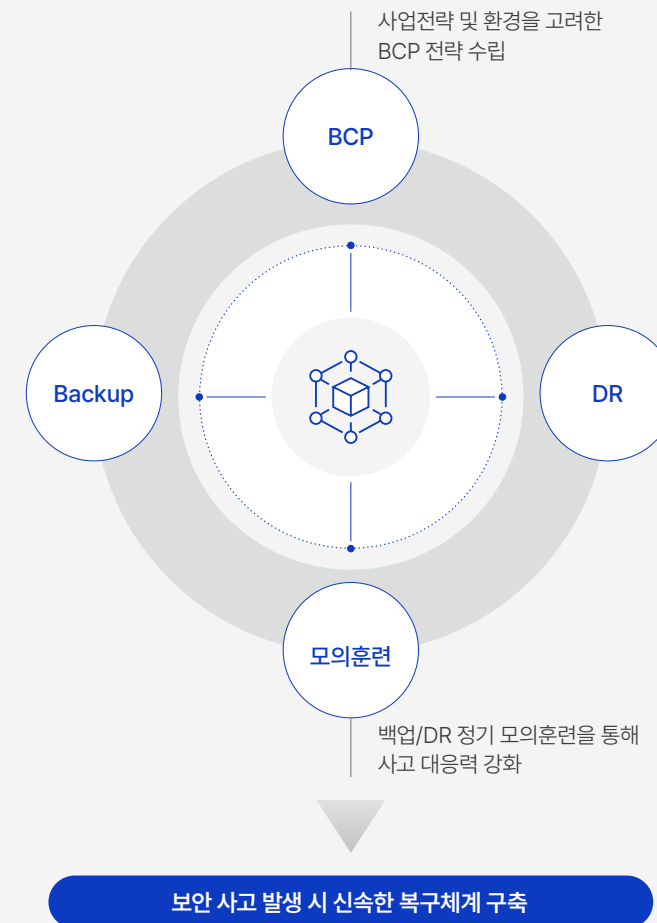
회복력 평가는 자가 진단(Self-assessment)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백업 및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복구 전략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보안 자원 투입과 절차 개선에 반영하여 전사적인 위기 대응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SK텔레콤은 런북과 시나리오 기반의 복구 훈련을 분기 단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하고,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가 정상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목표 시간 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재훈련을 반복하며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사고 시 서비스 복구 과정을 자동화하고 이를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과 연계함으로써 복구 역량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침해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백업 및 DR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담당자가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Resilience



위험 관리

정보보안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정보보안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정책과 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영역 별 보안 기준을 수립·운영하며, 위험 탐지 및 대응, 협력사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보보안 인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안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보안 통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영역

SK텔레콤은 보안 거버넌스 체계 하에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모든 영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수준 이상의 보안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위험 탐지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위험 인텔리전스 기반의 탐지 및 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정보보안 관련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위험 인텔리전스를 통해 악성 URL, 코드 샘플, CVE 위험도 예측 정보 등 최신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탐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상행동이나 침입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고도화되는 악성 행위 탐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개인정보보호 강화

SK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의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정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통망 정기 진단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깃 진단, 고객정보 취급 업무 체계 점검과 개선, 고객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망을 비롯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샘플링 진단과 심화 진단을 실시해 사각지대 리스크를 발굴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통망 대리점 매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개인정보처리 PC에 대한 원격 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SK실더스 등 제3자 외부 기관을 통해 유통망 고객정보 진단(Audit)을 100% 이행했으며, 2025년에는 샘플링 진단을 통해 도출된 리스크 190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인증

SK텔레콤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ISO 27002:2022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당사는 ISO 27001과 ISO 27002를 결합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은 각 영역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ISMS인증취득, 매년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기업정보보호인증제도) ISMS-P인증취득, 매년갱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주관 기업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 ISMS인증취득, 매년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기업정보보호인증제도)

정보보안 관리 영역

	인프라 보안	- 이동전화 운용 등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 수검 - ISMS(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기업 정보보호 인증제도) 인증 매년 수행 - 주요 서버·네트워크 장비 대상 기술적·관리적 취약점 점검 수행 - CNAPP 고도화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가시성 확보
	데이터보안	- ISMS 및 ISMS-P(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인증 취득 -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를 통해 유출 위험 최소화 - 서버·DB 접속은 사전 인가자만 접근 제어 솔루션을 통해 접근 통제 및 로깅 - 최신 백신·보안 패치, 망분리 적용
	서비스보안	- 신규·변경 서비스는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모의훈련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유지 - Red팀을 통한 상시 서비스 보안 점검 -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전사 보안 가드레일 체계 구축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수준 샘플링 진단

구분	진단 건수	개선 사항 도출 및 완회 조치 건수	비고
유통망 고객정보 실태 진단 ¹⁾	2,527	190	유통망 리스크 발굴 및 개선조치

1) 전체 오프라인 유통망 리스트업 후 본부별 매장을 샘플링해 진단하는 정기진단

지표 및 목표

지표

정보보안 관리지표

고객 정보 유출 및 디도스 침해 건수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고객 정보 유출	건	0	0	1 ¹⁾
시스템 해킹		0	0	1 ¹⁾
DDoS 침해		0	0	0

1) 2025년 4월 19일 발생한 가입자 유심 관련 시스템 해킹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서 세부 내용은 사업보고서 참고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수준 심화 진단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유통망 대비 점검 비율	%	100	100	100
보안 개선 사항 발견 건수	건	169	167	190
발견된 보안 개선 사항에 대한 완화 조치 비율	%	100	100	100
완화 조치 – 단기 조치 완료 수	건	169	167	190
완화 조치 – 장기 조치 완료 수		0	0	0

정부기관 자료 요청 대응 현황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보요청	통신이용자정보 ¹⁾ 요청 건수	건	315,585	242,095	242,586
	통신사실확인자료 ²⁾ 요청 건수		48,356	46,671	45,513
정보제공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315,585	242,095	242,586
	비율	%	100	100	10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건	48,356	46,671	45,513
	비율	%	100	100	100

1)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전기통신 사업법상 법원, 검사,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2) 통신사실확인자료: 상대방 가입자 번호, 로그 기록(날짜, 시간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됨. 수사기관은 요청 공문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포함)과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요청함

지표 및 목표

목표

정보보안 중장기 목표

SK텔레콤은 정보보안 수준 향상 및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척도 및 성과

2025년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ISMS-P) 인증 범위를 이동전화 고객관리, AI 서비스 및 주요 플랫폼 영역까지 확대하여 인증을 취득 하였으며, 상품·서비스·수탁사 대상 연간 정보보호 실태 점검과 유통망 현장 점검을 완료하여 전사 보안관리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내부 모의해킹 수행 및 서버 대상 백신·EDR 기반 악성코드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연도별 세부 목표

	2026	2027	2028
	정보보안 기반 강화	Zero Trust 체계 고도화	국내 Top 수준 보안 역량
거버넌스	- ISO/IEC 27002 기반 정책 개편 - Red팀 신설 및 침투테스트를 통한 보안 수준 강화 - 정기 모의훈련 분기 단위 확대 운영	- AI 보안 거버넌스 체계 확립 - ISMS-P 통합 인증·정기 감사 - 보안 전문기업과의 협력 체계 강화 및 공동 대응	-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 고도화 - AI 기반 보안운영 핵심성과지표 관리
아키텍처	- 정보보호 아키텍처 재설계 및 구현 - 전사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공급망 보안 강화 - 서비스망 보안 강화 (EDR, 망연계 등)	-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위협 탐지 대응 자동화 - Micro-Segmentation 확대 적용 -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CNAPP) 통합 플랫폼 운영	- AI 에이전트 기반 SOC 운영체계 구축 - 전사 IAM 체계 구축 완료 및 사외 확산
보안기술	- AX 보안 내재화를 위한 보안 기술 개발 - 사이버보안 AI 기술 개발 - 핵심 인프라/매체별 보안 강화	- 분산된 Trust Infra를 구조적으로 통합 관리 - Passwordless 기술 확산 - 차세대 인증시스템 구축	- 자체 개발 AI 보안기술 사외 확산 - AI를 통한 사기방지기술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목표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및 AI Privacy Bot 구축 - AX기반 개인정보흐름 관리 Agent 개발 - 구매 프로세스 개선 및 공급망 Privacy 관리 - 상품/서비스/수탁사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연 1회) - 유통망(대리점)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 (연 1회 3,200여 개 전체 채널 100% 완료)	- PbD Best Practice 공유 체계 구축 - 현장 품질검사 단계 Privacy 점검 프로세스 정착 - 그룹 멤버사 Privacy 협력 체계 고도화 - 상품/서비스/수탁사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연 1회) - 유통망(대리점)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 (연 1회 3,200여 개 전체 채널 100% 완료)	- AI기반 예측형 Privacy 자율운영체계 완성 - Privacy의 대외 신뢰 자산화 체계 확립 - 규제환경 대응 및 글로벌 정합성 확보 - 상품/서비스/수탁사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연 1회) - 유통망(대리점)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 (연 1회 3,200여 개 전체 채널 100% 완료)

기술 혁신(AI)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위임 사항

SK텔레콤은 이사회의 총괄 아래 AI CIC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이사회가 전략적 방향성과 제반 리스크를 점검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술혁신 추진 전략 및 방향성을 심의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략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점검을 비롯하여 실행 전반을 감독합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SK텔레콤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AI CIC, 통합보안센터 등 주요 조직의 기술혁신 추진 및 리스크 대응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기술 역량이 중장기 경영 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역량 및 향후 개발 계획

보유 역량

SK텔레콤 이사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AI, ICT 및 DATA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선임하여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역량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는 역량 지표 내 'AI' 항목을 핵심 요소로 명시하여

진단 및 관리하며, 특히 독립이사를 대상으로는 AI 기술의 비즈니스 적용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실질적인 경험/역량 보유 여부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관리를 통해 기술혁신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량 개발 계획

SK텔레콤은 기술혁신 추진 및 정보보안, AI 윤리를 포함한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이사회 보고를 진행하고, AI/ICT 산업 트렌드 및 주요 이슈에 대한 Market Intelligence를 수시로 작성하여 이사진에게 서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기술혁신 관련 동향과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사항을 회사에 요청하여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감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수시 보고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전문가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 수준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 방법 및 빈도

기술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략적 정렬을 위해 AI 전략팀은 기술혁신 전략 추진 방향과 더불어 조직 개편 현황, 중/장기 핵심 과제 및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해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기술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경쟁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고려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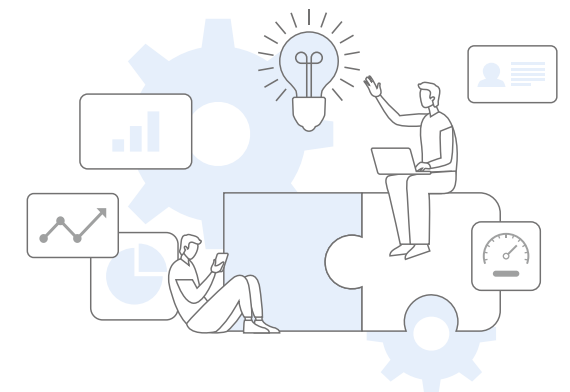
의사결정기구는 AI를 통한 기술혁신을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회로 삼는 동시에,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술혁신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며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전략과 목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절충 고려

SK텔레콤은 AI를 통한 기술혁신을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회로 삼는 동시에,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가치 창출 과정에서 AI 윤리와 보안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방식

SK텔레콤은 다양한 AI 분야의 기술 혁신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위해 AI B2B/B2C 및 AI DC 매출, AI 서비스 누적 가입자와 같은 정량 지표 및 AI 사업별 정성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경영진에 대한 역할 위임 및 감독 방법

SK텔레콤 경영진은 기술혁신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 고객 신뢰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담당 조직으로부터 수립된 전략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하여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EO는 AI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사업 특성에 맞춘 최적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을 위한 리더십 변화와 조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임원 규모를 강소화하고 전략 방향에 따른 수시 인사를 단행하며 전사적인 기술혁신 실행력을 감독합니다. 또한 신설된 GC(General Counsel)센터와 기존 CFO 역할에 전략 기능이 통합된 Corporate센터를 통해 주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공동 AI CIC장 체제를 통해 AI 서비스와 기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이닷 중심의 B2C AI부터 AI DC, AI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 및 결재 라인을 합리화하고 최소화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AI 사업 가속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민첩한 실행 구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기술혁신 전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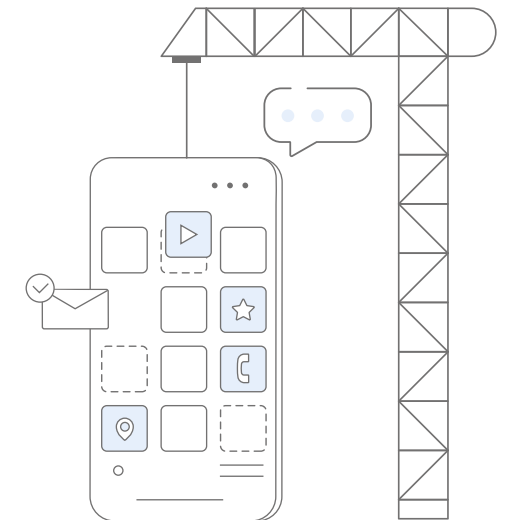
SK텔레콤은 2026년 4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AI CIC를 영역별 책임 조직 단위로 재편하였고, 그 일환으로 기술혁신 전담 조직인 'AI Tech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AI Tech 센터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사적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AI CIC를 비롯하여 전사 사업 영역에 대한 기술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AI 관련 업무 추진 영역

에이닷	에이닷전화
에이닷비즈	에이닷 Divergence
Physical AI 플랫폼	제조 AI Data 플랫폼
B2B AI 솔루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모델 적용/ 확산	AI DC 구축/확장
AI DC Solution	GPUaaS 사업

경영진의 통제 및 절차

SK텔레콤은 기술혁신의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CEO/CTO 주관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C-level 보고와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RM 전담 조직과 함께 사업 조직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 관련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개선 조치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SK텔레콤은 보유한 핵심 자산과 AI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술혁신의 본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이 SK텔레콤에 영향을 미칠 기간 범위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으로는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를 식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p.22) 파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요인으로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다양한 산업군의 AI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 고성능 지능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수요 증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통해 개인의 일상과 산업 현장 모두에서 SK텔레콤의 차별화된 AI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 기간범위

SK텔레콤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SK텔레콤의 사업 전략 의사결정 계획 기간 범위와 동일하며, 위험과 기회 식별 결과가 사업 전략 수립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위험	위험1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	●	●	●
	기회1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	●	●	●
기회	기회2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	●	●	●
	기회3 고성능 지능형 인프라 구축·운영 수요 증대	●	●	●

* 각 항목은 상존하는 위험과 기회로 예상 기간 범위는 단기, 중기, 장기를 모두 포함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현재 및 예상 영향

SK텔레콤은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SK텔레콤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된 영향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영향이 집중되는 주요 영역은 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B2B 및 B2C 산업 전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술혁신 관련 위험과 기회가 집중되는 영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사 차원의 전략적 자원 배분과 고도화된 AI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	보안 인프라 고도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 지출 증가	강화된 보안 기능을 위한 지속적 개선 운영비용 증가
기회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	에이닷 중심의 B2C AI 에이전트 서비스 기반 확보	개인화 데이터를 통합한 맞춤형 구독 및 A2A 신뢰 인프라 모델로 확장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중심의 B2B 수익 구조 형성	산업군 대상 통합 AI 오픈링을 통해 AI B2B 영역 리더십 확보
	고성능 지능형 인프라 구축·운영 수요 증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내부 역량 집중	AI 데이터센터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	협력사 대상 보안 기술 지원 강화 관련 비용 발생	아키텍처 복잡도 증가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 발생
기회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	음성 인식·분석 기반의 개인화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적용	멀티모달 기술 통합을 통한 전방위적 고객 접점 서비스 고도화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	AI를 통한 고객사 업무 효율성 개선	산업별 특화 AI 모델 공급을 통한 AX 파트너십 강화
	고성능 지능형 인프라 구축·운영 수요 증대	저지연·고성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 스택 강화	Full stack AI 인프라 자립화를 통한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 및 안정성 확보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SK텔레콤은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에 대한 대응 활동은 본 보고서의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p.27) 파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닷 (A.)

기회1

에이닷은 1,10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를 기반으로 생활 속 AI 에이전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 기술 역량과 개인화 메모리 기술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삼아 음성 노트, 일정 관리, 개인화 브리핑, 에이닷 오토 등 일상과 이동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앱·PC·차량 환경 전반에서 AI 서비스 경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이닷에서 축적되는 서비스 이용 맥락을 기반으로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개인화 메모리와 음성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에이닷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에이닷 전화

기회1

에이닷 전화는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 역량과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결합한 AI 전화 서비스입니다. 통화 요약, 실시간 통역콜, AI 피싱 탐지 등 통화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통화 요약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통화의 주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통화 중 언급된 일정도 AI가 추천해 통화 이후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피싱 탐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화·문자 기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알람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이닷 전화는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맥락 이해와 고도화된 음성 인식·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통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AI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모델의 B2C 저변 확대

기회1

SK텔레콤은 컨소시엄의 주관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 5,000억 개(500B) 파라미터 규모의 AI 모델 'A.X K1'을 공개하고, 대규모 모델 설계 및 활용 구조를 기반으로 목표 성능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셋을 활용해 국내 문화적 맥락에 최적화된 고품질 답변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1,10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에이닷(A.) 탑재 및 실증 과정을 통해 서비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B2C 사업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서비스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6년 말까지 기존 개발한 독자 초거대 모델을 바탕으로 음성·이미지 등 모달리티를 확장한 파생모델들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에이닷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상 속 AI 경험을 확산하는 '모두의 AI'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시장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개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적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에이닷 비즈 (A. biz)

기회2

에이닷 비즈는 SK텔레콤의 기업향(B2B) AI 서비스로, AI 기술 기반의 업무 방식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기업 전용 AI 에이전트입니다. 실시간 회의록 작성, Multi-LLM 검색, AI 보고서 생성 등 오피스 도구에 AI를 접목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고, 노코드 기반의 에이전트 빌더와 코딩 기반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에이닷 Cowork를 제공하여 업무 전반의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내 시스템 연동과 기업별 보안 정책 반영을 통해 각 기업의 업무 환경에 맞춰 AI 기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SK그룹 내 18개 계열사에 도입되어 업무 효율화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연내 멤버사 적용 확대에 집중하고, 향후 대외 사업 확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신·IT, 제조,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역별 맞춤형 기능을 고도화하고, 산업별 AI 전환(AX)에 기여하는 기업형 AI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산업 특화 기반 AI 모델

기회2

SK텔레콤은 제조, 금융,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모델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 현장에서는 SK하이닉스, SK AX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실증 사례를 구축 중이며, 초거대 AI 모델 'A.X'를 산업별 AX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 모델 (Foundation Model)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A.X LLM'의 유스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형 고객 대상의 특화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내 모델 서빙(Serving)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 공공, 유통 등 산업별 통합 AI 오퍼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아가, 음성, 이미지, 비디오를 통합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을 결합하여 문서·도면 이해, 연구 지원, 코딩 작업 등의 전문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 금융 등 다양한 B2B/B2G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 경량화 및 양자화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산업 활용도를 높인 'K2 시리즈' 모델 개발을 병행하여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Physical AI 및 B2B AI

기회2

SK텔레콤은 인프라, 모델, 솔루션의 개별 도입보다 통합 패키지를 선호하는 B2B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 및 AI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결합한 통합형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제조 AI 인프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는 검증된 디지털 트윈 및 로봇 학습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제조 Physical AI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플랫폼 역량을 SK그룹 내 계열사는 물론 외부 제조사로 확산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제조 장비와 스마트 디바이스에 AI 인텔리전스를 결합함으로써 현장 작업부터 전체 공정 운영까지 혁신하는 'Industrial AI'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실행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센터 (AI DC)

기회3

AI 데이터센터(AI DC)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딥러닝 기반 인프라로,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AI DC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인프라의 핵심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DC 인프라 확충

2030년까지 누적 300MW 이상의 용량을 확보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사업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를 완료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하여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 DC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울산 AI D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기점으로서 하이퍼스케일 단일 데이터센터로 시작하여 향후 글로벌 협력을 통해 GW급 초거대 규모(Hyper-scale) 클러스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및 서남권 지역에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동서를 잇는 견고한 'AI 벨트'를 조성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GPU 가상화 자원 클러스터인 '해인'을 통해 국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DC 솔루션 및 사업 고도화

단순 인프라 규모 확장을 넘어 구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 내재화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등 그룹사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건설 공기 단축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 방법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GPU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가상화 솔루션인 '페타서스 AI 클라우드(Petasus AI Cloud)'를 개발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Neocloud 사업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Token Factory 제공을 위해 전력(W)당 토큰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추론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GPU 자원 효율과 서비스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 AI DCIM(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해저케이블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총소유비용(TCO) 최적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 공시된 보고기간에 따른 계획의 진척도

기술혁신 관련 SK텔레콤의 이행 계획 대비 진척도는 '지표 및 목표' 부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절충

기술혁신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고려 방식' 내 기 공시된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절충 고려' 관련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현재 재무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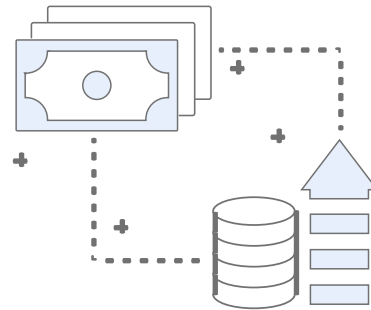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식별된 위험 및 기회 요인으로 인한 재무 영향 발생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AI/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는 추가 인프라 투자 및 시스템 재구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 기회는 에이닷 중심의 초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신규 구독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 기회요인은 산업 특화 솔루션 공급을 확대를 통한 B2B 매출 증대, 고성능 지능형 인프라 구축·운영 수요 증대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 DC) 매출 증대 및 수익 규모 확대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재무적 영향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분석한 재무영향 발생경로를 통해 단기적 영향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자원 조달 계획

SK텔레콤은 기술혁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식별된 기회 요인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 조달 및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효율화와 내실 경영을 통해 수익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AI 인프라 고도화와 핵심 기술 확보 등 미래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필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기술혁신 회복력

기술혁신 회복력 평가

SK텔레콤은 식별된 기술혁신 관련 위험과 기회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SK텔레콤의 전략과 사업모형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I Full-stack 역량'을 기반으로 한 SK텔레콤의 구조적 강점과 적응 역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평가 요소 및 SK텔레콤의 적응 역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소	SK텔레콤의 적응 역량
AI Full-stack 통합 역량	Infra(AI DC) – Model(A.X) – Service(AI Agent)의 3개 층위 통합 보유. 특정 층위의 외부 충격이 전사 사업에 직접 전이되지 않는 다층 방어 구조
AI 인프라 규모와 다각화	울산 AI DC(100MW → 1GW Hyper-scale 확장 계획), 서남권 AI DC(글로벌 빅테크 협력), 국내 최대 GPUaaS 클러스터 '해인', 제조 특화 AI 클라우드 등 한반도 동서를 잇는 AI 벨트 구축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	500B 규모의 A.X K1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세계 4위권, 한국어 특화 성능 우위) 자체 개발.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통과로 기술 종속성 해소
1천만 고객 접점 기반 서비스	에이닷-에이닷 전화-에이닷 비즈 3대 AI Agent를 통한 광범위한 실증 기반 확보. B2C-B2B 전 영역 커버

기술혁신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SK텔레콤은 기술혁신 관련 위험과 기회의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AI 시장 환경 변화와 SK텔레콤의 AI Full-stack 역량(Infra-Model-Service)에 대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단기·중기·장기 시계에 걸친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기술혁신 전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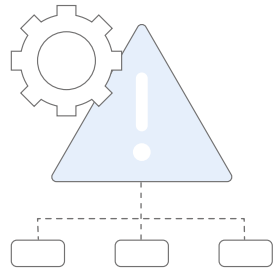
위험 관리

기술혁신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기술혁신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SK텔레콤은 AI 및 클라우드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보안, 신규 보안 아키텍처 설계, 비정형 데이터 보호 등의 리스크는 전사 보안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네트워크 인프라 및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위험 관리는 본 보고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p.29) 파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혁신 관련 기회 관리 프로세스

SK텔레콤은 AI CIC 체제를 기반으로 SK텔레콤 보유 자산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해 기술혁신 기회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는 성공 가능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2026년에는 선별된 핵심 과제에 리소스를 집중함과 동시에 비용 구조 효율화를 병행하여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핵심 성장동력인 AI DC 사업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신규 사이트 구축을 통해 외형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매출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BM) 다각화 방안을 상시 모색함으로써, 식별된 기회 요인을 실질적인 재무 성과로 연결하는 기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SK텔레콤은 기술혁신 관련 위험을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지표

기술혁신 관리지표

지표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에이닷 누적 가입자 수	백만 명	-	8.3	11.2
AI DC 사업 매출	억 원	2,020	3,853	5,199

목표

기술혁신 중장기 목표

중장기 목표(2026~)

B2C

- 에이닷: 음성 특화 역량을 강화해 빅테크와 차별화
- AI 모델: 글로벌 오픈소스 Top 모델 대비 95% 수준의 성능으로 모델 개발
 - 다양한 활용을 고려한 경량화/양자화 모델도 개발 중으로 이를 통해 B2C/B2B/B2G 영역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소버린 AI 플랫폼을 제공 계획

B2B

- 에이닷 비즈: SK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대상 적용 레퍼런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외부 기업 사례 확대 예정
- B2B AI: 인프라-모델-플랫폼-서비스라는 SK텔레콤의 AI Full Stack 역량을 활용해 통합 Offering 추진
 - AI 기술을 활용해 유·무선 B2B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국방 영역에서의 사업 기회 공략 계획

AI DC

- AI DC: 2030년까지 누적 300MW 이상의 용량 확보, AI DC 솔루션 사업 가능성 확보 및 해저케이블 사업 단계적 확장
 - 울산 AI DC 등을 포함해 On-Track으로 확장 중이며, 사업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논의 병행 예정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사결정 방식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전략 수립, 자본배치, 재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기구, 경영진, 실무진의 3단계 협력 체계를 운영합니다.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심의 체계



1) GC(General Counsel)센터장: SK텔레콤의 법무, Compliance, 지속가능경영을 총괄하는 C-Level 임원

2) 기후공시 워킹그룹: SK텔레콤 및 주요 종속기업의 유관부서 구성원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무그룹

의사결정기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SK텔레콤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입니다.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2026'의 '1.1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경영진 및 실무진의 관리 감독 역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관리 책임은 경영진 차원에서 CEO와 ESG총괄인 GC센터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두 직책은 기후를 포함한 ESG 경영 전반에 대해 이해관계자(고객·투자자·정부 등)의 요구와 기대를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SK텔레콤의 실무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경영진 및 실무진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2026'의 '1.2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경영진 성과지표 및 보상 정책

성과지표 KPIs	설명	보상 백분율
ESG 핵심지표 실행 성과	ESG 경영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평가 지표	1.0%
Net Zero 핵심지표 실행 성과	2050 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당해 연도 목표 배출량 성과 달성 지표	1.0%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중요성 평가)

SK텔레콤은 2026년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전환, 물리, 기회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식별했습니다. 전환 영역은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명성 유형으로, 물리 영역은 급성과 만성 유형으로, 기회 영역은 자원 효율성, 에너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

구분	유형	설명
전환	정책 및 법률	- 기후변화 관련 탄소배출 규제, 법률, 정책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손실 위험
	기술	- 탈탄소 기술의 발전 또는 고탄소 기술의 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손실 위험
	시장	- 이해관계자의 선호 및 행동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손실 위험
	명성	- 기후 관련 인식·여론 변화에 따른 신뢰도 하락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물리	급성	-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위험
	만성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
기회	자원 효율성	- 원자재의 효율적 활용 또는 재활용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에너지원	- 친환경 에너지원로의 전환 및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기회
	제품 및 서비스	- 친환경 기술·솔루션, 저탄소 제품 등을 통한 신규 매출원 창출의 기회
	시장	- 신규 고객층 확보 또는 정부·투자자로의 재원조달의 기회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 기간범위

SK텔레콤은 2026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총 24개 요인으로 식별하였으며,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¹⁾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요인은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의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 산업 동향, 주요 동종 업계 사례조사, 신규 사업 영역을 반영하여 중요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전환 위험은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명성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며, 총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올해는 전년과 동일한 핵심 요인으로 유지하였으며,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해 '공급망 위험 관리 체계 강화'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소요량 증가'를 신규 요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물리적 위험은 만성 재해와 급성 재해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한 9개 요인을 유지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자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기회 요인은 자원 효율성, 에너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8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원 효율성 유형에서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 요인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결회사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기반 신사업 기회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K텔레콤은 최신 산업 동향과 사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성 평가 결과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범위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¹⁾로 본 중요성 평가 기간 범위에 반영하였습니다. SK텔레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은 동일하게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전략 의사결정 계획기간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범위와의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¹⁾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에서 제시한 평가 시점의 구분 및 기간 범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 기간범위

전환 위험

○: 중요하지 않음, ◐: 중요, ●: 매우 중요

유형	위험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정책 및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	○	◐
	에너지 효율성 관련 규제 강화	○	○	◐
시장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소요량 증가	◐	●	●
	전기요금 상승	○	●	●

물리적 위험

○: 중요하지 않음, ◐: 중요, ●: 매우 중요

유형	위험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급성	태풍	○	○	◐
	산불	○	◐	◐
만성	폭염	○	○	◐
	폭우	○	◐	◐

기회

○: 중요하지 않음, ◐: 중요, ●: 매우 중요

유형	위험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제품 및 서비스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	●	●

기후 관련 중요성 평가 결과

SK텔레콤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 및 기회 요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 수준을 평가하여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FY2025 기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단·중·장기별 상위 3개 요인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평가 결과, 전환 위험 중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은 단기, 중기, 장기 전 기간에 걸쳐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저탄소 AI 기술 개발 비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나 중장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은 중장기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사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외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위험의 경우, 급성 재해인 산불·태풍과 만성 재해인 폭우·폭염이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다만 전환 위험 및 기회 요인과 비교 시 상대적 중요도는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기회 요인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 AI 기반 솔루션 수요 증가가 전 기간에 걸쳐 주요 기회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솔루션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분	중요성 순위	단기	중기	장기
전환 위험	1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소요량 증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소요량 증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소요량 증가
	2	전기요금 상승	전기요금 상승	전기요금 상승
	3	저탄소 AI 기술을 위한 비용 증가	저탄소 AI 기술을 위한 비용 증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물리적 위험	1	산불	산불	폭우
	2	폭우	폭우	산불
	3	태풍	태풍	폭염
기회	1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2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	AI 기반 솔루션 수요 증가
	3	AI 기반 솔루션 수요 증가	AI 기반 솔루션 수요 증가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예상 영향

SK텔레콤은 현재 시점에서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전사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전기요금 상승 등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은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2026'의 '2.2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전환 위험 대응 현황

SK텔레콤은 KSSB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제를 대응하고, 기후 관련 소송 발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법규 및 준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준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탄소 AI 기술로의 전환 또는 개발 비용 역시 중대한 전환 위험 중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은 그린 저탄소 IC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Single-RAN 등의 기술을 통해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AI 모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4.9M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PPA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전환 위험 대응 현황

요인

참고내용

저탄소 AI 기술로의 전환 또는 개발 비용

전기요금 상승

AI 기반 에너지 효율 관리 개념

SK텔레콤 AI기술 + Vendor 기능 → Normal Mode ↔ Sleep Mode

현재의 노력

예상되는 노력

- 그린 저탄소 ICT 기술과 AI 기반 트래픽 진단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감소
- Single-RAN 기술 도입을 통한 통신 효율 개선

-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AI 모델 자체 개발 및 내재화 추진

SK텔레콤의 RE100 목표(단위: %)

연도	RE100 목표 (%)
2020	0
2025	11 ¹⁾
2030	65
2035	73
2040	82
2045	91
2050	100

-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녹색프리미엄 계약 체결(284GWh)
-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계약 체결 - 50MW(2027년 하반기 조달 예정)

-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 달성 추진
- 태양광 PPA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신규 계약 체결 추진
- 태양광 EMS의 효율적 유지보수 및 스마트 분전반 고도화를 통한 설비 성능 최적화

1)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등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도에 2025년도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물리 위험 대응 현황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는 다양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은 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심 통신 설비를 다중으로 구성한 재난 복구(Disaster Recovery)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이동 통신 3사 간 재난 로밍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물리적 위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K텔레콤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난 대응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물리적 위험 요인으로는 산불, 태풍 및 폭우 등이 있으며, 통신장비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자동소화설비, 열 차단 테이프, 지선 보강 등의 내구성 강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 변화 대응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동형 기지국과 같이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임시 통신망 구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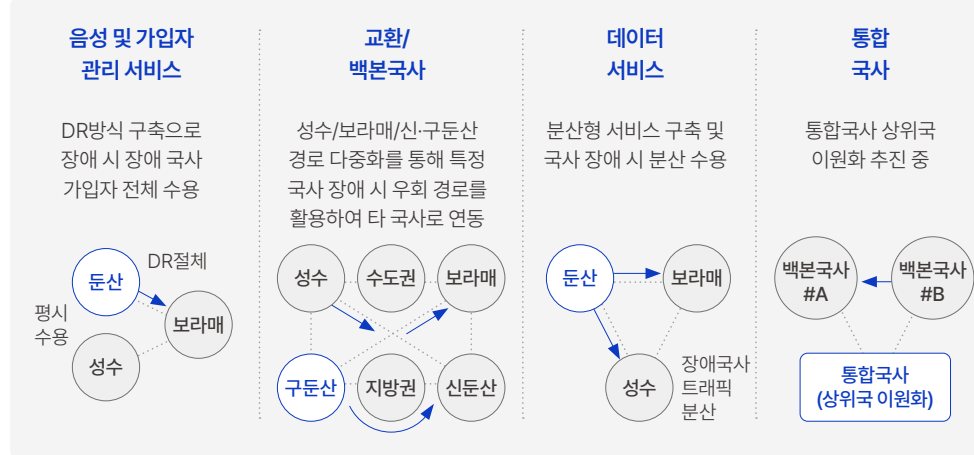
물리 위험 대응 현황

요인

재난 복구 (Disaster Recovery) 체계

급성 및 만성 물리적 위험(산불,태풍 및 폭우 등) 대응

참고내용



장비 하단 방화벽



지선 보강



차수벽

현재의 노력

- 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복구 체계 운영**
- 주요 네트워크의 접속 경로와 **핵심 통신 설비를 다중으로 구성**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공동 재난 체계로 **비상 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

- 전원함 내부 **자동소화설비 및 난연소화포 부착**, 통신주 하단 **방초포 및 방초캡 설치**
- 케이블 난연화, 카본 차화포, 열차단 테이프, 내열도로 등 **방염과 내열성 강화**
- 지선 보강, 장비 받침대 설치, 차수판 설치 등의 **침수 억제 사전 대응 수행**

예상되는 노력

-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 프로토콜 강화**
- 국내 이동통신 3사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TF 구축**

- 이동형 기지국과 같이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임시 통신망 고도화**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기회 요인 대응 현황

SK텔레콤은 탄소감축 및 RE100 전략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SK E&S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PPA¹⁾)을 체결 하였습니다.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27년 7월부터 2047년 6월까지 20년 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연간 약 64GWh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PA 계약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P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미래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외에도 2050년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PPA 계약, 녹색프리미엄, 자가설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 주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 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쿡스토브는 기존의 조리 도구를 대체함으로써, 탄소배출량과 나무 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탄소감축 목표에 향후 활용할 예정입니다.

1)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기회 요인 대응 현황

요인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및 경제적 편익 증가:PPA 참여 및 RE100 이행	탄소시장 참여: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 대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고내용	PPA 계약 개요	
현재의 노력	• SK이노베이션 E&S와 5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약 체결 • 전국의 사옥, 기지국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4.9MW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 • 녹색프리미엄: 2023년 209GWh, 2024년 232GWh, 2025년 284GWh 사용	• 2018년부터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 주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구매 비용 절감 추진
예상되는 노력	• 신규 PPA를 통한 전기요금 상승 위험 회피 및 전기요금 절감	• 신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모델 개발 및 실행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기후 관련 전환 계획

SK텔레콤은 2021년 SBTi 기준에 따라 Net Zero 목표를 수립하고, 2022년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2050 Net Zero' 달성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SBTi 목표 승인을 획득하여, Net Zero 목표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SBTi와 RE100 기준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직접 및 간접 배출량(Scope 1 및 Scope 2)을 47.7%,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을 22.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 장비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관련 목표 달성 계획

Net Zero 달성을 위한 3대 Green 전략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Green 전략(Green Operation, Green Energy, Green Asset)을 기반으로 '2050 Net Zer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reen Operation

Green Operation은 AI기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년 예상 전력 사용량을 25% 감축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AI기반 기지국 전력 절감, 저전력 통신장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장비 냉방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능형 냉방 관제 시스템을 도입 및 고도화하고, 노후 냉방기를 신형 고효율 냉방기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5G 공동망, 통합 장비 운영(Single RAN)도 추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reen Energy

Green Energy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 사용을 친환경/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략입니다. 2020년 RE100 가입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30년 65%, 2050년 1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도입, 한국전력공사의 녹색프리미엄 계약,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의 PPA 체결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Green Asset

Green Asset은 다양한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 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불가피하게 남은 잔여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관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해외에서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쿽스토브 보급, 전기 스쿠터 보급 등)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조림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조림/산림 자원 보존 활동도 추진 중입니다.

Net Zero를 위한 3대 Green 전략

1. Green Operation

운영 효율화

- AI 기반 기지국 전력절감
- 지능형 냉방 관제
- 5G 공동망
- Single RAN 등
- 노후 냉방기 대체 및 운영 개선
- 저전력 통신장비 도입

2. Green Energy

에너지 전환

- 태양광 자가발전
- 녹색프리미엄
- PPA
- 전기차 도입

3. Green Asset

배출권 자산화 및 상쇄

- 국내 전기차 감축사업
- 국내 지자체 LEMS 감축사업
- 동남아시아 고효율 쿽스토브 보급사업
- 동남아시아 전기 스쿠터 보급사업
- 국내외 조림사업, 산림복구 사업 등

전략

기후 회복력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전환 위험 시나리오

SK텔레콤은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적용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환 위험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 범위는 2026년에서 2050년이며, 분석 범위는 SK텔레콤 별도 기준입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에 따른 비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된 잠재적 재무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SK텔레콤의 Net Zero 전환 전략 및 기후 회복력 수준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 정책의 변화 및 가정사
 항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및 가정사항

전환 위험 요인	선정 배경	정의	주요 가정사항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	-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높은 비중 - 기후 관련 중요성 평가결과에 따른 주요 전환 위험	기후 관련 정책 강화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 NGFS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전기요금 전망 - 전력상품 유형별 과거의 전기요금 증가분 - RE100 이행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구매 전력 절감량 - 재생에너지 이행수단별 추가 비용
탄소배출 규제	기후 관련 중요성 평가에 따른 주요 전환 위험	탄소배출 규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또는 판매액	- IEA 및 NGFS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탄소가격 전망 - 내부감축 및 RE100 이행에 따른 배출량 감소 - 유상할당비중(2030년: 15%, 2040년: 30%, 2050년: 50%) - 할당량 조정계수 반영(2050년까지 90%)

전환 시나리오 개요

제공기관	시나리오		시나리오 선정 배경	출처
IEA ¹⁾	STEPS (Stated Policies Scenario)	각 국의 현 정책 및 목표, 민간의 추진 현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 IEA WEO의 기본 시나리오 •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 제공 • 글로벌 공시기이드(TCFD)에서 제시한 참고 시나리오로, 글로벌 주요 기관에서 범용적 활용	WEO 2024 ³⁾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 선언(NDCs 등) 및 총 배출량 장기목표 달성을 가정한 시나리오		
	NZE (Net Zero Emission by 2050)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및 2100년까지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가정한 시나리오		
NGFS ²⁾	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각 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가정한 시나리오	• 1.5°C 기준에 부합하거나 유사한 목표 수준을 갖는 시나리오 • 전기요금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 제공	NGFS Phase 4.0
	Below 2°C	2100년까지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시기 대비 2°C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		
	NZE2050(Net Zero 2050)	2050년 Net Zero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절차

1단계. 분석 대상 선정

-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
- 탄소배출 규제
- 주요 가정사항 검토 및 확정

2단계. 시나리오 선정 및 데이터 수집

- IEA/NGFS 시나리오 검토 및 선정
- 데이터수집:탄 소가격, 전기요금(산업)

3단계. 분석 모형 개발

- SK텔레콤 Net Zero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전환 위험
 - 미래 전력수요 추정
 - 기준 전기요금 설정
 - RE100 이행계획 검토
 - 한국전력 전력수요량 추정
 - 유상할당비중 및 조정계수 검토
- 탄소가격 및 전기요금 고도화

4단계. 잠재적 재무영향 분석

- 시나리오별 최소/최대 재무영향 도출
- 분석 결과 검토 및 대응체계 점검

1)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 에너지 기구. 주요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 가격,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제공

2)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녹색금융협의체.
통합평가모형 중 하나인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을
기준으로 에너지, 상품 및 기타 흐름을 반영한 7개 시나리오별 탄소가격,
전기요금 등에 대한 데이터제공

3) WEO(World Energy Outlook): IEA에서 발간하는 연례보고서로 시나리오별 미래 에너지 전망 제시

전략

기후 회복력

기후 회복력 평가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잠재적 재무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SK텔레콤은 과거의 전력 요금의 평균 증가분 대비 NGFS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전기요금 전망과 재생에너지 이행수단별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재무영향을 산정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금액 추정을 위해 적용한 NGFS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감축 정책의 강도에 따른 NDCs, 2°C 이하, NZE2050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의 구체적 정의 및 의미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p.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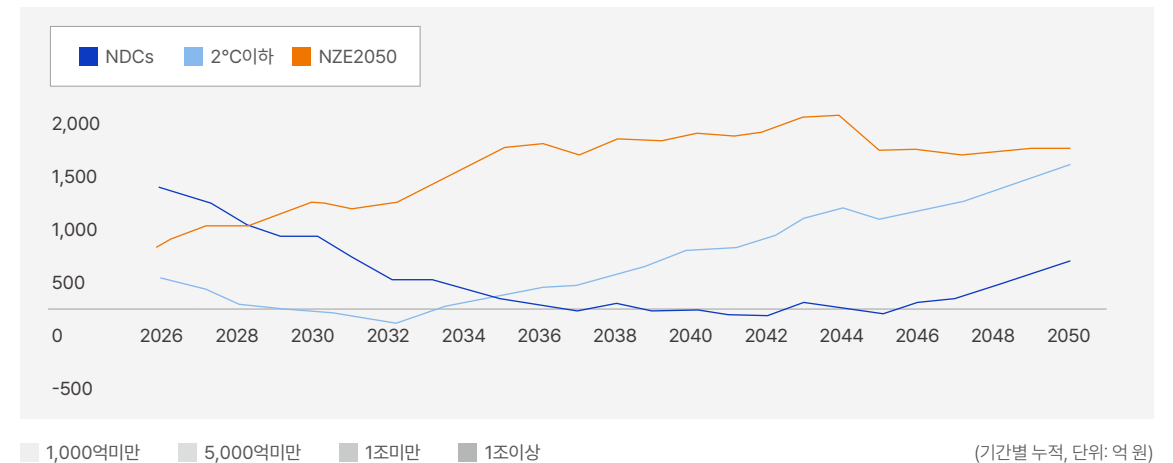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에서 2050년 사이 NGFS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연평균 최소 271억 원(NDCs)에서 최대 1,362억 원(NZE2050)의 재무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며, 1개 연도 최대 영향은 2044년의 1,809억 원(NZE2050)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화 투자, 전력 소비 패턴 분석 및 최적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조달 다각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은 내부 유보 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비용 추정

전환 위험 요인	시나리오	재무적 영향(단위: 억 원)			대응 방안	자금 조달 방법
		2050년까지 연평균	최대	최소		
전기요금 가격 상승	NDCs	271	1,114	-50	- 전력 사용 설비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 - 전력 소비 패턴 분석 및 최적화 -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에너지 조달 다각화	- 내부 유보 자금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투자 등의 대응 계획 이행
	2°C 이하	465	1,360	-131		
	NZE2050	1,362	1,809	664		

전기요금 상승 및 RE100 이행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추정



시나리오	단기 (~'26년)	중기 ('27년~'30년)	장기 ('31년~'50년)
NDCs			
2°C이하			
NZE2050			

전략

기후 회복력

기후 회복력 평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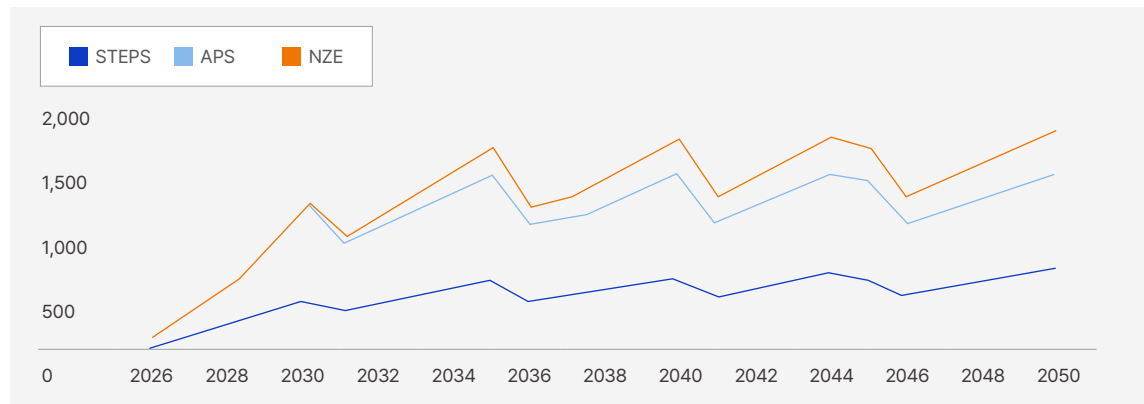
SK텔레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 Net Zero 목표와 RE100 이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상할당 비중이 2030년 15%, 2040년 30%, 2050년 50%로 점차 증가하고, 할당량 조정계수도 2050년까지 90%로 반영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은 국내 배출권 가격 전망치 및 내부 감축 활동에 따른 배출권 잉여분을 고려해 재무영향을 산정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금액 추정을 위해 적용한 IEA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감축 정책의 강도에 따른 STEPS, APS, NZE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의 구체적 정의 및 의미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p.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RE100 이행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수익이 예상됩니다. 2026년에서 2050년 사이 IEA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연평균 최소 378억 원(STEPS)에서 최대 1,146억 원(NZE)의 편익이 발생 할 것으로 분석되며, 단일 연도 최대 영향은 2050년의 1,642억 원(NZE)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PPA 참여 및 RE100 이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은 내부 유보 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편익 추정

전환 위험 요인	시나리오	재무적 영향(단위: 억 원)			대응 방안	자금 조달 방법
		2050년까지 연평균	최대	최소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STEPS	378	585	26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배출권 구매량 절감 • 배출권 가격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 최소화 등	• 내부 유보 자금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기술 도입
	APS	991	1,359	67		
	NZE	1,146	1,642	69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추정



1,000억미만 5,000억미만 1조미만 1조이상 (기간별 누적, 단위: 억 원)

시나리오	단기 (~'26년)	중기 ('27년~'30년)	장기 ('31년~'50년)
STEPS			
APS			
NZE			

전략

기후 회복력

기후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

SK텔레콤은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적용된 시나리오 기반으로 물리적 위험 기후 회복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기간 범위는 2026년에서 2050년이며, 분석 범위는 SK텔레콤 별도 기준입니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위험을 5개의 만성재해와 4개의 급성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재해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무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 분석에는 IPCC의 공통사회 경제경로(SSP¹⁾)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있으며, MSCI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위험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분석 모형을 통해 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도와 자산손실률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상 자산의 누적 자산손실액 또는 영업 활동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무영향을 정량화하였습니다.

물리적 재해의 발생 및 영향을 추정하는 분석모형은 과거 재해의 수준 및 피해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 여부와 발생 시 미칠 수 있는 영향 수준 등에서는 미래 실제 발생할 재해의 영향 간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재무영향 수준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미래 기후로부터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경로

분석 대상 및 가정사항

전환위험 요인	선정배경	정의	주요 가정사항
만성	폭염	평균 습구온도 10~37°C의 임계점 ²⁾ 을 초과하는 연간 일수	적용 일수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산업 기반의 영업활동 피해
	혹한	0°C 또는 10°C 미만의 연간 일수	
	폭우/강우	일 강우량이 20mm 또는 50mm를 초과하는 연간 일수	
	폭설/강설	일 강설량 5cm 또는 20cm를 초과하는 연간 일수	
	강풍	24.3m/s 또는 27.8m/s를 초과하는 연간 일수	
급성	해안침수	글로벌 해수면 상승 모델을 기반으로 자산의 홍수로 인한 침수 여부 판단	해수면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자산가치 손상 및 영업활동 피해
	하천범람		
	태풍	과거 태풍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풍속	지역단위의 보정값을 반영한 자산가치 손상 피해
	산불	연간 산불 발생확률	과거 산불 발생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산가치 손상 및 영업활동 피해

물리적 시나리오 개요

제공기관	시나리오 설명 ³⁾	정의	시나리오 선정 배경	출처
IPCC	SSP1-2.6	저탄소 산업 중심의 전환 및 정책목표 달성을 가정한 시나리오(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AR6)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	IPCC AR6
	SSP2-4.5	현재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목표의 실현을 가정한 시나리오(저탄소산업/제조업 및 화석연료 사용 정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SSP3-7.0	저탄소 산업 및 재생에너지로의 느린 전환을 가정한 시나리오(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감소)		
	SSP5-8.5	화석연료 사용의 지속 및 저감 정책의 이행이 미미한 시나리오(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2) MSCI는 2개의 임계점 기준을 통해 손실로 인한 영향을 차별화하여 제시

3) SSP 시나리오가 가정하는 미래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글로벌 정책 수준 등에 따라 분류(인구, 경제, 기술, 생활방식, 토지이용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반영)

분석 절차

1단계. 분석 재해 선정	자산정보수집 (사옥및통신장비)
- 급성: 태풍, 해안침수, 하천범람, 산불 - 만성: 폭염, 혹한, 폭우, 폭설, 강풍	- 국내 전체 통신자산(사옥, 통신장비 등) - 기본정보: 자산명, 유형, 직원 수, 면적 - 위치정보: 주소, 위도 및 경도 - 재무정보: 장부가액, 영업이익
2단계. 시나리오 선정(IPCC SSP)	
IPCC SSP1-2.6, SSP2-4.5, SSP3-7.0, SSP5-8.5	
3단계. 분석 모형 개발	
- MSCI의 데이터 추출 및 가공⁴⁾ - 산업기반 영향도 분석(GICS 기준) - SK텔레콤의 연도별 자본조달비용 전망 - 국내 사옥 및 통신장비 대상의 재해별 위험도 및 예상 손실률 적용 - 연도별 적용 비중 및 할인율(WACC)적용	
4단계. 잠재적 재무영향 분석	
- 시나리오별 위험도 및 손실액 산정 - 자산별 잠재적 재무영향(사옥 및 통신장비) - 재해별 잠재적 재무영향(자산손상 및 영업활동 피해) - 분석 결과 검토 및 대응 체계 점검	

4) 물리적 위험 분석 데이터의 해상도는 최소 90m에서 최대 56km 수준으로 재해별 상이

전략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SK텔레콤은 총 9개의 물리적 위험을 만성과 급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시나리오별로 각 요인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물리적 위험에 대한 누적 재무영향은 시나리오가 저탄소(SSP1-2.6)에서 고탄소(SSP5-8.5)로 변화하면서 재무영향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누적 재무영향이 약 263억 원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속도가 낮을 때 재무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진행될 경우 2050년까지 약 595억 원의 누적 재무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기업의 재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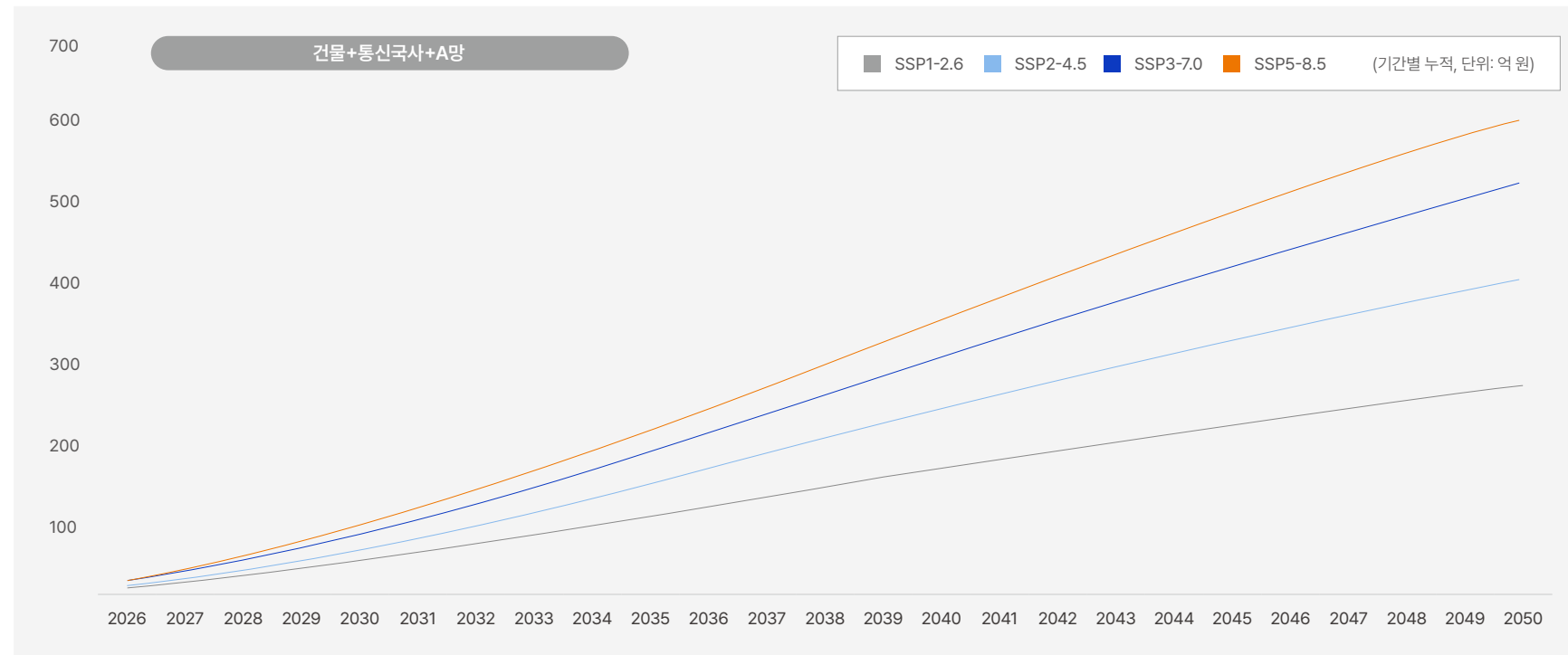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재무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각 시나리오에 맞춘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위험 분산 전략을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며 고탄소 시나리오를 대비해 재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탄소 시나리오 현실화 시 부정적 재무영향을 감소시키고,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 재무영향 평가

SK텔레콤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무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MSCI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9개의 재해에 노출된 자산의 실제 손실 수준에 중점을 두어, 누적 자산손상액 또는 영업활동 손실액에 대한 재무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무선통신업의 특성 상 건물 외부에 노출된 통신장비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통신장비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물리적 위험을 평가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에 대한 물리적 위험 평가 과정에서 분석 데이터의 변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재무영향 결과값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은 전 세계에 위치한 자회사를 포함하여 연결기준으로 물리적 위험 분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후공시 시점에 맞춰 이러한 공시 방법론을 적용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략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만성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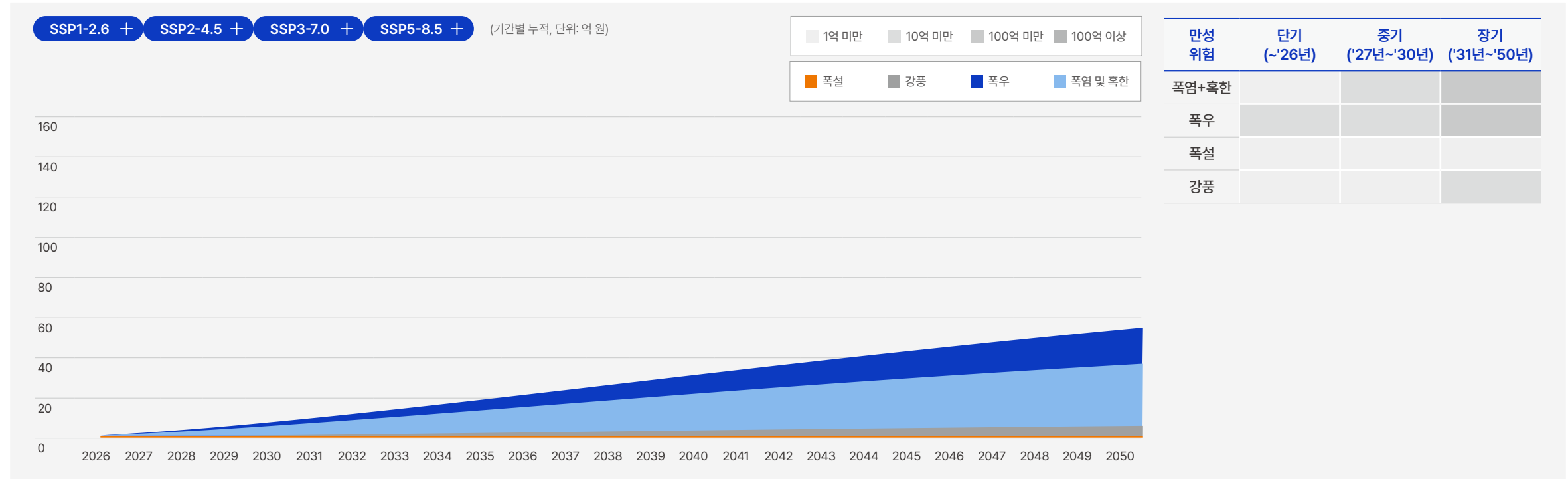
만성 위험은 기후변화의 장기적 지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현상으로, MSCI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 혹한, 폭우, 폭설, 강풍에 대한 재해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 재무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위험은 폭염과 폭우였으며, 피해 금액은 자산손실액과 영업피해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폭염 및 혹한으로 인한 재무영향은 2050년 누적 최소 35억 원 (SSP1-2.6)에서 최대 139억 원(SSP5-8.5)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한 재무영향은 같은 기간 동안 최소 52억 원(SSP1-2.6)에서 최대 88억 원(SSP5-8.5)으로 예상됩니다.

폭설의 경우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누적 재무영향이 1억 원 미만으로 분석되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만성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재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냉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긴급 전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에 대비해 통신 3사 간 재난 로밍 체계를 강화하고, 장비의 분산 배치와 다중 백업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은 내부 유보 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만성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추정



전략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급성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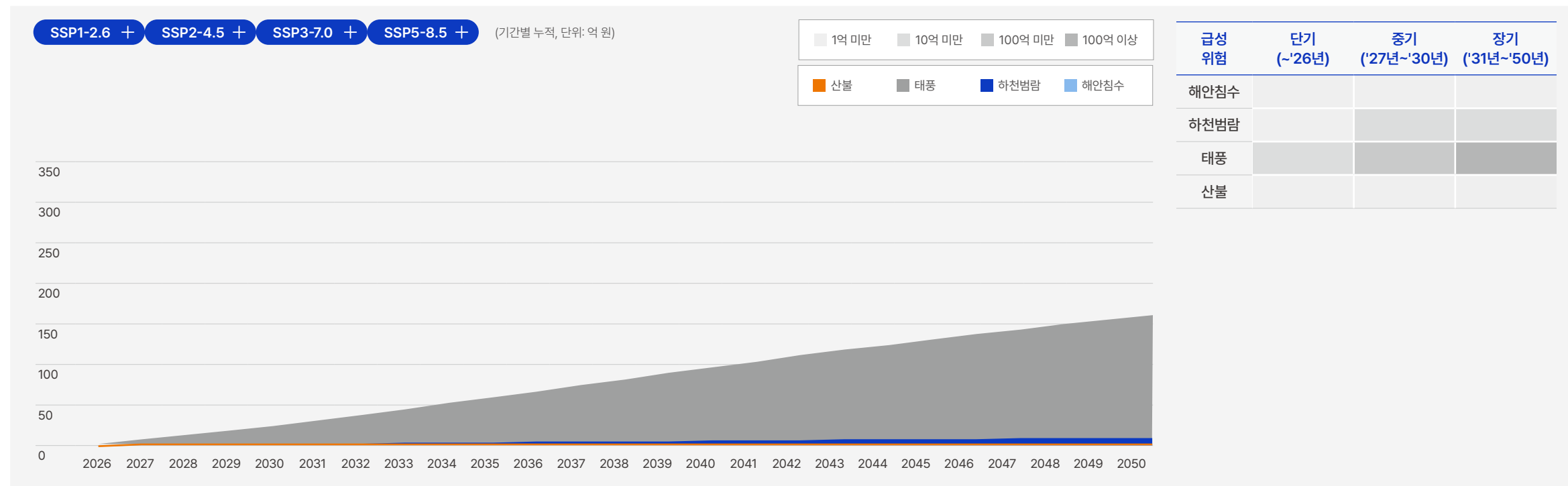
급성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같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MSCI 데이터 기준에 따라 해안침수, 하천범람, 태풍, 산불에 대한 재해를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무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위험은 태풍과 하천 범람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자산손실액과 영업피해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재무영향은 2050년 누적 최소 159억 원 (SSP1-2.6)에서 최대 332억 원(SSP5-8.5)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무영향은 같은 기간 동안 최소 9억 원(SSP1-2.6)에서 최대 19억 원 (SSP5-8.5)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의 경우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누적 재무영향이 1억 원 미만으로 분석되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태풍에 대비하여 방풍 설비와 재난 복구 체계를 강화하고, 대체 전력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분포된 통신 장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 효율성 개선을 포함한 집중 관리 조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급성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 추정



전략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기후 회복력 평가

회복력 평가에서 고려된 유의적인 불확실성의 영역

SK텔레콤은 기후 회복력 평가 과정에서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 극한 기상 현상은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장비 손상, 전력 사용 증가,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신뢰 저하와 함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력요금 변동성과 재생에너지 조달 불확실성은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용 구조와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할당량 조정계수 반영 등 규제 환경 변화는 장기적인 배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및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속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 속에서도 기업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재무자원의 가용성 및 유용성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전략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서 기존 재무자원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배 기업은 사내 유보 자금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 효율화,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 주요 기후 대응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차입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녹색금융(Green Finance)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산을 재배치, 용도 변경, 개선 또는 해체할 수 있는 능력

SK텔레콤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및 물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재배치, 용도 변경, 개선 또는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업 구조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한 기지국, 중계기, 사옥,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효율성과 기후 회복력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노후화된 인프라와 저효율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트래픽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산의 통합·최적화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해 데이터센터 및 통신국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일부 자산은 축소 또는 해체하는 등 장기적 배출 감축 전략에 부합하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및 계획된 투자의 영향

SK텔레콤은 K-Taxonomy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매출은 453.1억 원이고, 구매에 투입된 CapEx 18.8억 원, OpEx 314.1억 원입니다.

위험 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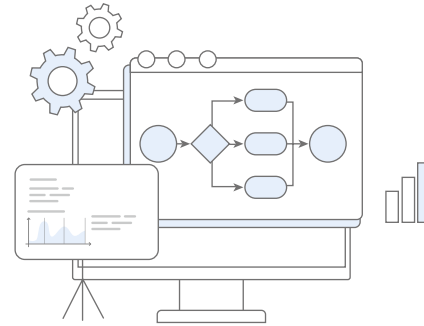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 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를 기존 통합 위험 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기후 위험을 고려한 내부 탄소가격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전사적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2025-2026"의 "3.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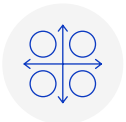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위험을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잠재적 재무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재무, 운영, 전략, 규제 등 다양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에 반영됩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배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리 체계

SK텔레콤은 아래와 같은 기후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위험을 기업의 중요한 이슈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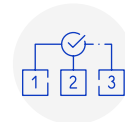
-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후 위험 요소 탐지
-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ESG 이슈와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요인 식별
- 지속적으로 위험 목록 업데이트

기후 위험 평가



-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기준으로 중요성 파악
- 기후 위험의 재무적 성과, 운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진행

우선순위 결정



-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매트릭스 구성
- 대응책의 비용과 예상되는 위험 발생의 재무적 영향을 비교하여 위험 관리 전략 수립
- 중요 이슈를 선정하여 대응 전략과의 연계 방안 설계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 위험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KPI 설정
- 고위험 영역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위험 재평가
- 위험 관리 상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

지표 및 목표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Scope 2 배출량 및 관리 계획

SK텔레콤의 2025년 지역기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173,904tCO₂e으로 2024년에 비해 약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5G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장비 증설로 전력 사용량과 간접 배출량(Scope 2)¹⁾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의 시장기반 온실가스 총 배출량(녹색프리미엄 구매실적(284GWh) 반영)은 1,043,431tCO₂e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99%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전력로의 전환이 2050 Net Zero 달성에 핵심임을 인식하고, RE100 캠페인의 권고 수준을 고려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목표²⁾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재생에너지 조달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목표 이행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서는 '환경 데이터' 부분에서 보다 상세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간접 배출량(Scope 2)은 총 배출량의 약 99.5% (1,167,979tCO₂e)

2) 2030년 65%, 2040년 82.5%, 2050년 100%

Scope 3 배출량 및 관리 계획

SK텔레콤은 기타 간접배출(Scope 3)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Scope 3 배출량은 사업에서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및 폐기 등의 가치사슬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의미 하며, 총 1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다만, SK텔레콤의 통신업 특성을 고려할 때 Scope 3의 15개 카테고리 중 일부는 당사의 활동과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미미하거나 배출이 발생하지 않아 배출량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Scope 3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은 'WRI/WBCSD'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IPCC Guidelines: 2006'에 명시된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연도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025년 Scope 3 배출량은 2,584,221tCO₂e 입니다. SK텔레콤의 주요 Scope 3 온실가스 배출원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카테고리1), 자본재(카테고리2), 투자(카테고리15)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Scope 3 배출량의 약 91.4%(2025년 기준) 규모입니다. Scope 3 배출량은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Scope 1·2에 비해 데이터 가용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초 Scope 3 배출량 산정 및 목표 수립 이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 활용과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보고되는 배출량이 상당 폭 감소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지속적인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 관리를 통해 2024년 대비 2025년 Scope 3 배출량을 약 19.5% 감소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실제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Scope 3 배출량을 측정할 예정이며, 제3자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SK텔레콤은 국제표준과 국내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기반(Location-based) 배출량과 시장기반(Market-based)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정, 관리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³⁾에 따라 국가 전력망 기준의 전력 사용에 따른 Scope 2로서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며, 해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반 배출량은 GHG프로토콜(The Green House Gas Protocol)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가 반영된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SK텔레콤의 2050 Net Zero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배출량과 시장기반 배출량의 차이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분에 대한 감축량 인정 여부로, 지역기반 배출량에서는 감축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기반 배출량에서는 감축량으로 인정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기반 배출량을 기본으로 하여 주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역기반 배출량은 "지역기반" 표기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는 전국망 단위의 네트워크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자회사 및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회사의 별도 기준 매출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5-64호)" 및 ISO 14064-3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잔여배출계수(Residual Mix) 관련 사항

최근 시민단체에서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잔여배출계수(Residual Mix)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잔여배출계수 산정 체계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현재는 국가평균전력 배출계수 등 대체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와 데이터가 보완되면 국제 기준에 맞는 산정 방식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K텔레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지표

내부 탄소가격

내부 탄소가격제도 운영

SK텔레콤은 2050 Net Zero 감축 목표의 단·중·장기 관리와 기후 위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내부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도는 기존·신규 사업의 예상 배출량을 평가하고 내부 탄소가격을 비용/수익으로 반영하여(Shadow Price방식) 감축 계획을 수립·검토하는 절차로 구성되며, 가격은 단기·중기·장기 구간으로 구분해 설정합니다. 적용 가격은 IEA의 NZE-APS 시나리오를 참고하였으며, 국내 시장 여건과 감축 목표에 따라 조정됩니다.

내부 탄소가격 적용 범위

SK텔레콤의 내부 탄소가격은 기존 및 신규 사업 중 유의미한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되는 전 사업에 적용됩니다. SK텔레콤은 내부 감축 목표에 따른 세부 이행 추진 시 내부 탄소가격으로 인한 영향과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탄소가격 설정

SK텔레콤의 내부 탄소가격은 IEA의 NZE와 APS 시나리오를 참고해 설정하며, 감축 목표 및 국내 시장 변동성 및 유관부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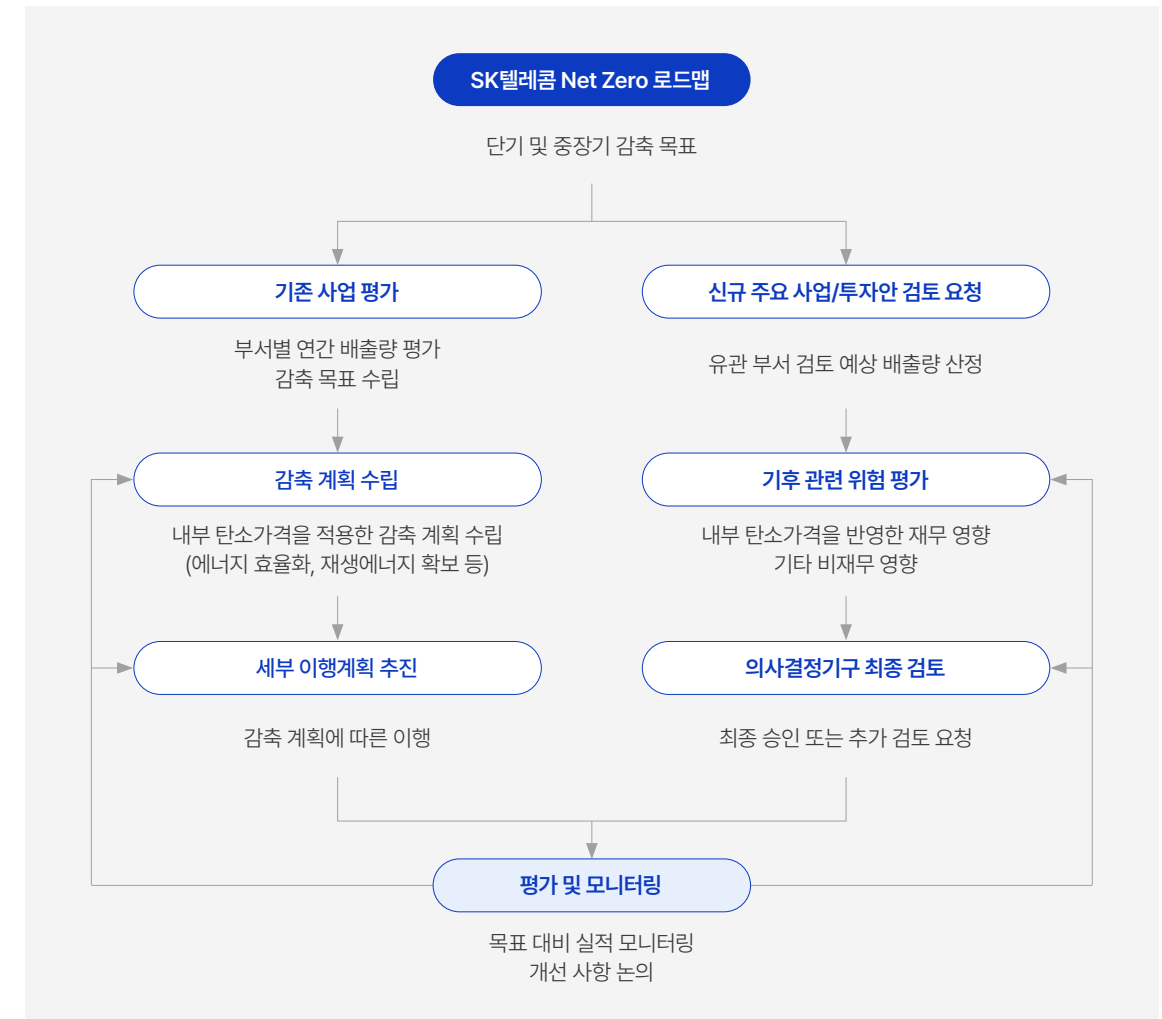
내부 탄소가격¹⁾

(단위: 원/톤)

단기	44,000
중기	78,000
장기	150,000

1) SK텔레콤의 단기, 중기, 장기 시점 구분에 따른 내부 탄소가격으로, 해당 기간 내 적용하는 내부 탄소가격의 평균값. SK텔레콤의 내부 탄소가격은 SK텔레콤의 2050 Net Zero 목표 및 세부 이행계획, 국내외 정책 및 시장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대값은 2050년 188,000원/톤임

내부 탄소가격 적용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목표

기후 목표 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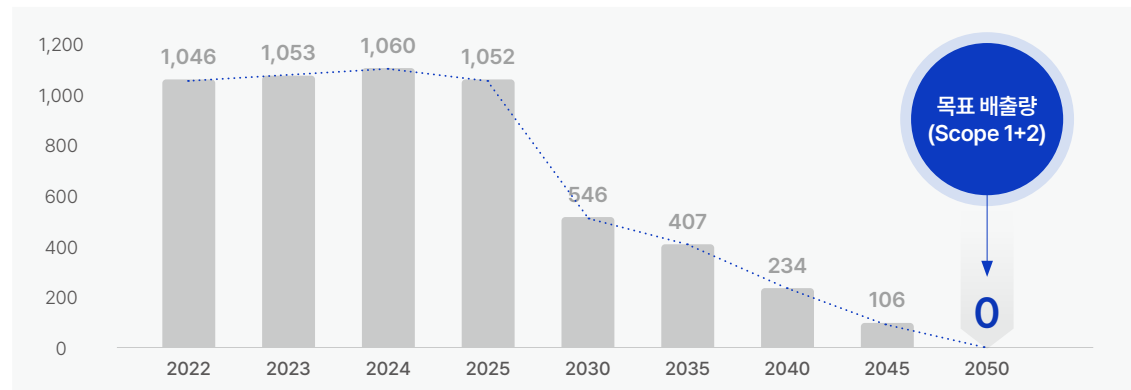
SK텔레콤 2050 Net Zero 목표

SK텔레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글로벌 기조에 발맞춰 2050 Net Zero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경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에도 가입하는 등 Net Zero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2020년 대비 직·간접배출량(Scope 1+2)을 47.7%,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을 22.3%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적극적인 탄소 감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50년에는 배출량의 약 99%인 간접 배출량(Scope 2)은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활동과 재생에너지 활용(RE100)을 통해서 'Zero(0)'화하고, 추가적인 감축이 불가한 잔여 배출량은 탄소 상쇄를 통해 2050 Net Zero 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은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66.9%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25년 105만 톤 대비 50만 톤 감소한 55만 톤입니다. 이를 위해 싱글랜(Single RAN) 사업, AI기반의 전력 절감(Power Saving), 5G 공동망 등 에너지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전력 사용량 최소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하는 전력은 녹색프리미엄 사용 확대, PPA 등 재생에너지 외부 조달 계약 체결, 자체 구축 태양광 발전 시설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매년 적극적인 탄소 감축을 통해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et Zero 이행 계획에 따라 매년 감축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변화하는 기후변화 이슈 및 시장에 따라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여 Net Zero 로드맵을 고도화하겠습니다.

SK텔레콤 2050 Net Zero 로드맵(시장기반)

(단위: 천tCO₂e)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련 정보

온실가스 감축 노력

SK텔레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장비 통합, 고효율 통신장비 개발과 도입, 노후 냉방기기 교체, 사옥 내 냉난방 조절, 업무 용 친환경차 비중 확대¹⁾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통신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방법론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약 99%를 차지하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다양한 감축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사회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으며, 이행 상황을 해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해 점검 받으며 오는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 2025년 전체 업무용 차량 286대의 62.9%인 180대를 환경 친화적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SK T-타워 포함한 전국 23개 사옥에 101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탄소배출권 확보

SK텔레콤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 주민을 대상으로 쿡스토브 보급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SK렌터카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제주도 내 SK렌터카 전기차를 대상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2023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기차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SK렌터카가 'K-EV100' 로드맵에 따라 구매·운영할 계획인 전기차 28만 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 감축실적을 인증 받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0년 간인 2033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양사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9만 톤입니다. 이 사업은 SK렌터카 소유의 전기차에 차량 총 주행 거리와 배터리 누적 충전 데이터를 전송하는 OBD(On Board Diagnostics,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를 설치하고, SK텔레콤의 IoT 전용 통신망인 Cat.M1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하는 ICT 기술 기반 감축 사업입니다.

지표 및 목표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련 정보

에너지 소비 감축

SK텔레콤은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와 공급망을 제외한 42개 주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산정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고, 수치는 에너지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사용 고지서를 기반으로 집계합니다. 에너지 집약도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별도 기준 매출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자연 공조 냉방기 사용과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에너지 절감 실적은 실측 데이터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SK텔레콤은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해 주 장비와 부대 장비의 발열 해소를 통한 냉방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지국-중계기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 노후 냉방기기 교체 등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산업 특성상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트워크 구조 혁신과 망 슬림화를 기반으로 사옥 에너지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 제조사와 에너지 효율 관련 지표를 공동 개발하고 관리하며, 액티브 냉각과 같은 신규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R&D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농어촌 등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나눠 각각 통신망을 구축한 뒤, 서로의 망을 공동으로 이용해 직접 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망 구축은 중복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전력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K텔레콤은 다양한 에너지 소비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업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자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통신망 공급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특성상 임의로 장비 운영을 중단하기 어려워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5G 서비스 도입 이후, 안정적인 품질과 커버리지 제공을 위해 단기간 내 5G 장비가 집중적으로 증설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5년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SK텔레콤은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전국의 사옥, 기지국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 부지에 4.9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2025년 5,565MWh를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09.2GWh, 2024년 232GWh에 이어, 2025년 한국전력공사와 284G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5년 총 전력 사용량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정책 지원 부족과 미성숙한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녹색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PPA, REC 등 다른 RE100 이행 수단 대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책과 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PPA, REC 등 다양한 이행 수단을 조합함으로써 RE100 이행 선언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SK텔레콤은 2024년 6월 SK이노베이션 E&S와 5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 2027년 7월부터 2047년 6월까지 20년간 연간 약 64G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가적인 PPA 계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PPA 제도는 고압 전력만 PPA 계약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국에 설치된 SK텔레콤의 저압 통신장비들은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PPA 대상 범위를 저압 부하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PPA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SG Management

Environmental	60
Social	72
Governance	130

Environmental

환경경영	61
자연자본	62
순환경제	67



환경경영

환경경영 전략

SK텔레콤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고객,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CEO가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2050 Net Zero'¹⁾ 환경경영 목표를 발표하고 탄소 감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새롭게 수립한 환경경영 목표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방침과 환경 영향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SK텔레콤의 환경경영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환경경영 정책](#)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 시스템 고도화', 'Green Culture 조성'을 추진 과제로 하는 환경경영 전략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 용수/폐기물 투입 및 배출 실적 관리 등으로 기후변화뿐 아니라 자연자본 보전, 순환경제 구현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획득,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CEO를 포함한 유관 사업 부문 관리자에게 Net Zero 관련 KPI를 도입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활동에 대한 KPI를 설정하고, ESG KPI 평가에 연계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실천력을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후 회의실 불끄기, 오래된 이메일 삭제, 화장실/샤워실 물 절약 운동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도 적극 펼쳐 전사 차원의 Green Culture의 정착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 Net Zero: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감축하는 온실가스 양을 합한 순배출량이 'Zero(0)'가 되는 것

환경경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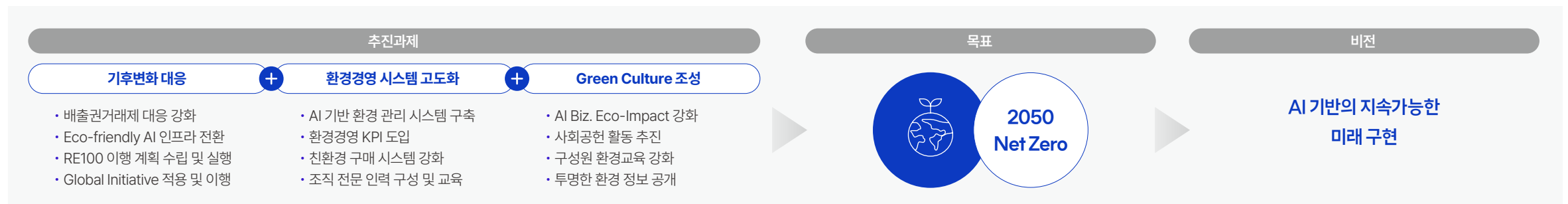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연 1회 기후변화 대응 실무 역량 강화와 기후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경영진과 실무진을 포함한 사내 전체 구성원들 대상의 환경경영 교육(온라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기후·용수·폐기물·생물 다양성·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영향도, Impact), 환경으로부터 회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의존성, Dependency) 교육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 대상 구성원 중 86.4%가 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25년도 환경경영 교육 주요 내용

- SK텔레콤의 환경경영 체계와 전략
- 기후변화 대응
 - 회사의 탄소배출, 에너지 소비 현황 및 목표
 -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이에 대한 외부 정보 공개 및 공시 활동
 - 에너지 효율 향상의 중요성 강조 및 에너지 소비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한 행동 강령
 - 자연자본 관련(용수, 폐기물, 순환경제 등) 우리 회사의 현황 및 관리체계



환경경영 전략 체계



자연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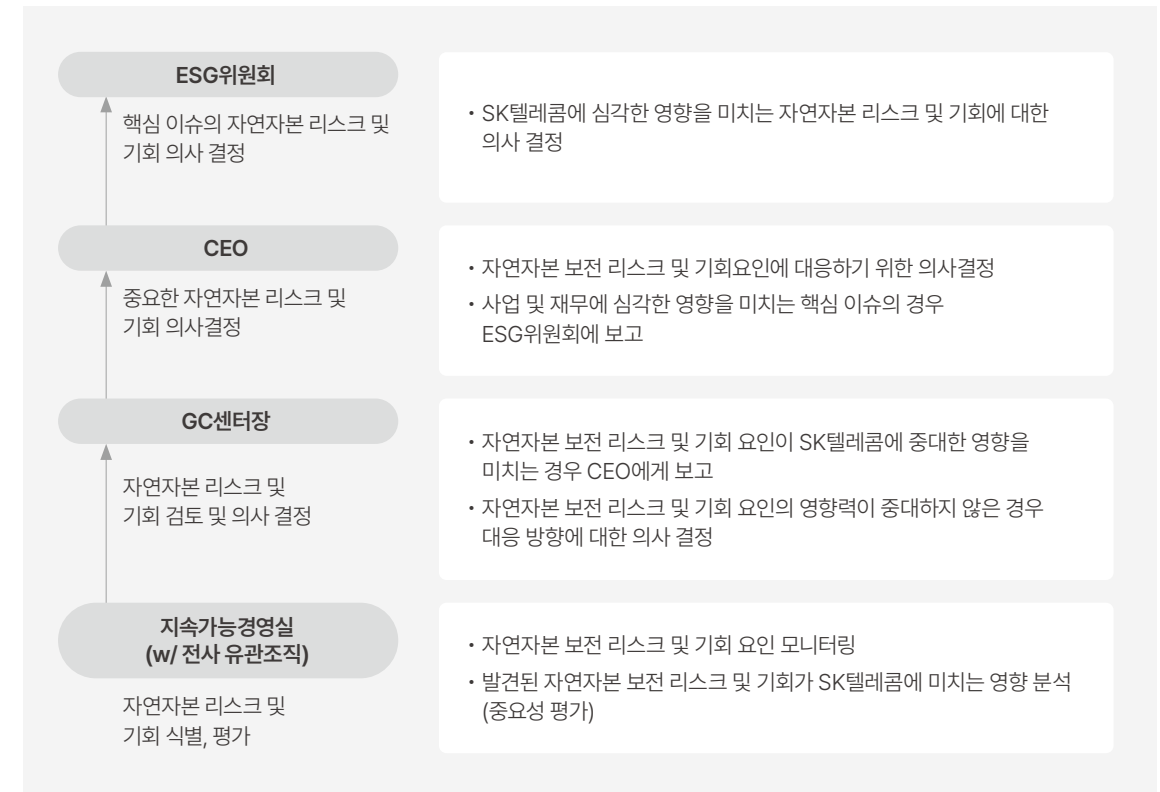
거버넌스

자연자본 보전 체계

SK텔레콤은 자연자본 보전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검토되는 다양한 자연자본 보전 관련 위험은 조직의 다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는 내·외부 환경 분석, 이슈 식별 및 Pool 구성, 중요성 평가, 핵심보고 이슈 도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자연자본 보전에 대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이 발견되면 ESG총괄인 GC센터장에게 보고하며, 자연자본 보전에 대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이 SK텔레콤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 조직의 성과 목표 설정,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 주요 조치계획 수행 여부를 의사결정합니다. 중대하지 않은 이슈 사항은 ESG총괄인 GC센터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실시하며, 중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CEO에게 보고합니다. CEO는 중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실시하며, 중요한 이슈 중 핵심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사회 및 ESG위원회에 보고해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자연자본 보전 의사 결정 프로세스¹⁾



1) ESG 리포트 경영진 보고(월 1회) 등을 통해 수시보고

전략

자연자본 보전 정책

SK텔레콤은 자연자본의 보전, 복원 및 확대를 위한 투자 및 활동 원칙(Net Positive Impact)에 따라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자본 보전을 위해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KBCSD,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여하고 있으며, KBCSD와 환경부가 2016년에 설립한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Business N Biodiversity Platform, 이하 BNB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출범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에도 참여하여, 자연자본 공시에 대한 준비와 확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자본 보전 정책](#)

산림훼손 방지 정책

SK텔레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 확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은 재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후 관련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자연자본 보전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은 SK텔레콤의 통신 장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산불 조기 모니터링을 위한 비상통신망을 지자체, 산림청과 협약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기지국 전소에 따른 통신망 두절에 대비하여 소방청과 휴대전화 무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50 Net Zero를 위한 3대 Green 전략 중 한 분야인 Green Asset의 일환으로, 조림 사업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Green Operation)과 재생에너지 사용(Green Energy)을 통해 달성하지 못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분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조림 사업 추진을 통해 감축사업 배출권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쇄하고, 산림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산림훼손 방지 정책](#)

자연자본 보전 활동

SK텔레콤은 식별된 리스크 및 중요도를 기반으로 적절한 완화방안을 검토합니다. SK텔레콤 기지국이 생태·경관보존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의 지역에 위치해야 할 경우, 주변 지역으로 회피하여 설치하거나, 지역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기지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SK텔레콤 인프라가 미치는 영향도를 최소화합니다. 구축과 운영 단계에서는 SK텔레콤의 인프라로 인한 산불 발생 및 주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공법과 자재를 검토 및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간지역에 설치되는 기지국 및 시설들을 중심으로 난연성 내화자재를 적용하고, 소화설비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구성요소들을 인프라 내부로 변경 설치하는 공법 등을 개발하여 적용 중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5G 공동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G 공동망 사업을 통해, 농촌 및 산림지역에 대한 이동통신 시설의 중복 투자 및 반복 공사/관리를 줄여 나감으로써 자연자본 보전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철거 단계에서도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 및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페안테나 장비를 재활용하여 위장형 가림막을 생산하고, 폐케이블 드럼을 수거 및 수리하여 광케이블 제조사로 재공급·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페안테나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약 17톤을 재활용하고, 폐케이블 드럼(평균 무게 51kg의 목재 드럼) 3,046개를 평균 2회 재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광케이블 중 품질이 양호한 광케이블 1,295km를 재사용하였습니다.

전략

생물다양성 보전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31일 창립 41주년을 기념하여 SK텔레콤 임원 110여 명이 서울숲 내 총 450m²(약 135평)부지에 '책 잇는 숲'을 조성했습니다. '책 잇는 숲'에는 멸종 위기 식물(국가 보호종)에 대한 개체 수 보호 및 서식지 보전 활동으로 미선나무 280그루, 흑산도 비비추 21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금송, 측백나무, 산수국, 고광나무 등 총 3,416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정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 생태계 복구가 절실한 지역인,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산불 피해지역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SK텔레콤과 유한킴벌리 임직원·가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꿀벌의 먹이원인 헛개나무, 미선나무, 노랑무늬붓꽃 등 산림청 지정 희귀수종을 포함해 총 1,5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산림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한킴벌리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SK텔레콤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 9월, 환경 분야 ESG 선도기업인 유한킴벌리 및 산림 복원 전문 NGO '평화의숲'과 ESG 실천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양사의 인프라와 친환경 경영 역량을 결합하여 산불 피해지 복구, 사내 자원순환 체계 구축, 친환경 캠페인 협력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청구서와 모바일 멤버십 운영

SK텔레콤은 종이청구서 대신 전자청구서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의 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2,332만 명, 전자청구서 이용률은 전체 대비 약 94%로 앱 청구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T멤버십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했던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 에코카드로 전면 교체하여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조사결과¹⁾, 연간 약 6.6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약 14.9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였습니다.

1) T멤버십 카드 한 장당 플라스틱은 약 4.88g, 탄소배출량은 11g입니다.

과학적 산림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5개년 프로젝트 추진

SK텔레콤과 유한킴벌리는 산불 피해로 인해 생태계 복구가 절실한 경북 안동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과학적 실행을 위해 생태계 복원 기술 스타트업인 '인베랩'과 협업하여 복원 대상지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있으며, 생태계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산림 복원 모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기 위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및 밀원식물(헛개나무, 미선나무, 노랑무늬붓꽃 등) 중심의 다수종 식재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수자원 관리

ENCORE¹⁾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 구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무선 통신 서비스 산업군(Wireless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Volume of water use) 분야에 대한 영향도가 작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시설 중 직접적으로 용수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시설은 없으며, 주로 사옥 근무자들의 생활과 건물의 냉난방 등을 위해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K텔레콤은 체계적인 용수 효율 관리와 사용량 절감을 위해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의 환경 목표 내에 용수 사용량을 추가하여 전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은 27개 사옥의 수도 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매월 개별 산정한 후, 이를 전사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월간·연간 단위로 실적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와 공급망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총 용수 사용량을 별도 기준 매출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용수 집약도를 산출합니다.

SK텔레콤은 CDP의 'Technical Note on Water Accounting'을 참고하여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용수 사용량을 관리합니다. 용수 취수량(Water Withdrawal)은 각 사옥 상황에 따라 지역별 상수도 공급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수도(Third Party Source)와 각 사옥에서 취수한 지하수(Groundwater) 사용량을 더한 양입니다. 용수 방류량(Water Discharge)은 각 사옥의 하수도(Third Party Destination)로 배출되는 양으로, 대부분의 사옥에서 용수 취수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사옥에서는 냉각탑 투입 등을 통해 비산(Evaporate)되는 용수의 양을 별도로 계속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방류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수의 사용량(Water Use)은 용수의 취수량과 동일하며²⁾, 용수의 소비량(Water Consumption)은 '용수 취수량(Water Withdrawal)-용수 방류량(Water Discharge)'입니다.

1) ENCORE(Exploring Natural Capital Opportunities, Risks and Exposure): Global Canopy, UNEP FI and UNEP-WCMC 등의 글로벌 기관들이 연합하여 산업군별 경제적인 활동이 자연에 어떤 의존성과 영향력을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만든 틀

2) SK텔레콤이 취수하고 있는 상수도와 지하수는 모두 즉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청수(Fresh Water)로 사옥 내 생활용수와 냉난방수 등으로 모두 사용 중임. 이에 따라 용수 취수량과 용수 사용량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음

위험관리

자연자본 보전 리스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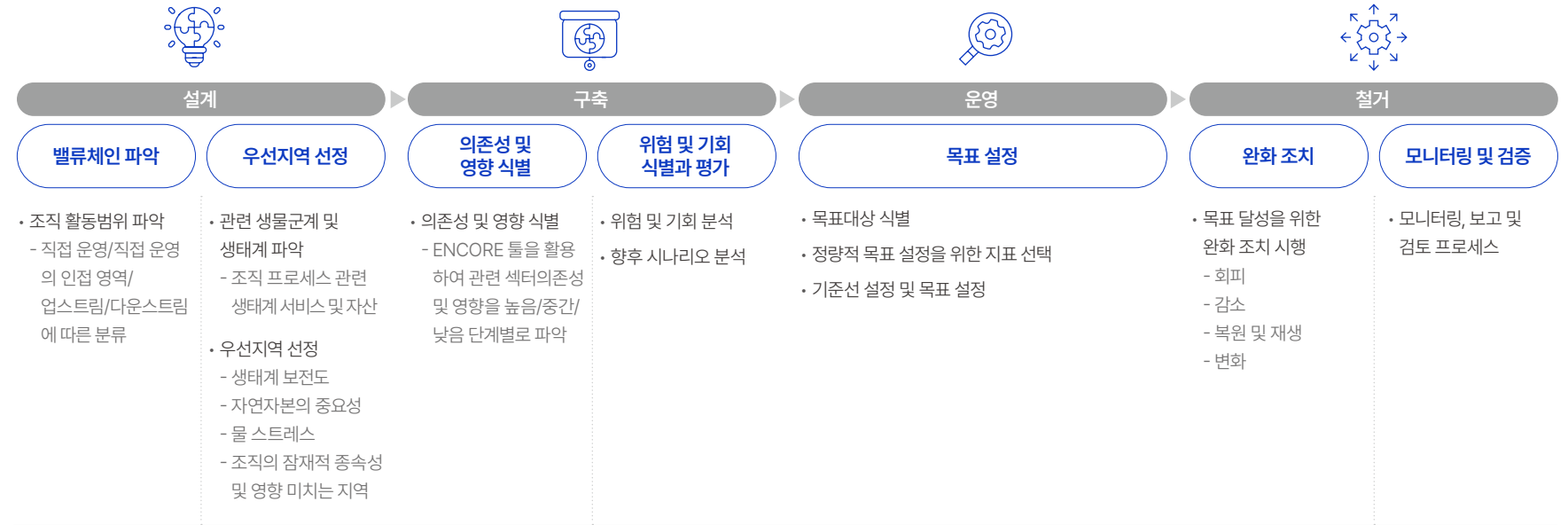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계, 구축, 운영, 철거 단계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자본 보전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TNFD¹⁾의 LEAP Framework²⁾를 SK텔레콤의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SK텔레콤은 설계 단계에서, 자연자본 보전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SK텔레콤의 인프라가 설치되는 장소와 해당 장소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Value Chain을 분석합니다. SK텔레콤의 활동 내용 및 인프라 설치 장소가 자연자본 보전 및 산림훼손 방지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고 영향도가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 고객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자본 보전 및 산림 훼손 방지를 할 수 있는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합니다.

1)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각국 정부 및 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연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환경 협의체로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지원함

2)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의 줄임말로, TNFD에서 각 기업의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는 접근법

자연자본 보전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자연자본 보전 리스크 평가 예시

SK텔레콤 활동	활동장소(행정구역)	위치평가		지역특징/의존도/영향도	중요도 및 리스크 평가 결과	완화 방안
		생태경관 보전지역 여부	야생생물 보호구역 여부			
서울 남산지역 5G 서비스 제공	서울시 중구 예장동	O	X	신갈나무군집 발달 남산소나무림 지역	상	보전지역 회피시설
동강지역 5G 서비스 제공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O	X	수달,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종 서식	상	5G 공동망
노후 안테나 교체사업	전국	X	X	교체 안테나로 인한 폐기물 발생	중	폐기물 재활용
서울지하철 시청역 승강장 5G 품질강화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X	X	도심 시설물 내 장비 설치 건 (영향도 無)	하	-

지표 및 목표

지표

용수 사용

2025년 용수 취수량(=용수 사용량)은 672,704m³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며, 이는 사옥 근무 인원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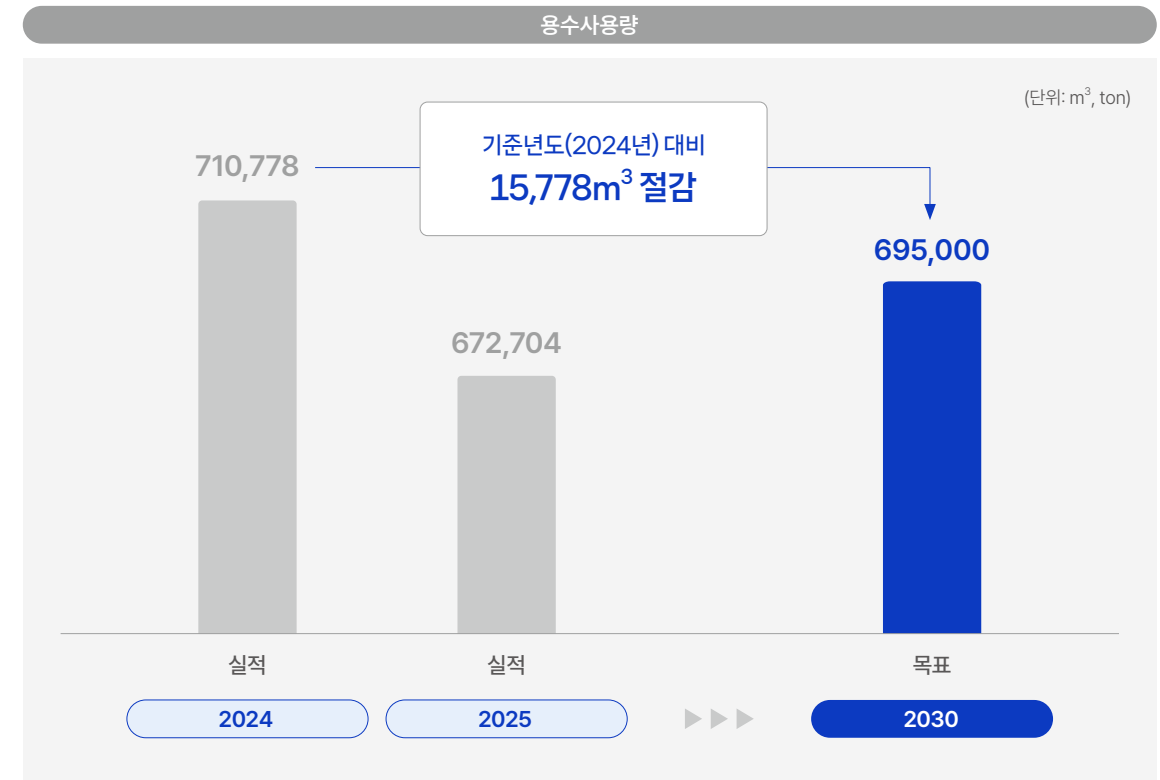
SK텔레콤은 건물 냉각탑 대수 조정 운영을 위한 급수량, 배수량, 증발량 조정, 화장실과 샤워시설 절수 밸브 설치 등 용수 취수량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대상 용수 절감 캠페인을 기획하고, 용수 절감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본사 T-타워 등 5곳에 중수도 시설(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별도의 우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톤의 우수를 미화, 청소 등의 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용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3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용수 방류량은 649,440m³이고, 용수 소비량은 23,264m³입니다. 용수 소비량의 대부분은 냉방을 위해 냉각탑에 투입된 용수입니다.

SK텔레콤은 2024년부터 용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2030년에는 기준년도인 2024년 실적 대비 15,778m³ 감소한 695,000m³가 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용수 사용량 2030 목표



순환경제

거버넌스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순환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와 추진조직, 실행조직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규제와 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순환경제 추진 방향성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며, 순환경제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와 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순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 회수, 제품 수명 연장, 재활용률 제고 등과 관련한 의무조항 법제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전사 순환경제 전담 조직인 'ECO-LOOP TF'를 발족하였습니다. ECO-LOOP TF는 주요 사업 조직과 SK브로드밴드가 참여하는 조직 간 협업 체계로 자원순환 리스크 대응과 실행 체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TF는 자원순환 관련 리스크 요인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 및 추진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회수 및 재활용, 순환형 서비스 설계 등 다양한 과제 추진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정제하며, 개별 조직과 긴밀히 협력해 순환경제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순환경제를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리스크대응을 넘어 사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전사적 프로세스 혁신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와 ESG위원회는 순환경제 전략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순환경제 관련 핵심 사안을 최종 검토하고, 주요 과제를 심의·승인합니다. 핵심 리스크나 이슈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리며, 중장기적 방향성 수립과 주요 과제의 성과 모니터링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순환경제 전략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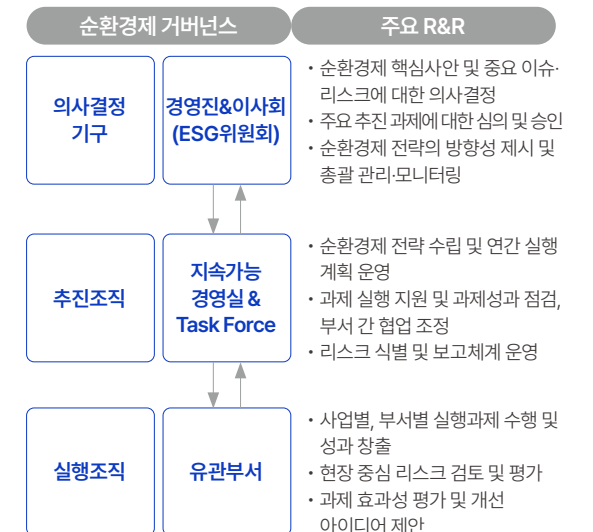
추진조직

순환경제 추진조직은 지속가능경영실과 Task Force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조직은 순환경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조직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합니다. 조직 간 협업 및 과제 실행 지원, 리스크 식별 및 보고체계 운영, 과제 성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과 더불어, 자원절감, 운영 효율화 등 내부활동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사 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ECO-LOOP TF는 사업 특성과 조직별 상황에 맞는 과제를 발굴 및 고도화하며, 주요 이슈 및 리스크 요인을 관리합니다.

실행조직

순환경제 실행조직은 각 유관 부서 및 현업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조직과 협업하여 순환경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합니다. 또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활동을 주도하며, 순환경제 대응방안과 신규과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행조직은 추진조직과 협력하고 구체적 성과 데이터를 제공하여 체계적 평가와 전략적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실행조직은 전략의 체계적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순환경제 거버넌스



전략

정책

SK텔레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순환경제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 환경 위기, 글로벌 규제 강화 등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ICT 기반의 기술 혁신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고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순환경제는 자원의 흐름을 정교하게 다듬어 자원 효율성과 본원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AI 및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운영 혁신, 순환 가치를 통합한 서비스 개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생태계 구축, 그리고 자발적 실천을 이끄는 문화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환경제 전략은 전사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각 사업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행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순환경제 원칙을 경영 전반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하여 자원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며, 기업 고유의 ESG 경영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전략 체계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순환경제 전략 'RE:FINE'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FINE 전략은 Reuse, Recycle, Reduce 등 순환경제의 다양한 행동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는 'RE:'와 운영 전반을 정교하게 다듬는다는 의미의 'Fine'이 합쳐진 키워드로 자원의 흐름을 개선하고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감축을 넘어 전사적 운영 혁신과 이해관계자 협력, 서비스 개선과 실행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순환경제 실행체계로 구체화됩니다.

SK텔레콤은 RE:FINE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행체계의 내재화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실행 원칙

SK텔레콤의 RE:FINE 전략은 Reduce Waste, Engage Stakeholders, Facilitate Optimization, Implement Culture, Navigate Innovation, Enhance Performance 를 축약한 키워드로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6개 실행 원칙과 연결됩니다. 또한, 각 실행 원칙은 생태계(Ecosystem), 조직문화(Culture), 운영(Operation), 비즈니스(Service) 의 4개 추진 영역 및 세부 과제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순환경제 전략체계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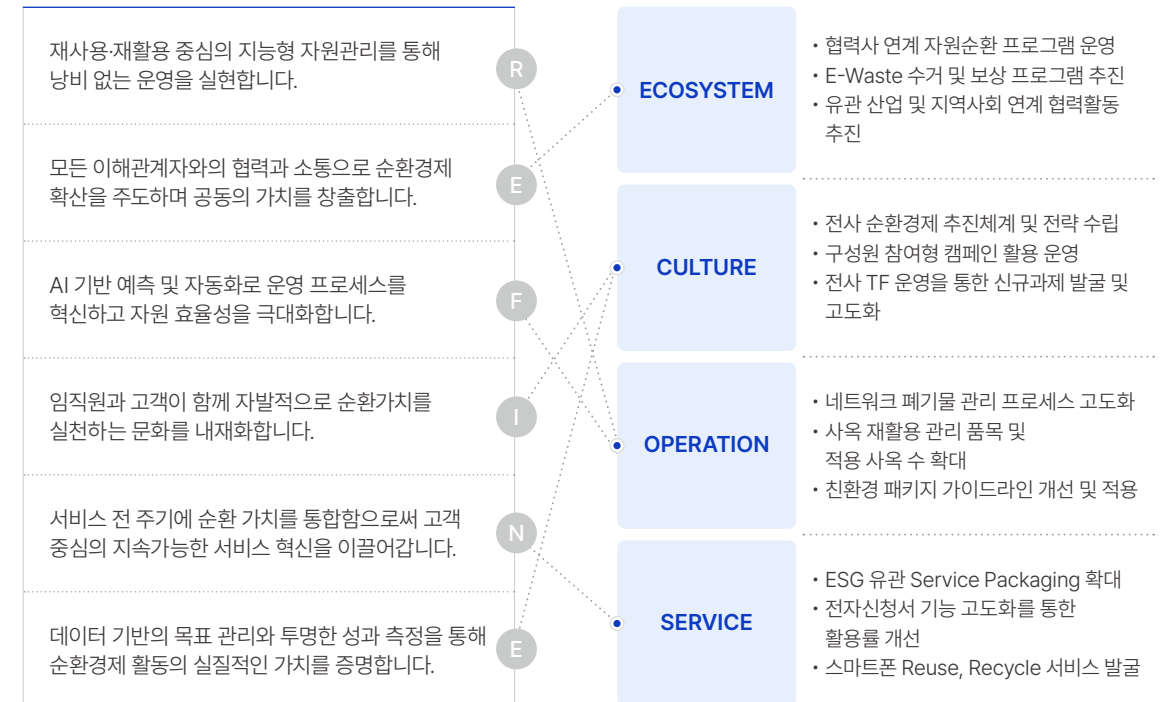
RE:FINE을 통한 순환경제 실행 체계 내재화 및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순환경제 실행원칙

추진영역

주요과제



전략

폐기물 관리

SK텔레콤은 ENCORE의 산업 구분에서 무선 통신 서비스 산업군에 해당하며, 폐기물(Solid Waste) 분야에서 낮은 영향도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없으며, 주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피스, 연구소, 체육시설, 연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 인증을 받고 있으며, 환경경영 시스템 하에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경영 매뉴얼, SK텔레콤 사옥 환경 관리 매뉴얼, 폐기물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전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각 사업장(사옥) 별로 실적을 집계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외부 기관을 통해 집계된 실적에 대한 데이터 정확성을 체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사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연간 실적 점검과 차년도 목표 수립,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실적 집계를 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량을 추가 집계 및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는 서비스 종료, 장비 수명 종료, 고장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불용 처리가 됩니다. 이후 매각의 과정을 거쳐 SK텔레콤 외부에서 재사용되거나, 분해되어 재활용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바이사이클(BI:CYCLE) 플랫폼 기반 사내 자원순환 체계 도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제로 유한킴벌리의 자원순환 플랫폼인 '바이사이클(BI:CYCLE)'을 SK T-타워에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 사내 오피스에서 발생하는 폐헨타월을 분리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프로세스를 가동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순환성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기업 및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하고 정량적인 ESG 경영 성과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5년 10~12월 실적	
탄소배출 감축량 (kgCO ₂ eq)	3,259.49
총 재활용량(kg)	2,127.63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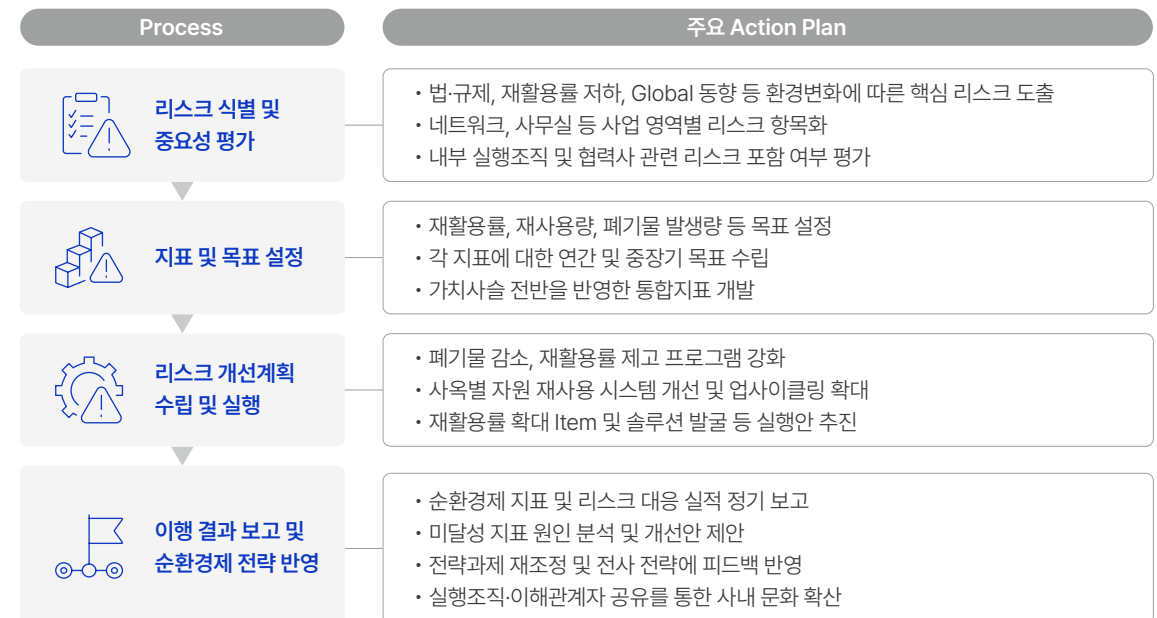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순환경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및 중요성 평가 단계에서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환경제 관련 환경 변화 및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출하여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식별된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핵심 성과 지표와 관리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된 리스크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SK텔레콤은 경영 활동 및 인프라가 순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식별된 리스크와 개선 조치 현황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되며, 관련 이행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필요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지표

폐기물 및 재활용

2025년 SK텔레콤의 총 폐기물 배출량은 4,463톤입니다. 이 중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은 3,415톤, 사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048톤입니다. 인프라 폐기물은 네트워크 안정 운용을 위해 투입되는 축전지의 교체 시기 도래(2년 주기)로 인해 2024년 3,224톤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사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노력과, 국가에서 정해주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피-무게 환산 계수 변화(0.2kg/리터→0.174kg/리터) 등의 사유로 2024년 1,175톤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SK텔레콤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운반/처리 업체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 관련 부처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최종 폐기물의 처리 형태와 방식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기물 통계 연보를 통해 추정된 처리 방식별 처리량은, 재활용 3,818톤, 매립 273톤, 소각 298톤, 알 수 없는 처리 방식 73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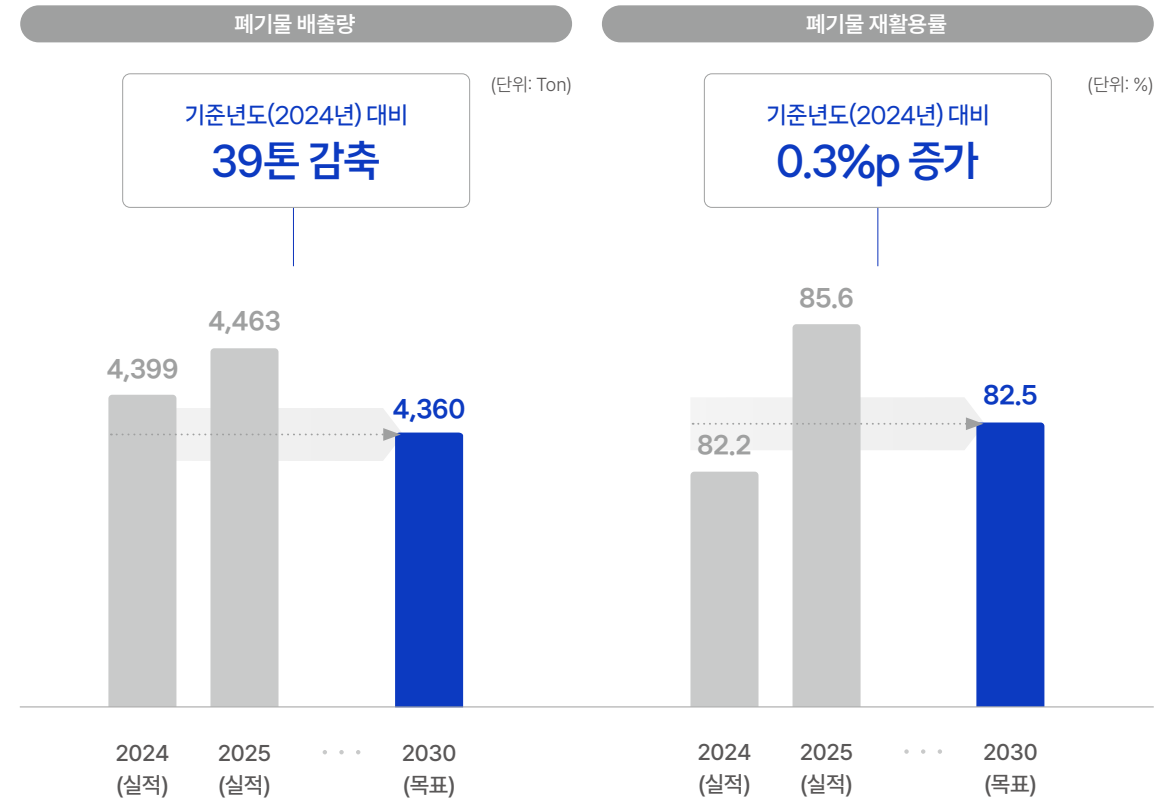
SK텔레콤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절감을 위해 음식물 처리기를 지속적으로 도입, 확산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약 5,500만 원의 예산¹⁾을 투입, 12개 사옥에 14대(대형 3대, 중형 2대, 소형 9대)의 음식물 처리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은 2023년 186톤, 2024년 54톤, 2025년 56.6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 음식물 처리기 14대에 대한 연간 렌탈비

SK텔레콤은 폐기물 배출량과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2단계에 걸쳐 분리수거를 시행합니다. 우선 사무실 내에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품통을 함께 비치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각 사옥 폐기물 관리 인원이 2차 분류 작업을 진행하여 일반쓰레기 중 추가 재활용 가능 품목을 선별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을 종류별로 취합하여 최종 배출합니다.

연도별 폐기물 배출량 실적과 목표는 전국 27개 사옥과 4개 인프라 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합입니다. SK텔레콤은 폐기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에는 4,360톤으로 감소시키고, 폐기물 재활용률도 꾸준히 상승시켜 2030년 82.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량은 정부의 규제 및 인허가 상황, 신규 서비스 출시/종료 관련 인프라 구축/철거 계획 등 중장기 네트워크 운영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30 폐기물 목표



지표 및 목표

목표

순환경제 중장기 목표

SK텔레콤은 자원의 선순환과 ESG 기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RE:FINE 전략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협력사와의 연계, 구성원 실천, 운영 고도화, 서비스 전환 등 네 가지 전략영역을 중심으로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과제를 전사적 체계로 내재화하고, 업종 간 협력 및 고객 접점까지 확장함으로써 가치사슬 전반에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조직 내부부터 외부 파트너,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 가치사슬에 걸쳐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리더로 도약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폐통신장비의 처리 과정을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폐기물에서 나오는 핵심광물을 확보 및 국내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 중장기 로드맵



Social

구성원	73
안전보건	83
인권경영	91
고객중심경영	96
네트워크 안정성	101
공급망 관리	107
지역사회	119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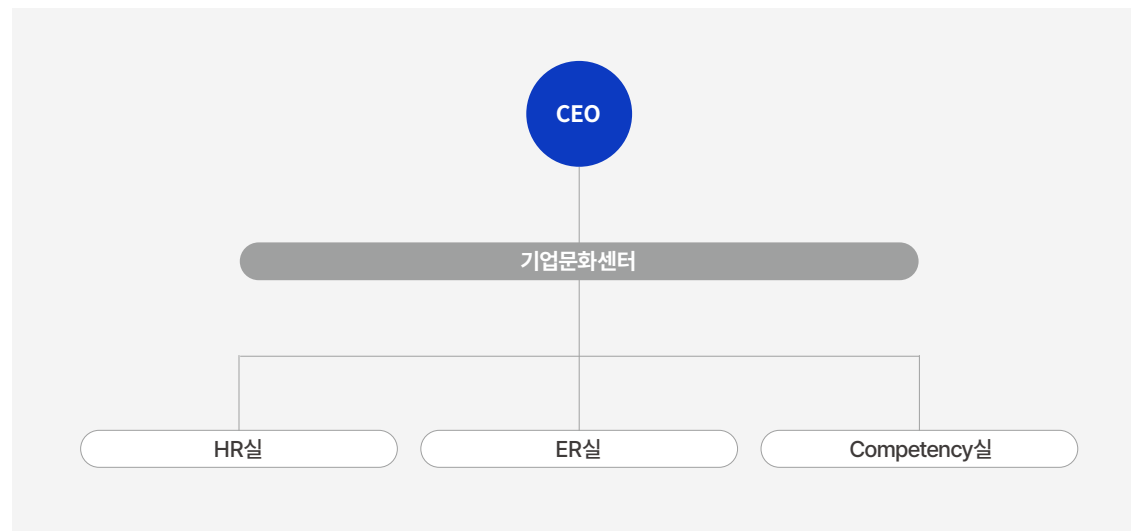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위임 사항

SK텔레콤은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대한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CEO 중심의 인적 자원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EO 직속의 기업문화센터장이 인재 육성 및 채용 등 주요 인사 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사업 전략과 연계된 구성원 육성, 비전 실현을 위한 리더십 체계 구축,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AX 전환 가속화를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성장을 조직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역할과 책임, 권한 위임 사항은 사규 내 「전사공통규정 인력관리」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역량 및 향후 개발 계획

의사결정기구는 통신·AI 사업 및 조직 운영 경험을 보유한 CEO와 HR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문화센터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I 사업전략과 AX 전환 방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CEO는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와 AI DC·AI B2B 등 AI 기반 신규 성장 사업 확대를 주도하며, AX 전환과 사업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센터장은 HR, 조직문화, AX 기반 조직 혁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 조직문화 혁신, AX 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확보·육성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 의사결정기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 방법 및 빈도

SK텔레콤은 CEO와 기업문화센터장 간의 긴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센터장은 인재 육성, 핵심인재 확보, 조직문화 혁신, AX 역량 내재화 등 인적 자원 관리 전반의 주요 현안과 추진 현황을 월 단위로 CEO에게 정기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CEO는 구성원 경쟁력 강화와 AX 전략 실행을 위한 주요 방향성과 실행 과제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고려 방식

인적 자원 관련 주요 의사결정 시 대내외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SK텔레콤의 중장기 사업 전략 간의 연계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 관련 핵심 경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이 SK텔레콤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

구성원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절충 고려

SK텔레콤은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따른 단기적 비용 지출보다, 인적 자산 내재화와 AX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스킬링 교육과 유연한 보상 체계 구축 등 당장의 재무적 부담이 수반되는 과제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핵심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내부 역량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얻는 전략적 효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방식

SK텔레콤은 CEO 감독 하에 인적 자원 관련 핵심 경영 과제 및 과제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인적 자원 전략의 목표 달성을 관리합니다.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SK텔레콤은 CEO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어 인재 채용 및 육성 등 인적 자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은 앞서 기술한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조직

SK텔레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HR실, ER실, Competency실의 세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체계적인 인적 관리를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조직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HR실은 채용, 인사 평가, 보상, 인력 계획 등 조직 전반의 인적 자원 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ER실은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노사 협의회 운영 및 노동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Competency실은 구성원의 AI, 직무역량,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여 개인의 성장과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이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담 조직 주요 업무

HR실 (Human Resource)

-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 운영
- 성과 기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수립
- 전략적 인력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 운영
- 회사 전략과 Align된 최적의 조직 구조 및 리더십 확보

ER실 (Employee Relations)

- 직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 및 지원
- 공정한 포상 및 징계 시스템 강화를 통한 건강한 기업문화 확산
- 구성원 몰입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근무관리/업무 환경 조성
- 정기적인 임금 및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

Competency실 (Competency)

- AX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구성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조성
- 직무별 역량 분석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운영

전략

구성원 관련 위험 및 기회

구성원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SK텔레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 측면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요인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범위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으로는 우선 AX 역량 전환 필요성 확대를 식별하였습니다. AI 사업전략과 AI DC·AI B2B 등 신규 사업 확대에 따라 AX 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AI 거버넌스 및 조직 변화관리 중요성 확대를 식별하였습니다. AI 활용 확대와 함께 데이터·보안·AI 거버넌스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업무 방식과 협업 구조에 대한 조직 적응과 변화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Human-AI 협업 기반 생산성 혁신을 식별하였습니다. 반복·분석 업무는 AI가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은 고객전략 중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Re/Up-skilling 통한 AI DC·AI B2B 중심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기회 요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AI DC, GPU·Cloud를 기반으로 AI Infra 및 AI B2B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AI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위험	위험1	AX 역량 전환 필요성 확대	●	●	●
	위험2	AI 거버넌스 및 조직 변화관리 중요성 확대	●	●	●
기회	기회1	Human-AI 협업 기반 생산성 혁신	●	●	●
	기회2	구성원 Re/Up-skilling 통한 AI DC·AI B2B 중심 신규 성장동력 확보		●	●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 기간범위

SK텔레콤은 구성원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SK텔레콤의 사업 전략 의사결정 계획 기간범위와 동일하며, 위험과 기회 식별 결과가 사업 전략 수립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현재 및 예상 영향

SK텔레콤은 구성원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SK텔레콤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AX 역량 전환 필요성 확대	AI 사업 및 AX 추진에 따른 역량 확보 투자 증가와 조직 내 활용 격차 발생	AI 사업 경쟁력 및 AX 전환 가속화를 위한 AX 전문성 강화 투자 지속
	AI Governance 및 조직 변화관리 중요성 확대	데이터·보안·AI 윤리 관리와 조직 변화관리를 위한 자원 투입 증가	가치사슬 전반의 AI Governance 및 AX 실행 체계 고도화 필요
기회	Human-AI 협업 기반 생산성 혁신	AI 기반 업무 지원을 통해 일부 영역의 운영 효율 개선	전사 업무 속도 및 운영 효율 향상
	구성원 Re/Up-skilling 통한 AI DC·AI B2B 중심 신규 성장동력 확보	AI DC 및 AI 기반 Enterprise 사업 확대 기반 마련	AI Infra·GPU·Cloud·AI B2B중심 성장동력 및 AI 사업모델 강화

집중된 영향

SK텔레콤은 AI 전환 중심의 사업 구조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는 통신 산업 특성에 따라, AX 역량 확보의 적시성과 AI 거버넌스 기반의 조직 변화관리를 위험과 기회가 집중된 최우선 관리 영역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AI Agent 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사업 운영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X 역량 확보와 조직 변화관리를 통해 구성원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사업 전략과 연계한 육성

SK텔레콤은 각 사업의 성과 창출과 미래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구성원 육성을 위해 사업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한 구성원 육성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AX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구성원(비정규직 포함)이 AI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약 2년간 구성원의 수준에 맞춰 설계된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 누구나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에 AI를 실제 적용하는 AI Frontier를 2024년부터 선발·육성해 왔으며 참여 구성원 500여 명이 실무 적용이 가능한 Solution 도출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프로그램(OJD, On the Job Degree)을 통해 AI 개발자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OJD 프로그램에 구성원 총 125명이 참여하였으며, 누적 46명이 석사 학위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SK그룹의 AI 기반 Data 분석 및 모델링 인증 시험에 참여해, 2023년부터 총 54명이 인증을 획득하여 머신러닝/딥러닝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검증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 SK텔레콤은 구성원 주도의 전사적 AI Transformation(A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성체계 또한 모든 구성원이 AI 중심의 업무 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AX Design Camp, AX Frontier, AX Boot Camp의 3단계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AX Design Camp는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효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AI 활용 지점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SK텔레콤 전 팀(380개 팀)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AX Frontier는 사내 데이터와 플랫폼을 이용해 스스로 AI Agent를 직접 개발해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고도화된 AI Agent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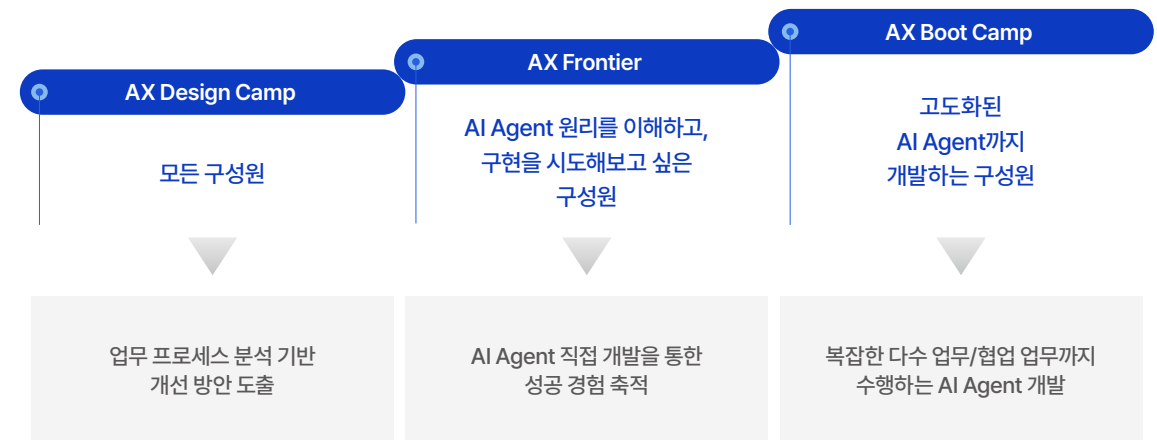
AX Frontier는 발전된 AI 기술과 AI 적용·활용을 위해 변화해 온 사내 환경을 반영하여 AI Frontier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2026년 말까지 누적 800명까지 확대해 전체 조직의 20%의 인력이 AI Agent 개발 역량을 갖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X Boot Camp는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Agent를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AX 전문가 약 100명을 양성 예정입니다.

이러한 3단계의 육성체계로 구성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AX Movement를 지원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AI 기반 글로벌 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의 Global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DC, AI B2B 등 글로벌 사업 조직을 중심으로 영어 기반 업무 환경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영어회화 학습 지원, 글로벌 업무 인프라 정비, 사내 시스템 영문화 등 전사 차원의 지원 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AX 육성체계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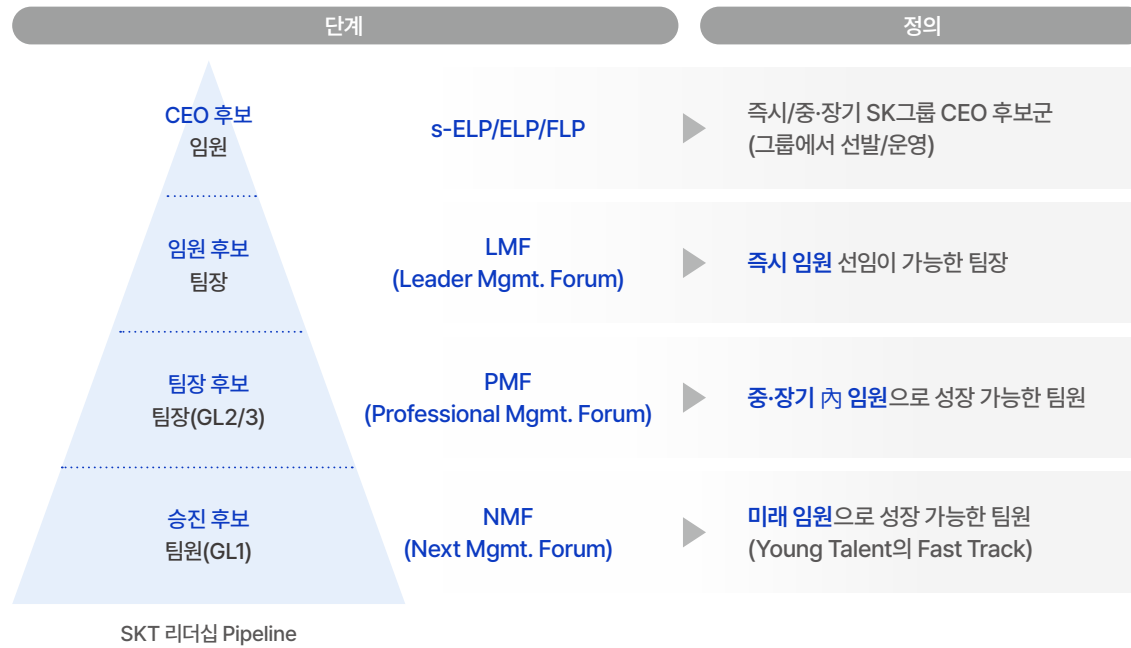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비전 달성 리더십 체계 및 변화관리 프로그램

SK텔레콤은 Dream Team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인재부터 팀장, 임원까지 계층별 차별화된 리더십 개발을 추진하고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과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인재는 Dream Team을 이끄는 미래 리더로서, NMF(Next Management Forum)-PMF(Professional Management Forum)-LMF(Leader Management Forum)의 3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합니다. 2026년에는 리더십 진단과 피드백을 통해 Dream Team 리더로서의 핵심 역할을 이해하고, 과제 중심 학습과 상호 교류를 통해 회사의 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SK텔레콤 핵심인재체계



신임팀장 온보딩과정은 팀장으로서의 초기 적응을 돕고, AX 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합니다. 리더로의 관점 전환, AI 기반 조직 변화관리, 리더의 기본기와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단단한 내면과 압도적 역량으로 변화를 이끌고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전사팀장 Workshop은 Dream Team 리더로서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SK텔레콤 리더의 핵심 역할과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리더십 실행원칙을 수립합니다. 또한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팀장을 대상으로 연중 기본 지키기 과정과 AX 리더십 과정이 운영됩니다. 기본과 원칙 강화, 1 on 1 코칭, Risk Mgmt.를 강조하며, AX 변화추진 리더십 과정, 팀장 맞춤형 AI Agent 개발 과정 등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임원교육은 2025년에는 AI 활용 확대와 고도화되는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AI·보안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2026년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 임원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 및 'Biz. Insight' 공유를 통해 공통 의사결정 기준을 정립합니다. 기본지키기 5대 영역(Compliance, 개인정보·보안, 구성원, SHE, HR/ER)과 AI·Global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임원의 지식·경험 공유를 결합해 경영 판단 역량을 강화합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협력적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리더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리더십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AX 전환 가속화를 위한 문화 및 생태계 조성

SK텔레콤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AX 혁신 가속을 위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변화, AX'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 자동화 수준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본인 업무에 특화된 AI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AI Agent 개발 플랫폼, 지원 시스템, 역량 지원, 지식 공유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AI Agent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내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범용성, 마케팅 및 데이터 추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등 업무 특성과 구성원 니즈에 맞는 사내 플랫폼을 선택, 스스로 AI Agent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사내 플랫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AI Agent는 1,700여 개이며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AI Agent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원이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하는 AX 협업 시스템인 AXMS(AX Management System)입니다. 구성원이 AX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진행 과정,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구성원들이 제안한 전체 아이디어의 진행 현황, 활용 등 전사 AX 지표를 대시보드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원 가능한 교육·기술 안내와 구성원간 문의와 소통이 가능해 구성원의 AX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사분기 구성원이 제안한 AX 아이디어는 200여건에 달하며 그 중 핵심 프로젝트 8개를 선정, Fast Track으로 올 3분기 내 전사 확산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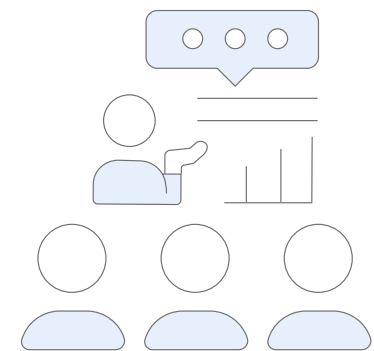
또한 구성원 주도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EBB AX CLU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0명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10회의 스터디 모임을 통해 데이터 정제, AI Agent 개발, 서류 자동 검토, 교차 검증,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AX 아이디어를 수행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마주한 구성원들이 모여 전문가의 핀포인트 코칭으로 함께 답을 찾아가는 AX Lab 또한 운영 중입니다.

SK텔레콤은 사내뿐만 아니라 대외 협업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생태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lobal AI 콘퍼런스 SK AI SUMMIT은 2025년 'AI NOW, NEXT'를 주제로, 국내를 넘어 APAC AI 허브로 도약하는 SK그룹의 AI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50여 명의 글로벌 키노트 연사와 152개의 AI 관련 발표 및 전시 아이টে를 통하여 글로벌 AI 산업의 비전과 핵심 기술 발전을 선보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약 32,100명의 참여자에게 SK그룹이 AI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Amazon/Open AI/Anthropic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 SK그룹의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대내외적으로 AI 비전을 지속 전파하고 우수 인재 육성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선순환을 이끄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SK텔레콤은 신입사원이 빠르게 적응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입문교육에 그치지 않고 배치 후 3개월간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에게는 기대되는 역할과 시기별·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멘티 지원 사항을 안내하며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멘티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전사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입 구성원이 빠르게 적응하고 패기 있는 SK텔레콤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임직원 역량강화 주요 교육 현황

구분	과정명	주요내용	대상
기본	신입교육	회사전략/사업/변화방향 이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Mindset 함양	정규직
	법정 필수교육	구성원과 회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건강·윤리 환경 유지	정규직/계약직
AX 교육	AX Design Camp	업무프로세스 분석 기반 AI 적용 및 개선방안 도출	정규직
	AX Frontier	AI Agent 직접개발을 통한 성공경험 축적	정규직
	AX Boot Camp	복잡한 다수 업무/협업 업무까지 수행하는 AI Agent 개발	정규직
	그룹(mySUNI) AI 과정	모든 구성원의 AI Literacy & AI 개발인력의 전문역량 육성	정규직/계약직
	그룹(mySUNI) 직무 과정	직무별 전문역량 강화 (재무/회계/법무/SCM 등)	정규직/계약직
리더십	신임 팀장교육	리더의 역할 이해 및 인식전환, AX리더십, 리더의 기본기와 책임	정규직
	전사 팀장교육	회사 전략방향, 사업이해, Dream Team 리더로서의 역할인식	정규직
	팀장 AX 과정	팀장의 AX Perspective 및 실무역량 강화	정규직
	핵심인재교육	리더십 파이프 라인 체계 안에서 중장기 임원 후보군으로 필요한 역량	정규직
	임원교육	회사가 지향하는 기본과 원칙, AX를 주도할 임원 리더십	정규직(임원)
학위	학위 지원	OJD(On Duty 형태의 온/오프라인 석사과정)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정규직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정년퇴직 구성원 지원

SK텔레콤은 정년퇴직 예정인 구성원에게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정년퇴직 특별 휴가, 통신비·건강검진·경조사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퇴직 이후의 새로운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요 경비를 부담하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의 3개 전문 교육기관과 협약해 진행합니다. 자기 진단, 진로설계, 재무설계, 생활상담과 같은 1:1 맞춤 컨설팅과 재취업·창업 관련 교육, 재취업·창업 알선, 사후 경력 관리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전직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이외에도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혹은 만 50세 이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넥스트 커리어(Next Career) 휴직제도를 유급으로 운영하여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넥스트 커리어 휴직자에게는 정년퇴직 예정자와 유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대상 지원 프로그램

- 전직/창업 지원 프로그램: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 통신비: 3년간 이동전화 요금 지원
- 정년퇴직 특별휴가: 퇴직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유급휴가 사용 가능
- 경조사: 3년간 재직 구성원들과 동일한 기준의 경조사 물품 지원
- 건강검진: 3년간 재직 구성원과 동일한 검진 기관에서 협약가로 검진 가능
- 퇴임식: 센터장/CIC장 단위 퇴임식 운영 (꽃다발, 선물 등 포함), CEO 명의 공로패 제공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공정한 성과 평가

SK텔레콤은 구성원의 성과와 실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에 기반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회사-조직의 KPI와 연계된 개인 KPI를 등록하고, 성과에 대해 리더와 상시로 리뷰를 진행합니다. 실력평가의 경우, 직무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리뷰합니다. 평가 결과는 조직별 인재 리뷰 세션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상, 승진, 핵심인재 선발 등에 활용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전 과정에서 리더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360° 다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구성원 중 SK텔레콤의 성과평가제도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은 구성원은 99%(외부 파견근무자 제외)입니다.

구성원 보상제도

SK텔레콤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지속적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성과기반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구성원의 평가 결과는, 매년 초 지급하는 성과급과 연봉 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성과급(PS : Profit Sharing)은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며, 연봉 조정금액(MI : Merit Increase)도 평가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구성원이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중심의 전사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더욱 높은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용
연봉	개인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봉 인상금액(Merit Increase) 결정
Incentive Bonus	KPI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TI(Target Incentive)와 경영실적 기반의 PS(Profit Sharing)* 제도 운영 *PS(Profit Sharing)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
SKT SUPLEX 추구상	각 영역에서 SKMS 정신을 발휘하여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노사 관계

SK텔레콤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대상 범위의 구성원이 입사 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 중이며, 비조합원인 구성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구성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상호협력 및 존중의 기본원칙에 따라 매년 임금교섭 및 2년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노사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미이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 주요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정리해고가 예상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50일 전 사전 통지하여 협의합니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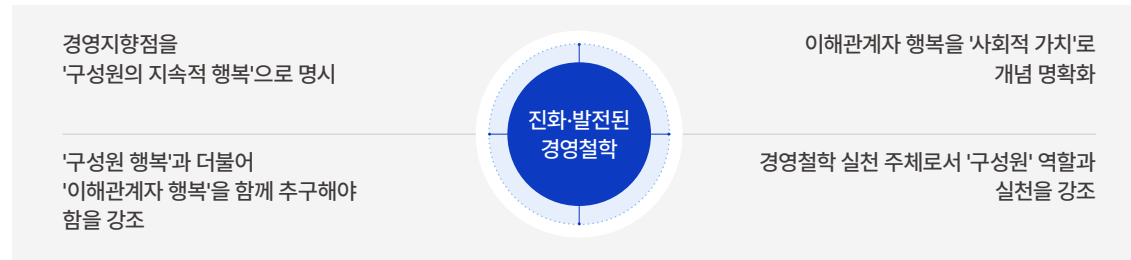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행복한 조직문화 형성

SK텔레콤은 '소통과 참여', '수평적 관계', '공유와 협업' 3가지를 지향점으로 삼아 조직문화의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는 수직적 소통 방식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한 타운홀(Town hall) 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하는 사이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 제안이 가능한 '행복참여 사이다', 회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제로 사이다'로 구성된 '기업문화 Opener'를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통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회사와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정보 공유와 자유로운 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별도의 직급 구분 없이 '님'으로 호칭하고, 부사장·전무·상무의 임원 직급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전문성과 역량, 커리어 비전(Career Vision)에 따라 하고 싶은 일에 스스로 도전하며 일할 수 있는 사내공모제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SUPLEX COMPANY 재정의

경영 지향점이 '구성원 행복'으로 변화됨에 따라, SUPLEX Company 목표, 우리의 일 확장

Suplex Company의 세 가지 일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일

DYWT 선택근무제

SK텔레콤은 2018년 4월부터 선택근무제 기반의 자율 근무체계인 DYWT(Design Your Work & Time)를 도입하여, 구성원이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간과 스케줄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연근무 제도를 넘어,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과도한 근로, 비효율적 근무 패턴, 불필요한 주말·야간 근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근무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 측면에서도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 'Sphere'¹⁾를 병행 운영하여, 업무 특성과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 인프라와 비대면 협업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업무 몰입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구성원의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근무시간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웰빙(Well-being)과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근무관리 체계와 책임 있는 자율 근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2025년 기준 총 4개소 운영 중(보라매, 성수, 분당, 판교)

구성원 몰입도

SK텔레콤은 2025년 구성원 Culture Pulse Survey 및 사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일을 통한 행복 추구',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이 일과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전반의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트레스 없이 만족감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조사에는 전체 구성원의 68%가 응답하였으며, 구성원 몰입도는 86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 공시된 보고기간에 따른 계획의 진척도

구성원 관련 SK텔레콤의 이행 계획 대비 진척도는 '지표 및 목표' 부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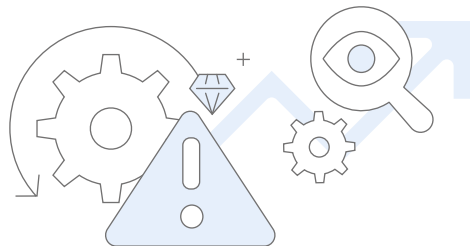
구성원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구성원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SK텔레콤은 AI 전환과 사업 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 관련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X 역량 강화, 변화관리, AI 거버넌스, Security First 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보안·AI 윤리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와 AI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와 실행 문화 정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관련 기회 관리 프로세스

SK텔레콤은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DC 사업 확대, AI B2B 시장 진출, Human-AI 협업 기반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과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업무 혁신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실행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지표

구성원 관련 관리지표

구성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인당 교육 투자비	백만 원	2.9	3.2	3.2
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시간	64	59.4	85.8 ¹⁾
연간 교육 과정 운영 수	개 과정	13,885	12,520	3,601 ²⁾
연간 교육 과정 참가자 수	명	883,235	789,880	89,049 ³⁾

1) 침해사고 현장 지원 교육, Security Literacy, AI 필수과정 확대로 일시적 증가
 2) 주제·내용이 유사한 짧은 VOD 여러 편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재편성하면서 연간 운영 교육과정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함
 3) VoD 재편성 및 과정 통폐합, 이수 조건 변경 등 참가자 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전년 대비 참가자 수 감소함

학습 데이터

구분	단위	2025년
직급	임원	2,233
	팀장	17,614
	구성원	436,215
연령별	30세 미만	68,855
	30세 이상 50세 미만	356,017
	50세 이상	31,190
성별	남성	327,894
	여성	128,168
합계		456,062

구성원 몰입도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몰입도 점수	점	86	86	86

목표

구성원 중장기 목표

구성원 육성 중장기 목표



안전보건

거버넌스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SK텔레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사회와 안전보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최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CSPO, Chief Serious accident Prevention Officer)를 선임하였습니다. 최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CSPO)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 주요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 전반을 담은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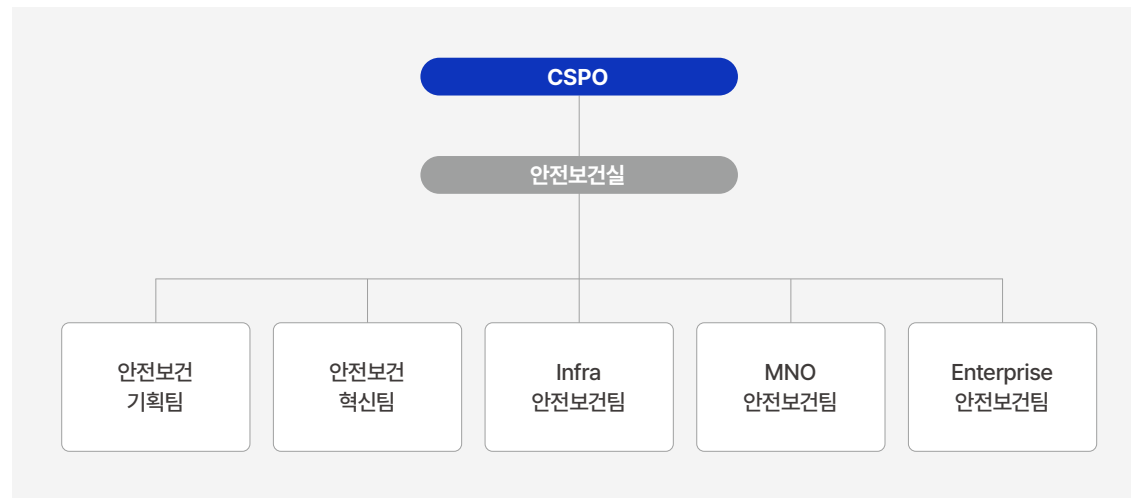
최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CSPO) 산하에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전사 컨트롤타워로서 각 사업부 단위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보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안전보건 계획 실행,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중대재해 대응 프로세스 구축,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SK텔레콤의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장별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관리체계는 지휘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전문 스태프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구성됩니다. 또한, 각 부서의 리더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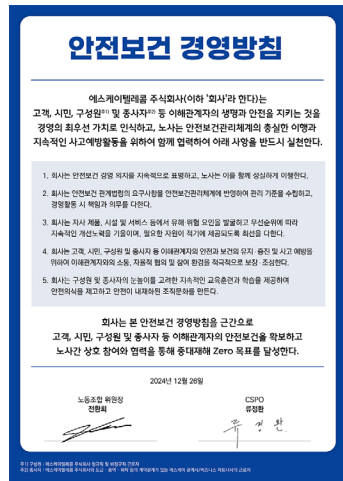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전략

안전보건 경영방침

SK텔레콤은 모든 경영 활동에서 고객, 시민, 구성원, 협력사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안전보건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Zero' 목표와 5대 실천 사항'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명문화하고, 노사 공동 서명을 실시하여 노사 모두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방침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SK텔레콤 및 ICT Family사 경영진의 KPI에 안전보건 경영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지표별 정량·정성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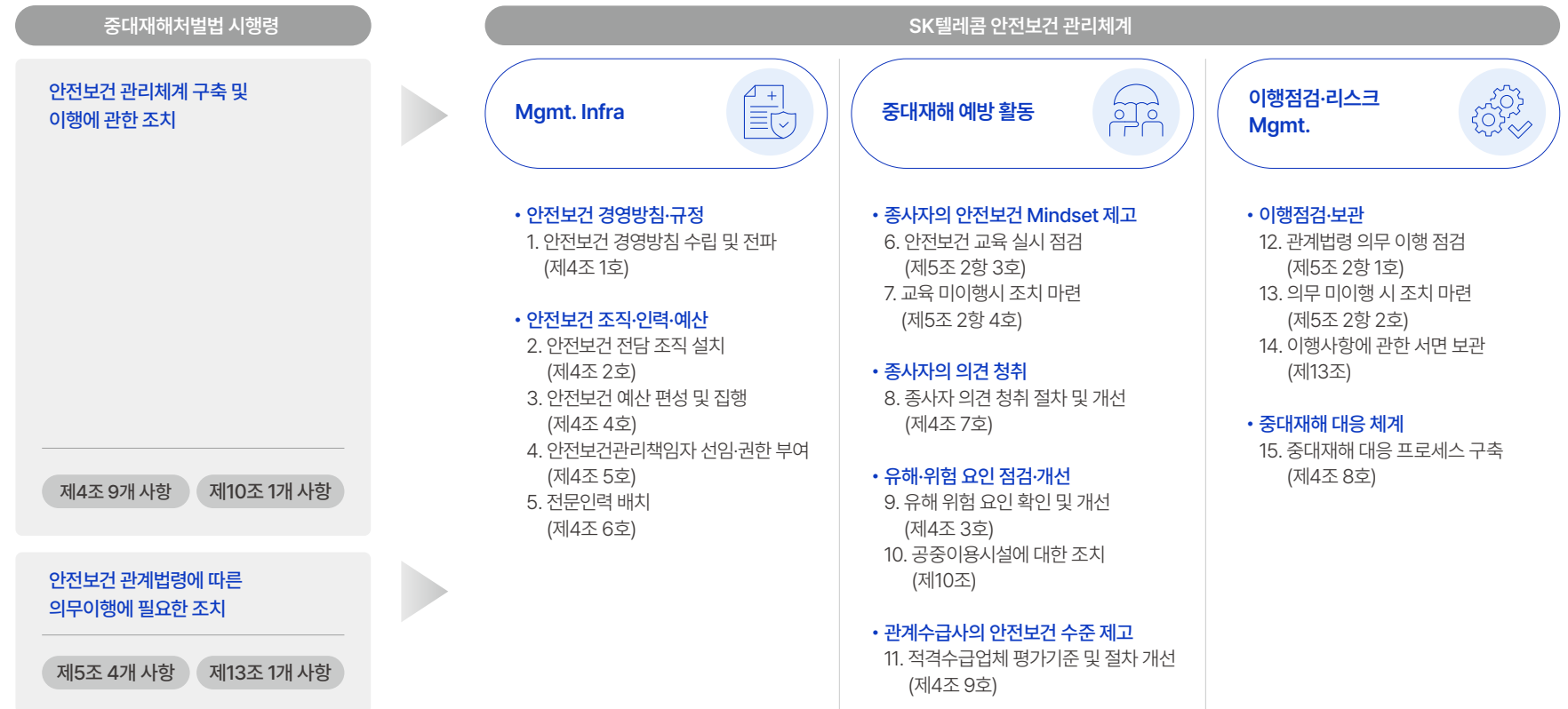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관리체계

SK텔레콤은 고객과 시민, 구성원, 협력사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규정한 15가지 제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인프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이행 점검 및 리스크 관리 부문으로 구성된 체계를 구축해 실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경영 환경과 관련 법률 변화에 발맞추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제5조 4개 사항 제13조 1개 사항

전략

안전보건 Mindset 제고

안전 교육 실시

SK텔레콤은 사업장 내 사고를 예방하고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구성원의 안전 교육 이수율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안전 교육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협력사 요청 시 교육 자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 'SKT Family Safe T Center' 개관

SK텔레콤은 구성원과 ICT Family사 및 협력사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 부사사옥에 안전체험교육관 'SKT Family Safe T Cen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R·A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고소작업대, 옥탑작업환경 등 통신공사 특화 교육부터 전기안전, 완강기 등 생활안전 교육까지 총 29개 체험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규정을 충족하여 민간 안전체험 교육관으로서 정부 공식 인정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전 교육 현황

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정기 안전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사무직 6시간/반기, 비사무직 12시간/반기
채용 시 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작업 공정 유해·위험성 및 재해 예방 대책 등	16시간/년
직무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교육	6시간/2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 교육	최초 34시간, 이후 24시간/2년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계층별 교육이 가능하며, 2023년 10월 개관 이후 2025년 12월까지 총 10,34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구성원 건강 관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SK텔레콤은 구성원의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2024년 구성원의 보다 심층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여러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선택적 건강검진'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기회를 높였습니다. 2026년에는 격년 주기로 돌아오는 '선택적 건강검진'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 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사내 인트라넷, 메일 안내 등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총 5,238명이 건강검진을 수검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 작업자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불규칙한 야간 근무자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여 총 308명 수검하고, 특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 가이드를 개별 메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독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2025년 2,749명이 접종하였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확대하여 204명이 접종하였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SK텔레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구성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수립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마스크, 방호복, 고글, 소독약품, 자가진단

키트 등의 방역 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 시에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체력과 정신 건강 관리 지원

SK텔레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신체 및 정서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옥 내 체력 단련 공간인 '액티움'과 심리상담 연계 프로그램 '마음의 숲'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각 층에 1인실 구조의 리프레시 존을 마련하여 구성원이 휴게시간에 피로를 회복하고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 사업장 '행복한울'과 연계한 사내 안마 서비스 '헬스케어' 및 청각장애인 고용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는 구성원의 건강 관리와 장애인 고용 증진이라는 사회적 선순환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

구분	내용	단위	운영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마음의 숲 (개인 전문 상담)	- 외부 상담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 중 - 전국 1,100개 센터 3,600명 상담사 운영 및 365일 연내 수시 상담	명	179	217	200
		회	1,059	1,122	1,067
헬스케어 ¹⁾	- 행복한울(자사 설립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연계한 구성원 안마 서비스 제공 (사내 안마 서비스) - 구성원 건강 관리와 장애인 고용 증진의 사회적 선순환 동시 추구	회	13,838	10,554	15,320

1) 데이터 수집 체계 변경으로 2023년, 2024년 데이터 정정

전략

AI로 안전한 산업현장 구성

AI를 활용한 안전 강화

SK텔레콤은 드론과 자체개발한 Vision AI를 결합하여 철탑 점검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후철탑 점검을 위한 협력업체 인력의 철탑 승강작업을 대부분 대체함으로써 재해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큰 '떨어짐' 사고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AI 기술을 적용해 외부인의 침입, 작업자의 낙상, 공장 화재 등의 사고를 파악하고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AI CCTV를 전국 사옥에 설치하여 구성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재감시 229개, 계단실 733개 AI CCTV 설치)

AI 산업안전 패키지

SK텔레콤은 산업 현장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AI 산업안전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SK텔레콤의 AI 기술을 적용한 AI 영상 관제, 작업자 안전 관리, AR·VR 안전 교육, 환경·설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 건설, 공공 등 각 산업 분야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춘 체계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AI와 ICT를 통해 산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지속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AI 산업안전 패키지' 구성



위험 관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SK텔레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해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며 산업 재해 감소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체계 및 활동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2025년에는 전국 사옥을 비롯하여 ICT 인프라 통신 시설 및 설비, 엔터프라이즈 정보통신 공사 사업장, 고객 매장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위험 등급 C2~C4에 해당하는 요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진행해 온 전국 통신시설 20만 국소 대상 위험성평가를 통해 누적 14.6만 개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1만 개 이상의 통신시설 국소에 대해 위험성평가와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옥과 대리점, 수주 사업장, 제조물 등을 매년 전수 점검하며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등급 구분¹⁾

등급	관리기준	판단기준	조치사항
C4 (매우위험)	허용불가능	• 도출된 위험요인에 의해 중대재해 및 치명적 손실로 전 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안전보건협의체 안전 산정/검토 • 즉시 개선
C3(위험)		• 도출된 위험요인에 의해 중대재해 및 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으나 발생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작업 전 안전대책 검토가 필요함	• 작업전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 • 6개월 이내 안전시설을 설치 등 보완
C2(보통)		• 경미한 손상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생 확률 및 손실의 크기가 낮음 • 일상관리로 충분히 예방가능한 수준이며 지속적 관찰을 요함	• 일상적 안전관리, 지속적 관찰 • 중기 계획 수립하여 보완
C1(낮음)		• 위험요인이 없거나 수용가능한 상태	• 일상적 안전관리

1) 위험성 등급은 C1~C4로 구분하며, 위험도(평균 위험성으로서, 등급별 건수 x 등급 Level을 총건수로 나눈 평균값)는 최대 4.000에서 최소 1.000 범위

개선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

위험성평가 이후 실시된 개선 조치를 대상으로 각 항목 별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 조치가 실제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켰는지 확인하며,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강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효과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2025년 안전보건 관련 위험도는 개선 조치 실행 전 1.369에서 실행 후 1.001로 하락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위험도



위험 관리

안전환경 점검

시설·설비 정기 안전 점검

SK텔레콤은 사옥 설비, 건축 구조, 전력 시설, 소방 설비, 공조 설비, 기타 위생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공기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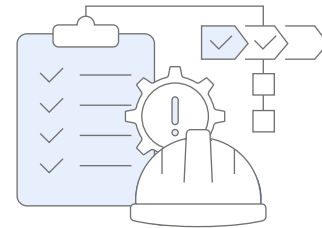
직업성 질환 관리

SK텔레콤은 구성원의 직업성 질환 및 재해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지국 유지보수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혹서기 열사병을 중점 관리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대응 가이드를 공지하고 작업장에 예방 및 치료 약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자발적 건강 증진과 정서 관리를 위해 '마음의 숲'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성 질환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한편 2025년에는 구성원 364명을 대상으로 보건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종류와 직군·증상별 예방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해 대응 프로세스 구축

산업재해 조사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직업성 질환이나 질병, 부상,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효과성 평가를 통해 해당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수립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전사에 전파 교육하여 구성원이 사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에 동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 프로세스



중대재해 대응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구호 조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상황별·관계자별 행동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통해 인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위기 대응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였으며, 재해 단계에 따라 예비상황실과 중대재해 위기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구성원과 협력사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총 134회의 중대재해 모의훈련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구성원 대피 훈련을 전국 사옥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대응 프로세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SK텔레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노사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1개 사업장에서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동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10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체를 2개월마다 1회 운영하였습니다. 각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관리규정, 2025년 안전보건 계획, 안전보건 교육 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험 관리

협력사 안전보건 수준 제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SK텔레콤은 안전보건 활동 및 지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업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 환경 조성

SK텔레콤은 정기적인 협의체와 익명 게시판 운영을 통해 협력사 종사자의 안전보건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의견 청취 채널을 통해 총 170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처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자 우수 협력사 154개사와 종사자 1,884명을 선정하여 연중 포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중소협력사 11개사와 함께 3년 연속 참여하며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인권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 운영 근무자의 안전 및 근로시간

SK텔레콤은 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 작업 및 물리적 보수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근로시간 등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ICT 인프라 운용을 담당하는 자회사 SK오앤에스(SKons)는 '중대산업재해 ZERO'를 목표로 전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하고 전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장 안전의 날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 실행력을 제고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체험교육관인 'SKT Family Safe T Center'를 통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 안전 역량 내재화, 도급사업 안전보건 체계 개선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근무자의 안전 및 근로시간



SK텔레콤은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안전 영상 제작, 안전 지킴 필수 사항 레터 발행, 작업 중지권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내부 홈페이지에 연장근로 관리 대시보드를 구현하여 리더와 구성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월·분기·연도 및 조직별 연장근로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며 근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야간 근무 시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연장근로가 주 3.5시간을 초과할 경우 리더와 구성원에게 SMS를 동시 발송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 편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 결과, 2025년 1인당 주당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0.1시간 감소한 43.2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상담사 보호

SK텔레콤은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상담사 보호 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성희롱, 욕설 등 부당한 언행이나 비정상적인 요구에 노출될 경우, 고객에게 경고 후 상담을 즉시 종료하거나 상급자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고객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 상담사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리소스 활용 최적화와 콜 연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입콜을 평탄화함으로써 상담사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마음 건강 회복을 돕는 '마인드 케어(Mind Care)' 프로그램과 사내 상주 전문가를 통한 '헬스 키퍼(Health Keeper)' 제도를 운영하여 근무 시간 중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및 케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상담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구성원 산업안전 및 보건 현황

SK텔레콤은 고객과 시민, 구성원, 협력사 종사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이자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구성원뿐만 아니라 ICT Family사와 협력사 전반에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실천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구성원 산업안전	구성원 근로손실 재해율(LTIR) ¹⁾	0	0	0.02
	협력사 근로손실 재해율(LTIR)	0.02 ⁴⁾	0.02 ⁴⁾	0.02
	구성원 + 협력사 근로손실 재해율(LTIR)	0.01 ⁴⁾	0.02 ⁴⁾	0.02
	구성원 근로손실 재해 건수(LTI)	0	0	1
	협력사 ²⁾ 근로손실 재해 건수(LTI)	4	6 ⁴⁾	4
	구성원 + 협력사 근로손실재해 건수(LTI)	4	6 ⁴⁾	5
	구성원 사망률	0	0	0
	구성원 사망 건수(산재 대상)	0	0	0
구성원 보건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률(OIFR) ³⁾	0	0	0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 건수	0	0	0

1) Lost Time Incident Rate

2) 사내 및 사외 협력사 포함

3)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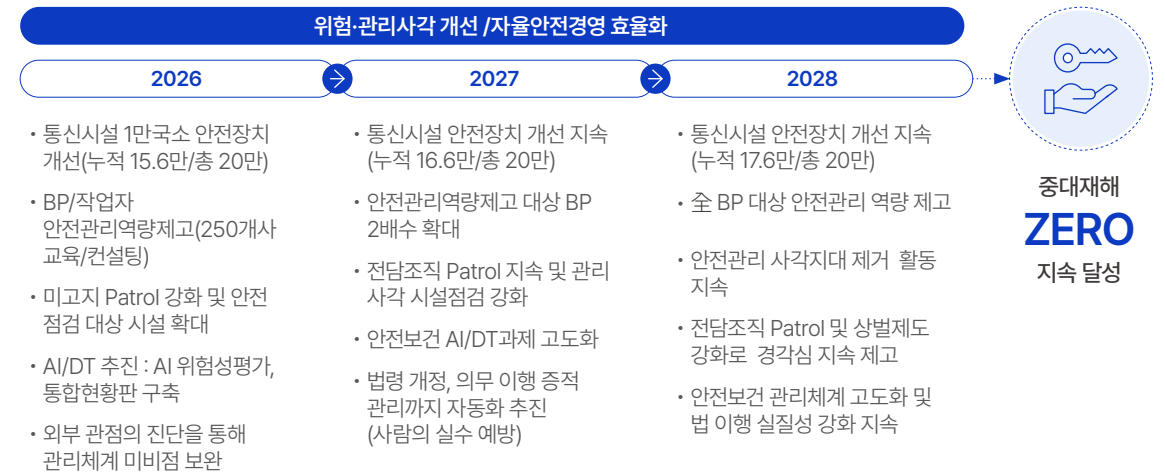
4) 데이터 산정 오류로 데이터 정정 공시

안전보건 목표

SK텔레콤은 '중대재해 Zero' 목표의 지속적인 달성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및 주요 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벤치마킹 및 외부진단,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량적 평가지표인 LTIR(Lost Time Incident Rate, 근로손실재해율)과 OIFR(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률) 등을 매년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해율 지표의 'Zero(0)'화를 목표로 안전보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Zero 지속 달성 실행 계획



인권경영

거버넌스

전략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SK텔레콤은 구성원을 포함하여 상품·서비스,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SK텔레콤의 인권경영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인권경영 전담 및 유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사회와 그 산하 ESG위원회는 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 관련 주요 사건을 심의·의결하며, CEO는 인권 이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인권 경영 성과를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전담 조직

CHRO(인사부서 최고리더) 산하 인권경영팀은 인권경영 추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안전보건, 정보보호, SCM(Supply Chain Mgt.), 지속가능 경영, HR, ER(Employee Relations) 등의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인권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이슈별 인권 관련 과제를 모니터링합니다.

인권경영 책임과 역할 강화

SK텔레콤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원칙에 따라 인권경영을 포함한 ESG 활동 및 환경 성과,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하는 ESG KPI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의 Ownership을 ESG 조직에서 HR 조직으로 변경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인권경영 조직	역할과 책임
이사회(ESG위원회)	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
CEO	주요 인권경영 사안 의사결정 및 성과 검토
인권경영팀 (CHRO 직속)	인권경영 관리체계 정립 및 운영
윤리경영, 안전보건, 정보보호, SCM, 지속가능경영, HR, ER	영역별 관리지표 수립 및 실사, 인권 리스크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대내외 보고 및 공시, 인권 교육

인권경영 정책

SK텔레콤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공유하고자 고객,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글로벌 시민의 식에 기반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권 존중 및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등 주요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원칙을 내재화하기 위해 '인권정책선언', '안전보건 경영방침', '윤리규범', '비즈니스 파트너 ESG 행동 규범',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등 5대 핵심 정책을 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근로조건 준수, 인도적 대우,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안전보건 등을 명문화한 'CEO 인권정책 선언문'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차별 금지

SK텔레콤은 인재 채용에서 직무 역량과 무관한 개인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승진·보상·교육 등 인사 전반에서 객관적인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한울'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SK텔레콤은 구성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 구성원 모두 최대 2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임신기 전 기간에 해당되는 단축근무제도, 출산과 양육의 주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제도(태아검진휴가, 출산휴가, 입학자녀 돌봄휴직, 육아휴직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근무제를 비롯하여 사내 어린이집, 모성보호실 등 양육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산 축하 경조금 제공, 자녀 학자금과 자녀캠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

SK텔레콤은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목표로 여성 인재를 활발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성 구성원의 비율은 2024년 23.1% 대비 0.8%p 증가한 23.9%입니다. 신입·경력 채용의 경우 여성 비율은 61.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평등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동일 직급 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남녀 임금 격차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임금 체계의 형평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략

인권영향평가 결과

SK텔레콤은 전체 구성원 및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인권 이슈를 평가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잠재 리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해 실시한 인권 영향평가에서 발견된 잠재적 인권 리스크에 대하여 완화 활동 및 개선조치를 시행했으며 리스크 개선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영향 평가 대상	방식	분야	세부 지표	서베이 결과(%)		개선비율 (GAP ¹⁾)	개선활동
				2025년	2026년		
구성원 및 사업장, 취약집단	서베이	차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57.6	54.8	2.8%p	'Human Rights Statement'를 명시하여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 - 고용 형태와 무관한 동등한 기회 및 대우 제공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준수
			채용 과정	72	69.6	2.4%p	- 채용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차별 금지 - 전 구성원 대상 차별 금지 관련 교육 실시
		근로 환경 개선	임직원 근로시간 관리	76.5	72.2	4.3%p	-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로시간 체계적 관리 - 선택근무제 및 Happy Friday 제도 운영 - Design Your Work & Time(DYWT) 제도 운영
			산업재해 관리	74.7	71.5	3.2%p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 Safe T Center 안전체험관 운영 - LTIR·OIFR 등 재해율 지표 관리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79.3	77.5	1.8%p	- 심리상담 연계 프로그램 '마음의 숲' 운영 - 액티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Mind Care 프로그램 운영
		정보 보호	개인정보 이용 시 적절한 분석 및 활용	84.9	83.6	1.3%p	-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교육 실시 - 유통망 고객정보보호 진단 및 시정 조치 이행 - 개인정보 보호 5대 원칙 기반 관리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	73	69.8	3.2%p	5G 공동망 구축을 통한 시설 설치 지역 주민 인권 보호 - 취약지역(산간, 도서, 오지마을 등) 통신 서비스 확대 - 고객센터 등 소통 채널을 통한 상시 접수 및 신속 대처
		인권리스크 관리체계	임직원의 고민, 불만, 고충, 갈등 등에 대한 상담 프로세스	76	75.1	0.9%p	- 윤리 상담·제보 채널 운영('윤리경영포탈', 'Letter to HR' 등) - 고충처리 메커니즘 고도화 및 접근성 제고 - 상담·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인권 영향 집단 파악	아동	70.5	69.1	1.4%p	- 어린이 전용 서비스 'ZEM' 확대 및 iOS 지원 'T 청소년안심팩' 등 청소년 보호 서비스 운영 -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포함 요금제 설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또는 욕설	81.4	81.2	0.2%p	-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 'Human Rights Statement' 기반 무관용 원칙 적용 - 부서별 윤리실천 워크숍 정기 수행

1) GAP(%) = (2025년도 서베이 '중요도 높음' 비율) - (2026년도 서베이 '중요도 높음' 비율)

전략

고충처리 메커니즘

SK텔레콤은 공식 홈페이지 내 노동·인권·윤리 등 이슈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충 및 불만을 접수하고 통합 수렴하는 전용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업 활동 관련 의견과 피해 사례, 사회적 책임 위반 사안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을 통해 접수된 건은 사실 확인 및 실무 부서의 실사·모니터링을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사안으로 판단 및 조치된 경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보고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온라인 채널](#)

SK텔레콤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시 제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대면 상담과 서신 등 온·오프라인 채널로 구성된 윤리 상담·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포털', 'Letter to HR', 성희롱 전담 상담 인력, 인터넷 채널, 익명 게시판 등 다각적인 창구를 통해 부정·비리 제보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상담을 수행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비밀의 보장', '신변 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SK텔레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불공정 사례나 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보자, 상담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상담자와 신고자, 조사 협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보 및 개선조치

SK텔레콤은 2025년 제보 및 상담 채널을 통하여 접수된 291건 중 289건(99.3%)에 대해 처리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고객불만과 단순 현업 이슈 관련 사항이었으며, 윤리 규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징계된 건들 중 고객 대상 비윤리, 부정부패 및 뇌물, 자금 세탁 및 내부자거래 관련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징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별 및 괴롭힘 4건, 이해상충(겸업/겸직) 3건, 기타 비윤리 행위 3건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징계 과정에서 제보자 및 협조자에게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등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실무 부서 모니터링 절차를 전개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 및 부서별 윤리실천 워크숍을 통해 회사와 구성원의 윤리실천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 교육 및 실천 워크숍에서는 제보 및 징계 사례들을 각색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 윤리상담센터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건수	완료건수	처리비율
윤리 상담 및 제보 ¹⁾	12	10	83.3
이슈 없음 ²⁾	18	18	100
단순 현업 이슈	38	38	100
고객 불만	223	223	100
합계	291	289	99.3

1) 윤리상담 및 제보 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시행, 그 외 건의 경우 유관부서에 이관 조치
2) 제보 내용 불충분, 제보 철회 등

2025년 윤리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단위: 건)

구분	건수	조치사항
차별 및 괴롭힘	4	중징계 4
이해상충(겸업/겸직)	3	중징계 3
고객 대상 비윤리	0	-
부정부패 및 뇌물	0	-
자금세탁 및 내부자거래	0	-
기타 비윤리행위	3	중징계 2, 경징계 1
합계	10	중징계 9, 경징계 1

위험 관리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SK텔레콤은 기업 차원의 인권 정책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권 분야 이슈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를 중심으로 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에 근거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제고를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인권보고서

SK텔레콤은 인권 리스크를 검토할 때 본사 및 자회사, 비즈니스 파트너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SK텔레콤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운영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비롯한 모든 자회사에 대한 실사까지 포함하며, 신규 비즈니스(인수, 합병, JV 등)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리스크를 식별하고 검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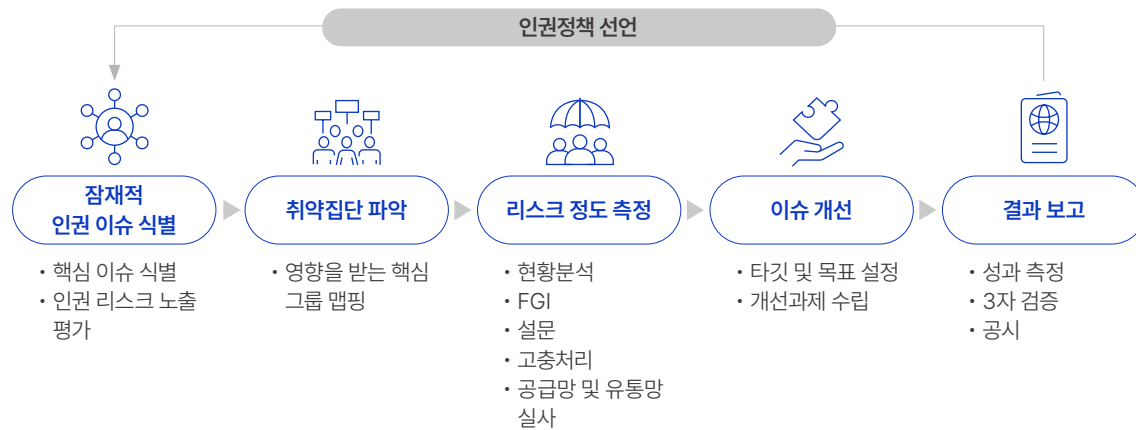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는 인권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잠재적 인권 이슈를 식별하여 취약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개선과제 도출 및 목표 설정을 통해 인권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K텔레콤 인권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인권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행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SK텔레콤이 식별한 취약집단 중 장애인,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진단 및 평가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설문조사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인권영향평가의 지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CHRB,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산업, 조직 특성을 반영해 선정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이슈,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인권 경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중요도 파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신규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회사 및 합작회사(Joint Venture)는 9개의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영역, 총 51개의 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진행하며, 근거자료 확인을 통한 인권영향방침 및 세부 운영지침 준수를 확인합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리스크가 식별된 경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매년 ESG위원회에 보고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크 평가 현황

범주	지난 3년 중 평가받은 총 비율(%)	평가 받은 곳 중 리스크가 식별된 비율(%)	리스크가 식별된 곳 중 완화/개선 조치 프로세스가 적용된 비율(%)
자체 경영활동 (회사가 경영권을 가진 합작회사 포함)	100	18.2 ¹⁾	100
계약업체 및 1차 공급회사(Tier1)	100	12.5	100
합작회사(10% 이상의 지분 포함)	100	0 ²⁾	100

1) 인권영향평가 시행 전체 사업장 수 11개 중 영역별 중요도 높은 비율 평균이 80% 이상인 사업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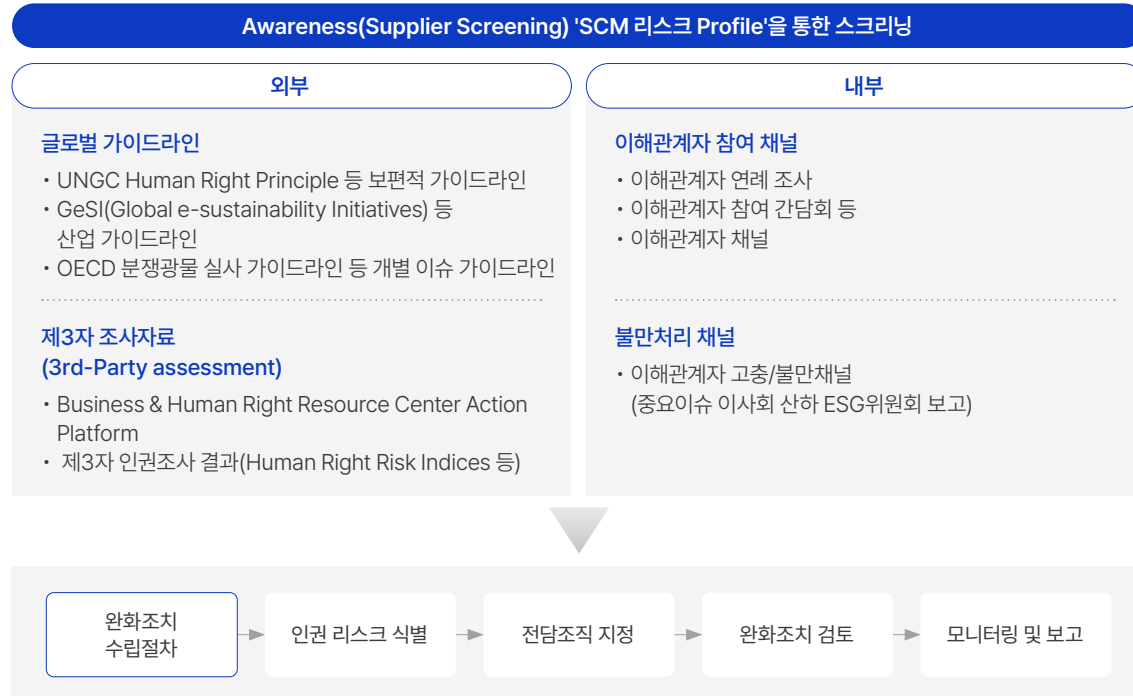
2) 공급망 ESG 진단 업체 및 ICT Family 사 중 인권 영역 고위험 분류 업체 비율

위험 관리

리스크 완화 프로세스

SK텔레콤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직·간접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식별한 인권 이슈는 전담 조직을 지정하여 구제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발견된 인권 문제는 글로벌 기준의 고충처리 표준 절차를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 Human Right Principle 등의 보편적 가이드라인과 GeSI 등의 산업 가이드라인 및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완화 조치를 수립하고 있으며, 제3자 조사자료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구성하고 불만처리 채널을 고도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권 리스크 식별 후 완화 조치를 위하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계획을 세우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권 리스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 수립 절차



지표 및 목표

인권존중 경영체계의 전반 확산 및 이행수준 단계적 고도화

	인권경영 지표	2025년 성과	2026년 목표	2027년 목표	2028년 목표
인권경영체계 확산	ICT Family사 인권경영체계 확산율 전체 ICT Family사 중 인권경영체계 적용사 비율	SKT-SKB 시행	60%	70%	80%
공급망 인권관리	공급망 인권경영 고위험 비율 ESG 진단상 인권 고위험 협력사 비율	진단체계 운영	12% 이내	10% 이내	8% 이내
	협력회사 ESG 리스크 완화/개선조치 이행률 시정조치 대상 협력사 중 개선 지원·이행 완료 비율	100%	Best-in-Class 지속 견지 (진단 후 시정 대상 전수 개선 지원)	Best-in-Class 지속 견지	Best-in-Class 지속 견지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인권영향평가(HRIA) 실시율 지난 3년간 자체 경영활동·1차 협력사·신규 JV 전 대상 중 평가 실시 비율	100%	Best-in-Class 지속 견지 (전 대상 주기적 전수 평가)	Best-in-Class 지속 견지	Best-in-Class 지속 견지
	제보·상담 채널 접수 건 개선조치율 고충처리 채널 접수 건 중 개선·처리 완료 비율	99.3%	Best-in-Class 지속 견지 (제보 철회·내용 불충분 등 불가 제외 전수)	Best-in-Class 지속 견지	Best-in-Class 지속 견지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이수율 전 구성원 대상 연 1회 이수율	98.0%	Best-in-Class 지속 견지 (휴직·파견 등 불가 제외 전수)	Best-in-Class 지속 견지	Best-in-Class 지속 견지

고객중심경영

거버넌스

고객 권익 보호 추진 체계

SK텔레콤은 고객 관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AI 기반의 혁신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일상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권익 보호 정책에 의거하여 CEO 산하 고객 권익 보호 관리자와 주관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불공정 행위나 제품 및 서비스 안전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고객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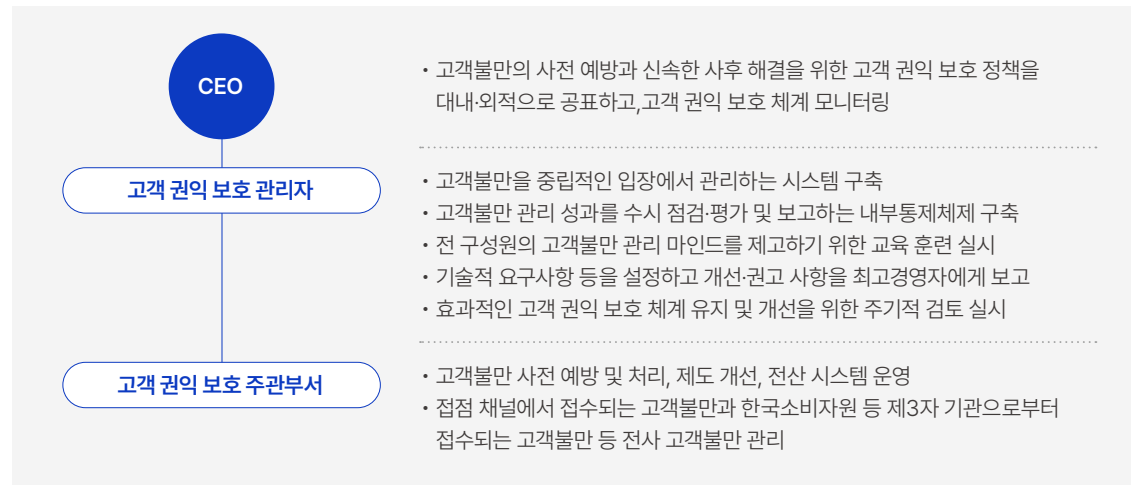
SK텔레콤은 고객 불만 사항이 사내에 신속히 공유되어 즉각적인 사후 해결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고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부통제체제는 고객 권익 보호 주관부서와 고객불만 상담조직, 그리고 각 사업부서 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동됩니다. 아울러 불만 사전 예방을 위한 각 부서별 R&R(Role & Responsibility)을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불만 상담조직

SK텔레콤은 고객 불만의 접수 편의성을 높이고, 제기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채널은 고객 접점의 특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채널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대면 채널은 지점 및 대리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대면 채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권익 보호 거버넌스



민원 접수 채널 및 방법

접수 채널	접수 방법
대면 채널(대리점, 지점)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및 지점 방문
비대면 채널(고객센터)	휴대폰 국번 없이 114(무료) 또는 080-011-6000(무료), 국번 없이 1599-0011(유료)
홈페이지(온라인·모바일)	온라인: SK텔레콤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tworld.co.kr) 내 고객 지원 ▶ 고객 의견 접수 채널 모바일: SK텔레콤 서비스 홈페이지(m.tworld.co.kr) 내 고객 지원 ▶ 이메일 상담 접수 채널
모바일앱	SK텔레콤 홈페이지 전용 앱(모바일T월드) 접속
우편	등기, 내용증명 등 우편(수신: SK텔레콤 본사) 발송
SNS	SK텔레콤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팩스	고객센터 1차 문의 후 증빙 등 자료 접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별 팩스 사서함 사용

전략

고객경험 고도화

고객 서비스 개선

SK텔레콤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 만족도와 신뢰 기반의 고객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사적인 서비스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사 변화 혁신 기구로 '고객가치혁신회의'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 참여해 SK텔레콤의 서비스 수준과 네트워크 품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서비스에 반영해 고객 신뢰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인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며, 고객 중심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자문과 고객의 신뢰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전반을 고객의 시선에서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자문단은 서비스 기획부터 사후 점검까지 참여해 실질적인 고객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고객의 목소리를 간밀하게 듣고 서비스에 반영해,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접점에서 신뢰를 체감할 수 있도록 CX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혁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가치 혁신을 위한 SK텔레콤의 노력은 고객 서비스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객이 일일이 탐색하지 않아도 필요한 T월드, T다이렉트샵, T멤버십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 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S, 멤버십, 단말, 로밍, 구독상품에 대해 고객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놓치기 쉬운 정보 혜택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조직(사회공학위협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하여 전문 상담 인력 파견 및 상담 노하우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전화 음성 안내 멘트, RCS 스팸메시지 차단, 미끼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스팸·스미싱 차단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스팸·피싱 차단, 보이스피싱 악성앱 설치 피해자 현장 구제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신뢰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온 SK텔레콤은 2025년 국내 고객 만족도 조사(NCSI, KS-SQI)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객센터, 유통망, T월드 등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AI와 data를 기반으로 한 상담 품질 개선을 통해 접점에서의 고객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KS-CQI, KSQI)에서도 이동통신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고객 중심의 경영 변화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28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26년 연속 1위



전략

고객경험 고도화

고객경험 고도화 프로그램

세그먼트 서비스



-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세그먼트 서비스 제공 중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부모 세그먼트를 위한 ZEM 시즈널 마케팅 (새학기, 여름방학/겨울방학 등) 진행
- 13세~34세의 0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0 청년 마케팅(광고, 프로모션, T1 팬미팅 등)과 생활 밀착형 혜택 프로그램(0 day, 무료데이터, 공연/전시 할인 등) 제공
- 장기간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T 장기고객 프로그램' 운영 중, 2년 이상 고객 데이터/음성 리필 쿠폰 혜택, 5년 이상 고객 가입 기념일 축하 데이터 혜택, 10년 이상 고객 이벤트 혜택(공연/전시 할인, 단독 이벤트 초대 등), 30년 이상 고객 T멤버십 VIP 업그레이드 혜택 제공

서비스 상품 다양화



- 5G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 이용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요금 라인업 다양화(컴팩트, 컴팩트플러스, 프리미엄)
- '컴팩트, 컴팩트플러스, 베이직, 슬림' 요금제 이용자가 저렴하게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충전제도' 도입
- OTT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5G 요금제 이용고객에 'Wavve 앤 데이터' 할인 제공
- 디즈니+, 티빙 등 고객들이 선호하는 OTT 서비스를 요금제 혜택으로 추가하면서 고객의 선택권 확대
-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2nd Device 이용을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태블릿 및 스마트워치 할인 요금제 출시로 고객의 Device 비용 부담 완화

요금제 관련 고객 경험 제고



- 고객이 요금제별 핵심 혜택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별 전용 요금제를 출시
 - 5GX 프리미엄 → 5GX 프리미엄(유튜브프리미엄), 5GX 프리미엄(넷플릭스), 5GX 프리미엄(스마트기기) 등
- 고객의 역선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5G 대비 데이터 효율이 열위인 LTE 요금제를 가입중단 처리
 - 컴팩트 요금제보다 비싸면서 데이터는 덜 주는 T플랜 안심4G, 5GX 레귤러와 동일한 가격에 데이터는 덜 주는 T플랜 에센스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전용 서비스
 -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들에게 바른 사용 습관을 만들어주는 어린이 고객 전용 서비스 'ZEM 앱' 운영, 키즈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한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ZEM 폰과 저가 스마트폰 등에 ZEM 앱을 탑재하여 판매
 - 보호자는 ZEM 앱을 통해 자녀 스마트폰 OS와 관계없이 사용 시간 관리, 사용 앱 관리, 실시간 자녀 위치 조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스몸비, Smombie) 방지, 유해 사이트 차단 등 다양한 안심 기능 무료 이용
 - 자녀가 SK텔레콤 고객이라면 보호자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ZEM 앱을 다운로드하여 무료 사용 가능, 자녀는 추가로 ZEM 앱을 데이터 과금 없이 사용

전략

고객경험 다각화

AI 개인비서 'A.(에이닷)'

SK텔레콤의 에이닷은 AI Agent 서비스로서 2022년 5월에 출시하여 현재 가입자가 2026년 3월 기준 1,1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에이닷은 고객 일상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에서 나아가 더욱 다양한 Use case에서 Action까지 대신 수행하는 경험 고도화(고객이해/대화/기억/Action연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 중입니다.

특히, 통신 본업의 음성 처리 노하우를 결집한 '에이닷 전화'와 '노트' 서비스로 AI Agent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이닷 전화는 통화요약이나 일정 제안 외에도 의심번호 차단 및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등 통화 전/중/후 모든 과정에 걸친 AI 보안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노트' 서비스는 음성 인식과 통화 요약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화자 분리 및 맥락 이해를 통해 회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해결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방대한 맥락 데이터는 사용자의 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브리핑하는 개인화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파편화된 일상의 기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형 AI Agent'로 진화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연계는 사용자의 복합적인 의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최적의 기능을 연결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기술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이렇게 검증된 개인 생산성 혁신 모델을 B2B 영역인 '에이닷 비즈'로 확장하여 기업의 일하는 방식까지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500B 규모의 거대언어모델 'A.X'를 기반으로 한 기술 내재화는 제조, 보안, 미디어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에이닷은 일상의 편의를 넘어 국가적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AI 구독 커머스 플랫폼 'T 우주'

T 우주는 다양한 구독상품을 이동전화 회선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구독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은 2024년부터 'T 우주 Netflix'와 'T 우주 패스 쇼핑 G마켓'을 새롭게 출시하며 OTT부터 쇼핑,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구독 2.0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경험(UX)을 전면 개편하고 T 우주 전용 앱을 출시하여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개편된 서비스는 ① 축적된 데이터를 AI 기술과 접목하여 정교한 고객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② 개인화된 상품 추천 및 오퍼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T 우주 내에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구독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AI 시너지 강화를 위해 ① ChatGPT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상품을 출시하고 ② A.(에이닷)과 협업을 통한 A.(에이닷) 구독상품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③ AI 구독 어드바이저¹⁾를 도입하여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더 세심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 AI 구독 어드바이저(가칭): 구독상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꼭 맞는 가이드를 주는 시스템

서비스 접근성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중심으로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이동통신 부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브랜드에 대한 고객 로열티를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LTE 및 5G 가입자 수와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차별화된 상품 출시와 5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는 약 1,749만 명입니다. 또한 LTE 및 5G 가입자 비율²⁾은 전체 가입자의 101.7%³⁾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통계양식 변경으로 2023년부터 IoT, 태블릿 등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 관련 숫자로 적용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 통계기준 변경으로 2023년부터 총 가입자 대신 핸드셋 가입자로 기준 변경함

위험 관리

고객 권익 보호 및 침해 방지

SK텔레콤은 '고객 권익 침해 Zero화'를 목표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권익과 관련된 이슈들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 영역에 통합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슈 발생 시 이사회 및 CEO에게 즉각 보고하여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내역, 대외기관 민원 등을 기반으로 VoC를 분석하여 통화 품질, 스팸·스미싱, 요금, 고객 혜택 등에서 고객 권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고객 권익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에는 현장 방문 통화 품질 안정화, 빌 쇼크(Bill Shock) 사전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4월에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여파로, 대내외 접수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객불만은 전년 8,736건 대비 40% 증가한 12,261건이었고, 고객의 인지 오류나 SK텔레콤과 무관한 사안 3,007건을 제외한 9,254건을 처리하여 총 접수건의 75.4%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집계 기준 대외 민원 해결률이 82.1%로, 통신 3사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이후 사이버 침해사고의 여파가 진정되면서, CPCB(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접수) 건수도 통신 3사 중 최저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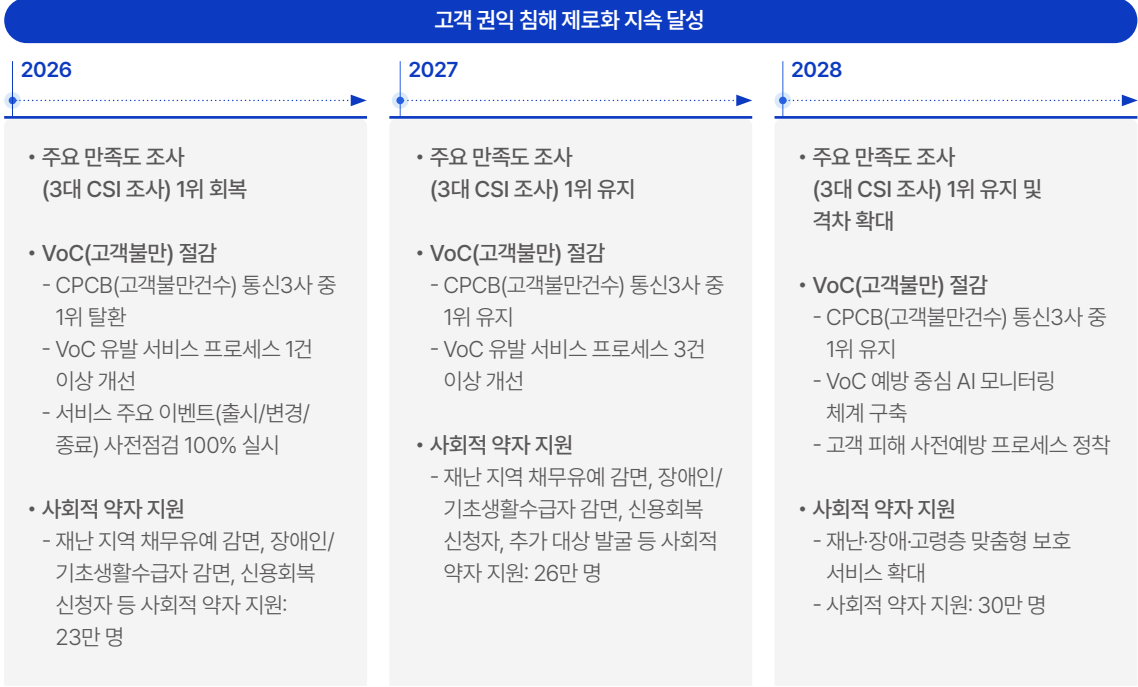
고객 만족도 조사(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¹⁾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NCSI(한국생산성본부)	79	80	81	28년 연속 1위
KCSI(한국능률협회컨설팅)	87.0	86.9	83.2	2위
KS-SQI(한국표준협회)	75.9	75.9	76.1	26년 연속 1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방송통신위원회)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수	
SK텔레콤 정기 CSI결과 ²⁾	80	81	78	

1) 100점 기준
2) 연 2회(상·하반기) 시행되는 SK텔레콤 자체 CSI 평가 결과의 연간 평균 점수

목표

고객 권익 보호 중장기 목표



네트워크 안정성

거버넌스

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

SK텔레콤은 통신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 대응 단계에 따라 위기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각 조직별 역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체계 하에서 재난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수행합니다.

지역상황실에서는 실제 피해 내역 점검 후 복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복구를 수행하는 한편, 긴급복구종합상황실로 장애 및 복구현황을 전달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복구종합상황실은 재난 피해와 복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관 조직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는 장애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종합망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Risk 사전 대응,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망관제센터에서는 매일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 특별소통대책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품질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설/추석 명절 연휴와 여의도/광화문 집회, 여의도 불꽃축제, 할로윈 등 대규모 행사기간에 서비스 품질 사전 점검, 임시 시설 설치, 트래픽 모니터링 등 특별소통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긴급복구 체계도



전략

네트워크 운용 전략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재난 대비 활동

중요 통신시설 관리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국사 등급 기준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국사 내 CCTV를 통한 출입 및 보안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설비 점검, 국사 인입 맨홀 등의 보호 조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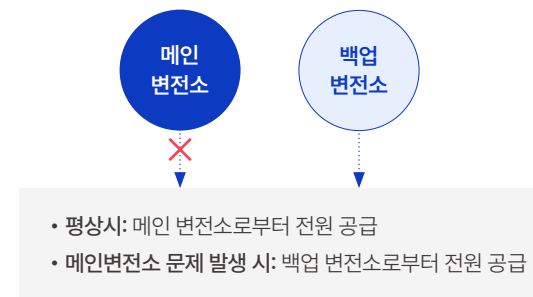
전송로의 이중화, 이원화

SK텔레콤은 네트워크 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간통신망을 이원화 및 다원화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곳의 국사에서 발생한 주요 장애로 인해 하위 국사의 시설에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상위 국사의 이원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국사의 경우 당해년도에 상위 국사의 이원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신규국사의 상위 국사 이원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중요 통신시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여, 1개의 변전소의 문제 발생 시에도 무선통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중요통신시설에는 축전지, 발전기 등을 갖추어 최소 3시간 이상의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망 이원화



작업관리시스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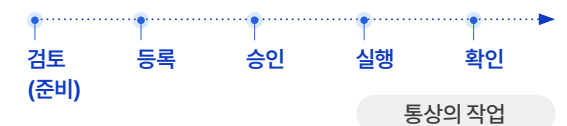
네트워크 시스템은 운용상의 요구 사항 및 신규 기능 추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작업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작업에 대한 명확한 작업 규칙 및 철저한 관리/통제 프로세스가 미진할 경우, 작업 수행으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작업의 실행과 확인 중심의 기존 프로세스를 재정의하여, 작업 준비·등록·승인·실행·결과확인에 이르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작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작업의 계획부터 완료 시점까지 작업 내용, 작업자, 작업 일정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참여하여 해당 작업의 영향도, 위험성 등을 상호 검토하고 공유함으로써 작업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작업 수행 원칙을 적용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작업은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명령어는 작업자가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사전 정의되어 있고, 작업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에 쓰이는 모든 명령어는 사전에 검증 및 승인 후에 실행할 수 있게 하였고 승인 받지 않은 명령어는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경우 SK텔레콤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테스트 장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실제 서비스 장비에 적용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관리 시스템 통제 범위



작업의 재정의

작업관리시스템 통제 下 작업 수행
(작업 검토~확인 단계까지 작업의 범위 확장/통제 및 관리)

전략

네트워크 운용 전략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태풍, 산불,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무선통신 서비스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그 피해 규모와 심각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자연재해에 따른 대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중요 통신시설에 침수방지 및 배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전원 공급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지역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사전 조치하고 있으며, 장마/태풍 등 기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인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SK텔레콤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비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내진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내진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통신설비의 경우 내진 인증을 받은 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정 규모의 지진 발생 시에도 무선통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봄철 한반도의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 규모 역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SK텔레콤 시설의 직접적인 소손과 한전의 전기 공급망의 단선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 무선통신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강한 내연성/난연성 재질을 사용한 중계기, 선로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요 통신시설의 경우 상위국으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를 이원화하여 하나의 통신선로가 소손될 경우에도 정상적인 무선통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장애 확산 방지 방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잘못된 정보가 실행되게 되면 다른 네트워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오류가 다른 네트워크로 전파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간 분리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의 분리를 위한 라우팅 도메인 분리, 정적 경로 지정 및 필터링 정책을 통해서 각 망 간 분리 구성하고 있으며, 그룹 및 지역별 구간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여 분리 구성함으로써 한 구간의 네트워크 오류가 다른 네트워크 구간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급증 및 서비스 품질 최적화 방안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체육 행사, 군항제, 불꽃놀이 축제 등의 축제 행사 및 연말연시, 명절과 같은 시기에는 평상 시의 트래픽과는 다르게 특정지역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트래픽의 급증 시 특별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One 등 AI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개최된 대규모 K-POP 축제인 광화문 BTS 공연에서 SK텔레콤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용 시스템 'A-One(Access All-in-One)'을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최적화된 통신 환경을 설계하고 인파 집중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하였습니다.

공연 당일 트래픽을 5분 간격, 50m 단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다가 과부하 위험 발생 시 즉각 트래픽 분산 및 자원 재배치를 제안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하였고, 인파 밀집을 사전에 예측하고 네트워크 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최적화된 통신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외 SK텔레콤은 기존 통신망과 별도로 임시통신시설을 추가 구축해 네트워크 용량을 확대하고, 공연 당일 현장에 비상근무 인원들이 투입돼 통신 품질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신사 간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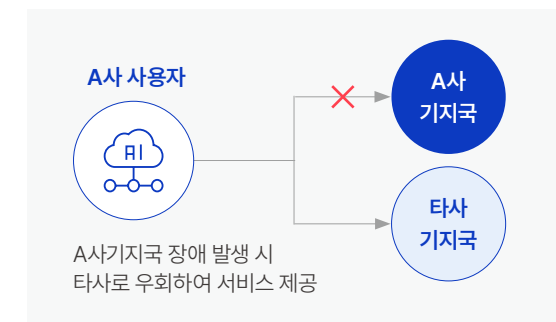
겨울철의 극심한 건조함, 봄철의 이상고온, 그리고 강한 돌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 경남 산청, 의성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통신사 간 협력방안으로 재난로밍 프로세스 적용, 용량 확보 등의 협의를 통해 재난로밍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재난로밍은 특정지역에서 SK텔레콤의 중계기, 기지국 등이 장애 발생으로 당시 가입자들의 무선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타사의 중계기, 기지국을 활용하여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인터넷 연결을 위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 이상 발생 시에 타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상호 간에 인터넷 연결에 대한 이원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로밍



전략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정성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 및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과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장 Zero화'를 목표로 절대적 안정 운용과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항목을 KPI에 반영하여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운용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처리

SK텔레콤은 연간 처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한 수요 예측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데이터 트래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독모드(SA)와 비단독모드(NSA) 동시 지원하는 5G 코어 상용화를 통해 기술적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5G 데이터 장비 개발에도 성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트래픽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은 약 631만 테라바이트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등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 선도

SK텔레콤은 2011년 LTE 국내 최초 상용화 이후 꾸준한 기술 투자 및 고도화를 통해 2018년 5 Band CA (Carrier Aggregation), 4T4R(4안테나 기술) 등 기술 기반으로 1Gbps 급 속도의 LTE-A 프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최남단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까지 포함하는 5G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G 기반 초고속 전송, 양자암호 통신, AI 네트워크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신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5G 월드 어워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등에서 해당 기술 리더십을 매년 인정받고 있습니다.

5G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구분	요구속도 충족률	
서비스 품질 지표	웹검색	99.87%
	SNS숏폼	99.62%
	영상회의	99.28%
	고화질 스트리밍	98.39%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3G-4G 통합형 장비인 싱글랜(Single RAN)을 자사망에 적용하고, AI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설계 등 친환경을 고려한 인프라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 네트워크 분석, 통신설비 안전 진단 등 고객의 체감품질과 망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텔코 에지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실증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통신과 AI를 접목해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오픈랜 기술 표준화, AI 기반 무선망 품질 추정 기술 개발 등 AI와 네트워크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스팸 메시지 차단 등 사회공학 분야로도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5G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꾸준한 성능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5G 서비스 품질 지표'에서 전 영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5G 고도화를 넘어 차세대 AI 네트워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통신 인프라의 진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더 우수한 품질,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AI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에는 AI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 및 품질 강화,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해 1년 간 유무선 네트워크 합계(SK브로드밴드 유선서비스 포함) 총 2.13조 원을 투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전자파

SK텔레콤은 2007년 전자파 측정 의무화 이후 해마다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보유한 무선국의 99.9% 이상이 전자파 등급제 기준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도 총 11,371건에 달하는 무선국의 전자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실제 전자파 강도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평균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략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정성

Disaster Recovery 체계 확보

통신 산업 전반의 안정성 강화가 핵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SK텔레콤은 Disaster Recovery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Disaster Recovery 체계는 정전/화재/침수/지진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통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혹은 국사의 소손이 발생하거나, 내부 운영자의 작업 오류로 장시간 고객 서비스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 시스템의 이중화 및 백업 구조의 강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SK텔레콤은 Disaster Recovery 체계의 취약점을 지속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및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CDMA 상용화로 ICT 명예의 전당 등재

SK텔레콤은 2024년에 CDMA 상용화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EEE 마일스톤(Milestone)'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SK텔레콤은 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하여 폭증하는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고자 아날로그 방식 대비 통화 용량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CDMA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이동통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민관 합작으로 일궈낸 CDMA 상용화의 창익과 도전, 협력의 정신을 계승하여 다가오는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강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은 커버리지와 데이터 속도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투자와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과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처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한 수요 예측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독모드(SA)와 비단독(NSA) 동시 지원 5G 코어,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5G 데이터 장비 등을 개발하여 필요한 트래픽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통신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AI 기반 지국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객의 체감 품질과 망 운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조사와 함께 AI 연산과 이동 통신을 동시 처리 가능한 가상화 기지국을 상용 환경에서 실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AI가 네트워크 품질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FILM(Filtered Measurements)'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꾸준한 성능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품질 평가에서 5G 네트워크 품질 항목 중 웹 검색, SNS숏폼, 영상회의, 고화질 스트리밍 등 서비스품질 지표에서 전 영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뿐만 아니라, 전 파방송기술대상에서 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장애 대응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네트워크 장애 긴급 복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상감지 체계를 통해 이상 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결함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하드웨어 증설이나 소프트웨어 변경 시에도 이를 사전에 시험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통제 시스템을 통해 휴먼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네트워크 접속 경로와 중요 통신 설비를 다중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지점의 오류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계층 간·지역 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 간 재난 로밍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에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와 같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별소통대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통신 3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장애 공동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개선해 왔으며, 재난로밍 가입자 증대에 따른 용량 증설과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의 통합 장애감시 시스템을 상용망에 도입하여, 기존에 분산되었던 네트워크 장애 감시를 통합 운용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 기반의 보다 정교하게 진화한 장애 감시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학습된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용을 지능화하고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한 처리 용량 증설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형 장애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위험 관리

위험 관리 프로세스

법령 준수

SK텔레콤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에 따른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한 대로 2024년 9월에 2025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고, 총 185개 국소를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5년 한해동안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별로 전력공급망 이원화, 자체 안전점검 및 모의훈련 등의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SK텔레콤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사옥(성수, 둔산, 보라매, 분당)을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재, 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 신속한 복구 방안 등을 수립하여 2025년 3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고 10월에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이행 증빙을 통해 보호계획에서 계획한 내용들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소방법,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소방 설비 점검 및 훈련, 건물 내진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유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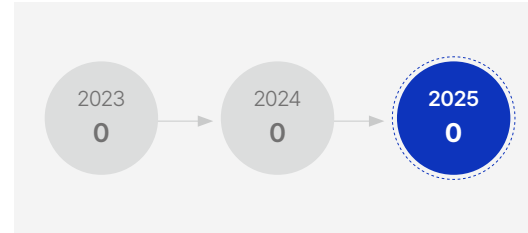
지표 및 목표

지표

네트워크 장애 건수

대형 통신장애 발생 건수¹⁾

(단위: 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 '경계' 단계 발령 장애, 또는 동등 이상 장애

목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 및 지원

SK텔레콤은 임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을 통해 2025년 중요통신시설 재난 담당자 25명이 통신재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며, 매년 신규 담당자로 지정될 경우 또는 교육 수강 후 2년이 지난 담당자의 경우에 해당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재난 담당자의 교육과는 별개로, SK텔레콤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교육은 인프라 각 영역별로 진행하게 되며, 신규 AI 기술 관련 사항, 장애 예방/복구 관련 사항 및 시스템 관련 사항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직원이나 업무 변경 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복잡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기초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의 A, B 등급 국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2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2025년도에도 한전,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재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구성원들의 대응 방안 및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외에도 전송망, 교환장비 등의 장애, 정전/전원시설 고장, 우기/태풍 시 장애 발생 등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하여 자체 모의/실전훈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 대응 프로세스의 점검, 개별 구성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SK텔레콤은 공급망 대상 ESG 프로그램 등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활동 계획 및 이행 성과를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고객, 인권경영, 정보보안, 공급망 관리 등 ESG 주요 분야의 추진 방향과 성과, ESG 의무 공시 사항,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등을 논의하여 경영 활동에 반영합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동반성장 실천과 협력사와의 상생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구매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관련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점검합니다.

공급망 관리 전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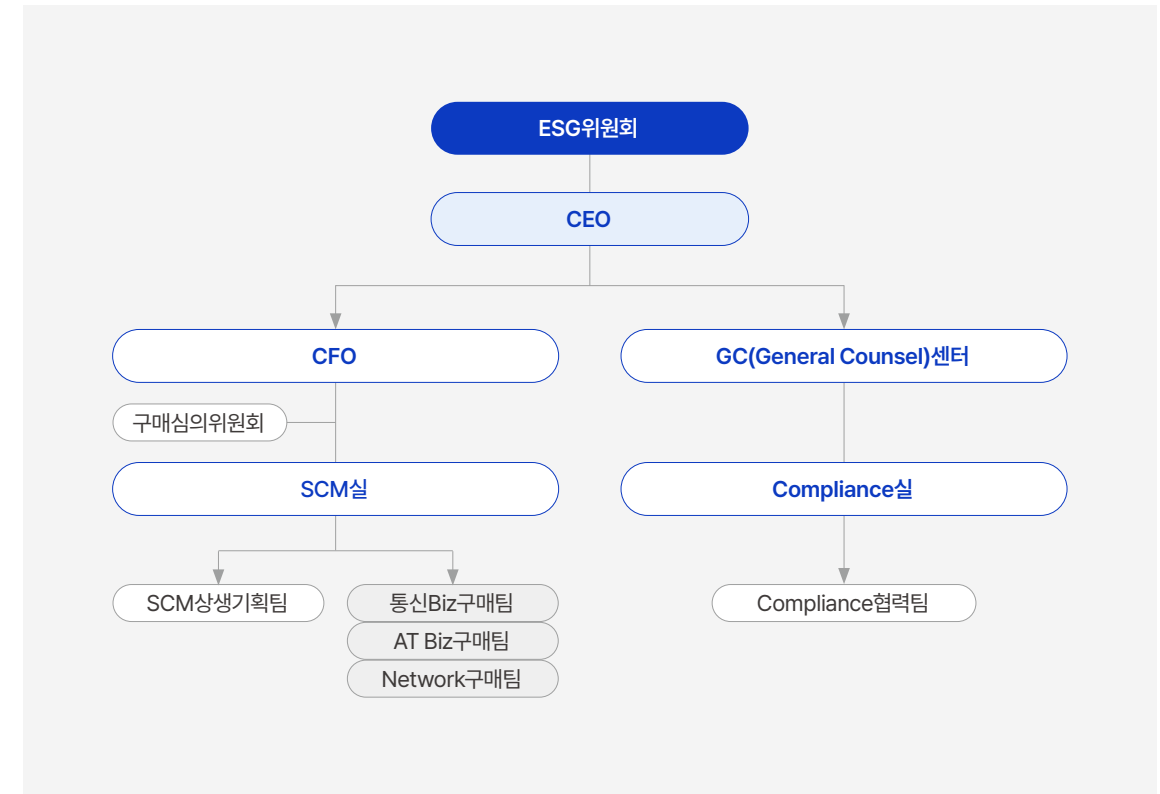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동반성장팀(現 SCM상생기획팀)을 설치하여 상생경영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ompliance협력팀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주요 업무

SCM 상생기획팀	• 동반성장 전략 수립 및 실행 • Biz. 파트너 대상 Comm. 활동 • 전사 동반성장 문화 확산
Compliance 협력팀	• 전사 Compliance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Compliance 업무 혁신 아이템 발굴 및 적용 • 공정거래 법령/규제 동향 파악 및 분석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전략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SK텔레콤은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포함한 정책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계약 및 거래 시 ESG 리스크 스크리닝을 시행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리스크 식별·진단·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재무, 교육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급망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SK텔레콤은 협력 관계 확대 및 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급망 관리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Biz.파트너 차별화 관리',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Biz.파트너 ESG 실천 정착'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협력사와 함께 Dream Team이 되어 보다 가치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략



협력사 ESG 정책

SK텔레콤은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경영, 반부패, 공정거래, 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Supplier ESG Code of Conduct)'을 수립하여 거래 전 동의와 서약을 받고 있으며, ILO 국제노동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 준수 요건을 정의하여 협력사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의 '협력사 ESG 진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핵심 관리 영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식별된 리스크는 '사전 진단(협력사 자체 평가) - 제3자 평가 - 제3자 실사 - 개선 계획 수립 -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협력사가 ESG 리스크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ESG 특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협력사 ESG 행동규범

SK텔레콤의 '협력사 ESG 행동규범'은 UNGC 원칙과 OECD MNE 가이드라인, GeSI의 JAC(Joint Audit Cooperation)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협력사가 매년 초 온라인 구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사는 해당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SK텔레콤과 함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 제정 목적

협력사 ESG 행동규범은 밸류체인 내 모든 협력사의 ESG 경영 이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K텔레콤은 모든 협력사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경영을 실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ESG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SK텔레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 이행 대상

협력사 ESG 행동규범은 모든 협력사와 그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SK텔레콤과 함께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자사의 사업 활동 뿐만 아니라 제3자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협력사가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의 역할과 책임

SK텔레콤 또는 SK텔레콤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평가기관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리스크가 식별될 경우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정기적인 자가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발견된 위반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및 완화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협력사 ESG 행동규범 세부 내용



노동/인권경영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준수, 임금/복지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



보건/안전경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산업재해 및 질병, 사고 관리,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위생·식품 및 주거, 보건/안전 커뮤니케이션



환경경영

환경경영 목표수립, 친환경 제품/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자연자본,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 화학물질 관리, 제품환경 규제대응



윤리경영

사업 청렴성,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지적재산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법률준수



경영시스템

경영시스템 구축, 법규 및 외부 요구사항 대응, 리스크 점검, 교육 및 소통, 정보 관리, 고충처리 제도 운영,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공급망 반부패 정책 및 감사

'협력사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과 '협력사 윤리실천 서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협력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SK텔레콤과 협력사 간의 공동 약속입니다. 협력사 윤리실천 서약은 금품·접대·편의 제공 금지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과장·거짓 광고 및 담합 금지 등 공정거래 법규 준수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승인 없는 고객 정보 이용 및 제3자 유출 금지,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복 금지, 분쟁·책임 광물 사용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반부패 경영 실천을 촉진하고 투명한 감사를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 반부패 요구 사항을 사내 '구매관리규정'에 반영하여 관리 중입니다. 협력사의 반부패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공급망 반부패 감사 결과에 따라 총 3건의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략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동반성장 History

SK텔레콤은 건전한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230개 대·중견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하는 2024년 귀속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SK텔레콤은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게 인정되는 '최우수 명예기업'은 11년 이상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동반성장 History

- 2003. 업계 최초 동반성장 전담조직 신설
- 2008. SK그룹 동반성장위원회 발족
- 2013. 통신업 최초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2015.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 2019.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 2022.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 2025. 동반성장지수평가 1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 2025.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협약 체결

협력사 복지 프로그램 지원

SK텔레콤은 비즈니스 파트너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학자금, 건강검진, 통신비 등을 복지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용 플랫폼 내에 'SK텔레콤 비즈니스 파트너 전용 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인재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파트너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및 휴가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지원

(단위: 건)

구분	지원 건수
복지포인트 (학자금, 통신비 등)	118
채용, 청년 일자리 창출	118
경조사 지원	28
출산 등 기타지원	196
합계	460

협력사 기술 개발과 보호 지원

SK텔레콤은 TMAP, PASS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술 개발 협력사에 Open API 포털 형태로 개방하고 있으며, 단말기 및 기지국 장비 테스트베드(Test-bed)와 같은 ICT 기술 개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이 축적한 지적재산권(IPR) 중 양도 가능한 기술을 선별하여 협력사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협력사가 특허 기술 기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 협력사의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기술 보호 지원 현황¹⁾

(단위: 건)

구분	지원 건수
기술 개발 인프라 지원 (SK텔레콤 Open API 등)	2,101
특허 지원(출원비용, 무상이전, 기술보호 정책보험)	98
기술자료 임치제도	104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349
합계	2,652

1) 핵심 협력업체 22개사 포함

협력사 재무 지원 프로그램

SK텔레콤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동반성장펀드와 ESG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상생대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하도급 대금 결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여 협력사의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재무 지원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지원 건수	지원 금액	비고
동반성장펀드 대출 지원	66	633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987	-	일반 하도급 지급 계약 60일 대비하여 평균 지급일수 6.7일로 조기 지급됨

전략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력사 역량 강화 과정 지원

SK텔레콤은 협력사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ESG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는 법정 필수 과정, ESG 일반 과정, Tech 역량 강화 과정, 기타 일반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 총 24,957¹⁾명의 협력사 구성원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1) 2024년까지는 SK브로드밴드 등 관계사의 협력사를 포함하여 산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SK텔레콤 협력사만 포함하여 산정

2025년 협력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총 이수자

24,957명



협력사 역량 강화 과정 운영 현황

구분	교육과정	이수자(명)
법정 필수 과정	-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윤리경영 교육 -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정보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16,672
ESG 일반 과정	- ESG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지구 물려주기, SV Story, ZERO 탄소 발자국 - 비즈니스모델의 트렌드 ESG, ESG실천전략	1,988
Tech 역량 강화 과정	- Chat GPT, 생성형AI, DT, 5G Tech, IT Security - 메타버스, 서버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파이썬 기본	5,089
기타 일반 과정	경제전망,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인사이트, ICT 트렌드	1,208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과 개선 요청을 수렴하여 사업과 구매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SK텔레콤은 동반성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간담회(In-depth meeting), VOP(Voice of Partners) 청취, 파트너 Survey, SCM 우체통 등 협력사가 참여하는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사의 고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복 Survey

SK텔레콤과 거래나 협업 과정에서 업무 관계, 의사결정 등 주요 항목에 대해 협력사 대상 무기명 의견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부서 피드백과 동반성장 정책에 반영

협력사 In-depth 미팅

SK텔레콤과의 계약이나 동반성장 활동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일대일(One-on-One) 형태의 자유로운 미팅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SCM 우체통¹⁾

SK텔레콤과의 구매 관련 업무(발주, 계약, 납기 등) 진행 과정상 애로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및 반영 (OPEN2U '열린소통')

1) 2025년 실적: 0건 접수되어 후속 처리 완료 실적 없음

2025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방안 추진성과

2023년에는 기존의 프로세스,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한편 수립된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방안에 기반하여 150개사를 SK그룹 차원에서 개발하고 인증을 받은 Click ESG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 ESG 평가를 시행하는 SK그룹 관계사와 동일하게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총 6개 지표를 필수지표로 선정하여 진단했고, 종합점수 3점 미만을 기준으로 분류된 고위험군 36개사는 재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고위험군이 13개사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66개 ESG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업종에 적합한 평가지표로 재설계 했고, 118개 중점관리 협력사를 진단하여 리스크가 높은 19개사가 도출되어 컨설팅까지 지원한 결과 고위험군이 최종 4개사로 축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Tier1/Tier2 중점 협력사 105개사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ESG 평균점수가 6.28점으로 기존 대비 0.54점이 개선되었고, 신규로 평가에 참여한 3개사만 최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2026년까지 개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략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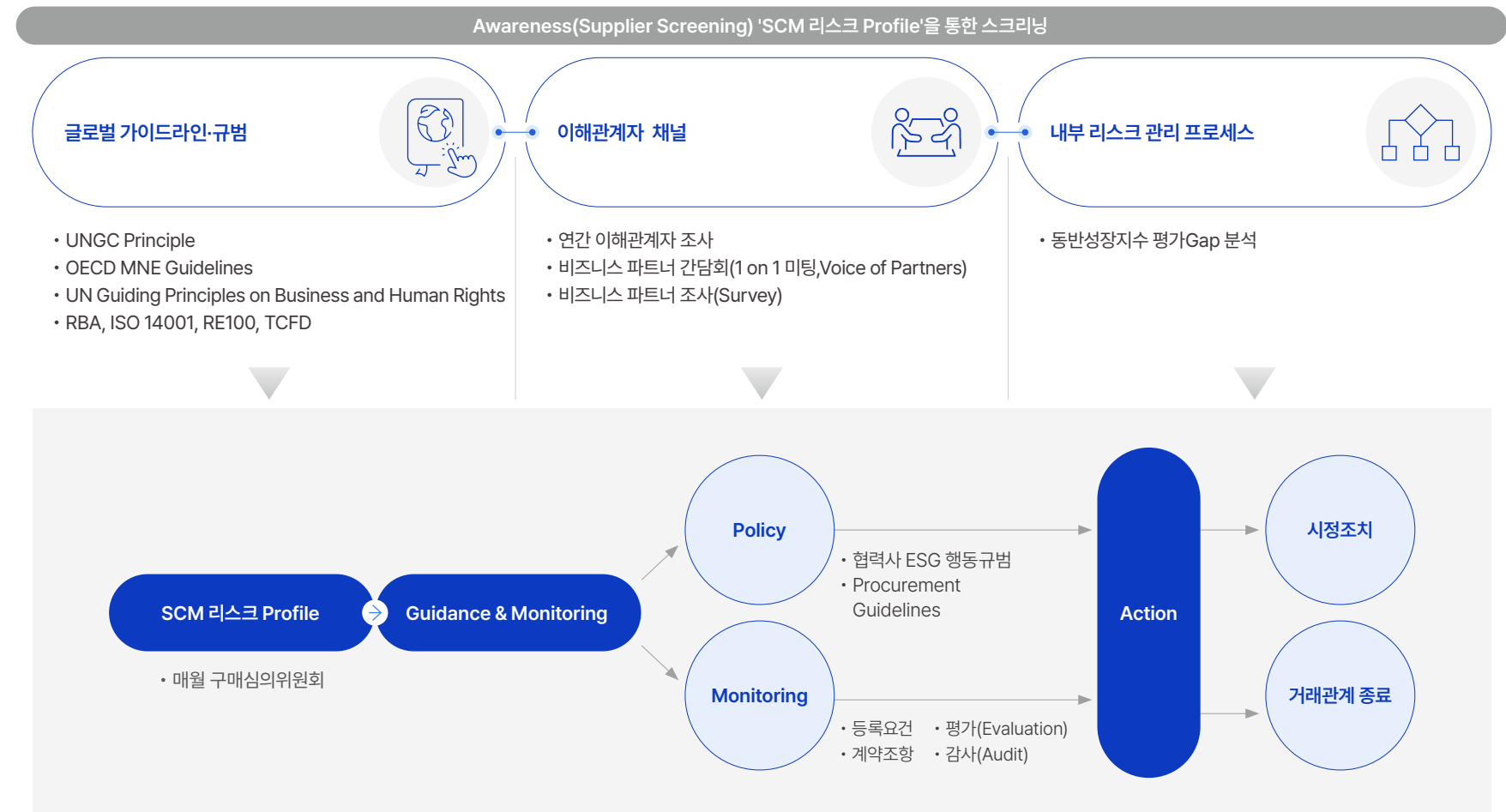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로드맵

SK텔레콤은 등록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자가 진단, 방문조사 등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협력사에는 시정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주기적인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ESG 성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리스크 심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ESG 중점 관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 심층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층진단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 별 맞춤형 개선 지원 교육과 협력사 현장 방문을 통한 ESG 수준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ICT 계열사인 SK주식회사AX, SK브로드밴드와 협업을 통해 협력사 ESG 진단 체계 시너지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복 협력사의 진단 데이터를 상시 공유하여 ESG 진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절차



전략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

구매과정에서의 ESG 기준 수립 및 공급망 사전 스크리닝¹⁾

SK텔레콤은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협력사 ESG 행동 규범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ESG 평가 지표를 최소 3% 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요구하는 ESG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 물량 제한 또는 계약 배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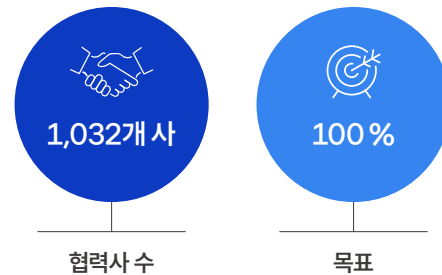
협력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전자계약 시스템인 OPEN2U를 통해 '윤리실천 서약' 및 '정보보호 서약'을 수취함은 물론, 협력사 ESG 행동규범에 기반한 사전 스크리닝을 100% 시행합니다. 스크리닝 과정에서는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등 ESG 핵심 요소와 사업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가·산업·상품별 리스크를 포함한 심사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특히 사업 연관성 측면에서는 네트워크망 및 AI 인프라 확장 등 SK텔레콤의 핵심 전략 사업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검토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거래 형태를 분류하고 위험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 ESG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합니다. 국가별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아동노동 등 인권 취약 지역 및 국가 소재 여부를 ESG 스크리닝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별 ESG 리스크(아동노동 등) 취약 국가·지역 관리는 협력사 ESG 스크리닝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SK텔레콤은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동·보건·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수급업체 평가 및 자가진단(체크리스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협력사는 6개월 이내에 미흡한 항목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신규 등록된 협력사와 지속 거래 협력사에 대해 모두 100% 사전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스크리닝 100%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검토 항목과 관련 프로세스를 국제적인 ESG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 협력사 공급망 ESG 평가 및 사전 스크리닝



비고: 장비·공사·용역·물품 협력사

협력사 사전 스크리닝 기준

구분	식별이슈
ESG 요소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사업 연관성 요소	네트워크망 확대, AI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인프라 확장 등 SK텔레콤 사업 특성 고려
국가 리스크	사업장 소재 국가의 정치·사회·경제·법 등과 관련된 리스크
상품 리스크	상품의 제조·유통·이용 등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산업 리스크	노동 상황, 에너지 소비, 자원 집약도 등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 리스크

협력사 거래품목별 사전 스크리닝 식별 이슈

구분	거래품목	식별이슈						
		ESG요소			사업 연관성 요소	국가 리스크	상품 리스크	산업 리스크
		E	S	G				
장비	5G 등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장치·설비 품목 기지국(Base Station), 중계기(Repeater), Switch, 정류기(Rectifier) 등	High	Low	Medium	●	●	●	●
공사	5G 등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장치·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구비 후 현장에서 시설하는 거래 영역	High	Medium	Medium	●			●
용역	5G 등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고객정보보호, 과금, 감시 등 개발과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거래 영역	High	Low	Medium	●			●
물품	노트북, 모니터 등 통신사업을 위한 공산품 거래 품목	High	Low	Medium	●	●	●	●

전략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

공급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매 전략

SK텔레콤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5대 핵심 구매 전략을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총소유 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의 구매 구조 개선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원가 구성에 대한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의 점검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향적(Business Friendly) 구매 프로세스 최적화, 선제적 위험 관리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공동 개발 확대와 해외 수출 지원을 병행하며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급망 정책 변화에 관한 정기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규 내에 구매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구매 부서와 구매 요청 부서 등 전 구성원의 구매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통해 조직과 개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 공고부터 현장-제안-기술-가격 평가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단계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충족하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구매관리규정에 의거해 원·부재료 및기자재의 구매 단계부터 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품목 선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대비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장비 도입 시에도 TCO 관점에서 중장기(3~10년) 전기 사용량을 평가에 반영하여, 저전력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액티브(Active) 소자 장비를 패시브(Passive) 소자 장비로 대체해 오고 있으며, 주요 시설과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현황

SK텔레콤은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및 인프라 투자 연관성, 거래 규모, 독점 기술 보유에 따른 대체 불가능 여부 등 주요 추진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거래 의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 공급업체(Significant Supplier) 그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총 1,032개 협력사 중 거래 규모, 지속 거래 등을 고려하여 총 129개사를 Tier 1 중요 공급업체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2차, 3차 협력사 중 38개사를 Non-Tier 1 중요 공급업체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매 담당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과정	빈도
구매전문가 육성	- 전입 구성원 구매 역량 강화 - 입찰방식, 평가, Best/Worst Practice	매년 1월 3주 수시
ESG 워크숍	- 국내외 ESG 동향 및 SCM 실천 방향·성과 - 개선 또는 신규 실천 과제	수시

2025년 공급망 현황

협력사 구분	협력사 수(개사)	구매 비중(%)
Tier 1 협력사	총 등록	1,032
	장비(네트워크 및 인프라)	131
	공사	80
	용역(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761
	물품	60
중요 공급업체 (Significant Supplier)	Tier1	129
	Non-Tier 1	38

전략

공급망 ESG 평가

SK텔레콤은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등록 협력사의 서면 및 방문 조사 실시 비중을 공급망 ESG 평가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리스크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평가 모델을 운용 중입니다. 우선 DJ BIC, MSCI, GRI, K-ESG, IBC, WFE, EcoVadis, RBA 등 글로벌 평가 지수와 가이드를 벤치마킹한 SI 기업의 ESG 평가 플랫폼 및 지표를 활용하여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평가·컨설팅 전문 기업의 국내 법인을 통한 2차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ESG 전문 독립 기관에 의뢰하여 Scope 3 배출량 등 주요 ESG 영역에 대한 서면·현장 실사와 검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ESG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의 ISO 인증 여부 등을 검증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평가(평가 유형별)

협력사 구분		2025년	
		협력사수(개사)	구매비중(%)
Tier1	서면·현장 실사(Audit) 전체 협력사 수	1,032	100
	서면·현장 실사(Audit) 중요 협력사 수	129	91
Non-Tier1	서면·현장 실사(Audit) 중요 협력사 수	38	-

SK텔레콤은 협력사 ESG 평가를 통해 협력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1차 협력사 1,032개사를 대상으로 100% 서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SK텔레콤이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물량 감소나 계약 제외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주요 협력사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별도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 무상 제공 및 ESG 진단·평가 지원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ESG 진단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금융 지원을 포함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4년 총 7개 우수 협력사를 선발하였으며, 2025년까지 약 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심층진단 수행

SK텔레콤은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해 2021년 2차례에 걸쳐 협력사 ESG 평가 개선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중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개발한 ESG 리스크 관리 심층진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진단 방식을 정기·수시로 이원화하여 ESG 리스크 진단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ESG 진단 플랫폼을 통해 심층 진단 결과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는 해당 산업군의 평가 항목별 비중을 파악하고, 참여한 협력사

평균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ESG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사를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트렌드,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모범 사례집을 배포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고위험 협력사에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여 매년 개선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 담당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공급망 ESG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기존 교육 유지·강화 ESG 교육

교육명	교육내용
친환경 Bro 황대리x줄리안의 ZERO 탄소 발자국	실생활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지구 물려주기	탄소중립 관련 논의, 제도, 방향 등 인사이트 확보
ESG의 이해	전 세계적 ESG 추진 배경과 목적 이해
글로벌 기업 'Patagonia, Lush, Unilever'의 SV Story	ESG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안

신규 ESG 교육

교육명	교육내용
비즈니스 모델의 트렌드, ESG	ESG 사례에 기반한 ESG 경영의 실천 전략
문성후 박사의 ESG 실천 전략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
모두가 알아야 할 ESG, 쉽게 활용하기	ESG 활용 방법과 요령

위험 관리

공급망 ESG 평가 체계

협력사 ESG 진단평가

"협력사에서 ESG 진단 플랫폼에 항목별 자가진단 실시하고,
협력사 등록 Data에 대한 검증 진행"



Awareness(Supplier Screening) 'SCM리스크 Profile'을 통한 스크리닝

진단 Data 등록
(ESG·공급망)

Data·ESG 성과 검증

공급망 ESG 검증

ESG진단

- 기업 ESG자가·제3자 진단
- 공급망 ESG진단·실사
- 진단 Simulation 및 보완

ESG관리체계 및 Data Pool

ESG Data

- ESG 지표·관리항목
- DATA 입력 가이드
- GLOBAL DATA-PEER GROUP, MSC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공급망관리

- 품목·산업·규모별 협력사
- 평가요소·기준
- 공급망 관리정책
- 산업군 별 가중치

결과 Reporting

Peer Group 비교

자가진단

ESG진단

공급망진단

기업별 전략 수립(Optional)

ESG 개선영역 도출

진단 결과 및 컨설팅 서비스

글로벌 가이드라인·규범

"ESG 고위험 협력사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중점 지원하고, 1차 협력사 Needs를 반영한
개선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지원"

교육(Online/Offline)



- [실무자] SK텔레콤 동반성장 아카데미 ESG기본·심화과정
- [경영층] 그룹 동반성장아카데미, SK텔레콤 CEO포럼 등
- [구성원] SK텔레콤 동반성장 아카데미 ESG 실천교육
- 윤리경영, 성희롱예방, 괴롭힘방지, 정보보호 등

Guide



- 협력사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윤리, 노사, 안전 등 사규·규정

컨설팅



- 협력사 현장 컨설팅(고위험 협력사 대상)
- 산업혁신컨설팅 연계하여 ISO 인증 등 지원

위험 관리

공급망 내 주요 리스크 식별 및 분석

SK텔레콤은 동반성장 체감도 및 비즈니스 파트너 설문 조사 등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와 더불어 협력사 간 담회(In-depth meeting), VOP(Voice of Partners),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 등 다각적인 채널을 운영하여 공급망 내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식별된 리스크 요소는 공급업체 그룹별 리스크 갭 분석(Risk Gap Analysis) 및 리스크 매핑(Risk Mapping)에 반영하며, 이를 분기별 구매 성과 분석·개선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특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를 경제·사회·환경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지속가능성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주요 리스크는 '협력사 ESG 행동 규범'과 '윤리실천 서약'에 즉각 반영하여 향후 진단 시 100%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협력사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 또는 제3자 조사를 통한 공급망 실사(Audit)를 실시함으로써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및 인센티브

SK텔레콤은 협력사 리스크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 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한 ESG 성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 협력사는 별도 관리를 통해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시정 조치를 위한 필수 자원 지원 및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신속한 성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ESG 성과 개선 및 리스크 시정 조치는 원격 지원 또는 현장 방문 등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출된 개선 결과는 분야별로 분류·분석하여 공급망 사전 스크리닝, ESG 리스크 진단 및 지원 정책 수립 프로세스에 반영함으로써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기준 협력사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협력사는 없었습니다.

한편, 진단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사에는 ESG 우수 협력사 금융 지원, 역량 제고 프로그램, 위험 감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 제고 프로그램은 기술·특허 무상 이전과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 등을 통한 기술 지원·보호 프로그램, 동반성장 아카데미, 협력사 대상 CEO 세미나 과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험 감소 프로그램은 동반성장협약 체결, 협력사 대상 구매 정책 및 정책 준수 가이드를 비롯하여 납품단가 조정, 자금(금융) 지원, 복지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리스크 평가 결과 및 시정 조치 지원 현황

협력사 구분	단위	2025년	2025년 목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 공급업체 수	개	3	-
합의된 시정 조치·개선 계획이 있는 실질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공급업체 비율	%	100%	100%
상당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제거된 공급업체 수	개	3	-
시정 조치 계획 이행을 지원받은 공급업체 수	개	3	-
시정 조치 계획 이행을 지원받은 공급업체의 비율	%	100%	100%

지표 및 목표



지역사회



SDG 3. 건강과 웰빙

- AI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 CareVia 서비스: 전국 7개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 도입 (2026년 2분기 기준)
-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AI 콜 서비스
- ICT 기반 봉사과 기부: 현금 기부 142억 원, 현물 기부 112억 원, 헌혈 참여 구성원 712명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문자 서비스
-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 정밀 측위 확대
- 산불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 : 스팸/보이스 피싱 번호 차단 11억 건



SDG 4. 양질의 교육

-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 행복AI코딩스쿨 4,032명, 행복AI코딩챌린지 114명
- AI 기술 기반의 핵심 실무형 인재 육성 플라이 AI 챌린지 429명 참여(2022년~2025년)
- AI 윤리 ON! 캠프, 개인정보 보호 특화 교육 진행
- 장학 꿈나무 총 335명 후원(2014년~2026년 2월)
- V컬러링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콘텐츠 제작을 통한 약 5억 원 지급



SDG 10. 불평등 감소

- 취약계층 요금 감면: 연 6,046억 원
- 사회적 가치 서비스(음성·문자·데이터) 무료 제공
- 발달장애인 골퍼 대회 개최로 스포츠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 매월 7만여 고객 이용
- 텍스트 통화 서비스 '보이스뷰' 지원
- 청각장애 고객 대상 통화연결음 서비스 '손누리링'
- 행복상자 봉사 캠페인: 800여명 아동 지원



SDG 8.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 T day를 통한 매출 향상: 815억 원 매출
- 열린 멤버십: 3.5억 원 지원 (착한 소비 2.2억 원, 열린 베이커리 1.3억 원)
- 중소기업인 광고/마케팅 지원 'T딜' : 판매자 중 중소기업인 비중 98%
- SK Open API 무상 제공
- 혁신 스타트업 육성: 2013년부터 총 528개사 발굴
- 대전 및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파트너 기업
- ESG 펀드 조성: 총 400억 원 규모
- 한국 대표 AI 기업들과의 K-AI Alliance : 50여 개 멤버사 참여(2026년 5월 기준)
-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활성화(SKTC)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문제 해결 축제 참여
- 취약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 5G 1,185개 지역, LTE 502개 지역

* 별도 표기가 없는 정량 데이터의 경우, 2025년 기준

거버넌스

SK텔레콤은 ICT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ESG위원회는 사회책임경영 추진 방향과 성과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사 ESG KPI, SV 공동예산 운영 계획, 인권경영 추진 성과, 공급망 상생/ESG 협력성과 등 관련 안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실은 사회공헌 전담 조직으로서 전사 사회공헌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제에 따라 이동통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체계



ESG위원회 보고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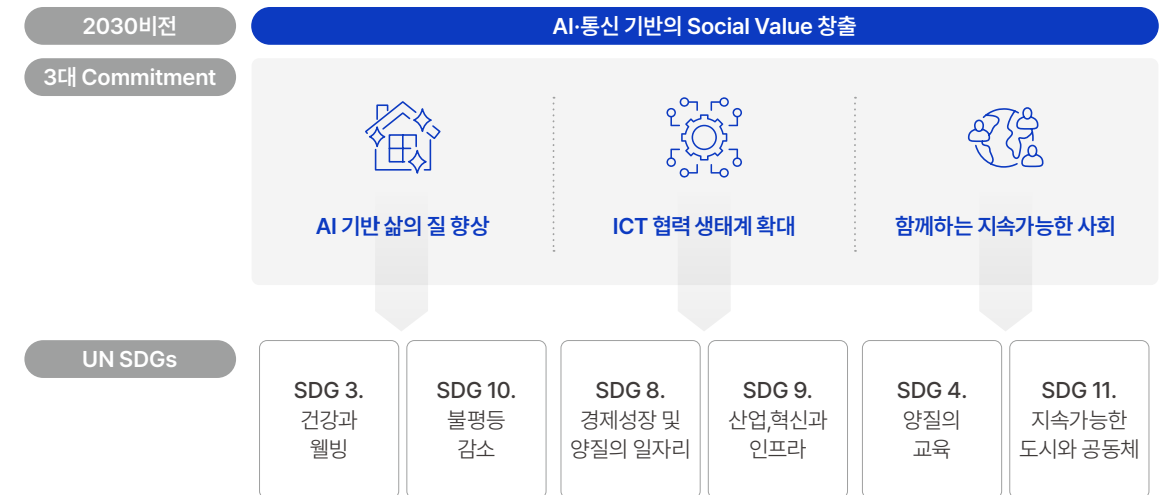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25.2.25	2025년 전사 ESG KPI(안)	심의
2025.4.23	2025년 SV 공동예산 운영 계획(안)	심의
2025.8.27	2025년 전사 KPI 지표 중 SV 측정 운영 보고	심의
	인권경영 추진 성과 및 계획	심의
2025.10.28	2025년 공급망 상생/ESG 협력성과 및 2026년 추진방향	심의
2025.11.26	2025년 ESG 추진 성과	심의
	2025년 중요성 평가 결과	심의

전략

삶의 모든 영역에서 ICT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와 같은 부작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Company'로서 ICT 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AI-통신 기반의 Social Value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AI 기반 삶의 질 향상', 'ICT 협력 생태계 확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3대 측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목표인 UN SDGs 달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전략



전략

AI 기반 삶의 질 향상

AI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SK텔레콤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AI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 고립가구를 돌보는 것은 물론, 외로움 해소와 치매 예방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¹⁾와 협력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Car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커넥트 AI케어센터는 SK텔레콤 AI 스피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안부 확인, 방문 조치, 심리 상담 지원, 긴급 SOS 호출을 통한 119 연계 등 24시간 365일 실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관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행복커넥트는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SK텔레콤과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운영함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모두를 위한 돌봄으로, CareVia 서비스

SK텔레콤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021년부터 Vision AI 기술을 적용한 돌봄 서비스 'CareVia'를 선보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과 협력하여 2026년 2분기 기준 총 7곳의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이 CareVi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Vision AI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기록하고 개인화 리포트 및 중재관리 기능을 AI 플랫폼에 구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법무병원의 발달장애인 병동에도 CareVia를 도입하여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장애인을 돌보는 AI라면 모든 이를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Vision AI 기반의 Life Care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Vision AI가 다양한 생활 환경

에서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SK텔레콤 사옥 내 계단실, 승강기, 주차장 등에 적용하여 구성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승강기로도 확대하는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케어 서비스로 넓혀 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AI 콜 서비스

SK텔레콤은 독거 어르신과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AI 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건강 안내를 AI 콜로 제공 중입니다. 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의 전문 관제·모니터링을 담당하는 AI케어센터에서 분석하여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돌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바우처 안내 등 필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돌봄 업무 부담을 덜고 본연의 현장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콜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부 유형별 자선 활동 지출

(단위: 백만 원)

현금 기부	현물 기부 ¹⁾	근무시간 중 구성원 봉사 활동 투입 시간 기준 산출 금액
14,228	11,286	32

1) 현물기부: 상품·서비스, 프로젝트·상품 등 현금 등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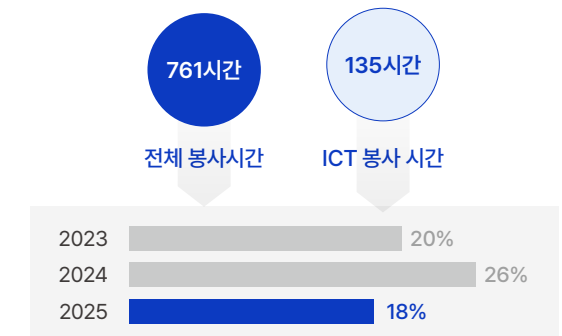
*SK텔레콤의 반부패 정책에 의거하여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은 지양함

ICT 기반 봉사와 기부

SK텔레콤은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사용성 테스트에 참여하고 현금 및 현물 기부를 통해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공식 헌혈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를 개발했습니다. 레드커넥트는 혈액 검사 결과를 국가 보건의로 빅데이터와 결합해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헌혈자의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홍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메시징 서비스(RCS)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SK텔레콤과 ICT Family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여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25년 ICT Family사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는 712명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국내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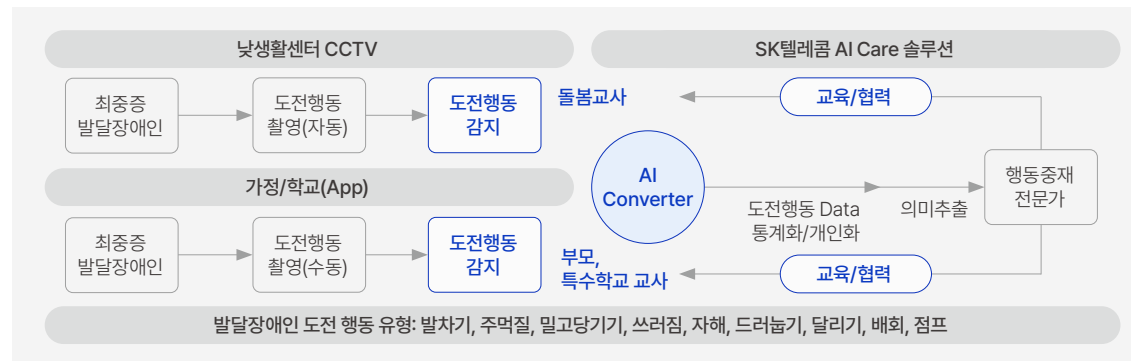
구성원 전문 자원봉사 비율²⁾



2) 전문 자원봉사 비율: ICT 자원봉사 및 프로보노 봉사단의 봉사 시간/전체 자원봉사 시간

CareVia

"SKT만의 Vision AI와 Cloud 최적화 기술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인식 > 기록자동화 > 개인화 리포팅 및 중재관리"



전략

AI 기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요금 감면

SK텔레콤은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에게 제공한 감면 금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6,046억 원이었습니다.

손누리링

손누리링은 '손으로 세상을 그리다'라는 의미를 담은 통화 연결음 서비스로, 청각장애가 있는 고객이 더 원활하게 통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음으로 "이 전화는 듣는 것이 불편하신 고객님의 휴대전화입니다. 문자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모바일 T월드와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누리링은 청각장애 고객이 이동전화를 이용하며 겪는 불편에 귀 기울여,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

시각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좀 더 편리한 통신 라이프를 제공하고자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AI 상담사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총요금과 통신요금, 휴대폰 할부금, 부가서비스 요금 등 상세 내역을 안내해 주는 전화 기반의 소통 서비스입니다. 매월 7만여 고객들이 기존 청구서의 부담이나 분실 위험 없이 무료로 청구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뷰

A.(에이닷) 전화 앱의 '보이스뷰(VoiceView)'는 SK텔레콤의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텍스트 통화 서비스입니다. 발신자가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하면 AI 음성으로 변환되어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반대로 수신자의 음성은 텍스트로 변환되어 채팅창에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등으로 음성 통화가 어려운 고객도 텍스트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통신 접근권을 위한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

SK텔레콤은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가치 서비스'에 대해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신고, 상담, 장애인 보조 서비스 등 국민 안전망과 취약계층 지원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월별 이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제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통신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데이터 이용료를 무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통신 품질 정보는 음영지역 개선에 활용되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통신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서비스의 무료 제공을 지속하여 누구도 비용 때문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

SK텔레콤은 발달장애인 골퍼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골퍼와 비장애인 프로골퍼가 한 팀을 이뤄 선의의 경쟁을 펼쳐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미술작가팀과 공연팀까지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축제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US 어댑티브 오픈(US Adaptive Open) 출전경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골퍼들이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발달장애인 골퍼 육성 및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ESG 경영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게 온기를 전하는 '행복상자' 구성원 봉사활동

결식우려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SK그룹의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행복상자' 봉사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위험에 놓인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어 온 민관 협력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행복도시락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은 결식우려아동에게 전달할 기초 생필품 패키지를 직접 포장하고, 아이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800여 명의 아동에게 1년 치 비타민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요금 감면 현황

(단위: 백만 원)

감면대상	2023년	2024년	2025년
장애인	140,514	140,054	137,127
저소득층	180,575	191,104	203,832
국가유공자	14,113	14,306	14,319
기초연금수급자	211,791	229,923	245,971
기타	2,307	2,563	3,398
합계	549,300	577,950	604,647

전략

ICT 협력 생태계 확대

중소 상공인 지원

SK텔레콤은 고객 혜택 프로그램 'T멤버십' 플랫폼의 강점을 활용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하여 특정일에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멤버십의 대표 프로그램 'T데이'를 통해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의 매출 향상에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T멤버십 앱에 할인 혜택 페이지를 게시하고 할인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MMS, 앱 푸시를 발송하며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카페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T데이를 통해 가맹점에서 구매한 횟수는 845만 회, 이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 매출은 815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고객이 가맹점에서 받은 할인 혜택은 641억 원, 이 중 SK텔레콤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SK텔레콤은 사회적 가치에 기여가 지갑을 여는 고객을 위해 '열린 멤버십'이라는 소상공인 지원 특화 혜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멤버십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 소비'와 동네 빵집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열린 베이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착한 소비를 통해 12개 업체에 2.2억 원, 열린 베이커리를 통해 동네 빵집에 1.3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2020년 4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문자 마케팅 서비스인 'T딜'을 활용해 전국의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딜은 각 상품별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상품 정보 확인부터 구매까지 가능한 전용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입점한 중소기업인은 할인 쿠폰, 타게팅 광고 문자, 배너, 기획전 등 효과 높은 마케팅 자원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적 기준으로 T딜에 입점하여 거래가 발생한 판매자 중 중소기업인의 비중은 98%이며, 중소기업인의 매출이 T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의 마케팅 지원이 대형 사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스타트업·사회적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SK Open API 무상 제공

스타트업과 사회적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본래 유료로 제공되는 자사의 API와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T map, 지하철 혼잡도 등 유상 SK Open API와 데이터를 스타트업·사회적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업 기반 마련과 고용 창출,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이동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대규모의 유료 API·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API 사용법 안내 등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하며 안정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스타트업·사회적기업 대상 서비스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API를 추가로 배포하고 안내 문구 보강 등 사용자 편의성과 기능을 개선하며 SK Open API 제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협업

SK텔레콤은 2013년부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ESG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목표 설정부터 서비스 개발, 시장 진입, 글로벌 확장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ESG 코리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자원순환, 심리상담, 접근성 등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15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6개월간 맞춤형 교육/멘토링, 인프라, 국내외 전시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AI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는 15개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선발해 상품·서비스 개발 및 안정적인 시장 진출, 협업을 통한 사업화 검증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총 528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인프라/전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의 총 기업가치는 2026년 3월 기준, 약 20조 원(기업가치 공개한 219개사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CES 최고 혁신상', 'MWC GLOMO 어워드' 등 국내외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스타트업의 발굴·육성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까지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ICT 협력 생태계 확대

지역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SK텔레콤은 대전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파트너 기업으로서 지역 스타트업 육성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AI, 로봇, 딥테크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SK텔레콤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드림벤처스타(Dream Venture Star)'에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SK텔레콤 사업부서와의 1:1 비즈니스 밋업 등을 통해 협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후 PoC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 연계, 정부 지원사업 연결 등 단계별 지원을 받으며 AI·통신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협력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ESG 펀드 조성

SK텔레콤은 사회적·환경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며, 혁신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1년 208억 원 규모의 'SK텔레콤-카카오 ESG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400억 원 규모의 '통신 3사 ESG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ESG 펀드의 투자 대상은 AI 등 ICT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환경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창업 기업입니다. ESG 펀드를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여 ESG 혁신 스타트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카카오 ESG 펀드는 15개 기업, 통신 3사 ESG 펀드는 27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4년간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오픈 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데 이어 ESG 펀드까지 조성함으로써 발굴부터 육성, 투자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 전반에 걸친 선순환 육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ESG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환경적 난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혁신 펀드

1. 국내대표 ICT Big Player와 ESG 경영 초협력 과제로 펀드 조성

2. 주목적 투자 분야는 ICT 기반 사회적·환경적 난제를 해결하는 우수 ESG 스타트업

3. 초기단계 기술 스타트업 중점 투자 및 SK텔레콤 협업 모색을 통한 Value-up 지원

SK텔레콤-카카오 ESG펀드



통신3사 ESG펀드



전략

ICT 협력 생태계 확대

AI 생태계 동반성장을 위한 K-AI 얼라이언스

SK텔레콤은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 국내 대표 AI 기업들과 'K-AI 얼라이언스(K-AI Alliance)'를 결성하였습니다. 7개 기업으로 출범한 K-AI 얼라이언스는 결성 3년 만에 50여개 멤버사 규모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주도 AI 기업 연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AI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AI 기술 역량과 사업적 시너지를 기준으로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내 AI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그룹 계열사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6년에는 고성능 저전력 엣지 AI 반도체 팹리스 '모빌린트', LLM 추론 특화 AI 반도체 (LPU) '하이퍼엑셀', 칩렛 기반 SoC-CXL 메모리 확장 솔루션 '프라임마스',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홀리데이로보틱스', 보행·허리 보조 웨어러블 로봇 기업 '위로보틱스', 글로벌 미디어 현지화(자막·더빙) 1위 기업 '아이유노', AI 기반 신약개발·바이오 기업 '파메시아', 대화형 AI 외국어 교육 에듀테크 '위버스브레인', AI 비즈니스 메신저 '채널톡' 운영사 '채널코퍼레이션', AI·로봇 기반 워크포스(HR) 솔루션 기업 '브레인커머스', AI 4D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 '큐픽스' 등 신규 멤버사 11개사가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멤버사 간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의 기술·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멤버사와의 기술 협력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AI 기술 교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과 외부 개발자 약 2만 명 참여하는 테크소통 플랫폼 'DEVOCEAN(데보션)'과 연계하여 멤버사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K-AI 얼라이언스 채널을 마련하고, 최신 AI 인사이트를 공유·논의하며 협력의 접점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K-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내 AI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멤버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 AI 분야의 동반성장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SKTCH' 운영

SK텔레콤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대기업과의 실질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SKTCH(스케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TCH는 'SKT'와 'Tech'의 합성어로, SK텔레콤과 스타트업이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KTCH 플랫폼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서로에게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더 손쉽게 협업할 수 있도록 매칭 및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SK텔레콤은 2026년부터 사회 문제 해결 및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SKTCH for Good'과 'SKTCH with 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TCH for Good'은 디지털 포용·돌봄, 기후 재난 대응,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에서 혁신적인 ESG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함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SKTCH with AI'는 풀스택 AI 혁신 기술, 고객 대상 AI 솔루션 등 SK텔레콤의 AI 전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맞춤형 특화 멘토링 및 교육, SK텔레콤과의 협업 모델 발굴, 투자 유치 컨설팅 및 IR 피칭 기회, 국내외 전시 참여, 사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및 '국가 창업 시대' 기조에 발맞춰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ICT 협력 생태계 확대

AI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여

SK텔레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문제 해결 축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Korea Social Value Festa)'에 참여해 ESG 비전 'DO THE GOOD AI'를 실천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SK텔레콤은 '따뜻한 AI-함께하는 AI'를 주제로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전시, 청년-사회적기업 연계 프로그램, 'ESG KOREA' 스타트업 콘서트 등 3개 섹션을 통해 AI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AI Call', 비전 AI 기반 발달장애인 돌봄 'CareVia', 재활용 지원 'GOOD AI_REcycle', 장애·도서산간 청소년 대상 '행복 AI 코딩스쿨', AI 인재 양성 'FLY AI' 등 사례를 체험형 콘텐츠로 소개했습니다. 공간 자체에도 ESG를 반영해 재활용 가능 철골 구조, 패브릭, 무코팅 목재 등 친환경 자재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FLY AI X SOVAC Challenger'를 운영하고, 아울러 5년째를 맞는 'ESG KOREA'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발굴·육성한 6개 스타트업을 콘서트 형식으로 소개하며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의 생태계 확산을 모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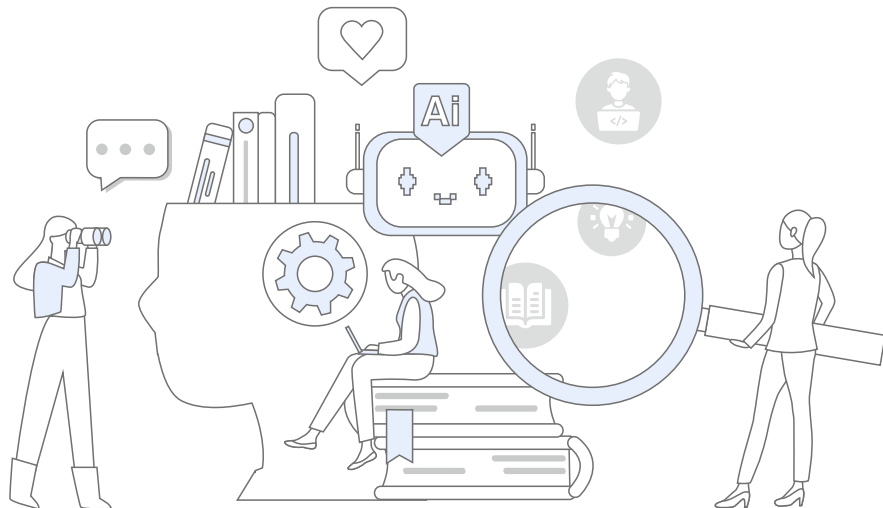
취약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SK텔레콤은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간·도서·오지 등 통신 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취약지역 설치 현황

(단위: 개소)

네트워크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5G	산간오지	1,298	1,073	429
	등산로	2,661	1,175	719
	도서지역	90	36	37
LTE	산간오지	202	487	175
	등산로	262	212	317
	도서지역	12	6	10



전략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SK텔레콤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IC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청소년의 ICT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AI·SW 교육과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국 장애 청소년의 ICT·디지털·AI 역량을 강화하고 진학·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AI코딩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하여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실제 AI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507개 특수학교(학급)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청소년 10,2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청소년의 AI 역량을 높이고, AI 격차 해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시작해 2025년 26회를 맞은 '행복AI코딩챌린지'는 장애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사업으로, 장애 인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대회는 '희망·비전·미션'을 주제로, 장애 청소년이 AI 코딩 기술과 활용 역량을 겨루는 자리를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CT 정보 격차 해소 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행복AI코딩챌린지	104	104	114
행복AI코딩스쿨	1,635	3,257	4,032
AI인재육성교육 (FLY AI Challenger)	119	135	128

AI 기술 기반의 핵심 실무형 인재 육성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K-하이테크 플랫폼 & 트레이닝¹⁾' 사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미래 AI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 보라매 사옥에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전사·학습 공간 'AI 테크랩'을 운영 중이며, SK텔레콤의 AI 기술 전사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우수 협력사 등 외부 기관 대상 AI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플라이 AI 챌린저 (FLY AI Challenger)' 과정도 운영해 2022년 1기 47명, 2023년 2기 51명, 3기 68명, 2024년 4기 67명, 5기 68명, 2025년 6기 62명, 7기 66명의 AI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SOVAC'과 연계하여 FLY AI 교육생과 사회적기업이 팀을 이뤄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 솔루션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향후에도 SK텔레콤이 가진 인프라와 기술을 지역사회에 개방, 공유하고, 최신 기술 기반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청년 AI 인재를 육성하여 우수 인력의 선순환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 K-하이테크 플랫폼 & 트레이닝 :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사 및 체험 공간 구축과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프로그램

미래 세대의 건강한 AI·디지털 활용을 위한 청소년 교육

SK텔레콤은 청소년이 AI와 디지털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AI 윤리 ON!' 캠프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중학생 78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AI·디지털 윤리 교육과 생형 AI 실습, 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 지역 중·고등학교 45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특화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일상 속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예방 방법을 학습하고, 실무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향후 미래 세대가 AI·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포츠 자산을 활용한 미래 인재 육성

SK텔레콤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사회공헌을 통해 ESG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골프 선수 최경주가 설립한 최경주재단과 함께 '행복동행' 후원 사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 장학 꿈나무 사업은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10~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35명의 장학생을 후원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신규 장학생 10명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졸업생 3명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SK텔레콤과 최경주재단의 행복동행은 2010년 스포츠 후원 계약을 맺은 이래 17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ESG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장학 사업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골프 대회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에 최경주재단이 후원사로 동참하여 입상자에게 '최경주 프로와의 필드레슨' 및 골프용품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스포츠 자산을 활용한 ESG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통화 연결을 'V컬러링'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SK텔레콤은 영상 통화 연결을 서비스 'V컬러링'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일반인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등록하고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작자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 누적 약 19.2만 건의 콘텐츠가 접수되었으며, 창작자에게 2025년 기준 1년간 약 5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누적 약 500건의 사회적 가치 메시지를 담은 ESG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여 고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ESG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기간을 맞아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이 통화 연결 시간에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문자 서비스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와 타 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민들이 가입 통신사와 무관하게 SK텔레콤의 통신 인프라를 통해 재난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최소 '동' 기준)로 세분화하는 재난문자 정교화 기술을 개발하여 전국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정교화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 정밀 측위 확대

긴급 상황에서 구조 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K텔레콤은 측위 기술 고도화와 신규 단말로의 기능 확대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방식 위치정확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SK텔레콤은 측정 결과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급제·유심 이동·키즈폰 등 국내 대부분의 단말에서 기지국·GPS·Wi-Fi 기반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통신사를 거치지 않는 자급제 단말이나 타사향 단말에서도 긴급구조 정밀 측위가 제공되도록 단말 제조사와 협력하여 신규 출시 단말의 정밀 측위 기능 탑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삼성 갤럭시 S25 3종과 중소 제조사 단말인 스타일폴더 2 등에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능을 적용하였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로 적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제조사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긴급구조 위치 측위의 정확도와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통신·생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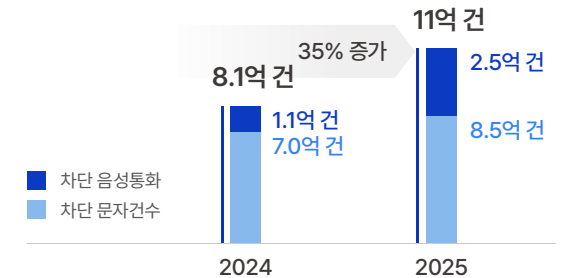
SK텔레콤은 2025년 3월 경남·경북·울산 등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통신 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이재민의 불편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청·의성·안동 지역의 이재민 대피소 6곳에 스마트폰 충전·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이재민이 외부와 원활히 연락하고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울주·영덕 지역의 대피소 3곳에는 충전기·케이블 등 통신 편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단성중학교, 의성체육관, 안동체육관 등 7개 장소에 Wi-Fi와 IPTV 서비스를 설치해 이재민이 대피 생활 중에도 안정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청·의성·안동·울주·영덕 5개 지역에 세면대 구·수건 등으로 구성된 구호세트 268개, 보조배터리 280개, 충전기·케이블 250개, 멀티슈·장바구니 등 생활 필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구성원들이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충전 부스 운영과 통신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

SK텔레콤은 통신 ICT 및 AI 기술을 스팸과 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한 결과 24년 대비 35%가 늘어난 11억 건의 스팸·피싱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금융사기 탐지 보안 기술인 '스캠뱅크드'를 PASS 스팸 필터링의 미끼문자 알림 서비스와 에이닷 전화 'AI 안심 차단' 기능에도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가 탐지되면 이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통합보안센터 신설과 팀 인원 증원, 스팸 대응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통신 사기로부터 고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인정 받아 경찰청 감사장 2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SK텔레콤 2025년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현황



미끼문자 알림 서비스



에이닷 전화 고객 알림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SK텔레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현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자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향도 분석은 이해관계자별 특성에 맞는 소통 채널을 통해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기대,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지역사회 설문조사

- (정기) •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NGO 등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설문조사 실시
- (수시) • 사회적 가치 증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의견을 수시로 청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의 보완, 개선 및 고도화 진행

간담회

-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 채널과 참여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청취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현안, 잠재적 이슈사항 및 요구사항 등 파악
-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교육 내 AI 기술 도입, 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실시

3대 Commitment

UN SDGs 및 지역사회 활동

2025년 성과

2026년 목표

2027년 목표

2028년 목표



AI 기반 삶의 질 향상



ICT 협력 생태계 확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CareVia 서비스

발달장애인 돌봄 특화 AI Agent 개발 반영, 도입 복지시설 (국립법무병원 포함)

18개

특수학교, 어르신 돌봄 시설 등 대상 영역 확대, 정신건강 돌봄 지원 플랫폼 신설

복지 및 정신건강 영역 특화 AI 보조 솔루션 포지셔닝

복지 및 정신건강 영역 특화 AI 보조 솔루션 포지셔닝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SKT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정부/기관 연계 스타트업 지원

45개

SKT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정부/기관 연계 스타트업 지원

80개

SKT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정부/기관 연계 스타트업 지원

90개

SKT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정부/기관 연계 스타트업 지원

100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여

SKT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을 체험형 콘텐츠로 소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대내외 홍보 강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대내외 홍보 강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 대내외 홍보 강화

행복AI코딩스쿨

4,032명

4,300명

4,400명

4,500명



영상 통화 연결음 'V컬러링'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ESG 콘텐츠 누적
400건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접수 건수 누적
18만건

ESG 콘텐츠 누적
500건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접수 건수 누적
19만건

ESG 콘텐츠 누적
600건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접수 건수 누적
19.5만건

ESG 콘텐츠 누적
650건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접수 건수 누적
20만건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

SV 성과
2,600억 원

전년 대비 SV 성과
5% 증가

전년 대비 SV 성과
5% 증가

전년 대비 SV 성과
5% 증가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 정밀 측위 확대

삼성 갤럭시 S25 3종 포함 14종 및 중소 제조사 단말인 스타일폴더2 등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능 적용

신규 출시 단말 기능 적용 확대

신규 출시 단말 기능 적용 확대

신규 출시 단말 기능 적용 확대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131
윤리경영	143
컴플라이언스	152
AI 거버넌스	159
리스크 관리	163



기업 지배구조

SK텔레콤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제고 및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현장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주주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구축

SK텔레콤은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현장의 정관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할 경영 원칙으로 내부 및 외부에 공표했습니다.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기준과 경영 환경에 맞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승계,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경영 계획과 KPI (핵심성과지표)를 승인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증가하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감독 측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는 5대 전문 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독립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제도



주식 및 자본구조

주주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발행주식 수는 총 214,790,053주입니다. 설립자 지분(Founder & Founding Family Ownership)은 최대주주이자 SK(주)의 대표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 주식 303주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주) 보유 지분은 17.90%이며, SK(주)의 SK텔레콤 보유 지분은 30.57%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SK텔레콤의 지분(Government Ownership)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성과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지향하는 SK텔레콤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SK텔레콤은 한국증권거래소(017670.KS)에 보통주를 상장하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SKM)에는 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SK텔레콤은 특정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은 총 1,807,778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은 총 212,982,275주(전체 발행 주식의 99.16%)입니다.

배당정책 및 주주 환원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사업 성과에 기반한 현금 배당과 지속 성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O/I(Operational Improvement)를 통해 창출된 추가적인 잉여 현금 흐름(FCF)을 주주 환원, 성장 투자, 재무구조 개선에 균형 있게 활용하는 Capital Allocation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주주 환원은 사업 실적, 투자 계획, 재무현황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며, 정관에 의거해 주주에게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와 연간 경영 실적 및 현금 흐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할 신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안정적인 배당 지급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2021년 3월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분기 배당을 도입하였으며, 2021년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회계연도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매년 연결 기준 조정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는 정책을 공시했습니다. 향후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주가 및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2021년 5월에는 기 취득된 자사주 8,685,568주(발행 주식 총수의 10.76%)를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2024년 2월 4,043,091주(발행 주식 총수의 1.85%)를 소각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2025년 연간 총 배당금은 3,536억 원이며, 주당 배당금은 1,660원, 배당수익률은 3.1%입니다.

주주현황

(2025.12.31 기준)

구분	발행주식수(주)	비율(%)
SK(주)	65,668,397	30.57
국민연금	14,332,207	6.67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129,135,184	60.13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	3,846,487	1.79
자기주식	1,807,778	0.84
합계	214,790,053	100.00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2025.12.31 기준)

구분	발행주식수(주) ¹⁾	비율(%)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212,982,275	99.16
보통주-자기주식	1,807,778	0.84
우선주	0	0
합계	214,790,053	100.00

주요 경영진 주식 보유 현황

	이름	주식 수(주)
CEO	유영상	20,309
미등기임원	임봉호	7,021
	정재현	1,518
	이기윤	6,171

* 2025년 12월 말 기준

** 2025년 12월 30일 보통주 증가: 53,500원

주주총회

경영 감독 기능

SK텔레콤은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강동수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김창보 이사를 독립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및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결의하여 경영 감독 기능을 이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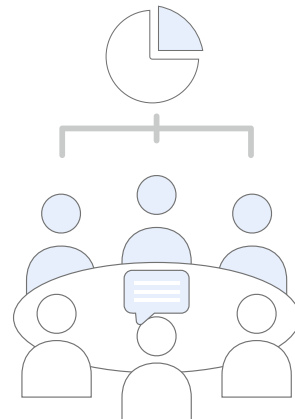
주주친화경영

SK텔레콤은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모든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며,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여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CEO 주주서한을 발송하여 주요 경영 성과와 사업 비전, 재무 현황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경영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며, 주주 질의응답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영진과 주주 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소통을 확대하고자 제3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온라인 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지속적으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 기간을 두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주주의 배당 조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 배당 통지서 대신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SK텔레콤 이사회는 독립이사 5인(김창보, 오혜연, 노미경, 임태섭, 이성엽), 사내이사 2인(정재현, 한명진)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윤풍영)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장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독립이사로 선임 중이며, 2026년 4월 현재 김창보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서는 경영 현황 및 전략 방향에 관한 각종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70여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사 참석률은 98%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모든 이사의 출석률을 최소 75%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특징

독립성

- 독립이사 비중 62.5%(국내 대기업 평균 51.3%¹⁾)
- 상법 등 법령에 따라 정관에 독립이사 독립성 및 이해상충 판단 기준 명시
- 2009년 선도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직 분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독립이사로 선임

전문성

- 이동통신산업 전문 역량²⁾ 확보 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 선출 프로세스 구축
- 리더십, 재무/회계, ICT, AI, Global 투자/금융, Compliance, ESG, 정보보안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재를 이사진으로 구성
- 이사회의 Board Skills Matrix 대비 부족한 부분(Skill Gap) 보완이 가능한 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추천 및 선출
- 이동통신산업-경험 이사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 이사회 내 산업 전문가 8명 중 ICT 분야 전문가 5명, AI 분야 전문가 4명

책임

- 독립이사 및 감사 겸직을 2개 이하로 제한
-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양성

- 성별, 국적, 인종·민족,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없는 다양성 추구

1) 202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발표 참조

2) Telecommunication Services(GICS Level 1 기준 내)

이사회

이사회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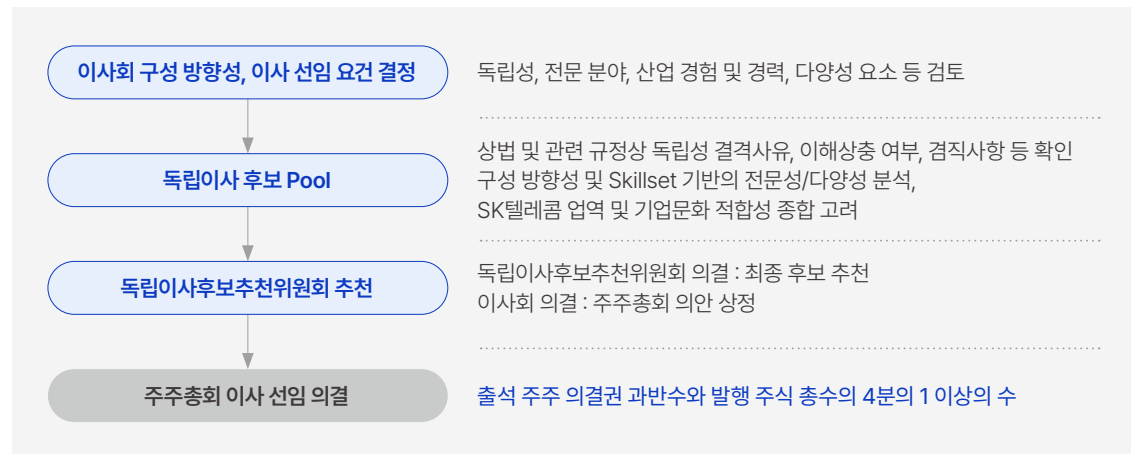
독립이사 독립성 결격 사유(상법 등 관련 법령 기준)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
2.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정관 내 이해상충 관련 판단기준

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관련자
2.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독립이사 선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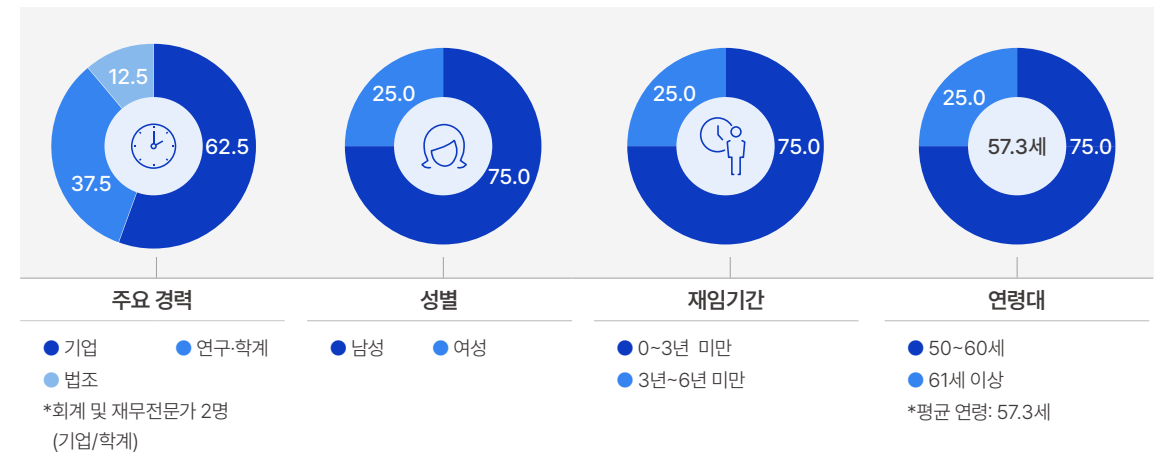


독립이사 독립성

요건 ¹⁾	충족여부
1년 이내에 회사 임원으로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함	●
현재 회계연도 동안 가족 구성원이 회사 또는 모회사, 자회사로부터 \$60,000를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음	●
가족 구성원이 회사 또는 모회사, 자회사의 임원이 아님	●
회사의 고문이나 컨설턴트, 고위 경영진이 아니며, 해당 고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와 무관함	●
회사의 중요한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 무관함	●
회사 또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개인적인 용역 계약이 없음	●
회사로부터 상당 금액을 후원받는 비영리 단체와 무관함	●
1년 이내에 외부감사를 했던 파트너 업체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님	●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이해관계 상충이 없음 (SK텔레콤 정관 내 이해관계 상충 기준에 따름)	●

1) S&P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CSA), ICGN Global Governance Principles의 Director Independence 요건 적용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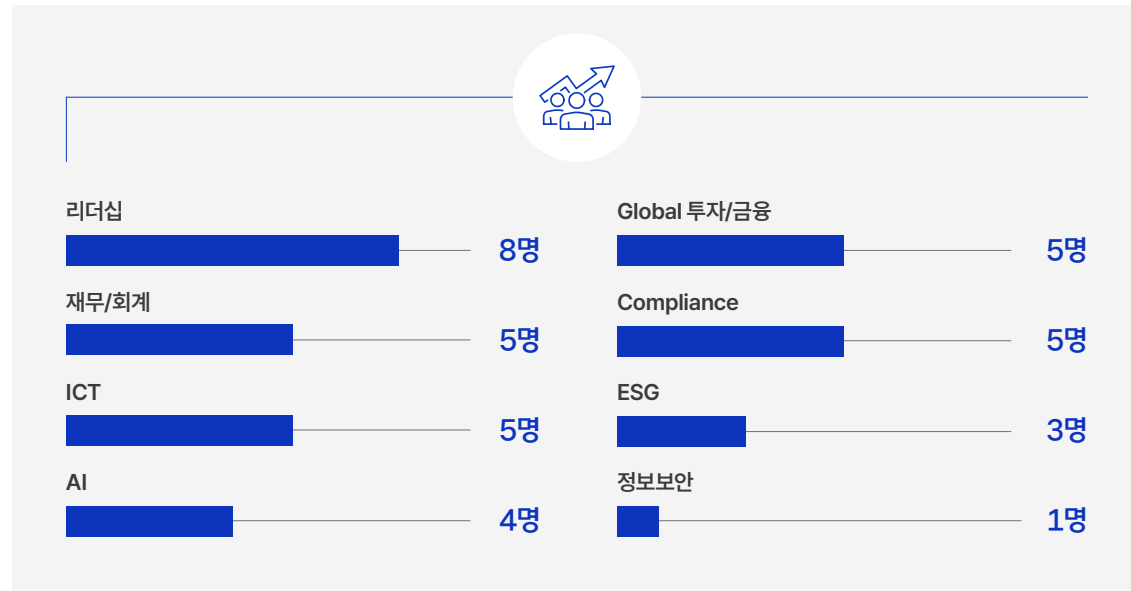
이사회 역량구성표 (Board Skills Matrix) 관리

SK텔레콤은 이사회 구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 구성표인 Board Skills Matrix(이하 BSM)를 매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업역과 기업 특성을 고려한 BSM 관리 기준은 이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리더십, 경영감독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 및 Compliance 역량, 통신·IT 산업 등 ICT 관련 역량, AI 관련 역량, Global 투자/금융 관련 역량, ESG 관련 역량 및 정보보안 역량으로 구성했습니다.

SK텔레콤은 BSM의 지속적 관리와 공개를 통해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회 역량구성표



이사회 평가

SK텔레콤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신뢰도 제고와 이사회 운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 단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사회 보고 및 논의를 통해 선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사회 평가 시행 내용]

평가 주체 : 이사 전원 및 이사회사무국장

평가 대상 :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평가 항목 : 이사회 구성/역할/운영 (총 16개 문항), 각 위원회 구성/역할/운영 (총 32개 문항)

평가 방식 : 5점 척도 평가 및 서술형

평가 결과 : 4.9/5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정보 보호/보안 측면의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 전략 방향 논의 등 지속 추진 예정

독립이사 교육 실시 내역

(2025.12.31 기준)

교육 일정	주요 교육 내용	참석 독립이사	비고
2025.2.18.	2025년 SKT Compliance 교육	김용학, 김석동, 김준모, 오혜연, 노미경 이사	내부 교육
2025.3.26.~7.24.	신임 독립이사 교육 (총3회)	김창보 이사	내부 교육
2025.4.23.	2024년 이사회 평가결과 공유 및 논의	김용학, 김준모, 오혜연, 노미경, 김창보 이사	내부 교육
2025.4.25.	그룹 신임 독립이사 Workshop	김창보 이사	외부 교육
2025.9.24.	글로벌 경제 현황	김용학, 김준모, 오혜연, 노미경, 김창보 이사	내부 교육
2025.10.28.	개정 상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김용학, 김석동, 김준모, 노미경 이사	내부 교육
2025.11.12.	SK Directors' Summit	김용학, 김준모, 오혜연, 노미경, 김창보 이사	외부 교육

(2026.3.26 기준)

김창보 (1959, 남)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임기	2025. 3. ~ 2028.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 인사보상위원회 • ESG위원회
주요 경력	•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Compliance, ESG

오혜연 (1974, 여)

독립이사

임기	2026. 3. ~ 2029. 3. (최초 선임: 2023.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인사보상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주요 경력	• 現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 카이스트 MARS 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소장 •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ICT, AI

노미경 (1965, 여)

독립이사, 재무/회계 전문가

임기	2024. 3. ~ 2027.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인사보상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주요 경력	• HSBC 홍콩, 아·태지역 Risk 총괄 겸 Credit Risk Review • HSBC 서울, Chief Risk Officer • 체이스맨해튼 서울, HR/Financial/ Credit Analyst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재무/회계, Global 투자/ 금융, Compliance

임태섭 (1963, 남)

독립이사, 재무/회계 전문가

임기	2026. 3. ~ 2029.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감사위원회 (위원장)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 ESG위원회
주요 경력	• 現 성균관대학교 SKK GSB 교수 •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이사 및 증권부문 대표 • 한국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재무/회계, Global 투자/금융, Compliance

이성엽 (1967, 남)

독립이사

임기	2026. 3. ~ 2029.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ESG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주요 경력	• 現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現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 現 국무총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ICT, Compliance, ESG, 정보보 안

정재현 (1968, 남)

사내이사(대표이사)

임기	2026. 3. ~ 2029.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 미래전략위원회
주요 경력	• 現 SK SUPLEX추구협의회 Governance위원장 • SK텔레콤 CGO (대외협력 사장) •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재무/회계, ICT, AI, Global 투자/금융, Compliance, ESG

한명진 (1973, 남)

사내이사

임기	2026. 3. ~ 2029.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SK텔레콤 MNO CIC장 • 미래전략위원회
주요 경력	• SK스퀘어 대표이사 사장 •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 SK텔레콤 Corp. Strategy 담당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재무/회계, ICT, AI, Global 투자/금융

윤풍영 (1974, 남)

기타비상무이사

임기	2026. 3. ~ 2029. 3.
활동 분야 (담당 업무)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 인사보상위원회
주요 경력	• 現 SK SUPLEX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 SK AX 사장 • SK스퀘어 CIO • SK텔레콤 Corporate 센터장
주요 역량 (Key Skills)	리더십, 재무/회계, ICT, AI, Global 투자/금융

이사회

이사회 운영 현황(2025년)

개최	주요 안건	참석률
제1차 (2025.1.20)	2024년 전사 KPI 성과 평가(안)	100%
	2024년 4/4분기 사후 보고사항	
제2차 (2025.1.23)	2025년 대한펜싱협회 기부금 출연(안)	100%
	대표이사 보수(안)	
	강종렬 사내이사 보수(안)	
	김양섭 사내이사 보수(안)	
	이사회 운영예산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안)	
제3차 (2025.2.11)	2024년 기말배당(안)	100%
	제41기 재무제표(안)	
	제41기 영업보고서(안)	
제4차 (2025.2.2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100%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준법지원인 선임(안)	
	2025년 SK(주) T ID 서비스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제5차 (2025.3.10)	제41기 재무제표 변경 승인(안)	100%
	제41기 영업보고서 재승인(안)	
제6차 (2025.3.26)	이사회 의장 선임(안)	100%
	위원회 위원 선임(안)	
	2025년 SK(주)와의 Next BSS 구축 관련 거래(안)	
	2025년 2/4분기 SK(주) 거래(안)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	
제7차 (2025.4.24)	2025년 1분기 배당(안)	100%
	(주)카카오 주식 처분(안)	
	자기주식 처분(안)	

개최	주요 안건	참석률
제7차 (2025.4.24)	2025년 인력교류에 따른 인건비 정산 거래(안)	
	SK바이오팜(주) GPU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거래(안)	
	SK인천석유화학(주) P-5GX Managed 서비스 공급 거래(안)	
	2025년 사회적가치연구원 기부금 출연(안)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정산 거래(안)	
	2025년 1/4분기 사후 보고사항	
제8차 (2025.5.2)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이용약관의 해석 및 영향 검토	100%
제9차 (2025.5.7)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현황 및 조치 중간보고	87.5%
제10차 (2025.5.22)	SK(주) 클라우드 사용 계약(안)	100%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제11차 (2025.6.18)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100%
	SKT 디지털 Trust 정보보호 기금 출연(안)	
제12차 (2025.6.25)	SK Investment Management Co., Ltd.(HK) 지분 매각(안)	100%
	퍼블릭 클라우드(AWS) 서비스 공급 계약 SK(주) 양도 거래(안)	
	2025년 3/4분기 SK(주) 거래(안)	
	ESG 경영(SV창출)을 위한 기부금 출연(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해지위약금에 대한 쟁점 검토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안)	
제13차 (2025.7.24)	이사회 속행(안) ¹⁾	100%
	2025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25년 2분기 배당(안)	
	2025년 2/4분기 사후 보고사항	
	SKT 하반기 Master Plan	

개최	주요 안건	참석률
제14차 (2025.9.25)	SK(주) 클라우드 사용 2025년도 거래 금액 변경(안)	100%
	에이닷 비즈 서비스 용역 거래(안)	
	2025년 4/4분기 SK(주) 거래(안)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방안	
제15차 (2025.10.29)	개정 상법/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영향	100%
	Compliance 체계 고도화 방안	
	대표이사 후보 확정(안)	
	SK리츠(주)와의 판교 사옥 매각 및 임대차 계약(안)	
	사이버침해사고 영향에 따른 2025년 3분기 배당(안)에 대한 보고	
제16차 (2025.12.18)	2025년 3/4분기 사후 보고사항	87.5%
	전사 정보보호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위임(안)	
	장기차입금 조달 및 위임(안)	
	2026년 업무용 항공기 운영비용 정산거래(안)	
	2026년 SK핑크스(주) 거래(안)	
	2026년 SK이노베이션(주)와의 mySUNI 분담금 정산거래(안)	
	2026년 SK아카데미 운영비용 정산거래(안)	
	SK(주) 클라우드 사용 2025년도 거래 금액 변경(안)	
	2026년 SK(주) 거래(안)	
	2026년 경영계획(안)	
	2026년 전사 KPI(안)	
	2026년 안전보건 계획(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안)	
	준법통제기준 점검결과 및 계획	
	2026년 이사회 운영(안)	

1) 이사회 속행(안) 의결 후 7/3, 4일 추가 심의 통해 수정 가결함

이사회 산하 위원회

SK텔레콤 이사회는 5개의 산하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의 책임과 역할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
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모두 독립이사로 선임하
고, 위원회 내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위원회 규정에 명
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2026년 4월 기준)

위원회	위원장	위원
감사위원회	임태섭 이사	김창보 의장, 노미경 이사, 이성엽 이사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오혜연 이사	임태섭 이사, 윤풍영 이사
미래전략위원회	김창보 의장	오혜연 이사, 노미경 이사, 임태섭 이사, 이성엽 이사, 정재현 이사, 한명진 이사, 윤풍영 이사
인사보상위원회	노미경 이사	김창보 의장, 오혜연 이사, 윤풍영 이사
ESG위원회	이성엽 이사	김창보 의장, 임태섭 이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외부감사인
의 감사 절차와 결과 심의,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사항, 내부회계관리자와 외부감사인이 보고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등 회계와 업무 감사를 진행합니
다. 또한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
상의 계열사 수의계약 등 특정 거래를 심의 및 승인하
며 이사 직무 집행,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 위법
행위 유지(留止) 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평가와 주요 활동 내
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2025년)

개최일자	주요안건	참석률
2025.2.10	2024년 하반기 업무감사결과 이행 계획	100%
	감사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안)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안)	
	2025년 외부감사인 용역제공 일괄 승인(안)	
2025.2.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100%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Enterprise사업부 정기감사 개선이행 점검 결과	
	2024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독활동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2025.3.10	제41기 감사보고서(안)	100%
	유선고객 사은품 지급 관련 계약(안)	
	2025.3.10 제41기 감사보고서 재승인(안)	
	2025.3.25 2025년 광선로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100%
2025.4.23	2025년 전송장비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위원장 선임(안)	
2025.5.21	2024년 PCAOB 감사 결과	100%
	2025년 상반기 특별감사 결과	
	2025년 1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2025년 정기감사 계획 변경(안)	100%
2025.6.25	감사위원회 재무보고 감독체계 개선(안)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계획	
	고객 유심 배송 관련 풀필먼트 용역 거래(안)	
	소버린 AI DC 구축 사업을 위한 SK브로드밴드(주)와의 가산 DC 상면 이용 거래(안)	100%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결과	

개최일자	주요안건	참석률
2025.07.23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결과	100%
	2025년 2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이사회 운영예산 2025년 상반기 실적	
2025.09.24	2024년 특별감사 이행점검 결과	100%
	2025년 리더 솔루션범 점검 결과	
	2025년 상반기 정기업무감사 결과	
2025.10.28	2025년 3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75%
	2025년 윤리경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2025.11.26	2025년 상반기 정기업무감사 개선 이행 계획	100%
	2025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인사평가 승인(안)	
	2026년 내부감사부서장 임면 동의(안)	
2025.12.17	2025년 윤리경영 수준 측정 결과	100%
	2024년 하반기 정기감사 이행점검 결과	
	2025년 재무보고 내부통제 테스트 경과 및 기말 감사계획	
	2026년 외부감사 계약 승인(안)	
	2026년 PS&M(주) 거래(안)	
	2026년 SK브로드밴드(주) 거래(안)	
	2026년 SK하이닉스(주) 상품/용역 거래(안)	
	2026년 SK플래닛(주) 상품/용역 거래(안)	
	2026년 (주)드림어스컴퍼니 상품/용역 거래(안)	
	2026년 기지국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2026년 교환장비 운용지원 용역 거래(안)	
	2026년 고객접점채널 운영 용역 거래(안)	
	2026년 행복나라(주) 상품 거래(안)	
	2026년 유무선 인프라 구축공사 용역 거래(안)	
	2026년 유통망 및 사옥 시설 공사 용역 거래(안)	

이사회 산하 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이사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 추천 및 선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독립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독립이사 비중 67%)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2025년)

개최일자	주요 안건	참석률
2025.5.21	위원장 선임(안)	67%
	2025년 독립이사 후보군 확보 방향성(안)	
2025.11.26	2026년 독립이사 후보목록(안)	100%
2025.12.17	독립이사 후보 추천(안)	67%

미래전략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방향성 논의와 연간 경영계획, 전사 KPI(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등의 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독립이사 비중 62.5%)

미래전략위원회 운영 현황(2025년)

개최일자	주요 안건	참석률
2025.7.24	위원장 선임(안)	100%
	2025년 전사 KPI 상반기 실적	
2025.11.27	SKT 중장기 전략 방향	100%
	2025년 KPI 성과 잠정 평가(안)	
	2026년 경영계획(안)	
	2026년 투자계획(안)	
	2026년 전사 KPI 잠정(안)	

인사 보상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보수에 대해 심의하고, 대표이사 승계 계획을 수립/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제외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독립이사 비중 75%)

인사보상위원회 운영 현황(2025년)

개최일자	주요 안건	참석률
2025.1.22	대표이사 보수(안)	100%
	강종렬 사내이사 보수(안)	
	김양섭 사내이사 보수(안)	
2025.9.24	위원장 선임(안)	100%
	대표이사 승계계획 및 후보군(안)	
2025.10.28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	100%
2025.12.17	대표이사 보수(안)	75%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고객, 정보보호 등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과 성과, ESG 의무 공시 사항,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며,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독립이사 비중 100%)

ESG위원회 운영 현황(2025년)

개최일자	주요 안건	참석률
2025.2.25	2025년 전사 ESG KPI(안)	100%
2025.4.23	위원장 선임(안)	100%
	2025년 SV 공동예산 운영 계획(안)	
2025.5.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안)	100%
2025.6.25	2024년 Annual Report 중요성 평가 결과 및 주요 내용	100%
2025.8.27	2025년 전사 KPI 지표 중 SV 측정 운영 보고	100%
	인권경영 추진 성과 및 계획	
2025.10.28	2025년 공급망 상생/ESG 협력성과 및 2026년 추진방향	75%
2025.11.26	2025년 ESG 추진 성과	100%
	2025년 중요성 평가 결과	

외부감사인

SK텔레콤의 외부감사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SK텔레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에 선정된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제42기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은 '적정'이며 기타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 의견	강조 사항 등	핵심 감사 사항
제42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무선통신매출의 실재성 및 정확성,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
제41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무선통신매출의기간귀속, 유선통신사업현금창출단위영업권 손상평가
제40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무선통신매출의기간귀속, 유선통신사업현금창출단위영업권 손상평가

감사 용역 체결 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42기(당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검토 개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영문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감사업무 내부회계제도 감사	2,597 백만 원	24,500 시간	2,597 백만 원	24,500 시간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수

경영진 성과 평가¹⁾

SK텔레콤 CEO 및 경영진의 성과 평가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특히 2019년 부터는 CEO 및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ESG 성과지표도 포함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ESG 경영이 단순한 사회 공헌이나 기업의 리스크 방지 차원의 활동을 뛰어넘어, CEO 및 모든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실행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독립이사의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보유 전문성 및 직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책임여부 및 재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직무 수행 측면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 이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충실도, 이사 및 경영진과의 시너지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 SK텔레콤은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등의 발생과 회사의 중장기 성과에 손실을 발생할 경우 등 성과보수를 회수하는 환수 (Clawback) 규정을 적용 및 도입하고 있음

경영진 보수

SK텔레콤 경영진의 보수는 경영 실적과 수행 역할에 기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 산정하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정 시에는 기업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 지표와 전략 과 제 수행 및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 수행 역할과 성과, 기존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 대표이사의 연봉은 회사 KPI 평가에 따라 연봉의 0~10% 수준에서 인상률을 1차 결정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와 외부 보상 경쟁력, 그룹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조정

단기성과급

- 기업가치,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 ROA/ROE, TSR, 주가수익률, 경쟁사 대비 주가성장률, 경제적 부가가치) 등 다양한 재무적 요소 및 ESG 전략과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 정량/정성 목표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 대표이사의 성과급은 회사 KPI 평가에 따른 Target Incentive(연봉의 0~50%)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 제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Value Incentive(연봉의 0~110%)로 책정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조정

장기성과급(LTI)

-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키고, 기업가치 성장과 경영진 보수의 Align을 강화하기 위하여 PSU(Performance Stock Unit)을 부여하며, 부여 3년 후 SK텔레콤 주가 및 KOSPI200과 연계한 기업가치 상승률에 따라 실제 주식을 지급
- 대표이사의 장기성과급은 기업가치 성장에 따라 연봉의 0~300% 수준으로 주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 자기주식처분 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수

이사회 보수 결정 프로세스



이사회 보수 지급 현황

구분	인원 수	지급 총액 (백만 원)	인당 평균보수액 (백만 원)
등기이사²)	3⁴)	4,530	2,265⁵)
독립이사³)	1	147	147
감사위원회 위원	4	616	154

CEO-직원 보수 비율(2025년)

총 CEO 보수 (백만 원)	직원 보수 평균값 (백만 원)	비율⁶)
3,407	163	20.90

경영진 주식매수선택권 현황⁷)

부여일	대상	기준행사가격(원)⁸)	부여 주식 수	실효주식 수	잔여주식 수	행사 기간
2020.03.26	유영상	38,452	7,145	-	7,145	2023.3.27~2027.3.26
2020.03.26	윤풍영	38,452	5,293	-	5,293	2023.3.27~2027.3.26
2020.03.26	강종렬 외 4인	38,452	357,917	337,408	20,509	2023.3.27~2027.3.26
합계			370,355	337,408	32,947	
2021.03.25	유영상	50,276	18,190	-	18,190	2023.3.26~2026.3.25
2021.03.25	한명진	50,276	4,403	-	4,403	2023.3.26~2026.3.25
2021.03.25	윤풍영	50,276	10,203	-	10,203	2023.3.26~2026.3.25
2021.03.25	송재승	50,276	8,047	-	8,047	2023.3.26~2026.3.25
2021.03.25	류병훈	50,276	3,796	-	3,796	2023.3.26~2026.3.25
2021.03.25	강종렬 외 3인	50,276	27,087	-	27,087	2023.3.26~2026.3.25
합계			71,726	-	71,726	
2022.03.25	유영상	56,860	295,275	196,850	98,425	2025.3.26~2029.3.25
2022.03.25	임봉호	56,860	8,858	-	8,858	2024.3.26~2027.3.25
2022.03.25	김희섭	56,860	7,086	-	7,086	2024.3.26~2027.3.25
2022.03.25	한명진	56,860	11,274	-	11,274	2024.3.26~2027.3.25
2022.03.25	안정환	56,860	8,858	-	8,858	2024.3.26~2027.3.25
2022.03.25	김진원	56,860	10,629	-	10,629	2024.3.26~2027.3.25
2022.03.25	강종렬 외 3인	56,860	50,115	-	50,115	2024.3.26~2027.3.25
합계			392,095	196,850	195,245	

1) 사내이사 평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 2)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등기이사 인원수에는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기타비상무 이사 1명 포함 5)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은 제외 6) 총 CEO 보수를 직원 보수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 7) 2025.12.31 기준 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 종장가격 기업가치 제고와 성과 창출 지향을 위해 가독 기간(Vesting Period)을 최대 5년 성과 연동 및 보상 연계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수

이사·임원 개인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2025.12.31 기준)

대상	지급총액	근로소득	지급액	결과
유영상	3,407	급여	1,540	• 역할/직책(대표이사), 리더십/전문성, 회사 기여도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이사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2025년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책정 • AI 분야에서 AI DC 및 AIX 매출의 지속 성장, 에이닷의 주요 지표 상승세 등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MNO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급여로 연간 총 1,540백만 원을 책정하고, 이의 1/12인 128.3백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상여	1,820	• 역할/직책/리더십과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의 목표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2025년 초에 지급하였음 • 2024년은 '통신과 AI' 영역에 집중하여 유·무선 통신과 AI 전 사업 영역의 고른 성장을 통해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7.9조원,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82조원을 달성하였으며, AI 피라미드 전략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 Global AI Company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이동통신 매출은 5G 가입자가 1,690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7조를 기록하였고 초고속 인터넷 및 IPTV 가입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통신 관련 B2B 매출도 견고한 성장세 유지 - AIX 사업 매출은 핵심 AI B2B 상품 성장을 통해 전년 대비 32.0% 증가, AI DC 매출은 신규 DC 가동을 상순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1%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 에이닷은 에이닷 전화 및 멀티 LLM 웹 버전 출시 등 적극적 확장 전략을 통해 누적 가입자 830만 명을 확보하였으며 GTAA(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글로벌 통신사와의 협업 체계 강화 - AI 기반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AI 보이스피싱 예방 및 돌봄/콜을 통한 취약계층 케어 등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G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음
		기타	47	• 임원 복리후생 등
		주식 매수권 행사 이익	-	• 해당사항없음
김양섭	2,338	급여	480	• 역할/직책(사내이사, CFO), 리더십/전문성, 회사 기여도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이사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2025년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책정 • 전사 Portfolio 강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해 통신 사업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SK텔레콤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급여로 연간 총 480백만 원을 책정하고, 이의 1/12인 40백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상여	640	• 역할/직책/리더십과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의 목표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2025년 초에 지급하였음 • 2024년은 CFO로서 전사 Portfolio 관리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사내이사로서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음 - CFO로서 전사 Portfolio 점검 및 Cash Management를 강화하였고, 비용 구조 개선 및 손익 관리를 통해 Financial Target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효과적인 IR과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음 -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에 참여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활동을 수행함
		기타	3	• 임원 복리후생 등
		주식 매수권 행사 이익	-	• 해당사항없음
		퇴직소득	1,215	• 퇴직에 따른 퇴직금

윤리경영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관리·감독 역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위임 사항

SK텔레콤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12회 개최되어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윤리경영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은 감사위원회 규정과 내부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성과 창출이 기업 윤리와 정도(正道)에 맞게 이뤄지도록 주요 투자 및 거래 사안을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전담 조직인 감사실(Internal Audit Office)을 직속 산하에 편제하여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전담 조직의 장인 감사실장(Chief Audit Executive)에 대한 임면 동의권과 평가 승인권을 보유함으로써 윤리경영 운영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역량 및 향후 개발 계획

보유 역량

SK텔레콤은 윤리경영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됨을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임태섭 독립이사과 노미경 독립이사는 상법에 따른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로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소속 모든 독립이사는 위험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SK텔레콤 윤리경영 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량 지표

성명	구분	역량 지표		
		Compliance	재무/회계	정보보안
임태섭	독립이사	●	●	
김창보	독립이사	●		
노미경	독립이사	●	●	
이성엽	독립이사	●		●

역량 개발 계획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보고 감독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일자	교육 내용
2025.4.24	- 감사위원회 역할 및 지원조직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당사 현황
2025.10.28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 평가/보고 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 방법 및 빈도

보고 방법

SK텔레콤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그 산하의 감사실을 통해 윤리경영을 관리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실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하며, 필요 시 담당 임원의 위원회 출석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 빈도

2025년 기준 연간 총 1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윤리경영 이슈와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규정에 근거한 보고 체계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리스크에 대한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고려 방식

감사위원회는 윤리경영 관련 주요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감사 계획, 정기·특별 감사 결과와 분기별 제보채널 운영 결과, 윤리경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윤리경영 수준 측정 결과 등을 주요 의안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절충 고려

SK텔레콤은 윤리경영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이나 운영상의 제약보다, 장기적인 평판 제고와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대상 윤리 교육 및 체계 고도화, 디지털·AI 접목 등 당장의 재무적 부담이 수반되는 활동이라도, 이를 통해 사전 예방 강화에 특화된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경영 기반 기업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균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방식

SK텔레콤은 감사위원회 및 CEO 등 고위 경영진의 감독 하에 윤리경영 관련 목표 및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윤리경영 목표에 대해 진척도를 모니터링하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 계획 및 실적과 제보채널 운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경영진에 대한 역할 위임 및 감독 방법

SK텔레콤 경영진은 내부감사 규정에 명시된 책임과 역할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의 수립을 총괄하며, 전사적인 윤리경영 실천 체계의 기획부터 운영, 고도화에 이르는 실무 전반을 수행합니다. 감사실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내부감사 및 제보조사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이러한 전문적인 실무 활동을 토대로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며, 규정에 명시된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통제 및 절차

SK텔레콤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필두로 전사적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SK텔레콤의 통제 절차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거버넌스



회사 전 영역(All Operations)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SK텔레콤 감사실은 이사회(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주기 전 영역 감사 수행 원칙에 따라 자회사를 포함한 전 조직의 경영 활동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범위에는 윤리경영 준수 여부, 사업 운영의 효율성,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 경영 활동 전반이 포함됩니다. 감사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과 이행 계획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과거 지적된 리스크 요인별 개선 계획의 실행 현황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본과 원칙'의 강화를 위해 리더술선수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리더들의 비용 집행과 문서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였고, 경영층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감사를 수행하여 리스크를 점검함으로써 전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관련 1개 자회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경영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사업 운영과 관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인사, 재무, 구매 등 전사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정시스템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자정시스템 점검 결과 리스크 집중 관리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SK텔

2025년 감사 대상 및 중장기 감사 계획(3년 주기 전 영역 정기감사¹⁾ 실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본체 감사 현황 및 향후 3년 계획	리더술선수범,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특별감사)	통신사업 부문, AI사업 부문	네트워크 & 보안 부문	기타 사업 부문 특별감사
자회사 감사 현황 및 향후 3년 계획	비용/보안 감사, 사업관련 1개 자회사	사업 관련 1개 자회사	사업 관련 2개 자회사	사업 관련 2개 자회사
본체/자회사 공통	인사, 재무, 구매 등 전사 관리 영역: 자정시스템 점검 매년 실시 →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관리 활동 수행			

1) 사업 관련 4개 부문 및 5개 자회사에 대해 3년 단위 정기감사 실시

전략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SK텔레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경영 측면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요인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범위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임직원의 윤리 의식 저하로 인한 리스크 사전 식별 미흡 및 평판 리스크와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통제의 공정성 저하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식별하였습니다. 비윤리적 관행과 관리 체계의 독립성 미흡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고객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위법·부정 발생 시에는 법적 분쟁 및 재무 손실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디지털·AI 기반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수준을 정기적으로 진단·개선하여 윤리경영이 내재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의 조기 감지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투명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 기간 범위

SK텔레콤은 윤리경영 위험 및 기회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 범위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3년 이내), 장기(3년 초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 범위를 정의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의 연간 운영계획(단기)–3개년 중기경영계획(중기)–장기 성장전략(장기)과 동일한 시간축을 적용함으로써 윤리경영 관련 위험·기회 평가가 사업 전략, 예산 편성, 성과 관리와 일관되게 연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 주기가 명확해지고, 이사회·경영진 보고 및 대외 공시 체계와의 정합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분은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높여 식별된 위험과 기회가 사업 전략 수립과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실무적 기준입니다.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위험	위험1 임직원 윤리의식 저하에 따른 리스크 사전 식별 부족 및 평판 리스크	●	●	●
	위험2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 부족 리스크	●	●	
기회	기회1 디지털·AI 기반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전 예방 강화	●	●	●
	기회2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기반 기업문화 정착	●	●	●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현재 및 예상 영향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SK텔레콤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임직원 윤리의식 저하에 따른 리스크 사전 식별 부족 및 평판 리스크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고객신뢰도 하락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중장기 파트너십 결렬 가능성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 부족 리스크	내부고발 위축 및 적절한 시정조치 지연, 그에 따른 규정 준수를 하락과 운영 비효율 증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 하락 가능성
기회	디지털·AI 기반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전 예방 강화	이슈 모니터링·대응 효율화로 이슈 탐지 속도 단축 및 대응 리드타임 감소	이상징후 예측·선제 조치 확대로 내부통제 신뢰도 향상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기반 기업문화 정착	현재 수준 진단을 통한 취약점 도출, 대응 우선순위 설정, 맞춤형 교육·가이드 배포로 윤리경영 실천력 제고	윤리 실천 문화의 내재화로 비윤리 행위 발생을 지속 하락, 이해관계자 신뢰 향상으로 중장기 파트너십 확대 및 신규 사업 기회 창출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위험 및 기회 요인	현재 영향	예상 영향
위험	임직원 윤리의식 저하에 따른 리스크 사전 식별 부족 및 평판 리스크	협력사 이슈 조기 탐지 실패로 부정·품질 문제 증가, 협력사 조사 빈도 상승에 따른 거래 마찰 및 사업 지연	비윤리 이슈 확산에 따른 우수 협력사 이탈과 대체 협력사 확보 비용 증가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 부족 리스크	조사·시정조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협력사의 정보 제공·공조 저하, 분쟁 처리 장기화	이해상충·부패 리스크 확대로 협력사/고객 이탈률 증가
기회	디지털·AI 기반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전 예방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검토 (제재 여부·부패·입찰 담합 등)로 부적격 거래 사전 차단, 협력사 투명성 향상	AI 기반 리스크 분석 및 이상징후 예측 강화를 통한 부패 사건 발생률 감소, 규제 변화 대응 민첩성 제고로 우수 협력사/고객 유입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기반 기업문화 정착	가치사슬 전반에 윤리 기준·행동강령과 교육을 확산시켜 협력사의 준법 역량 제고	협력사와의 중장기 파트너십 강화, 윤리 리스크 해소로 인한 고객 서비스 수준 개선

집중된 영향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고객·유통 채널과 비즈니스 파트너 접점을 위험과 기회가 집중된 핵심 관리 영역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의식 저하로 인한 사전 식별 미흡과 평판 리스크, 그리고 윤리경영 담당 조직의 독립성 부족은 이 접점에서 민원·분쟁, 개인정보·공정거래 리스크, 파트너십 불안정, 규제·법무 부담으로 이어져 브랜드 신뢰와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 파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AI 기반 윤리경영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사전 차단과 수준 진단·지속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기업문화 내재화는 동일 접점에서 비윤리 행위 차단, 투명한 거래 질서 정착, 생태계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고객 신뢰, 운영 효율, 규제 준수 신뢰도,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의 관리 초점은 고객 및 협력사 접점에서의 윤리 리스크 선제 통제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해, 가치사슬 전반의 신뢰·효율·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윤리경영 추진 전략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전사적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과 전담조직(감사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 리스크 예방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윤리 의식 고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포털 및 제보 채널 운영으로 비윤리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부패방지 방침'을 공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Prevention)

SK텔레콤은 자회사 포함 전체 구성원(경영진,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등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협력사 대상 갑질 및 금품수수/금전거래 금지, 견업/견직 및 이해상충, 회사 자산 부당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포함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 부서 리더 주관 하에 윤리경영 위반 사례 중심의 토론회 오프라인 심화 교육(윤리경영 실천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입 팀장 및 신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윤리경영 교육을 각각 진행해 리더의 윤리적 솔선수범 필요성과 회사 생활 중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실천 서베이를 실시해 윤리 수준 현황을 점검하고 단위 조직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베이 분석 결과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과제로 선정해 발생 가능한 비윤리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포함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에 윤리실천 서약을 받고 있으며, 윤리실천레터를 통해 다양한 부정 사례, 제보채널 운영 현황, 제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협력사, 투자사까지 윤리 교육을 지원하고 윤리경영 실천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전파하여 윤리경영 실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별(Detection)

SK텔레콤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제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대면상담, 서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제보채널 및 윤리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 윤리경영 웹사이트, SK텔레콤 윤리경영 포털, Letter to HR, 성희롱 전담 여성 상담 인력, 익명 게시판 등은 다양한 윤리적 이슈 상담 창구이자 부정과 비리의 제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기반으로 제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불공정 사례나 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법률에 따라 비밀 보장, 신분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상담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신고자, 조사 협조자 및 상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윤리실천 서약 및 윤리경영 교육 참여율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윤리실천 서약	%	100.0	100.0	100.0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		96.3	95.6	96.2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96.1	96.9	97.9
윤리경영 토론회 심화 교육(오프라인)		100.0	100.0	100.0

* 경영진,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등 모든 고용 형태 포함

2025년 윤리상담센터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건수	완료건수	처리비율
윤리 상담 및 제보 ¹⁾	12	10	83.3
이슈 없음 ²⁾	18	18	100
단순 현업 이슈	38	38	100
고객 불만	223	223	100
합계	291	289	99.3

1) 윤리상담 및 제보 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시행, 그 외 건의 경우 유관부서에 이관 조치

2) 제보 내용 불충분, 제보 철회 등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대응(Response)

SK텔레콤은 제반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위반 정도에 맞춰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과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사규에 의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제반 윤리규정 준수를 구성원의 KPI 및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윤리규정 위반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보상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성원의 윤리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징계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단계가 있으며, 관련 인사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평가 체계에 연동되어 해당 구성원의 보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협력사에서 제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물량 제한,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윤리규정 위반 사항과 처리 결과들은 기록을 보관하여 향후 윤리경영 프로세스 점검과 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CEO 명의의 인권정책 성명을 통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등에 따른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방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지침에서도 구성원은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포함 전체 구성원(경영진,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등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해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의식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윤리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¹⁾

(단위: 건)

구분	건수	조치사항
차별 및 괴롭힘	4	중징계 4
이해상충(겸업/겸직)	3	중징계 3
고객 대상 비윤리	0	-
부정부패 및 뇌물	0	-
자금세탁 및 내부자거래	0	-
기타 비윤리행위	3	중징계 2 경징계 1
합계	10	중징계 9 경징계 1

1) 자금세탁 및 내부자거래 관련 위반 건수는 없음

윤리경영 관리 체계 고도화

SK텔레콤은 SK그룹 윤리경영 측정체계 평가에서 꾸준히 'Leader' 등급을 유지하며 대외적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상위 수준으로 윤리경영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윤리경영 관리 체계와 상시 진단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유통 채널과 협력사 협업 전반에서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통제하며, 진단 결과를 정책·교육·현장 실행에 순환 반영해 조직과 가치사슬 전반에 윤리 기준을 내재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략

전략 및 의사결정

기 공시된 보고기간에 따른 계획의 진척도

윤리경영 관련 SK텔레콤의 이행 계획 대비 진척도는 '지표 및 목표'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절충

윤리경영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고려 방식' 내 기 공시된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절충 고려' 관련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현재 재무적 영향

SK텔레콤은 식별된 위험 및 기회 요인으로 인한 재무 영향 발생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의식 저하에 따른 사전 식별 미흡과 평판 리스크, 그리고 윤리경영 조직의 독립성 부족은 민원·분쟁 대응과 규제 준수 관련 비용의 상방 압력, 채널 운영 비효율에 따른 마케팅·영업 비용 증가, 브랜드 신뢰 약화에 따른 가입·해지 구조의 변동성 확대 등 수익성 훼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AI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도입과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그리고 정례 진단과 지속 개선을 통한 기준·교육 내재화는 반복적인 사고와 절차적 오류의 감소, 윤리 실천 역량의 점진적 제고를 통한 비용 상승폭 완화 등 수익 변동성을 축소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평가 체계 확산을 위한 선투자와 운영비가 발생할 것이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신뢰

회복을 통해 규제·법무 리스크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총체적으로는 단기 비용 부담과 중기적 효율 개선이 병존하는 재무 영향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재무적 영향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분석한 재무영향 발생경로를 통해 단기적 영향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자원 조달 계획

윤리경영 대응과 전략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은 내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윤리경영 관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감사실 인력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사·조사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리경영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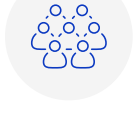
윤리경영 회복력

윤리경영 회복력 평가

SK텔레콤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 및 기회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SK텔레콤의 전략과 사업 모형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 회복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의 거버넌스,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원의 윤리 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한 과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회복력 평가 요소 및 SK텔레콤의 적응 역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요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재무적·비재무적 영향력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기·중기·장기 시계의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윤리경영 관리 전략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요소	SK텔레콤의 적응 역량
 윤리 거버넌스 및 대응 체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윤리경영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주요 윤리경영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보유
 선제적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자회사 포함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를 통해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윤리경영 포털 및 제보 채널로 비윤리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구성원 윤리 의식 및 조직 문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내재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윤리 상담 및 제보를 활성화하여 조직 내 자정 작용이 작동하는 조직 문화 보유

위험 관리

윤리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윤리경영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윤리경영 추진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윤리규범에 입각한 총 3단계(예방·식별·대응)의 윤리경영 추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 및 부서별 윤리경영 실천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 리스크 예방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회사는 SK그룹 통합 제보 채널과 SK텔레콤 윤리경영 포탈 내 윤리상담채널 등을 통해 비윤리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CEO 등 고위 경영진의 감독 하에 윤리경영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범 등)

SK텔레콤은 구성원의 올바른 행동 양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수립하여 경영 활동 전반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회사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고객', '구성원',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로 구분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올바르게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윤리규범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실천강령, 실천 원칙 및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윤리규범에 대한 실천사항을 구체화하여 구성원의 실천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시의적절한 개정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의 비윤리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례와 법률·사규를 기반으로 실천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윤리경영 실천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구성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경영진,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을 비롯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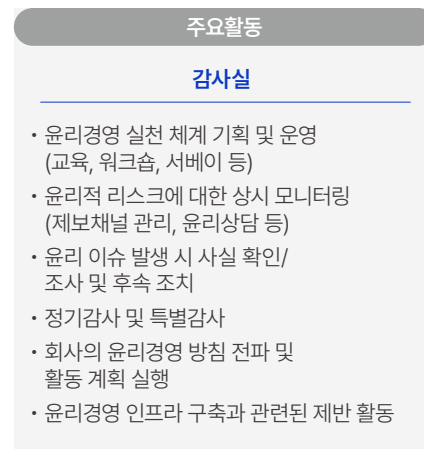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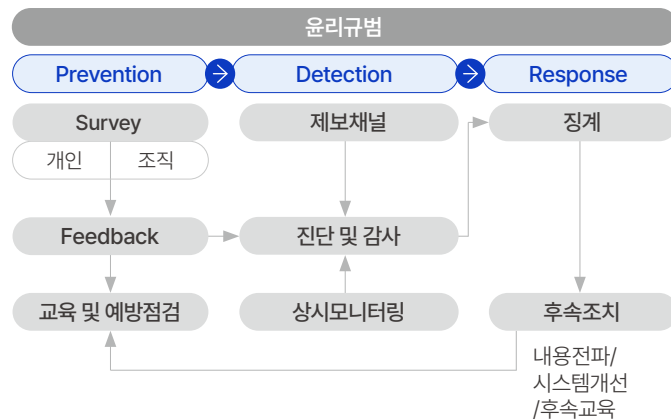
윤리경영 관련 기회 관리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윤리경영 추진 프로세스를 통해 윤리경영으로 인한 위험 뿐만 아니라 기회 또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SK텔레콤은 윤리경영 관련 위험을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프로세스



행동강령 체계



지표 및 목표

지표

윤리경영 관리지표

구분	성과		
	2023년	2024년	2025년
윤리경영 관리 체계 고도화	그룹 내 Leader 등급 유지(92.6점)	그룹 내 Leader 등급 고수(93.4점)	그룹 내 Leader 등급 지속(92.6점)
거버넌스 지원 체계 업그레이드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감사 전담 조직 편제	감사위원회 수시 보고 체계 확립	외부 감사인 주기적 감독 체계 강화
내부감사 역량 및 Quality 제고	3개년 중기 감사 계획 수립/실행	3팀, 24명 조직으로 감사인력 확충	제보조사 기간 단축(미충족률 감소 41% → 15%)

목표

윤리경영 중장기 목표

예방	2026년 목표		중장기 목표(2027년~)
	국내 Top 윤리경영 수준 공고화		글로벌 Top 수준의 윤리경영 관리체계 구축
식별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리더 대상 윤리의식 제고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서베이 결과 기반 취약계층/부서 대상 소통 활동 강화	윤리경영 실천지침 해설서 개정 검업/검직 가이드 및 실제 징계·상담 사례, 유의해야 할 윤리실천 세부지침 등 제공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Global AI Company'로서 업 특성 반영한 윤리기준 지속 업그레이드 - 윤리실천 서베이/교육/워크숍 기반 리더 및 전 구성원의 윤리의식 지속 제고 - BP 대상 윤리교육 지원 및 윤리경영 수준 동반 제고 - 에티스피어, MSCI 등 글로벌 평가기관의 윤리기준 준용
	리더 비용/자산 사용 점검 정례화를 통한 솔선수범 문화 확립 리더의 윤리실천 강화 및 상시적 자기점검 환경 조성	감사 업무 AI 활용 반복되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Root Cause 분석	
식별	제보 조사/감사 역량 고도화 및 전사 운영 효율화 지원		글로벌 Top 수준의 감사 역량/감사 Quality 확보
	제보 조사 및 감사 역량 고도화 감사실 소속 구성원에 대한 내외부 교육 기회 확대	SK텔레콤 전 영역에 대한 3년 주기 정기감사 실시 지속 회사와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자회사 감사	감사위원회 중심 윤리경영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서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강화 - 감사인력 확충, 감사인력 대상 내외부 교육 확대, 정기감사 수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신속·공정하고 합목적인 제보 조사 및 자회사 포함 회사 전 영역(All Operations)에 대한 3년 주기 정기감사 정착 - 자회사까지 자정시스템 점검 정착/고도화를 통해 자회사 Risk 관리 체계 업그레이드
식별	비용 집행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자정시스템 점검의 실효성 향상 본체/자회사 Risk 평가 체계 재정립 및 고리스크 영역 집중 점검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SK텔레콤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총괄 아래 CEO를 비롯한 GC센터 등 주요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과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 조직역량을 활용한 ICT Family 차원의 통합적인 준법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GC센터장을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준법지원인에 임명하였으며, CEO의 임명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이며, 전문성 기반의 강력한 실행력과 효과적인 Compliance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전담 조직

SK텔레콤은 축적된 사업 경험과 전문 법무 역량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Compliance 거버넌스 체계와 현장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한 준법경영 성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현장사업 7개 조직 및 6개 ICT Family 사별 리더를 "Agent"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경영 문화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거버넌스



전략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비전

SK텔레콤에게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법령 준수나 경쟁의 개념을 넘어, 모든 규제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담보하는 경영의 근간입니다. SK텔레콤은 ICT Family 차원의 고도화된 컴플라이언스 정책·비전과 실행 체계를 바탕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과 진화

SK텔레콤은 ICT Family 차원에서 Global AI Company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규제 강화로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의 가치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와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SK텔레콤의 컴플라이언스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준법 리스크 대응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법 통제 전 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성과를 토대로 사전통제 기능 강화, 사업현장의 자율 준수 문화 조성 등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컴플라이언스 비전 달성과 체계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 진입에 따른 사업 영역 확장과 파트너십 강화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 및 규제 기관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영전반에서 준법 Risk에 대한 사전예방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GC(General Counsel)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사전통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AI Agent 등 기술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위험 요소의 선제적 추출과 예방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기존에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실효성 높은 점검과 예방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실행의 기준이 되는 콘텐츠 분야는 ICT Family 전체 구성원의 활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ICT Family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각 사의 사업 특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반적인 역량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역량은 사업 개발 및 혁신 단계에서 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고유의 경영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법경영 기반의 대외적 신뢰는 SK텔레콤이 'Global AI Company'로 도약하는 데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SK ICT Family 컴플라이언스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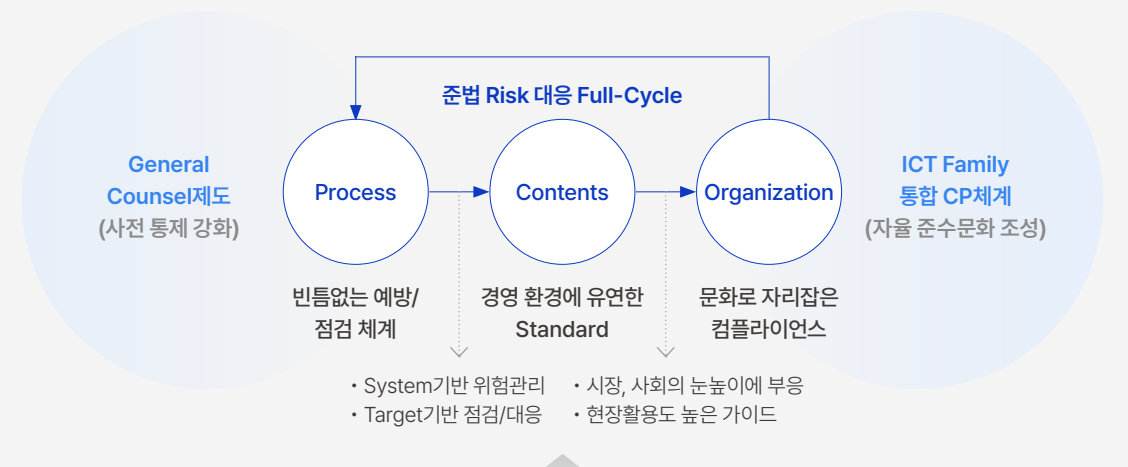
비전

시장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모범기업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도록 함

추진과제

- ICT 기술 기반의 예방 프로세스 고도화와 대응역량 혁신으로 리스크 최소화
- ICT Family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와 준법경영 문화 정착
- 사업과 서비스 가치 제고 기여 및 우호적 대외 규제 환경 조성

SK ICT Family 준법경영체계



모든 경영 Risk Mg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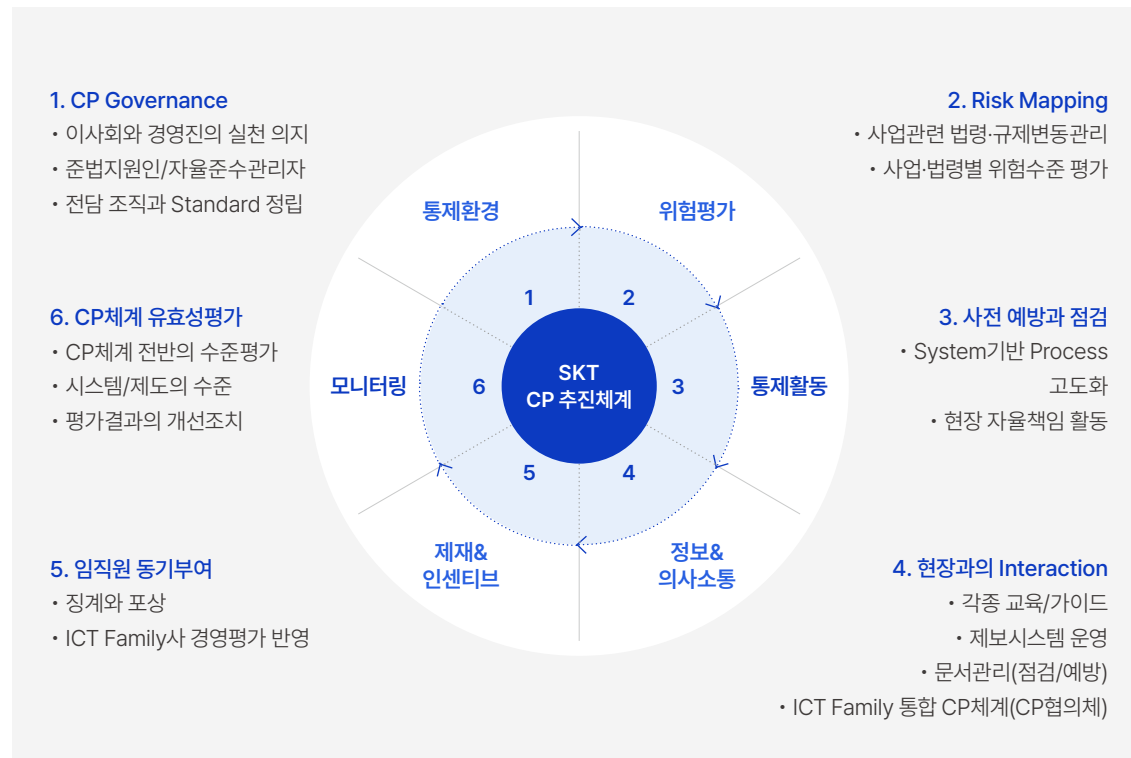
전략

CP(Compliance Program) 추진체계의 정립

SK텔레콤의 컴플라이언스 추진체계는 크게 6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 중심의 통제환경 구축, 사업전반의 위험평가, 위험요소의 예방점검 활동이 대표적인 준법경영 활동입니다. 아울러, 현장사업조직과의 정보 의사소통, 제재나 인센티브와 같은 현장과의 상호 활동, 준법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유효성평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그룹 표준 체계를 SK텔레콤의 경영 환경에 맞춰 재구성한 것으로, ICT Family사와도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CP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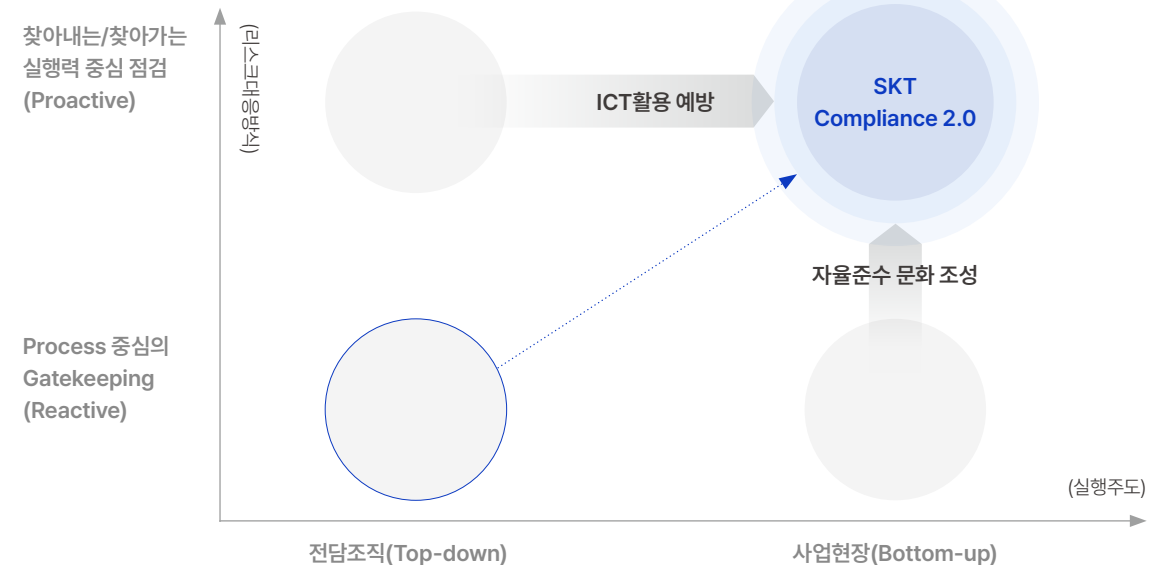
CP추진체계의 고도화 방향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핵심은 리스크를 식별·제거하는 예방 및 대응 방법론, 그리고 조직 내 실행 주체에 있습니다. SK텔레콤의 CP 추진체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방법론이 규정과 프로세스를 통한 사후 관리 중심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 방식(Reactive)이었다면, SK텔레콤은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상시 탐색하는 방식(Proactive)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점검 활동 역시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실행력 중심의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실행 주체를 기존 전담 조직 중심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율 책임 기반의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전환은 준법 리스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SK텔레콤은 이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 방식과 실행 주체를 혁신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바로 SK텔레콤의 'Compliance 2.0'입니다.

CP 추진체계의 고도화 방향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의 원칙

Life-cycle기반 단계적 리스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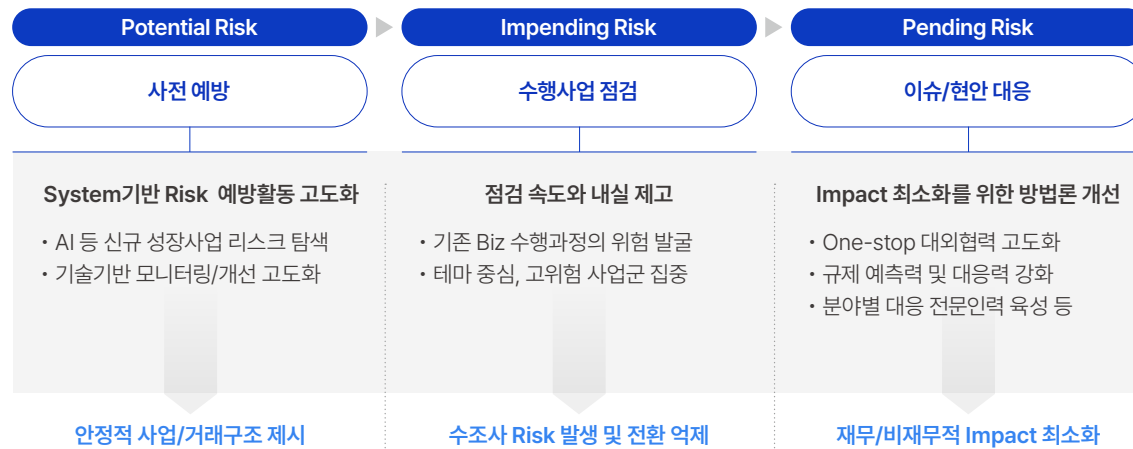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법 리스크를 진행 단계에 따라 Potential Risk, Impending Risk, Pending Risk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otential Risk 단계에서는 AI 등 신규 성장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혁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Impending Risk에 대해서는 점검의 속도와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당국 또는 사업파트너와의 이슈화가 된 Pending Risk에 대해서는 사내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재무적·비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준법 리스크의 유형과 단계에 맞춰 최적화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SK텔레콤 준법경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 방법론입니다.

Risk 단계별 Mgmt. 방안



준법경영 규범수준 리스크 내부심사

SK텔레콤은 Risk 단계별 접근방안 이외에도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의 효과적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총 13개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대한 준법경영 수준 점검과 리스크 평가를 18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831개 항목의 점검 결과 항목 전체의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Compliance 교육 니즈 등을 반영한 추가 교육 등으로 실제 경영활동에 결점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2023년 6월에는 CEO가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 및 공표하여, 시장과 사회로부터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회사의 규범 준수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K텔레콤 규범준수 방침](#)

컴플라이언스 영역



리스크 평가 결과



위험 관리

시스템 기반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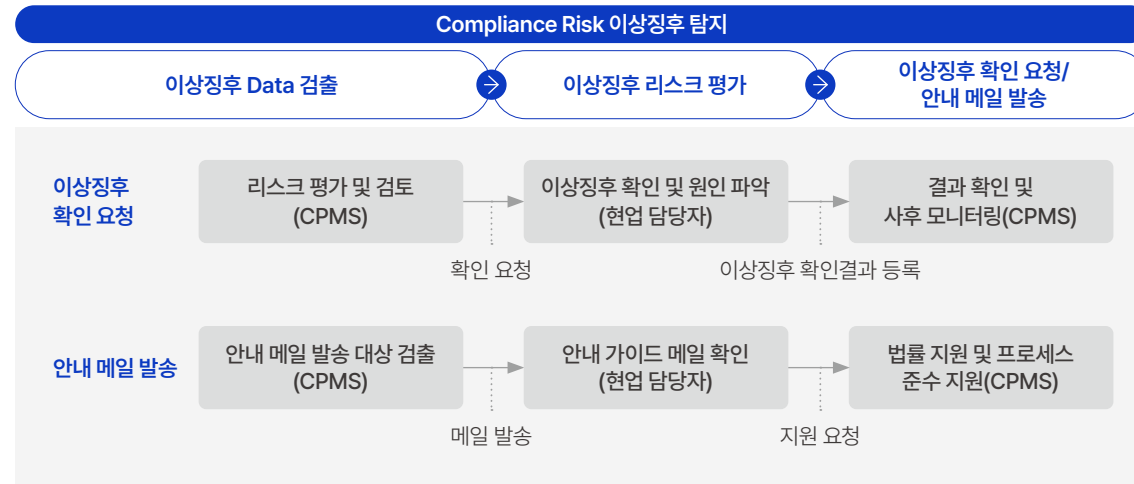
CPMS(Compliance Monitoring System) 구축/고도화

SK텔레콤은 시스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예방 체계 고도화 정책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리스크 추출 및 예방 시스템인 CPMS(Compliance Monitoring System)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주요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탐지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감지와 초기 대응 프로세스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CPMS의 안정화와 더불어 이상 징후 검출 시나리오를 보완하고, AI 기능을 적용한 리스크 패턴 분석 등 고도화를 추진하여 '컴플라이언스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리스크 관리체계의 변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이상 징후 조치와 405건의 현장 조직 대상 가이드 제공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에는 CPMS의 분석 데이터 영역 확장 및 AI 기술 적용을 통하여, 부당 특약, 쪼개기 계약 탐지 등의 신규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하여 모니터링 체계의 기능 강화, 모니터링 범위의 확장, 리스크 분석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AI 기술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기술 고도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징후 포착 및 조치 42건, 사전 가이드 278건의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CPMS 운영



AI Legal Agent Platform 도입

SK텔레콤은 CPMS 이외에도 준법경영과 관련된 현장 구성원, 전담 스텝조직 등이 준법 Risk 관련 업무에서 정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AI기술을 활용한 사전 통제 업무의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T compliance net, CPMS, T Governance net, IP마당 등을 통합한 준법경영 시스템(T Legal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적용하여 컴플라이언스 검토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Legal Agent의 기능을 확대하여, AI를 활용한 준법경영 관련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본원적인 업무 가치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 ① AI 계약서 Agent: 활용도가 높은 업무계약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장구성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전문성을 지원하며, 법무담당자에게는 철저한 계약 리스크 사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 ② AI 법무검토 Agent: 법무 담당자가 사안을 검토할 때 판단 누락이나 오판을 방지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③ AI 약관/광고검토 Agent: 최근 규제의 관심이 높아지는 약관 및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AI 기술을 통한 사전 점검 도구로, 검토담당자, 광고담당자, 현장 마케팅 담당자들까지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대 및 고도화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준법경영 프로세스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표 및 목표

2025년 주요 성과

현장 컴플라이언스 문화 정착과 준법체질 강화

2025년에는 현장과 ICT Family사의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자율·책임 점검과 자정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체질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요 입법/규제 동향 및 준법경영 영역별 세부 업무 가이드와 매뉴얼 등 준법경영 Contents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규제 방향 및 주요 사업에 큰 영향이 있는 규제 강화사항에 대하여, 현장 사업조직과 ICT Family사와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 점검과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혁신 및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관련 교육의 내실화, 준법 콘텐츠의 재정비도 진행하였습니다. CEO와 독립이사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대상의 Compliance 정기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95% 이상의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ICT Family사와의 통합 CP 체계에 따른 연간 단위 CP Task를 수립·실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9개 ICT Family사 전체 총 19개의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실행 과제를 실행하여, 91.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누적 총 241건의 실행과제 실천을 통해 전체 ICT Family사 간의 상향 평준화된 준법경영 역량 강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자율준수 문화 정착 촉진을 위하여, ICT Family사와 연관 현안을 공동으로 신속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조직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교육도 수행하였으며, 수시로 사내매체를 활용한 구성원 대상의 준법경영 관련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5년 ICT Family사 컴플라이언스 과제 운영 결과¹⁾ (총 19개 과제)

과제 유형	ICT Family사 특성화 과제
과제 건수	19개 과제
주요 사례	- Compliance 대응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 체계 시스템화 - BR Risk Mgmt. 수립 -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 Compliance 제도 개선과 병행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1) SK텔레콤 ICT Family사 9개 회사 대상 수립 및 실행

신뢰 회복 프로그램 기여

2025년 초유의 정보보호사고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는 전반적인 제도적/시스템적 안전 조치와 더불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원활한 대고객 소통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가이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소통 이외에도 해당 신뢰회복 프로그램의 핵심인 대고객보상 방안 수립, 유통망 지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회사 경영 전반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Global AI Company 추진 환경 조성

2025년에는 Global AI Company로의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실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전사 중요 프로젝트에는 구독 및 신규 전략상품에 대한 전자 상거래 법령 준수를 위한 사전 가이드를 비롯하여, Global 빅테크와의 협력 방안 구체화, 전략적 파트너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직무별 컴플라이언스 교육 현황

직무	세부 교육 내역	대상 조직
ICT Family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 준법 경영 환경(불공정거래, 부정경쟁 등) - 관련 규제 동향 및 판례 분석	전체 ICT Family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기술문서 활용	- 공정거래법 기반 기술 유용관련 규제 동향 - 관련 프로세스, 사내 시스템 활용 요령 등	네트워크, AI Tech, B2B관련 조직 대상
표시/광고 작성	- 표시/광고 분야 규제 강화 동향 - 광고물 제작시의 유의 사항(사례 위주) - 사전 검토 Agent 활용 요령	AI 마케팅, 이동전화 마케팅 부서 현장 담당
파트너 협력	- Biz Relation 분야 중심 '기본지킴이 교육' - 주요 행동 요령 및 사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 (공정거래, 공정경쟁 등 포함)	AI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 신설 조직 대상

지표 및 목표

중장기 목표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컴플라이언스 도입 이래, 축적해 온 성과와 준법경영 역량을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2.0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을 본격화하여 시장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모범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2027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연간 목표가 중장기 비전 달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SK텔레콤의 컴플라이언스는 Global AI Company 본격 실행을 리드하며, 동시에 2027년의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한 준법경영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완성과 혁신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은 'SK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사전 통제' 강화를 통해의 사결정 이전 단계에서 법적 Risk가 원천 차단되는 체계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 관리하는 시스템중심의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모델 전 영역의 잠재 Risk 집중 점검 및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용 AI Compliance Agent의 개발·보급으로 현업 단계에서 Compliance Risk 선제적 탐지 및 전 구성원 Compliance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6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대전환"	2027 "컴플라이언스 사전통제체계 완성"
사전 통제체계 강화 General Counsel 중심의 사전통제 강화로 사전 리스크 차단 	시스템과 프로세스 지속 보완 • 주요 리스크 영역 사전통제 체계 개선과제 시행 • 전체 사안 및 문건 사전 검토 체계 정착	무결점의 사전통제 체계 완비 • 사전통제 시스템/프로세스의 완성 • 사전통제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체질 변화
정보보호의 시스템화 시스템화된 개인정보 주기 수과정의 관리 	시스템 중심의 개인정보관리/통제 확립 • CPO중심 전사 거버넌스 정착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시스템 중심 통제 확립 • 사고 대응/관리 감독 체계 정비	시스템 중심의 개인정보관리/통제 고도화 •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완성 • 규제/기술 환경 변화 선제 대응
사업전반 전면 점검 전방위적 점검과 적극적인 적법성 확보 	전 사업영역 리스크 점검 실시 • 연간 계획하의 사업별/분야별 현장 점검 연중 지속 • 점검 시에 현장 교육 및 개선 조치 병행 • 주요 사업조직 컴플라이언스 KPI 반영	현장 자율 점검체계 완비 • 현장 중심의 자율점검 체계 정착 • 전 사업조직 컴플라이언스 KPI 반영
AI, Tech의 활용도 제고 혁신 과제를 넘어, 준법경영 혁신의 Main Task화 	AI기술 적용 사례 도출 • AI활용 사전 검토 등의 Best Practice 발굴 • 컴플라이언스 AX 적용사례 확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의견 생성 기능 고도화)	AI기반 사전통제 시스템 확산 • 주요 사업검토에서의 AI 활용 확산

AI 거버넌스

거버넌스

책임 및 역할

SK텔레콤은 Global AI Company 위상에 부합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핵심 현안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ESG위원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 심의체계는 의사결정기구, 경영진, 실무진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각 주체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기반하여 주요 현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차원에서 AI 기술이 가져올 위험과 기회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써, AI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책임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와 ESG위원회로 구성되며, AI 거버넌스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AI 거버넌스 관련 핵심 사안(투자, 사업계획 등)을 최종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에서는 AI 거버넌스 주요 분야의 추진 방향 및 성과, 사내 주요 AI 서비스의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전략 등을 심의합니다.

경영진 차원에서는 CEO와 CPO(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주도적으로 AI 거버넌스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실무진이 제시한 AI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이슈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ESG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AI 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리포트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 고유의 AI 거버넌스 체계인 'T.H.E. AI' 원칙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전략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관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무진은 AI 거버넌스 대응의 실행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을 지원합니다. AI 거버넌스 전담팀과 Red팀 중심으로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으로부터 검토된 이행 과제를 수행하여 AI 거버넌스 이행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진은 AI 사업부와 주요 지원조직으로 구성된 AI 거버넌스 워킹그룹을 편성하여 전사 차원의 AI 거버넌스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대응 심의 체계를 통해 Full Stack AI 전략의 각 영역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AI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AI 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앞으로도 Global Top tier AI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거버넌스



1)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2) AI 거버넌스 워킹그룹: SK텔레콤의 AI 사업부 및 유관부서(법무/Compliance/CR/PR) 구성원이 참여하는 실무그룹

전략

AI 거버넌스 전략 체계

AI 기술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나, 기술 활용에 따른 책임과 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필수적인 신뢰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 비즈니스 보호

SK텔레콤은 고객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AI 거버넌스 차원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예측 및 의사결정 역량이 고도화됨에 따라, 시스템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 의사결정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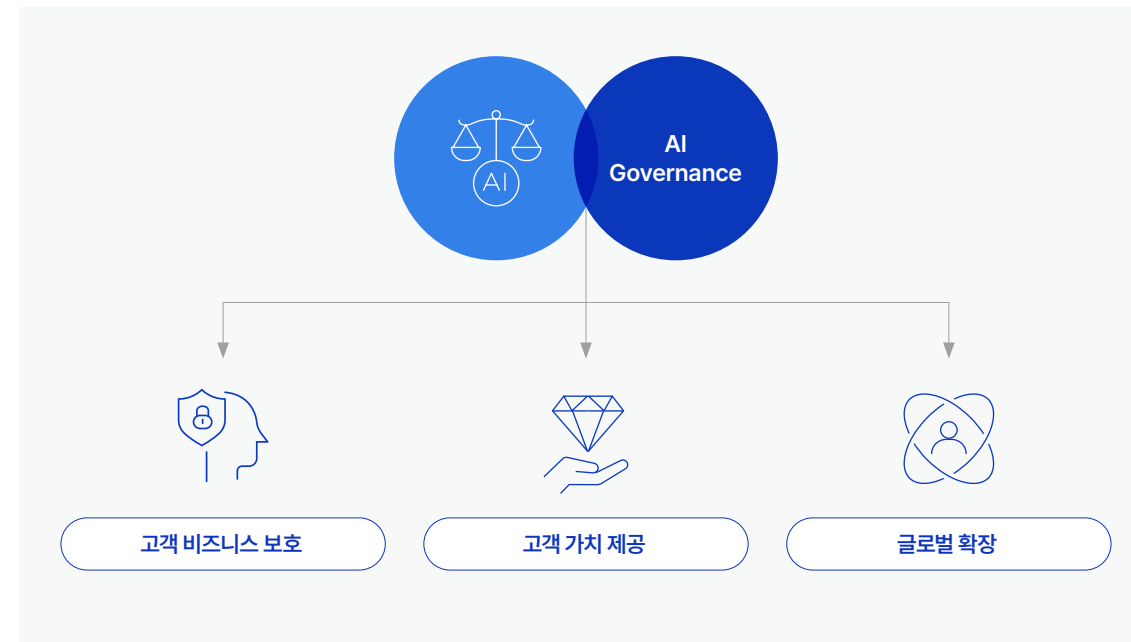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 개선이 중요합니다. SK텔레콤은 고객 데이터를 신중하게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고도화된 서비스로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확장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별 규제와 법률을 준수하며, 글로벌 환경에 최적화된 AI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각국의 데이터 보호 법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문화적·언어적 특수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MWC2026에서 AI거버넌스 및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SK텔레콤의 AI서비스·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GSMA 및 글로벌 주요 AI기업과의 AI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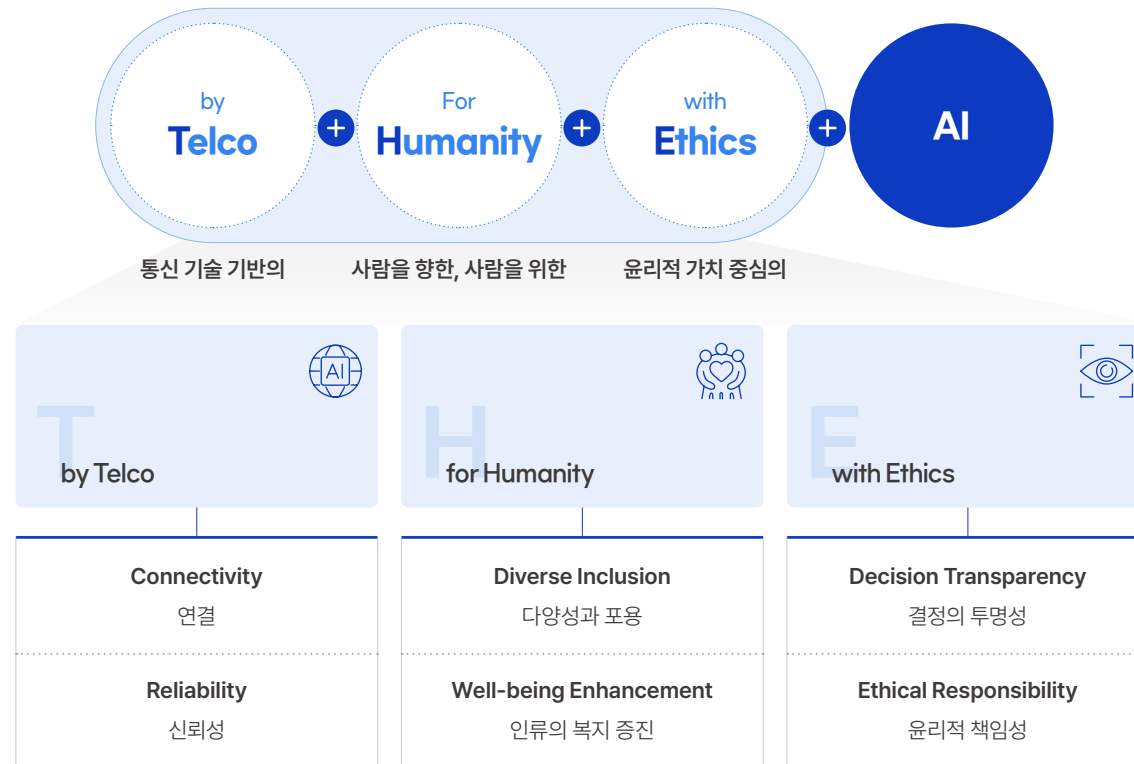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는 고객 비즈니스 보호, 고객 가치 제공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거버넌스는 단순히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

AI 기본 원칙

SK텔레콤은 2024년 1월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으로 SK텔레콤 AI의 특성(Telco, 통신기술 기반의), 목표(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Ethics, 윤리적 가치 중심의)와 이에 따르는 AI 거버넌스 원칙을 상징합니다.



T · H · E · AI

SK텔레콤은

by Telco 통신 기술 기반의	Connectivity 연결	통신기업으로서 고객/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과 국제협력을 통해 AI 발전
	Reliability 신뢰성	고객신뢰와 안전이 최우선인 통신기업으로서 잠재적 AI 위험으로부터 고객 보호 및 신뢰 강화
For 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Diverse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	AI 생애주기 동안 다양성, 평등, 공정의 가치 지향 및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Well-being Enhancement 인류의 복지 증진	AI를 통해 인류의 복지와 사회 전반에 대한 발전 촉진 및 긍정적 영향 전파
with Ethics 윤리적 가치 중심의	Decision Transparency 결정의 투명성	AI 의사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 및 정보 정확성의 지속적인 향상 노력
	Ethical Responsibility 윤리적 책임성	인간 중심적 AI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약속과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위험 관리

AI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SK텔레콤은 AI 사업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의 크게 AI 거버넌스 체계 관리, AI 사업 관리, 이슈 관리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AI 거버넌스 체계 관리는 국내외 규제와 정책 동향, 기술 트렌드 분석 등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AI 거버넌스 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개선 성과를 정부 및 언론 등 대외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구성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인식 확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관리는 서비스 장애, 주요 VoC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 기관, 언론 대상 대응과 보상 방안을 수립하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SK텔레콤은 2024년 4월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AI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입니다. SK텔레콤은 향후에도 AI 거버넌스 체계를 근간으로 AI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AI 사업 관리는 Full Stack AI 전략의 각 영역에 맞는 AI 프로덕트 관리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를 의미합니다. AI 프로덕트 관리는 AI 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획, 위험 및 기회 식별, 자가진단, 심의·결정, 배포·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는 Full Stack AI 전략의 영역 중 AI 인프라, AI 에코시스템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로 SK텔레콤 AI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사와 AI 프로덕트 사용자에게 대한 관리입니다.

책임있는 AI 프로그램 운영

SK텔레콤은 AI Product 위험수준 평가 시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 및 가공·처리·권한 확보 여부를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심각성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 절차와 AI의 작동 방식·결과에 대한 설명 필요성을 결정 투명성 원칙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지표 정의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성능 하락 시 조치 프로세스 수립을 준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데이터 편향 제거 절차 마련, 편향 완화 기법 적용, 정량적 지표를 통한 편향성 평가·모니터링을 데이터 수집·처리부터 시스템 구현 단계까지 단계별 공통 준수 항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 및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및 인력 마련을 내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출력 결과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발생 가능성과 대응 절차 검토를 별도 점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AI 윤리·보안 인식 제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획·실시하고 있습니다. AI 경영시스템 운영 체계상으로는 기후변화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 요구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AI 기반 트래픽 진단과 그린 저탄소 IC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절감 및 저탄소 혁신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AI 모델 자체 개발 및 내재화를 중장기 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RCSA(Risk and Control Self Assessment): 조직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금융, 기술, 제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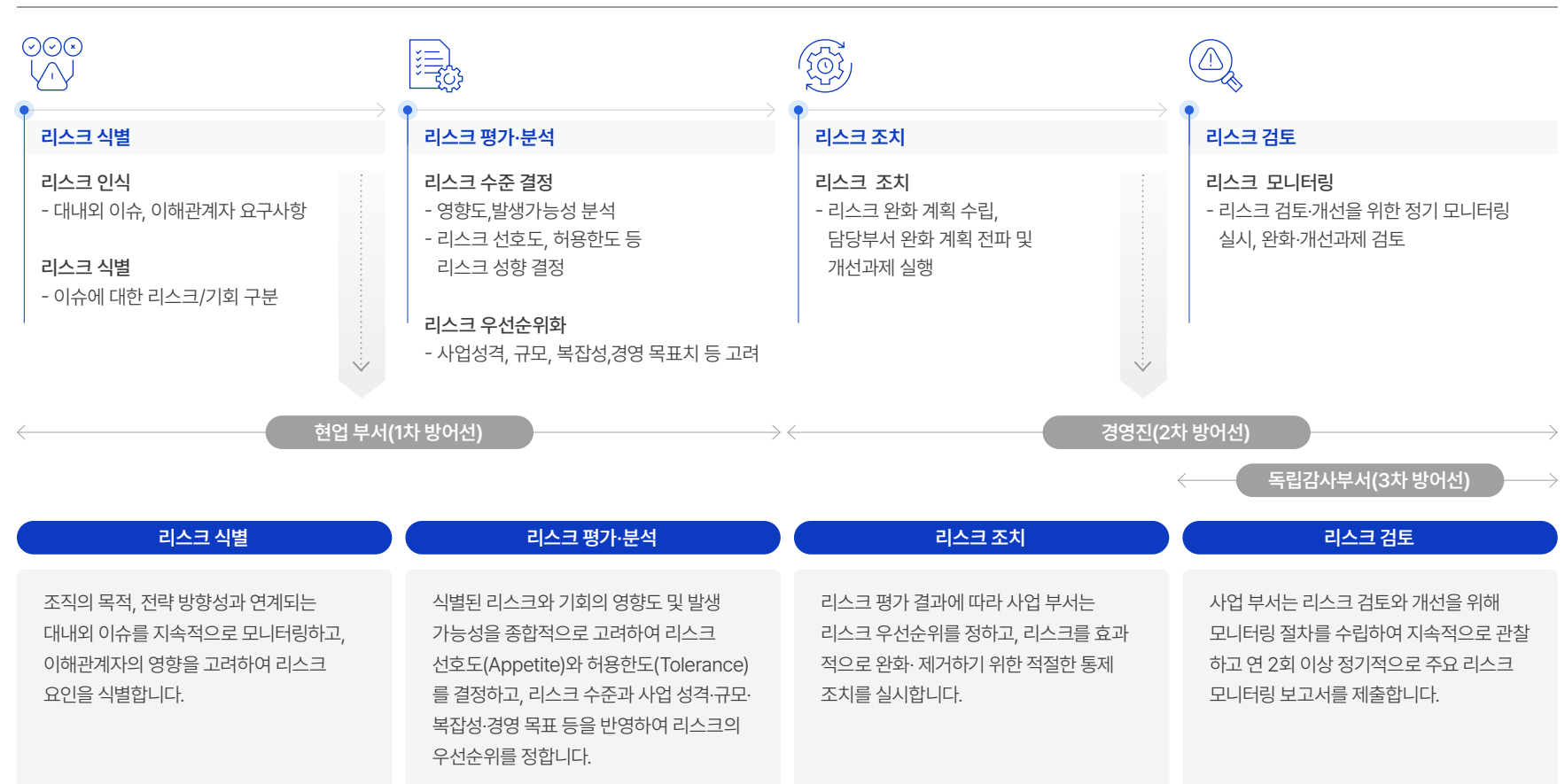
리스크 관리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SK텔레콤은 경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 부서와 ICT Family사(자회사)가 참여하는 전사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W/G)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회사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와 사업 전략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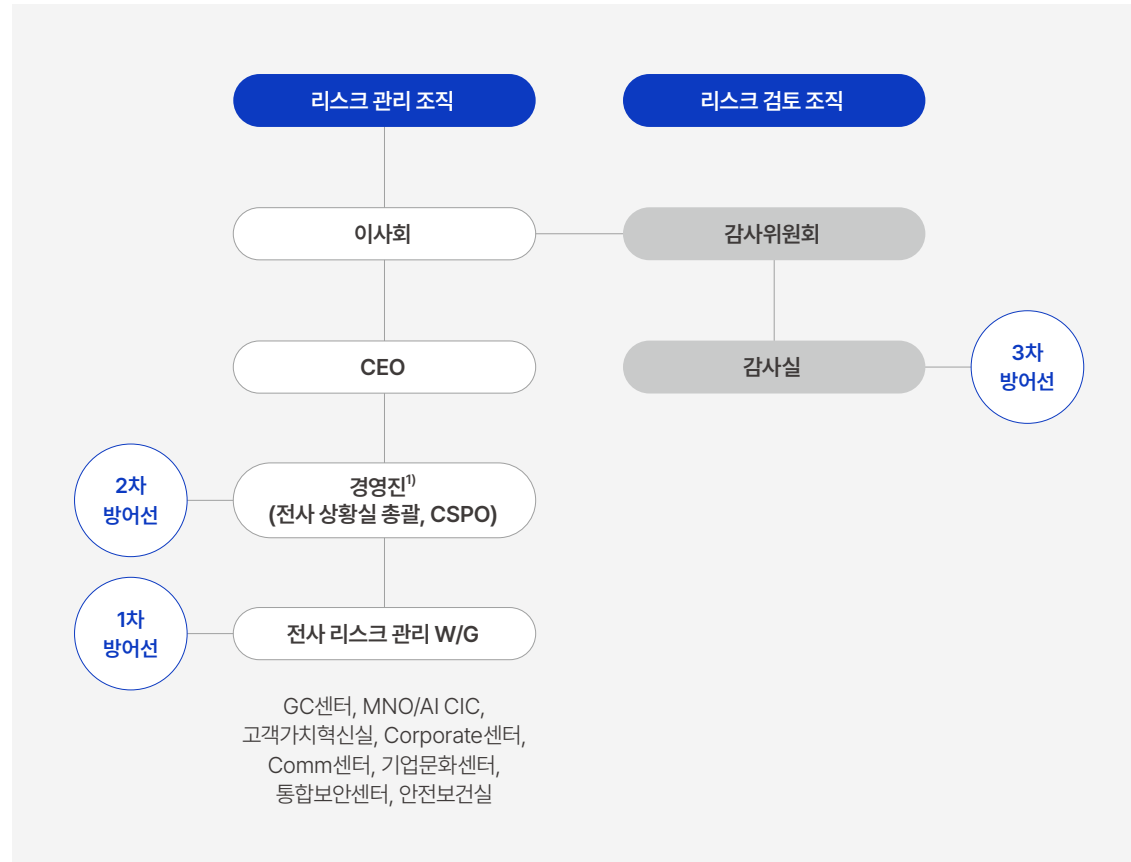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SK텔레콤은 사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식별, 평가·분석, 조치, 검토·모니터링과 같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SK텔레콤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거버넌스 시스템에 통합하였으며, 의사결정을 하거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할 때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CSPO, CFO, CSO, Comm센터장, 기업문화센터장, GC센터장, MNO CIC장, AI CIC장, RM관련 조직장

(1) 리스크 오너(1차 방어선)

SK텔레콤은 사업 분야별 전담 조직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은 각 현업 부서의 주요 리스크 식별과 완화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워킹그룹의 각 구성원은 담당하는 사업 운영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주요 리스크 식별과 완화 조치에 대해 CEO, CSPO,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 전담 부서인 GC센터는 리스크 프로파일 관리, 주요 리스크에 대한 담당부서 맵핑, 리스크별 대응 방안을 정의하고 정의된 리스크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리스크 인지-전파, 대응 등의 활동을 총괄합니다.

(2) 리스크 모니터링 및 감독(2차 방어선)

CSPO는 전사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 대응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조직과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전사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을 소집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CSPO가 총괄하는 리스크 관리 워킹그룹의 전담 부서인 GC센터에서는 정의된 리스크 기준과 시스템을 각 사업 부서와 임직원에 가이드하며, W/G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실은 매년 전사 현업 부서와 ICT Family사를 대상으로 SK텔레콤의 가치와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문화를 확립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독하는 동시에 내부 통제에 관한 정보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매년 리스크 유형을 검토하고 검증하며, 리스크 영역별 담당 경영진과 부서장을 임명하여 관련 리스크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각 경영진은 리스크 유형에 기반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3) 독립 감사(3차 방어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전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함께 회사의 리스크 유형 분석과 리스크의 우선순위, 리스크 관리 또는 완화를 위해 시행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주요 리스크 유형의 접근 방식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SK텔레콤의 내부 업무감사, 재무 보고 감독, 부정조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조직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감독을 총괄합니다. 중장기 전략과 사업의 추진, 투자, 재무/회계, 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영역의 핵심 리스크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리스크를 감독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리스크 전문 분야

구분		이사	리스크 유형			
			전략	운영	재무	Compliance/법무
			사업 전략 실행 또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내부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구성원 사건 사고 등에 의해 발생되는 리스크	환율, 금리변동, 유동성, 신용, 자산, 부채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산업/ESG 규제 및 정책의 변화, 공정거래 위반, 부정 부패, 회계 /ESG 공시 기준 적정성 등과 관련된 리스크
사내이사	정재현	●	●	●	●	●
	한명진	●	●	●	●	
기타 비상무이사	윤풍영	●	●	●	●	
독립이사	김창보	●				●
	오혜연	●	●			
	노미경	●			●	●
	임태섭	●			●	●
	이성엽	●	●			●

리스크 검토 조직

감사위원회

SK텔레콤은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CEO 및 CRO 경력을 보유한 재무/회계 전문가 2인을 중심으로 Compliance/법무, 정보보안 분야의 권위자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사의 리스크 점검 및 경영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경력 및 자격

성명(직책)	구분	감사 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임태섭 (위원장)	독립이사	- 성균관대학교 SKK GSB 교수 (2017~현재) -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이사 및 증권부문 대표 (2013~2015) - 한국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이사 (2010~2012) - 세아제강 감사 (2018-2024)	Global 투자/금융, Compliance, 재무/회계 전문가
김창보 (위원)	독립이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2024~현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21~2024) -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2019~2021)	Compliance/법무 전문가
노미경 (위원)	독립이사	- HSBC 홍콩, 아-태지역 Risk 총괄 및 Credit Risk Review (2017~2024) - HSBC 서울, Chief Risk Officer (2010~2017) - HSBC 서울, Deputy Chief Risk Officer 등 (2001~2010)	Global 투자/금융, Compliance, 재무/회계 전문가
이성엽 (위원)	독립이사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9~현재) -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2025~현재) - 국무총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2022~현재) -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2020~2024)	정보보안, Compliance/법무 전문가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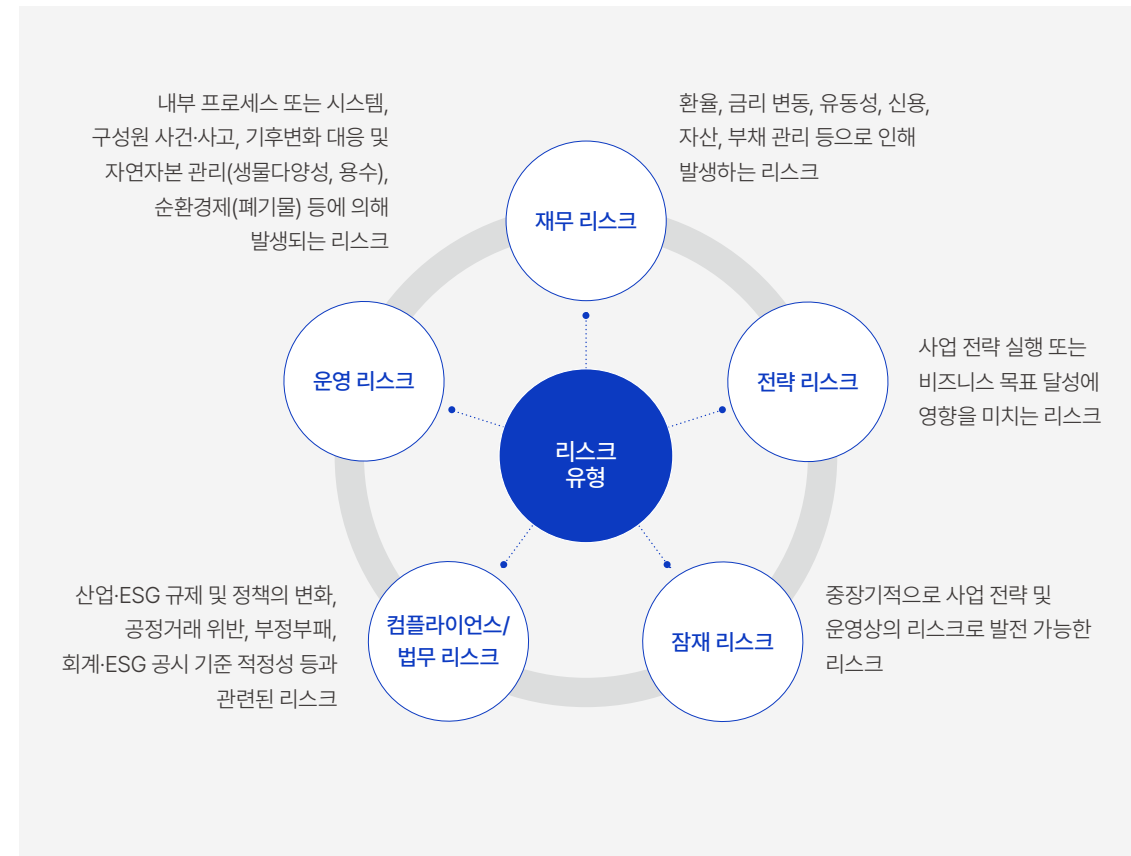
SK텔레콤의 감사실은 임원 1명과 팀장 3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실적과 주요 이슈를 매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내부감사부서에 해당하는 감사실의 설치와 보고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재무보고 감독, 부정 조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리스크 식별

SK텔레콤은 재무·비재무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폭넓게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



리스크 평가, 분석 및 조치

SK텔레콤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요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여 잠재 리스크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풀(Pool)에서 식별된 리스크를 발생 가능성, 영향도와 ESG 중요 이슈를 기반으로 핵심 리스크를 도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수립하여 해당 리스크의 영향을 사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신규 사업(제품·서비스 등) 추진 및 주요 정책 변경 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투자 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SK텔레콤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독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매년 리스크 유형을 검토하고 검증하며, 리스크 영역별 담당 경영진과 부서장을 임명하여 관련 리스크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각 경영진은 리스크 유형에 기반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리스크 평가, 분석 및 조치

핵심 리스크 및 완화 조치 (2025년)

구분	핵심 리스크 ¹⁾	완화 조치	ESG 중요 이슈
리스크	◆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M&A), 투자 성과 관리	고객 니즈·수요 예측, 사업 의사결정, 기술·산업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이행	5. 주주가치 제고
	◆ 재무 환·이자 리스크 등 거시경제 요인	환율, 금리 변동, 유동성, 신용 자산 등 재무 동향 주기적 모니터링 및 대응	-
	◆ R&D 핵심 기술 개발·혁신, 특허 관리	핵심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고객 확보, 핵심 사업 기술 특허 관리를 통한 법적 리스크 저감 노력	2. 기술 혁신(AI)
	◆ ICT Family사(자회사) 전사 리스크/ESG 관리 체계 구축	ICT Family사(자회사) 리스크 교육, 관리 체계 수립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자회사 리스크 저감 및 관리·감독 노력	3. 지배구조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 ESG 사회적 가치(SV) 성과, 이해관계자 관리 및 소통	ESG 대응 현황에 따른 투자기관의 영향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관리 및 소통 채널 모니터링	-
	◆ 안전보건 중처법 유예종료에 대비한 중사자 및 시민의 안전 강화	구성원 및 협력사 안전보건 영향 요소 모니터링과 대응,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관리	-
운영 리스크	◆ 구성원(HR) 복리후생, 노사 관계, 조직문화 등	개인 비리, 구성원 간 갈등, 사건·사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기타 구성원 위법행위 모니터링, 정기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4. 인재 채용 및 육성 6. 노동관행 보장
	◆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정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및 임직원 인식 제고 교육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 공급망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사 관리, ESG 평가	대리점·판매점 관리, 불공정 거래, 특혜 및 협력사와의 갈등 등 건전한 공급망 관리 체계 수립, 공급망 ESG 평가 기반 정기 모니터링 및 리스크 점검·조치	-

구분	핵심 리스크 ¹⁾	완화 조치	ESG 중요 이슈
운영 리스크	◆ 환경 환경경영 전략/체계 및 환경 지표 및 목표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감축 방안 발굴 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관련 리스크 저감 및 자원 사용 절감 노력	3.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7.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
	◆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등 서비스 품질 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설비 점검,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 훈련 강화 및 모니터링	-
	◆ 고객 고객 VoC,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집단) 행동, 고객 정보 유출, 대형 고객 불만(서비스 장애, 전산 오류) 등 관련 리스크 저감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 구성원 정기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2.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 BCM ²⁾ 위기 대응 체계 및 대응 조치	화재, 태풍, 전염병 등으로 인한 인명, 시설 피해 등 위기 대응 체계 수립 및 모의훈련을 통한 내재화	-
컴플라이언스 /법무 리스크	◆ 규제 변동 정부 정책·규제 변화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 강화 대응, 회계·ESG 공시 기준 변동 지속 모니터링, 규제 변동 사항에 대한 담당자·임직원 교육	-
	◆ 컴플라이언스·법무 법령 위반 이슈 발생 등	공정거래 위반, 회계 부정, 부적절한 접대 행위, 국가기관의 조사·수색 등 법규 위반 저감을 위한 감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이행	1.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잠재 리스크	◆ 지정학적 요인 한국 정치·지리적 위치로 인한 이슈 등	글로벌 사업 추진 시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 저감 노력	-
	◆ 기후변화 물리·전환 리스크 대응 실패 등	기후변화에 의한 기술·시장 변동 모니터링	3.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1) 리스크 노출·영향 구분: ◆ 높음 ◆ 중간 ◆ 낮음

2)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리스크 민감도(Risk Sensitivity)

SK텔레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 민감도를 분석하여 재무·비재무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1. 환율 변동에 따른 세전 이익

환율 변동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흐름이 변동될 때 발생하는데, 이는 해외 연결기업의 사업 운영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리스크 발생 시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환율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하고 보고합니다. SK텔레콤의 주요 외화로는 USD, EUR 등이 있으며, 2025년에는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되는 경우 세전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민감도 분석은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환율 변동 영향 민감도 분석 현황 (단위: 백만 원)

통화	세전이익에 미치는 효과		자본에 미치는 효과	
	10% 상승 시	10% 하락 시	10% 상승 시	10% 하락 시
USD	11,616	-11,616	8,541	-8,541
EUR	1,017	-1,017	748	-748
기타	-1,343	1,343	-987	987
합계	11,290	-11,290	8,302	-8,302

시나리오 분석 2. 통신재난 대응

SK텔레콤은 통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전, 화재, 침수, 지진 등의 재해나 국사소손, 운용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 서비스 중단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운용 오류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사 단위의 네트워크 트래픽, 실제 트래픽 사용률, 국사 고장 시 백업 인프라 등을 고려한 통신재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무선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¹⁾은 28,600원²⁾에 이르기 때문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 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통신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기반 시스템³⁾을 포함한 서비스의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구축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한 다양한 투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내 통신 Traffic 분석 결과 5G 비단독(NSA) 모드의 수요가 30.8% 증가하고, 4G LTE의 수요는 10.5%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5G 트래픽 분산을 위한 데이터 용량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국사 단위의 고장 발생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고, 국간 트래픽의 수용 가능한 한계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 인프라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사 단위 고장 대응 전략

As-Is	To-Be
국사 간 백본망 2원화 국사 다운 시 구간 우회 트래픽 175% 초과 발생 예상	국사 간 백본망 4원화 4개 국사 중 1국사 고장 시 다른 3국사에서 코어 트래픽 분산하여 수용 가능

1) SK텔레콤 MNO수익 및 무선가입자 기준(3G/LTE/5G 및 IoT 포함)
 - MNO수익 기준: 음성 및 데이터 수익(가입비, 접속수익 제외), 부가서비스 수익 등을 포함

* 매출할인(약정 및 결합할인 등) 반영. MVNO 관련 매출 제외.
 - 무선 가입자 기준: 과징통부 가입자 통계 중 과금회선 분기평균 가입자수 기준

2) 직전 2개년 기준 분기별 ARPU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공통 기반 시스템: 인증, DNS (IP 주소 변환), 필수 운용도구 (모니터링/서비스 제어 및 배포)를 포함

시나리오 분석 3. AI 규제 대응

골드만삭스리서치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2024~2030년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전체 클라우드 지출 가운데 2,000억~3,000억 달러(약 267조~400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⁴⁾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AI 매출은 전년대비 46% 상승하는 등 AI 관련 수요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AI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2024년 8월 EU에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인 'AI 기본법(AI Act)'을 공식 발효하는 동시에 2025년 4월 'AI 대륙 행동 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AI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AI 산업계 위축을 막기 위한 진흥 중심 기조에 따라 AI 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글로벌 AI 서비스 전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가 제정되는 동시에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기본법과 글로벌 AI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EO와 CPO가 주도하는 경영진의 감독 아래 ESG위원회와 연계해 'T.H.E. AI' 원칙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리포트를 최종 검토·공개하며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합니다. 또한 AI 거버넌스 전담팀·레드팀과 AI 사업부 및 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거버넌스 이행을 수행·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AI Privacy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AI Agent에 대해서도 AI 거버넌스 평가 및 점검 체계를 적용하여 전사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산업 규제와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성장 기반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내부 통제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Global AI Company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4)Cloud revenues poised to reach \$2 trillion by 2030 amid AI rollout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잠재리스크(Emerging Risk)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설명	영향	완화 조치
AI 기술 오용 및 부정적 활용 리스크 (Adverse Outcomes & Improper Use of AI Technologies)	[AI 오용 피해의 현실화 및 기술적 취약성 심화] 생성형 AI-에이전틱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AI 오용에 따른 피해가 전례 없는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사고 보고 건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년 대비 50%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 10월 기준 이미 2024년 전체 건수를 초과하였고, 악의적 행위자의 AI 활용 사례(딥페이크 사기, 허위정보 유포 등)는 2022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기술적 측면에서는 훈련 데이터에 단 250개의 악성 문서만 삽입해도 모델 행동을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 오염 공격이 가능하며, 정교한 공격자는 10회 시도 중 약 50%의 확률로 AI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²⁾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뢰도 저하 및 사업 연속성 위협] AI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데이터 오남용-AI 생성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객 신뢰 손상 및 서비스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모바일 앱 사용자 리뷰 300만 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실 오류(Factual Incorrectness)가 AI 관련 사용자 불만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이는 에이닷 등 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오용 및 부정적 활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운영 중단-손해배상 책임-브랜드 평판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AI 서비스 확장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사업 경쟁력 및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기술 오용 및 부정적 활용 리스크에 대한 대응 조치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책임 있는 AI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및 글로벌 리스크 부상] 한국은 2025년 1월 2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법률 제20676호)'을 제정하여 2026년 1월 22일부로 시행하였으며, 동 법률은 '고영향 AI'에 대해 리스크 관리-인간 감독 확보-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생성형 AI 활용 시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사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WEF(세계 경제 포럼) Global Risk Report 2026은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s of AI Technologies)'를 장기(10년) 기준 전 세계 5위 리스크로 선정하였으며, 단기-장기 순위 변동폭 기준 전체 33개 리스크 중 가장 큰 상승폭(단기 #30위→장기 #5위)을 기록하여 구조적-장기적 위험으로 본격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³⁾ SK텔레콤은 AI 모델 개발-AI 데이터센터 운영-AI 기반 서비스(에이닷 등) 전 영역에 걸쳐 AI를 핵심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어, AI 오용 및 부정적 활용에 따른 알고리즘 편향-데이터 오남용-규제 위반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브랜드 신뢰 손상이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AI CIC 체제를 통해 AI 서비스-기술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AI CIC를 영역별 책임 조직 단위로 재편하여 AI 사업 관리-이슈 관리-외부 모니터링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술혁신 전략 추진 방향, 조직 개편 현황, 중장기 핵심 과제 및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으며, 기술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I 서비스 보안 수준 강화: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배포하고 AI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비식별 기준 수립 및 프로세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AI 현장 'T.H.E. AI' 이행을 위해 AI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 AX 보안 내재화 및 외부 AI 위협 대응: AI-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아키텍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AX 보안 내재화를 위한 보안 기술 개발 및 외부 AI 위협 대응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공학위협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AI 기반 신종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IME, What the Numbers Show About AI's Harms (AI Incident Database 기반), 2026.01.19, (<https://time.com/7346091/ai-harm-risk/>)
2)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 Second Key Update: Technical Safeguards and Risk Management, 2025.11, p.10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sites/default/files/2025-12/second-key-update-english.pdf>)
3)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6, 2026.01, p.9 (Figure 3) 및 p.14 (Figure 10)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risks-report-2026/>)
4) Massenon, R. et al., "My AI is Lying to Me" : User-reported LLM Hallucinations in AI Mobile Apps Reviews, Scientific Reports, 2025.08.19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5-15416-8>)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잠재리스크(Emerging Risk)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설명	영향	완화 조치
에너지·자원 부족 리스크 (Energy & Natural Resource Shortages)	[AI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AI 기술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5년 485TWh에서 2030년 950TWh로 약 2배 증가할 전망이며, AI 특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같은 기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5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이미 전년 대비 17% 급증하여 전체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율 3%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5개 주요 기술 기업의 AI 인프라 자본 지출 합산이 4,0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2026년에는 75% 추가 증가가 예상됩니다.¹⁾ AI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2030년 연평균 약 15% 성장하여 전체 산업 부문 전력 소비 증가율의 4배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며, AI 중심의 가속 서버 전력 소비는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²⁾ [에너지 공급 제약 및 구조적 리스크 부상]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프랑크푸르트 42%, 더블린 약 80%의 지역 전력 수요를 차지하는 등, 지역 전력망 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력망 연결 지연·냉각 수자원 제약 등 복합적 병목 현상이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3) 이러한 추세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전통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성과 맞물려 AI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를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시키고 있으며,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2026년 1분기 AI DC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9.3% 급증하는 등⁴⁾ 전력 수요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 환경 변화가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DC 사업 확장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정 및 탄소중립 비용 부담] 국내에서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1개월간 전국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신청이 290건에 달하고 이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전력계통 병목 현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⁵⁾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8년까지 30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전국 136개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 신청 용량만 약 9.26GW로 원전 9기 규모에 달하는 등 전력 공급 압박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⁶⁾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AI DC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SBTi 기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이 AI DC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 DC 운영 효율화와 에너지 전환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DC 운영 효율화: 단순 인프라 규모 확장을 넘어 구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솔루션 내재화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SK이노베이션 등 그룹사 및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건설 공기 단축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 방법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DC 인프라 확충: 대규모 GPU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가상화 솔루션 '페타서스 AI 클라우드(Petasus AI Cloud)'를 개발·검증하고, 통합 AI DCIM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총소유비용(TCO)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SK텔레콤은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 Green Operation·Green Energy·Green Asset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Single-RAN 기술 적용·AI 트래픽 진단을 통한 전력 사용량 감축, 한국전력공사와의 녹색프리미엄 계약, PPA 사업자와의 PPA 계약 체결 등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1) IEA, Key Questions on Energy and AI, 2026.04 (Executive Summary 및 p.17~23)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3179f7f8-01f6-4dd6-bffa-c9f7b73f1dc9/KeyQuestionsonEnergyandAI.pdf>)
2) IEA, Energy and AI, 2025.04 (Executive Summary / Energy Demand from AI 챗터) (<https://www.iea.org/reports/energy-and-ai>)
3) Brookings Institution, Global Energy Demands within the AI Regulatory Landscape, 2026.04.10 (<https://www.brookings.edu/articles/global-energy-demands-within-the-ai-regulatory-landscape/>)
4) SK텔레콤 2026년 1분기 IR 자료, 2026.05.07, p.6 (<https://www.sktelecom.com/img/kor/qua/20260507/1Q26InvestorBriefingKOR.pdf>)
5)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전력계통영향평가 자료 (기계설비신문 재인용, 2025.11.10)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7>)
6)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SG경제, 데이터센터 증가, 국가 탄소중립 계획·기후예산과 양립해야, 2025.12.05 재인용)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06>)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잠재리스크(Emerging Risk)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설명	영향	완화 조치
허위정보·역정보 리스크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AI 기반 에이닷 서비스 확대와 정보 신뢰성 리스크 부상] 국내 이동통신 시장 내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감소와 알뜰폰(MVNO)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에이닷(A.)을 중심으로 한 AI 서비스를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에이닷 누적 가입자 수는 2025년 기준 11.2백만 명을 기록하는 등 AI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사업은 SK텔레콤의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에이닷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AI 서비스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합성 콘텐츠의 급속한 확산] 딥페이크·합성 콘텐츠 기반의 허위정보·역정보 생성·유포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조사처(EPRS)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공유된 딥페이크 수는 800만 건으로 2023년 50만 건 대비 16배 급증하였으며, Europa은 2026년까지 온라인 콘텐츠의 90%가 AI 합성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¹⁾ 또한 2024년 딥페이크 공격은 5분마다 1건씩 발생하였으며, 디지털 문서 위조는 단 1년 만에 244%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²⁾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WEF Global Risk Report 2026은 '허위정보·역정보(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를 단기(2년) 기준 전 세계 2위 리스크, 장기(10년) 기준 4위 리스크로 선정하였습니다.³⁾ 이처럼 딥페이크·허위정보의 확산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운영하는 AI 기반 플랫폼 서비스 또한 이러한 외부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정보 확산에 따른 AI 서비스 신뢰도 저하 및 브랜드 손상 위험] 딥페이크·합성 콘텐츠가 에이닷 등 AI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거나, SK텔레콤의 브랜드·임직원·서비스를 사칭한 허위 콘텐츠가 대규모로 생성·확산될 경우 고객 신뢰 손상 및 서비스 이탈로 이어져 AI 사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약 3,100만 명⁴⁾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로써 허위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될 경우 무선통신 사업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손해액 5배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딥페이크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등 추가 투자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사업 운영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⁵⁾	SK텔레콤은 딥페이크·합성 콘텐츠 기반 허위정보 확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 조치로 AI 서비스의 정보 신뢰성 확보와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학위협 대응 전문조직 운영: 사회공학위협대응팀·사회공학방어기술팀을 신설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하여 전문 상담 인력 파견 및 상담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위정보 기반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기술 개발: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ScamVanguard는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끼 문자, 사칭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AI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금융 데이터와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체·출금을 차단하는 등 선제 대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스팸·피싱 차단 서비스 고도화: RCS 스팸메시지 차단·미끼 문자 알림·국제전화 음성 안내 멘트 등 스팸·스미싱 차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악성앱 설치 피해자 현장 구제 등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PRS(유럽의회 조사처), Children and Deepfakes (PE 775855), 2025.07, p.2~4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75855/EPRS_BRI\(2025\)775855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75855/EPRS_BRI(2025)775855_EN.pdf))
2) ORF, Algorithms of Falsehood, 2026.04.03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algorithms-of-falsehood-the-challenges-of-governing-ai-generated-disinformation>)
3)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6, 2026.01, p.9(Figure 3), p.16(Figure 12)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risks-report-2026/>)
4) 2025년 연간 실적 자료 기준 MVNO제외, 통신사설비관계(구. 기타회선) 제외한 MNO 가입자 수치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5.12.3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450>)

리스크 검토

SK텔레콤은 정기적인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Internal Audit)

SK텔레콤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감사 전담 조직인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3년 주기의 순환 감사 원칙에 따라 SK텔레콤 및 ICT Family사의 전체 경영 활동을 대상으로 리스크 기반 정기적 내부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시에는 SK텔레콤과 ICT Family사의 주요 기능별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며, 중요 의사 결정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사업별 내부통제를 포함한 경영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과정에서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개선사항 및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 시 확인된 리스크 요인별 개선 계획 실행 여부 또한 지속 모니터링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 재무, 구매 등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정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자정 점검 결과 리스크 집중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SK텔레콤 감사실에서 추가적인

감사 및 개선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실장 임면 동의권, 감사실 업무 계획 승인권 및 예산/조직 편성 승인권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관련 감사실의 제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

구분	세부 활동
윤리 경영	윤리경영 실적 및 중기 업무감사 계획
	윤리경영 대외 공시 현황 및 평가 결과
	윤리경영 수준 측정 결과
내부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내부감사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인사 평가 승인
	내부감사부서장 임면 동의
	감사보고서
	SK텔레콤 및 ICT Family사 정기-특별 업무감사 계획 및 결과
외부 감사	외부감사인 용역 제공 승인
	외부감사 계약 승인

SK텔레콤은 전사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윤리 리스크 사전 예방과 구성원의 자율 실천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 영역과 조직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리스크의 완화-제거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전사 윤리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준법 경영의 실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 전반에 수반되는 공정거래와 사업 관련 법령 준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SKT ICT Family 컴플라이언스 2.0', '준법경영 포털(T-Compliance Net)' 등 ICT Family사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준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External Audit)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 감사

SK텔레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외부감사인은 매년 SK텔레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는 한영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5 회계연도부터는 삼정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외부감사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제42기 사업연도(2025. 01. 01. ~ 2025. 12. 31.)에 대한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으며, 기타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SK그룹 감사조직 등에 의한 외부 감사

SK그룹의 감사조직은 그룹사와 ICT Family사의 사업 운영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투자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룹 차원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방식으로 SK그룹 감사조직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내부통제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ISO 31000 등 글로벌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을 통하여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대응하는 데 필요한 회사 프로세스 전반의 운영 효과성에 대해 매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사전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그 결과에 대해 매년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 사항 등	핵심 감사 사항
제42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무선통신 매출의 실재성 및 정확성,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
제41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무선통신 매출의 기간 귀속,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
제40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무선통신 매출의 기간 귀속,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
제39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무선통신 매출의 기간 귀속,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리스크 역량 강화

SK텔레콤은 구성원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 전체에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리스크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와 제보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영향이 있는 리스크를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사전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의 리스크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윤리·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점검 이슈 기반 교육, 준법경영 시스템(ISO 37301) 유관부서에 대한 관리 점검 교육, 사업 부서 요청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 중입니다. 구성원 성과 평가와 보상에도 윤리·준법경영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준법경영 포털(T-Compliance Net)을 통해 윤리·준법경영 가이드와 뉴스레터를 제공해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취합된 리스크 분석 자료를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리스크 관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 교육

SK텔레콤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독립이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특히, 교육 내용에 리스크 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와 현황, 과제에 대한 독립이사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SKT Compliance 교육, 글로벌 경제 현황, 개정 상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등을 포함하여 총 9회의 독립이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SK텔레콤은 주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대한 준법 점검 활동을 통해 리스크 사전 예방과 ESG 경영 추진에 기여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현황

교육 주기	교육 내용
분기별 1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연 1회	전사 구성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연 1회	통신시장 자율준수 온라인 교육
연 1회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교육
상시	BR(Business Relationship) 관련 주요 이슈 교육

윤리경영 교육

SK텔레콤은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경영 활동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윤리실천서약을 수취하고, 성희롱 예방 등 윤리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윤리경영 실천 워크숍을 시행하여 전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Appendix

중요성 평가	175
이해관계자 참여	182
재무제표	185
비재무제표	202
Index	225
About This Report	233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SK텔레콤은 ESG 경영 추진에 필요한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요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사회를 통해 중요 이슈와 선정된 중요 이슈의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심의·승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텔레콤은 중요 이슈 도출 및 선정 절차에 대해 독립된 제3자 기관(DNV)의 검증을 통해 해당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확인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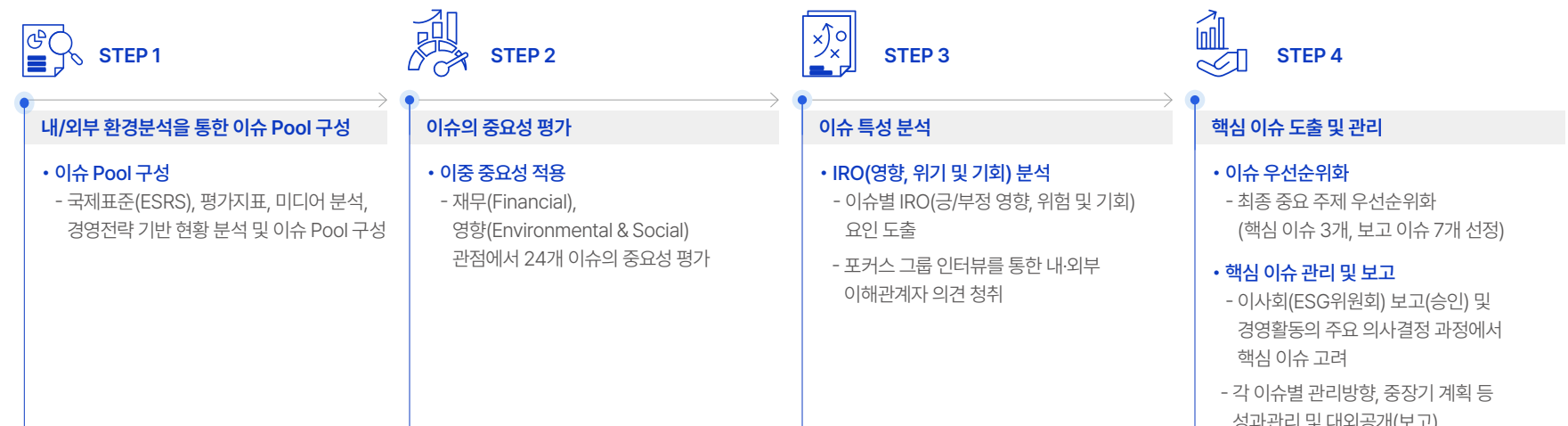
중요성 평가 절차는 GRI Standards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서 권고하는 보고 주제 결정 및 내용 구성 가이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요성(Materiality)' 평가는 회사와 밸류체인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Financial)와 환경·사회적 영향도(Environmental & Social)를 구분하여 지속가능경영(ESG) 이슈의 잠재적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식별합니다.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SK텔레콤은 중요 이슈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요성 적용

Environmental & Social Materiality(영향중요성)			Financial Materiality(재무중요성)		
국제기준 & 평가지표	벤치마킹 & 미디어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국제기준 & 평가지표	SK텔레콤 경영전략 & 미디어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 GRI Standards, ISO 26000, UN SDGs, UNGC 지표 분석 - 정부, 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 ESG 정보 공시 요구 검토	- 글로벌 선진사 공시자료, 산업 이니셔티브 및 동향 분석 - 미디어 이슈 중 비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 분석 - 기업 명성, 브랜딩, 사회적 가치 등 환경·사회 이슈에 미친 영향	- SK텔레콤의 경영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적 이슈 - 영향 특성 분석: 긍정, 부정, 밸류체인, 이해관계자 - 경영활동이 ESG이슈에 미치는 이해관계자 기대/우려 식별	- CSA(DJ BIC), MSCI, CDP 등의 주요 투자기관 지표 요건 적용 - TCFD, SASB 등 투자기관 활용도 및 영향도 검토	- SK텔레콤의 ESG 전략 및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 미디어 이슈 중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 분석 - 주주, 투자자 등 재무적 영향 적용	- SK텔레콤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이슈 - 영향 특성 분석: 위험/기회, Cost/Revenue/Risk -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주주 등) 기대/우려 반영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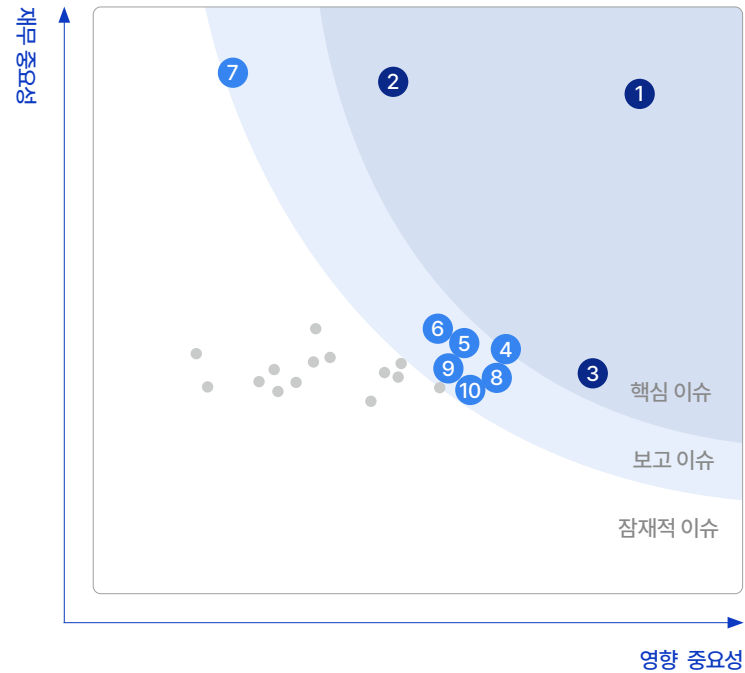


중요성 평가 결과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 ▶ **Step 1~2** 협력사, 고객, 투자자 등 정기적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및 중요성 평가 반영
- ▶ **Step 3**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진행 및 중요성 평가 반영, DJ BIC, MSCI 등 주요 투자 기관의 ESG 피드백 반영
- ▶ **미디어 분석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중요성 평가 반영(2025.01~12 기준)**

중요성 평가 결과 매트릭스



중요성 평가 결과

중요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4개의 이슈를 우선순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이슈 3개와 보고 이슈 7개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주가치 제고, 노동관행 보장 이슈가 신규로 편입되었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책임, 안전보건경영 확산 이슈는 제외되었습니다.

● 높음, ① 보통, ○ 낮음

순위	이슈	중요성		영향의 방향성		이해관계자						보고 페이지
		영향	재무	긍정	부정	구성원	고객	협력사	정부	지역사회	주주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4.3	3.3	①	●	●	●	●			●	20-31, 177-179
2	기술혁신(AI)	2.5	4.7	●	○		●	●		●	●	32-38, 177-179
3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3.9	2.0	●	●		●	●	●	●		39-58, 177-179
4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3.3	2.1	①	●	●			●			143-158, 180
5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2.9	2.0	①	●		●	●		●	●	96-100, 180
6	지배구조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3.1	2.1	①	●	●					●	131-142, 180
7	인재 채용 및 육성	3.2	2.0	①	①	●				●		73-82, 181
8	주주가치 제고*	1.4	4.1	①	○						●	131-133, 181
9	노동관행 보장*	2.9	1.9	①	○	●						74, 80, 181
10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	3.0	1.8	①	①				●	●		64, 67-71, 181

* 신규 편입 이슈

핵심 이슈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 이슈 분석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중요 이슈	위험/기회 식별	비즈니스 사례	사업 영향	사업 전략(대응방안)	중장기 계획	핵심 성과(현황)	경영진 보상*		
								기업가치	주가연계	ESG
신규 이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 사이버 위협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선제적 정보보안 거버넌스 및 기술 대응 - AI 기반 위협 탐지/차단 체계 및 공급망 전반 보안 수준 강화	-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고객 신뢰 손상 및 브랜드 가치 저해 가능 - 서비스 중단 및 규제 제재, 대규모 배상 비용 등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 고객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금전적, 심리적 피해 발생 가능	- Cost - Risk	-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고객 동의 기반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 관리 - 협력사 대상 정기 보안 진단 및 교육 기반 보안 관리 강화 -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및 대응 체계 강화	- 정보보호 투자 (By 2029) 7천억 원 투자 (By 2028) 국내 Top 수준 보안 역량	-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 실행력 극대화를 위해 국제 표준 ISO/IEC 27002 기준에 따른 정책과 절차 수립 - ISMS, ISMS-P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 연결매출 1.9% 증가, 연결영업이익 4.0% 증가(전년대비) - 역할/직책, 리더십/전문성, 회사 기여도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이사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		
신규 이슈	기술혁신(AI)	- AI DC, AI B2B, AI B2C 등 3대 AI 사업 영역 전반의 기술 역량 내재화 - Agentic AI 기반 신규 서비스 고도화 및 AI 생태계 협력 확대	- 변화하는 AI 기술 환경에서의 경쟁력 저하 시 매출 기반 약화 가능 - 신규 AI/ICT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AI 매출 창출 - AI 품질 저하에 따른 고객 경험 약화 및 이탈 가능	- Cost - Revenue - Risk	- AI DC 역량 강화 -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 DC 구축 착수 - AI B2B 사업 확대 A. Biz(에이닷 비즈) 기반의 AI 기술 기반 업무 방식 혁신, 생산성 제고 지원 - AI B2C 서비스 고도화 - A.(에이닷) 기반 일상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모두의 AI'전략 이행	- AI 사업 투자 (By 2030) AI 분야 누적 5조원 투자 - AI DC 인프라 확충 (By 2030) 누적 300MW 이상의 용량 확보	- AI DC 사업 매출 519.9십억 원 달성 A. Biz(에이닷 비즈) 도입 확산 - SK그룹 내 18개 계열사 도입 완료(2026년 3월 기준) - A.(에이닷) 가입자 확대 2025년 누적 가입자 수 1,100만 명 이상			
전년 내용 유지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 SSP 시나리오 기반 산불, 폭우, 태풍 등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분석 - IEA, NGFS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 영향 검토 노력	- 기지국 등 주요 Infra 운영 비용 증대 및 가격 경쟁력 저해 가능 - 자연재해 발생 시 전국 유무선 통신시설/장비 손실(훼손)으로 인한 통신 마비(네트워크 장애) 발생 가능 - 기후변화 관련 규제 강화 및 탄소거래 가격 지속 증가 추세	- Cost - Risk	- 전력 사용량 25% 감축 - 노후 장비 교체 - 싱글랜(Single RAN) 자사망 도입률 확대 - AI 기반 첨단 냉방/저전력 설계 솔루션 적용 확대 - 재생에너지 100% 적용 - 사육·통신국사 태양광 자가 발전 -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적용	- 온실가스 (By 2030) 47.7% 감축** (By 2050) Net Zero 달성 **2020년 대비 -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By 2030) 65% 달성 (By 2050) 100% 달성 - 국내외 탄소배출권 확보	- 사육, 통신장비 에너지 효율화 및 고효율 장비 교체(싱글랜, Power Saving 고도화, 5G 공동망 구축 등) 319,756 tCO₂e 절감 - RE100: 녹색프리미엄 284GWh 구매, 태양광 5.6GWh발전	AIX 사업 매출 32.0%, AI DC 매출 13.1% 증가(전년대비)	- 대외 ESG 평가(자본시장) 등급 - 주요주주 대상 ESG & 기후변화 Comm. 강화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시장기반 배출량 105.2만 톤 이하)

핵심 이슈

외부 이해관계자의 중요 이슈 분석

구분	중요 이슈	밸류체인 (영향범위, %)	이해관계자	영향유형	외부 이해관계자 관련성 및 중요성	산출 지표(Output Metric)	영향 평가	영향 지표
신규 이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제품/서비스 -100%	사회, 고객 (최종 사용자), 외부 구성원	긍/부정 (중립)	[사이버 위협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예방] • 정보 침해 대응 전략 및 운영을 통한 가입자/ 잠재고객 이탈 방지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 보이스 피싱, SIM 스와이핑 등 사이버 범죄 피해로부터 고객 보호	• 고객 1인당 매출 영향 •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건수	• 사회적 비용 발생	[정보보안 대응 강화] • 정보 침해로 무선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영향 - SKT 무선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 ¹⁾ : 28,600원 ²⁾ [사회 안전망 강화] • 2025년 보이스피싱 차단 건수 : 310,958건 - SV 2,598.5억 원 창출
신규 이슈	기술 혁신	제품/서비스 -100%	사회, 고객 (최종 사용자), 외부 구성원	긍/부정 (중립)	[AI 기술 혁신을 통한 고객 사회 가치 창출] • A.(에이닷) 제공을 통한 고객 일상 편익 향상 [ICT 협력 생태계 조성] • 스타트업/협력사와의 AI/ICT 기술 융합/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AI 기반 사회 안전망 확대] • AI 기반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 A.(에이닷) 가입자 수 • 기술 지원 협력사 • AI 돌봄/콜 서비스 제공 가구 수	• 사회적 비용 발생	[AI 기술 혁신] • 누적 가입자 수 : A.(에이닷) 1,100만 명 이상 [동반성장] • 스타트업: 2013년부터 528개 지원, 기업가치 20조 원 성장 • 협력사 기술공동개발/판로 개척 - SV 780억 원 규모 지원 [보이스피싱 차단/ 취약계층 지원] • 보이스피싱호 수발신 차단 및 해외 로밍으로 인한 보이스 피싱(허위 로밍호) 차단 - SV 3,991.5억 원 창출 •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저소득층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장애인 요금할인 - SV 15.6억 원 창출
전년 내용 유지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제품/서비스 -100%	환경, 사회, 고객 (최종 사용자), 외부 구성원	긍/부정 (중립)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및 탈탄소 투자 등 대응 요구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활동 확대 추진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등 지역사회와 산업계 전방에 긍정적 역할 제공	• 온실가스 감축량 • 친환경 에너지 투자 비용 • 탄소배출권 확보	• 사회적 비용 발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에너지 효율화: 32만 톤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 녹색프리미엄 구매: 46.4억 원 [최빈국 쿼스토브 사업] • 탄소배출권 (누적) 26만 톤 확보 • SV 2020년부터 6개년 누적 1,452억 원

1) SK텔레콤 MNO수익 및 무선가입자 기준(3G/LTE/5G 및 IoT 포함)

- MNO수익 기준: 음성 및 데이터 수익(가입비, 접속수익 제외), 부가서비스 수익 등을 포함 * 매출할인(약정 및 결합할인 등) 반영. MVNO 관련 매출 제외
- 무선가입자 기준: 과기정통부 가입자 통계 중 과금회선 분기평균 가입자 수 기준

2) 직전 2개년 기준 분기별 ARPU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함

포커스 그룹 인터뷰

Q. SK텔레콤 중요 이슈와 관련한 영향, 리스크 및 기회 요인과 SK텔레콤의 대응 현황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구성원	외부 전문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SK텔레콤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준수 사항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 보안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평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컴퍼니로의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향후 AI 사업 확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의 보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은 서비스의 공공성이 높은 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기존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보안 관리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고도화된 공시 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로 보안의 패러다임이 시스템 중심에서 데이터 보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내부 전문가 풀(Pool)의 균형 있는 확보를 통한 기술적 회복탄력성 제고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밸류체인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및 협력사의 보안 관리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고, 국내 보안 산업 생태계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안 콘퍼런스 개최 등 대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산업 내 보안 표준을 선도하는 전략적 행보가 요구됩니다.
기술 혁신	SK텔레콤은 기술 혁신을 SK텔레콤의 독보적인 자산과 AI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산업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 인재 확보 경쟁 심화와 기존 기술의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혁신 관련 기회 요인은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초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 그리고 고성능 지능형 인프라 구축·운영 수요 증대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에이닷을 필두로 한 B2C 서비스와 AI DC 인프라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AX(AI 전환)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규제 환경 속에서 SK텔레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준거성(Compliance)을 넘어서 고도화된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책과 인력을 넘어 기술적 시스템을 통한 통제성을 확보하고, 감사 및 경영진 전반의 AI 이해도(Readiness)를 높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피지컬 AI(Physical AI)'와 같은 전략적 영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AI 모델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외부의 다중 검증 레이어를 확보하는 한편, 인종·연령·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간 중심(Human-centric)'의 AI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정책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SK텔레콤은 기후변화 대응을 고객과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핵심 관심사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 강화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효율 에너지 장비 도입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환경 영향을 저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공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SK텔레콤의 적응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투명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SK텔레콤은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다른 산업군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아젠다가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에는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사업 확장과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이 보유한 ICT 및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자원 최적화 영역에서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그룹 내 관계사 및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외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행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 이슈

순위	이슈	Context	Our approach	Activities	Long Term Target	연계 KPI
4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윤리적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한 의사결정과 법령 준수는 경영의 기본 원칙을 넘어, 급격한 기술 변화와 강화된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윤리경영 체계를 단순한 규범 준수에서 나아가,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급망 및 자회사 전반의 통합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식별(IRO) 및 공시 체계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이해관계자 신뢰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해관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수준에 대응하고자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는 'ICT Family 컴플라이언스 2.0'을 고도화한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CP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법경영 포털 및 내부자 거래 방지 시스템 등 전문화된 대응 체계를 통해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ESG 경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 윤리경영 3단계 실행 프로세스(예방-식별-대응) 운영 -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적용을 통한 위반 사안 엄정 조치 - 윤리 전담 조직 운영 및 감사위원회 직속 관리체계 확립 - 윤리교육, 캠페인, 제보·상담 채널 등 구성원 실천문화 확산 •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ICT Family 컴플라이언스 2.0 체계 수립 및 계열사 확산 - 준법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CPMS) 도입, 사전검토 시스템 및 AI 기반 문서 리스크 감지 기술 적용 - 조직별 맞춤형 교육 및 자율준수 환경 조성	윤리 리스크 제로화	행동강령 체계 구축 및 실행
5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로 고객 경험의 질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일상의 필수 인프라로서, 단순한 품질 유지를 넘어 고객의 잠재적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됨에 따라 기술을 활용한 고객 보호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고객 접점 전반에서의 혁신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신뢰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CEO 산하의 권익 보호 체계를 운영하며, 경영 활동 전반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권익 보호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유기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가동하여 불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서별 R&R을 평가 체계와 연계해 관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면·비대면 접수 채널을 다각화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 해결과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중심의 고객불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고객 중심 경영 기구 운영: CEO 주재 '고객가치혁신회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2025.05) 발족, 100명 규모 '고객자문단'(2025.06) 운영 •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혁신: T월드·T멤버십 내 AI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 적용 및 고객 맞춤형 혜택 인지도 개선 • 사이버 위협 대응 인프라 강화: '사회공학위협대응팀' 신설 및 경찰청 협력 체계 구축, AI 기술 활용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 고도화 • 점점 혁신 성과 창출: AI·데이터 기반 상담 품질 개선을 통해 2025년 국내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NCSI, KS-SQI) 1위 기록	고객 권익 침해 제로화 지속 달성	고객만족도 수준 관리 및 VoC 절감과 사회적 약자 지원
6	지배구조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재무적 지표인 ESG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서도 국내 증권 시장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배구조를 지목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이사회의 책임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유지·발전'을 경영 원칙으로 삼고 실천 의지를 공표하기 위해 2021년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개정했으며, 헌장의 정관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영 리스크와 환경 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의 책임 경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주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의지 및 실천 방안 천명,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2021) -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정관 개정, 주주 대상 Comm. * 한국ESG기준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 • 이사회의 권한/역할 확대,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감독 기능 강화 추진 (2021~현재)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및 최적 의사결정 구조 완성	SK텔레콤 지배구조 개선 실행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

보고 이슈

순위	이슈	Context	Our approach	Activities	Long Term Target	연계 KPI
7	인재 채용 및 육성	인재는 조직의 혁신과 성과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인재 채용부터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에 이르기까지 인적 자본 개발의 전 과정은 기업 성장의 필수 요건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확보된 인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Sustainability' 'AX 대전환'을 위해 인적 자본 육성 체계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구성원의 AX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별 맞춤형 커리큘럼과 사내 교육 인프라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인재가 역량을 발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전사적 AX 가속화를 위한 육성체계 구축 - AX Design Camp : 업무 프로세스 재정의 및 AI 전환과제도출 - AX Frontier : 사내 데이터-플랫폼 기반 AI Agent 개발 - AX Boot Camp : 지속적인 AI Agent 활용과 고도화된 Agentic System 개발	전 구성원의 AX 전문가 (1인 1 AI Agent)	전 구성원 20% 이상 AI Agent 개발역량 확보 (2026년)
8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본 효율성 및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과 투명한 거버넌스는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명확한 자본 배치(Capital Allocation) 기준을 수립하고,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주주친화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자본 배치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을 실행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자본 배치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잉여 현금 흐름(FCF)을 주주 환원, 성장 투자, 재무 구조 개선에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에도 1주당 1의결권 원칙,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전자투표 실행 및 온라인 주주총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권을 보호하고, CEO 주주서한 및 분기별 실적발표 등을 통해 정보 투명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예측·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시행 - 연결 조정 당기순이익 50% 이상 환원 정책 공시(FY2024~2026) - 분기배당 실시 및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 공시	예측 및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의 실행과 투명한 소통 체계 정착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기업가치 제고방안 수립/실행 및 ESG IR 강화
9	노동관행 보장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결사의 자유 보장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이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상호 협력과 존중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건전한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니온숍(Union Shop) 제도를 운영하여 구성원의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전사적 차원의 평등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임금 및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도출된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노사 간의 강력한 신뢰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니온숍 제도 운영 - 조합원 대상 범위의 구성원 입사 시 노동조합 자동 가입 - 비조합원 구성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단체교섭 및 노사 협력 강화 - 매년 임금교섭 및 2년 단위 단체교섭 진행 -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신뢰와 협력 기반 선진 노사 문화 정착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정기적 이행
10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국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자원순환은 기업 환경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환경 규제와 자원 위기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거버넌스 및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실과 별도의 TF로 구성된 순환경제 추진 조직은 자원순환 리스크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전략인 'RE:FINE'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ECO LOOP TF 운영 - 순환경제 과제 실행 지원, 성과 점검 및 부서 간 협업 조정 - 자원순환 리스크 식별 및 보고 체계 운영 'RE:FINE' 전략 추진을 통한 자원순환 실행력 제고 - 폐단말기 회수 채널 운영 효율화 및 회수율 제고 - 핸드타월 재활용 등 참여형 순환경제 캠페인 전개 - 네트워크 폐기물 공시 확대 및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 USIM ESG 패키지 및 중고 단말기 안심보상 프로그램 강화	용수 저감-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환경경영 내재화	순환경제 과제 이행을 제고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고도화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별 소통 현황 및 주요 이슈

SK텔레콤은 2016년 SK그룹의 경영관리 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월 정관에 SKMS를 반영한 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며 경영 목표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의 행복 추구를 명시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개정된 정책은 글로벌 표준인 AA1000 SES(Stakeholder Engagement Standard)를 기반으로 참여 전략 이행 원칙과 체계, 식별 및 영향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 절차 등 전사적 지침과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정책 개정을 바탕으로 소통 방식을 고도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경영 성과의 한 축으로 삼는 'DBL(Double Bottom Line)' 경영 방침에 따라 기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고도화하고 잠재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빈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범위

- 본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정책은 해외 법인을 포함한 SK텔레콤의 경영 활동 및 사업 전반의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적

- SK텔레콤의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하고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SK텔레콤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사내 관련 조직에 전사적 지침을 제공한다.

목표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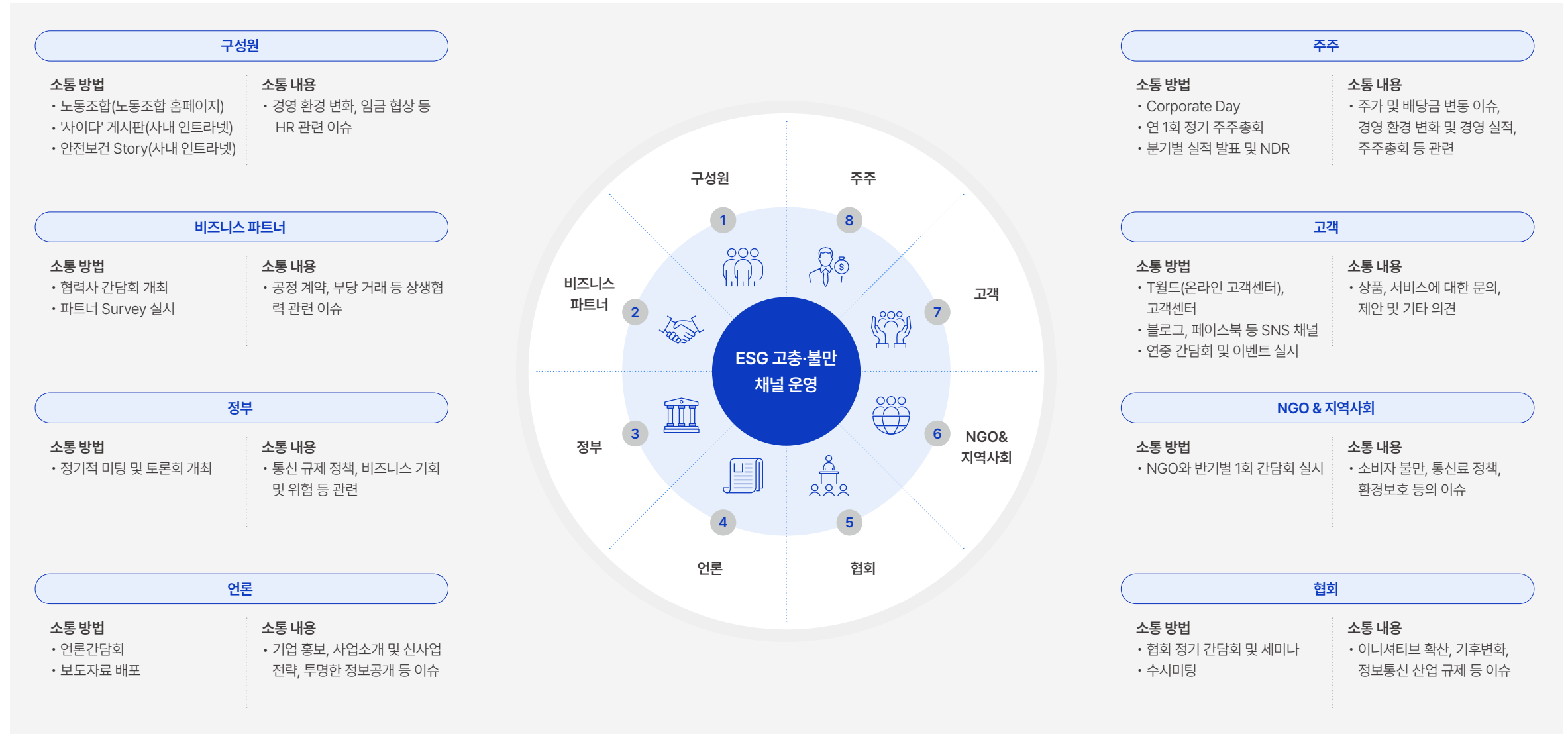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 및 참여방식은 전사 이해관계자 총괄 조직의 관리, 감독 하에 각 담당부서의 책임제로 운영한다(담당 조직 및 담당자 지정).
-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한 정책 및 주요 이슈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슈관리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을 통해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이 파악된 경우, 이를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이해관계자 불만/고충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추적 관리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 역량 강화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해관계자별 소통 현황 및 주요 이슈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이해관계자별 소통 현황 및 주요 이슈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Stakeholder Engagement Program)

SK텔레콤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해외법인을 포함한 SK텔레콤의 경영 활동(현지 사업장 및 협력업체 포함)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지역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도 평가, 소통 채널 운영, 역량강화 지원, 정기 설문조사 및 간담회, 고충처리 및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자산			
유동자산	6,727,130	7,476,682	6,585,602
현금및현금성자산	1,490,024	2,023,721	1,454,978
단기금융상품	151,426	323,890	294,934
단기투자자산	35,217	0	0
매출채권	1,918,502	1,989,306	1,978,532
단기대여금	69,664	65,205	78,129
미수금	346,326	369,192	344,350
계약자산	124,831	90,385	89,934
미수수익	1,998	4,242	4,295
선급금	26,064	38,656	51,804
선급비용	2,135,763	1,945,610	1,953,769
당기법인세자산	6,217	21	161
유동파생금융자산	6,945	119,500	8,974
재고자산	167,640	209,783	179,809
매각예정자산	143,489	174,839	10,515
기타의유동자산	103,024	122,332	135,418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자산			
비유동자산	23,380,653	23,038,573	23,533,625
장기금융상품	370	373	375
장기투자자산	3,188,572	1,877,922	1,679,38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2,238,470	2,341,827	1,915,012
투자부동산	39,841	26,611	34,812
유형자산	11,902,173	12,617,394	13,006,196
영업권	2,072,493	2,072,493	2,075,009
무형자산	1,710,620	2,194,871	2,861,137
장기계약자산	63,778	46,352	39,837
장기대여금	32,184	34,446	30,455
장기미수금	164,762	173,252	312,531
장기선급비용	1,280,751	1,108,406	1,086,107
장기보증금	167,823	155,875	156,863
파생금융자산	303,201	221,608	139,560
이연법인세자산	0	0	11,609
확정급여자산	205,477	154,329	170,737
기타의비유동자산	10,138	12,814	14,001
자산총계	30,107,783	30,515,255	30,119,22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부채			
유동부채	6,529,775	9,224,278	6,993,980
매입채무	110,867	126,508	139,876
미지급금	1,576,870	2,798,978	1,913,006
예수금	1,011,918	928,679	802,506
계약부채	207,682	168,194	155,576
미지급비용	1,345,998	1,522,750	1,439,786
당기법인세부채	28,482	243,564	142,496
유동파생금융부채	5,782	0	0
유동충당부채	145,953	50,016	38,255
단기차입금	130,000	100,000	0
유동성사채 및 장기차입금	1,122,584	2,460,109	1,621,844
유동성장기미지급금	368,572	367,765	367,770
리스부채	407,959	351,363	372,826
매각예정부채	67,108	106,352	39
비유동부채	10,622,716	9,463,343	10,896,848
사채	7,294,445	6,363,646	7,106,299
장기차입금	300,000	203,125	315,578
장기미지급금	179,389	539,955	892,683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부채			
장기미지급비용	279	271	956
장기리스부채	1,117,839	1,286,588	1,238,607
장기계약부채	194,261	61,512	56,917
확정급여부채	0	2,086	0
파생금융부채	621	3,437	305,088
비유동충당부채	80,094	70,044	83,169
이연법인세부채	1,363,191	851,200	832,236
기타의비유동부채	92,597	81,479	65,315
부채총계	17,152,491	18,687,621	17,890,828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2,863,103	11,698,627	11,389,046
자본금	30,493	30,493	30,493
기타불입자본	-12,131,340	-11,954,936	-11,828,644
이익잉여금	22,938,268	22,976,127	22,799,981
기타자본구성요소	2,025,682	646,943	387,216
비지배지분	92,189	129,007	839,353
자본총계	12,955,292	11,827,634	12,228,399
부채 및 자본 총계	30,107,783	30,515,255	30,119,227

연결재무제표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영업수익	17,099,213	17,940,609	17,608,511
매출액	17,099,213	17,940,609	17,608,511
영업비용	16,025,998	16,117,200	15,855,307
종업원급여	2,711,262	2,725,765	2,488,245
지급수수료	5,494,689	5,564,289	5,549,899
감가상각비	3,467,134	3,560,374	3,614,766
망접속정산비용	635,085	692,881	678,459
전용회선료 및 전파사용료	267,348	265,518	275,477
광고선전비	182,669	186,340	235,769
지급임차료	134,075	136,753	142,356
상품 및 기타구입비용	1,269,541	1,326,159	1,266,357
기타영업비용	1,864,195	1,659,121	1,603,979
영업이익	1,073,215	1,823,409	1,753,204
금융수익	219,358	355,035	248,376
금융비용	481,996	605,919	527,401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관련이익(손실)	-63,602	321,787	10,928
기타영업외수익	170,434	72,288	50,366
기타영업외비용	195,148	204,835	47,29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22,261	1,761,765	1,488,179
법인세비용	347,177	374,670	342,242
당기순이익	375,084	1,387,095	1,145,937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08,410	1,250,155	1,093,611
비지배지분	-33,326	136,940	52,326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825	5,780	4,954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825	5,765	4,950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당기순이익(손실)	375,084	1,387,095	1,145,937
당기기타포괄손익	1,529,834	160,776	-23,967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15,733	-14,652	-16,98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56,652	0	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432	-25,905	1,8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465,513	11,253	-18,84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4,101	175,428	-6,97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6,416	132,581	9,225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22,623	-6,573	-17,460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106	49,420	1,257
총포괄손익	1,904,918	1,547,871	1,121,970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937,762	1,409,090	1,072,785
비지배지분	-32,844	138,781	49,185

연결재무제표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 백만 원)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3.01.01 (기초자본)	30,493	-11,567,117	22,463,711	391,233	11,318,320	836,876	12,155,196
총포괄손익	0	0	1,076,802	-4,017	1,072,785	49,185	1,121,970
당기순이익	0	0	1,093,611	0	1,093,611	52,326	1,145,937
기타포괄손익	0	0	-16,809	-4,017	-20,826	-3,141	-23,96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0	-261,527	-740,532	0	-1,002,059	-46,708	-1,048,767
연차배당	0	0	-180,967	0	-180,967	-50,557	-231,524
분기배당	0	0	-542,282	0	-542,282	0	-542,282
주식보상비용	0	7,157	0	0	7,157	10,463	17,62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17,283	0	-17,283	0	-17,283
신종자본증권상환	0	-400,000	0	0	-400,000	0	-400,000
신종자본증권발행	0	398,509	0	0	398,509	0	398,509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	0	-265,120	0	0	-265,120	0	-265,120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0	0	0	0	0	0	0
자기주식 소각	0	0	0	0	0	0	0
연결범위변동	0	0	0	0	0	0	0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등	0	-2,073	0	0	-2,073	-6,614	-8,687
2023.12.31 (기말자본)	30,493	-11,828,644	22,799,981	387,216	11,389,046	839,353	12,228,399
2024.01.01 (기초자본)	30,493	-11,828,644	22,799,981	387,216	11,389,046	839,353	12,228,399
총포괄손익	0	0	1,149,363	259,727	1,409,090	138,781	1,547,871
당기순이익	0	0	1,250,155	0	1,250,155	136,940	1,387,095
기타포괄손익	0	0	-100,792	259,727	158,935	1,841	160,77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0	-126,292	-973,217	0	-1,099,509	-849,127	-1,948,636
연차배당	0	0	-223,335	0	-223,335	-50,927	-274,262
분기배당	0	0	-530,082	0	-530,082	0	-530,082
주식보상비용	0	5,173	0	0	5,173	402	5,575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19,800	0	-19,800	0	-19,800

연결재무제표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 백만 원)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신종자본증권상환							
신종자본증권발행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0	9,154	0	0	9,154	0	9,154
자기주식 소각	0	200,000	-200,000	0	0	0	0
연결범위변동	0	0	0	0	0	-902	-902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등	0	-340,619	0	0	-340,619	-797,700	-1,138,319
2024.12.31 (기말자본)	30,493	-11,954,936	22,976,127	646,943	11,698,627	129,007	11,827,634
2025.01.01 (기초자본)	30,493	-11,954,936	22,976,127	646,943	11,698,627	129,007	11,827,634
총포괄손익	0	0	559,023	1,378,739	1,937,762	-32,844	1,904,918
당기순이익	0	0	408,410	0	408,410	-33,326	375,084
기타포괄손익	0	0	150,613	1,378,739	1,529,352	482	1,529,83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0	-176,404	-596,882	0	-773,286	-3,974	-777,260
연차배당	0	0	-223,531	0	-223,531	-1,533	-225,064
분기배당	0	0	-353,551	0	-353,551	0	-353,551
주식보상비용	0	-1,156	0	0	-1,156	0	-1,156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19,800	0	-19,800	0	-19,800
신종자본증권상환							
신종자본증권발행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0	5,303	0	0	5,303	0	5,303
자기주식 소각							
연결범위변동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등	0	-180,551	0	0	-180,551	-2,441	-182,992
2025.12.31 (기말자본)	30,493	-12,131,340	22,938,268	2,025,682	12,863,103	92,189	12,955,292

연결재무제표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23,847	5,087,285	4,947,20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667,495	5,591,495	5,418,112
당기순이익	375,084	1,387,095	1,145,937
수익비용의 조정	4,436,619	4,313,213	4,546,33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44,208	-108,813	-274,163
이자 수취	52,646	74,787	60,134
배당금 수취	75,537	43,536	50,899
이자 지급	-371,502	-356,081	-341,488
법인세의 납부	-500,329	-266,452	-240,45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37,109	-2,711,827	-3,352,90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84,263	362,262	272,578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127,141	0	0
단기대여금의 회수	100,801	131,823	136,242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75,664	0	0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702,184	51,741	100,81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31,540	77,974	4,95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25,944	13,031	1,353
유형자산의 처분	240,487	47,078	12,900
무형자산의 처분	10,137	32,685	4,428
장기대여금의 회수	2,915	1,680	1,547
보증금의 감소	11,317	5,758	5,922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5,047	492	1,452
연결대상종속기업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51,086	0	0
국고보조금의 수취	0	0	2,96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21,372	-3,074,089	-3,625,483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0	26,581	51,421
단기대여금의 증가	98,284	110,810	130,041
장기대여금의 증가	13,264	14,118	11,602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110,000	0	0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39,538	222,568	324,997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0	112,903	0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1,672	8,014	17,656
유형자산의 취득	2,206,567	2,487,360	2,973,882
무형자산의 취득	116,685	71,856	106,761
보증금의 증가	18,518	15,525	6,848
연결범위제외로 인한 현금의 감소	0	4,354	2,275
영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506,844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11,763	-1,809,853	-2,020,99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258,251	1,552,192	2,416,817
사채의 발행	1,875,300	1,236,475	1,785,108
장기차입금의 차입	300,000	200,000	49,950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30,000	100,000	0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52,859	0	183,090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92	15,717	16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398,50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970,014	-3,362,045	-4,437,807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0	0	142,998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369,150	369,150	400,245
사채의 상환	2,121,501	1,235,750	1,869,190
장기차입금의 상환	312,500	402,500	125,000
배당금 지급	628,359	804,317	773,806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9,800	19,800	17,283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372,834	381,347	402,465
자기주식의 취득	0	15,788	285,487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0	133,393	21,333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1,145,870	0	0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0	0	4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25,025	565,605	-426,690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023,721	1,454,978	1,882,291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088	26,124	-623
매각예정의 일부로 분류된 현금및현금성자산	-4,584	-22,986	0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90,024	2,023,721	1,454,978

세무정책

SK텔레콤은 국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세법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세무 관리 기본 방향과 컴플라이언스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리 기본 방향

1	세법준수	SK텔레콤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의 세법과 해당 세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적기에 납부하는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	납세협력	SK텔레콤은 조세 제도와 연관 규정·절차의 발전적 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과세 당국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납세 협력 비용 절감과 과세 제도 합리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 제도와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세법 개정 제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거래 투명성 보장	SK텔레콤은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회계법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세무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4	정상가격원칙 준수	SK텔레콤은 국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근거한 이전가격정책을 반영해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 및 투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국제 거래상 의무 수행	SK텔레콤은 국제 거래상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이전하는 등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나 과세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원칙

1	위험관리	SK텔레콤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 관련 법규와 원칙의 준수를 세무 위험 관리의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무 위험 관리를 위한 세무정책을 수립·변경할 때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보고와 심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내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관리 조직	SK텔레콤은 사내 세무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련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내 세무 전담 부서는 세무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관리를 상시 수행하는 동시에 사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프로세스	SK텔레콤은 국내외 법규 준수와 세무상 위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자료, 필수 증빙, 주요 조세 관리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 - 매년 세법 개정 시 개정된 세법의 반영 - 대내외 경영 환경, 사업 구조 및 거래 분석을 통한 리스크 모니터링 - 리스크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영향에 대한 분석 - 리스크 규모와 거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사결정 수행

유효 세율

2025년 SK텔레콤의 연결기준 세전이익은 7,223억 원이었으며, 명목세액은 1,728억 원으로 명목세율 23.92%를 기록한 반면, 실질세액은 3,472억 원으로 실질세율 48.07%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유효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24.15%p 높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요 이유는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의 변동, 과거기간 법인세 추징세액, 세율변동효과 등의 조정에 기인합니다.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전이익	백만 원	1,488,179	1,761,765	722,261
법인세(명목세액)		382,517	450,819	172,771
조정사항		-40,275	-76,149	174,406
법인세비용		342,242	374,670	347,177
유효세율	%	23	21.27	48.07
납부세액	백만 원	231,667	266,611	121,764
납부세율(납부세액/세전이익)	%	15.57	15.13	16.86

조정사항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백만 원	-3,091	-9,843	-10,095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15,725	15,216	64,361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64,829	-26,204	-26,708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 변동효과		14,354	-37,958	-12,997
세율변동효과		3,444	980	48,064
과거기간 법인세 환급액 등		-5,878	-18,340	111,781

사업장별 조세 정보¹⁾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장명	주요 사업	매출 (Revenue)	세전이익 (Profit before Tax)	미지급법인세 (Income tax accrued (current year))	법인세비용 ³⁾ (Income tax paid)
한국 ²⁾	SK Telecom Co. Ltd	유무선 통신업	17,083,928	729,267	28,437	347,034
미국	SK Telecom Americas, Inc.	정보수집 및 컨설팅업	12,945	-7418	-	35
중국	SK Telecom China Holdings Co., Ltd.	투자업	2,340	412	45	108
합계			17,099,213	722,261	28,482	347,177

1) SK텔레콤의 매출은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한국 99.9%, 그 외 국가(미국, 중국 등) 0.1% 발생하고 있음
2) SKT Co. Ltd.,(본사) 및 국내 모든 자회사 포함
3) K-IFRS에 따른 법인세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⁴⁾

한국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텔레콤은 국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상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SK텔레콤과 주요 연결 종속회사에 대해 법인 규모 등을 고려한 영역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SK텔레콤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등 3개 주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보고와 공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 경영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독립적 입증 감사를 수행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의결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SK텔레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전사수준통제(Entity Level Control, ELC), 거래수준통제(Transaction Level Control, TLC), 전산일반통제(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ITGC)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 활동을 관리·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한 통제기술서(RCM: Risk Control Matrix)를 구비하였습니다. 이 통제기술서는 외부 환경과 사업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현행화가 이루어지며, 경영진 자체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경영진 자체 평가는 설계 평가와 반기별 운영 평가로 구분해 수행 중이며, 자체 평가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 사항은 해당 통제 수행 부서가 내부회계 평가 전담 부서,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4) SK텔레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평가 전담 조직'과 '감사위원회 독립 적지원조직'을 별도로 편제하여 운영 중입니다.

재무성과표(별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자산							자산
유동자산				4,932,557	5,242,405	4,703,844	비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71,861	1,165,158	631,066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89,155	79,000	186,364	장기투자자산
매출채권				1,469,426	1,508,893	1,495,61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단기대여금				60,122	55,577	68,806	유형자산
미수금				393,136	390,243	343,036	투자부동산
미수수익				1,089	2,243	2,643	영업권
계약자산				5,958	5,275	9,228	무형자산
선급금				20,400	34,553	37,863	장기대여금
선급비용				1,997,049	1,802,742	1,828,646	장기미수금
보증금				58,513	67,521	72,479	장기계약자산
당기법인세자산				8,827	0	0	장기선급비용
유동파생금융자산				0	80,650	0	장기보증금
재고자산				16,940	38,982	28,096	파생금융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0,081	11,568	0	확정급여자산
							기타의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재무성과표(별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부채							
유동부채				5,070,242	6,240,886	5,505,470	
단기차입금				130,000	0	0	
미지급금				1,527,175	1,543,989	1,794,997	
계약부채				108,613	76,682	59,814	
예수금				773,970	717,547	608,352	
미지급비용				792,458	996,204	911,460	
당기법인세부채				0	172,008	133,543	
유동충당부채				137,750	40,710	31,313	
유동성사채 및 장기차입금				864,696	1,930,070	1,249,516	
리스부채				354,906	308,141	341,075	
유동성장기미지급금				368,572	367,765	367,770	
유동파생금융부채				581	78,467	0	
기타의유동부채				11,521	9,303	7,630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부채							
비유동부채				8,087,444	7,383,886	9,054,369	
사채				5,416,644	4,955,124	5,807,423	
장기차입금				300,000	200,000	250,000	
장기미지급금				179,389	539,955	892,683	
장기계약부채				1,699	1,528	4,398	
파생금융부채				621	3,437	295,876	
장기리스부채				782,702	850,311	885,470	
비유동충당부채				69,517	60,395	69,791	
이연법인세부채				1,277,326	717,278	801,995	
기타의비유동부채				59,546	55,858	46,733	
부채총계				13,157,686	13,624,772	14,559,839	
자본							
자본금				30,493	30,493	30,493	
기타불입자본				-4,547,673	-4,551,820	-4,766,147	
이익잉여금				15,199,915	15,273,451	15,032,473	
기타자본구성요소				1,308,315	208,730	139,274	
자본총계				11,991,050	10,960,854	10,436,093	
부채 및 자본 총계				25,148,736	24,585,626	24,995,932	

재무성과표(별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영업수익	12,051,068	12,774,060	12,589,220
매출액	12,051,068	12,774,060	12,589,220
영업비용	11,239,226	11,250,885	11,133,350
종업원급여	1,102,748	1,139,968	943,924
지급수수료	4,807,803	4,773,925	4,831,879
감가상각비	2,510,464	2,645,850	2,698,436
망접속정산비용	405,834	463,783	490,114
전용회선료 및 전파사용료	193,454	193,896	189,059
광고선전비	124,709	136,723	174,403
지급임차료	127,268	122,499	127,182
상품 및 기타구입비용	607,219	600,190	548,155
기타영업비용	1,359,727	1,174,051	1,130,198
영업이익(손실)	811,842	1,523,175	1,455,870
금융수익	307,372	513,884	342,646
금융비용	372,807	485,535	441,390
기타영업외수익	152,505	51,855	40,844
기타영업외비용	170,266	141,478	24,019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이익(손실)	7,852	15,183	-19,01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36,498	1,477,084	1,354,939
법인세비용	325,703	196,600	295,189
당기순이익(손실)	410,795	1,280,484	1,059,750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1,836	5,923	4,798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1,836	5,907	4,794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당기순이익(손실)	410,795	1,280,484	1,059,750
기타포괄손익	1,212,136	3,167	-7,053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199,691	7,888	4,43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2,748	-5,771	43,656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222,439	13,659	-39,221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2,445	-4,721	-11,488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2,445	-4,721	-11,488
총포괄손익	1,622,931	1,283,651	1,052,697

재무성과표(별도)

자본변동표

(단위: 백만 원)

[illegible]

재무성과표(별도)

자본변동표

(단위: 백만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신종자본증권	주식선택권	기타	기타불입자본 합계			
신종자본증권발행	0	0	0	0	0	0	0	0	0	0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0	0	9,019	0	0	135	9,154	0	0	9,154
자기주식 소각	0	0	200,000	0	0	0	200,000	-200,000	0	0
2024.12.31 (기말자본)	30,493	1,771,000	-92,962	398,509	14,498	-6,642,865	-4,551,820	15,273,451	208,730	10,960,854
2025.01.01 (기초자본)	30,493	1,771,000	-92,962	398,509	14,498	-6,642,865	-4,551,820	15,273,451	208,730	10,960,854
총포괄손익	0	0	0	0	0	0	0	523,346	1,099,585	1,622,931
당기순이익	0	0	0	0	0	0	0	410,795	0	410,795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0	112,551	1,099,585	1,212,13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0	0	4,429	0	13	-295	4,147	-596,882	0	-592,735
연차배당	0	0	0	0	0	0	0	-223,531	0	-223,531
분기배당	0	0	0	0	0	0	0	-353,551	0	-353,551
주식보상비용	0	0	0	0	13	-1,169	-1,156	0	0	-1,156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0	0	0	0	0	0	0	-19,800	0	-19,800
신종자본증권상환	0	0	0	0	0	0	0	0	0	0
신종자본증권발행	0	0	0	0	0	0	0	0	0	0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0	0	4,429	0	0	874	5,303	0	0	5,303
자기주식 소각	0	0	0	0	0	0	0	0	0	0
2025.12.31 (기말자본)	30,493	1,771,000	-88,533	398,509	14,511	-6,643,160	-4,547,673	15,199,915	1,308,315	11,991,050

재무성과표(별도)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원)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53,008	4,188,933	4,008,34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149,620	4,473,471	4,245,570
당기순이익	410,795	1,280,484	1,059,750
수익비용의 조정	3,107,322	3,093,252	3,334,19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368,497	99,735	-148,374
이자의 수취	27,661	36,833	32,673
배당금의 수취	240,015	216,886	208,026
이자의 지급	-281,519	-293,944	-283,654
법인세의 납부	-382,769	-244,313	-194,27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53,583	-1,802,028	-2,371,00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56,273	415,759	185,310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0	109,738	0
단기대여금의 회수	90,387	121,314	126,398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650,145	36,171	17,939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37,268	80,691	26,8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34,389	0	0
유형자산의 처분	236,842	43,052	9,731
무형자산의 처분	7,242	24,793	4,42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09,856	-2,217,787	-2,556,316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10,155	0	11,115
단기대여금의 증가	94,850	108,326	125,072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500	1,145	284,509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78,467	112,903	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081,986	285,604	90,355
유형자산의 취득	1,260,722	1,676,884	1,977,806
무형자산의 취득	83,176	32,925	67,459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92,813	-1,852,974	-2,223,7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99,126	897,143	1,465,694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130,000	0	0
장기차입금의 차입	300,000	200,000	0
사채의 발행	1,116,267	697,143	941,185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52,859	0	126,00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0	0	398,50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91,939	-2,750,117	-3,689,465
단기차입금의 상환	0	0	1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250,000	390,000	100,000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369,150	369,150	400,245
사채의 상환	1,654,420	860,000	1,309,000
배당금의 지급	577,054	753,390	723,215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0	0	400,000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9,800	19,800	17,283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321,515	341,989	354,235
자기주식의 취득	0	15,788	285,48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93,388	533,931	-586,437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65,158	631,066	1,217,504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91	161	-1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71,861	1,165,158	631,066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 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연결회사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6년 3월 10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무선통신매출의 실재성 및 정확성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 (21) 및 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가 영위하는 통신업은 통신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제가 존재하고 고객과의 거래 건수가 매우 많으며, 기중 가입 및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요금제 변경, 과금 및 청구, 가입 및 해지 등 수익 인식 전반에 걸쳐 복잡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 한 시스템의 변경 및 운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우리는 무선통신매출의 실재성 및 정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 중 인식한 관련 수익금액은 9,715,601백만 원입니다.

우리가 무선통신매출의 실재성 및 정확성과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 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문서검사를 수행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 집계, 과금 및 청구 등 수익인식 과정 전반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환경 평가와 더불어 연결회사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 청구시스템에서 당기 해지 이력이 존재하는 고객에 대한 청구 정보를 표본추출하여 기록 된 계약사항, 과금 및 수납 정보와 대사하였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 (10) 및 15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은 764,082백만 원입니다.

영업권 손상평가지 경영진은 사용가치모형을 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습니다. 현금 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결정에는 예상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한 미래 영업수익, 영구성장률, 그리고 할인율과 관련한 경영진 및 감사인의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경영진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이 회수가능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며, 해당 가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우리는 유선통신사업 현금창출단위 영업권 손상평가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업권의 손상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 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영업권의 손상평가와 관련된 연결회사의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제에는 미래 영업수익,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 가정의 산출 과정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가정의 변경으로 인한 경영진의 손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할인된 현금흐름에 사용되는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미래 예상 영업수익을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평가하였으며, 과거기간에 추정한 영업수익을 실제 발생액과 비교하는 소급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추정 역량을 평가하였습니다.
- 내부의 평가전문가를 활용하여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미래 영업수익 및 영구성장률 등의 주요 가정을 과거 재무성과 및 산업 보고서와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평가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사용한 할인율을 시장 자료 등에 근거한 우리의 기대치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연결회사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5년 3월 10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 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 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강인혜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비재무제표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비재무제표 보고 기준 및 원칙

비재무 성과에 대한 본 경영 실적 진단 및 분석(Non-Financial Management Discussion & Analysis)은 인적자본, 사회자본, 환경자본 등 비재무 측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 동안 핵심적인 성과에 대해 경영진의 분석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비재무 경영 실적 진단 및 분석은 다음의 국제적 보고 기준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Global Reporting Initiatives(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GRI Standards

GRI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 주제(Topic)와 공시(Disclosu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RI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각 측면의 연관성에 따라 보고 주제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GRI 요구 사항에 따른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는 p.175-176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Accountability의 AA1000

AA1000 시리즈는 조직과 연관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발견하고 우선순위화하며, 이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의 정보는 AA1000AS (Assurance Standard) V3에 따른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 의견서는 p.215-217을 참조해 주십시오.

참고 기준

1. UNGC COP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UNGC 가입 기관이 UNGC 10대 원칙 준수 현황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2. ISO 26000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10년 11월 발표한 책임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3. CDSB Reporting Framework

기후정보 공개 표준화 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가 2010년 9월 공개한 탄소 정보 공개 표준

4. SASB - Telecommunication Standards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2014년 4월 공개한 통신 사업 핵심 이슈 및 주요 성과 지표

5.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데이터 범위

본 비재무 경영 실적 진단 및 분석 내 제시된 비재무 정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자회사 및 공급망을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의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 99%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함된 데이터 커버리지는 매출 대비 99% 이상 기준을 만족합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지배기업인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매출 발생 범위와 일치하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에너지, 온실가스(Scope 1,2,3), 폐기물, 용수 등 환경 데이터와 고용 현황, 역량 개발, 사회공헌 등 사회 데이터는 SK텔레콤의 27개 주요 사업장(기지국·중계기·중심국 등 네트워크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Social Value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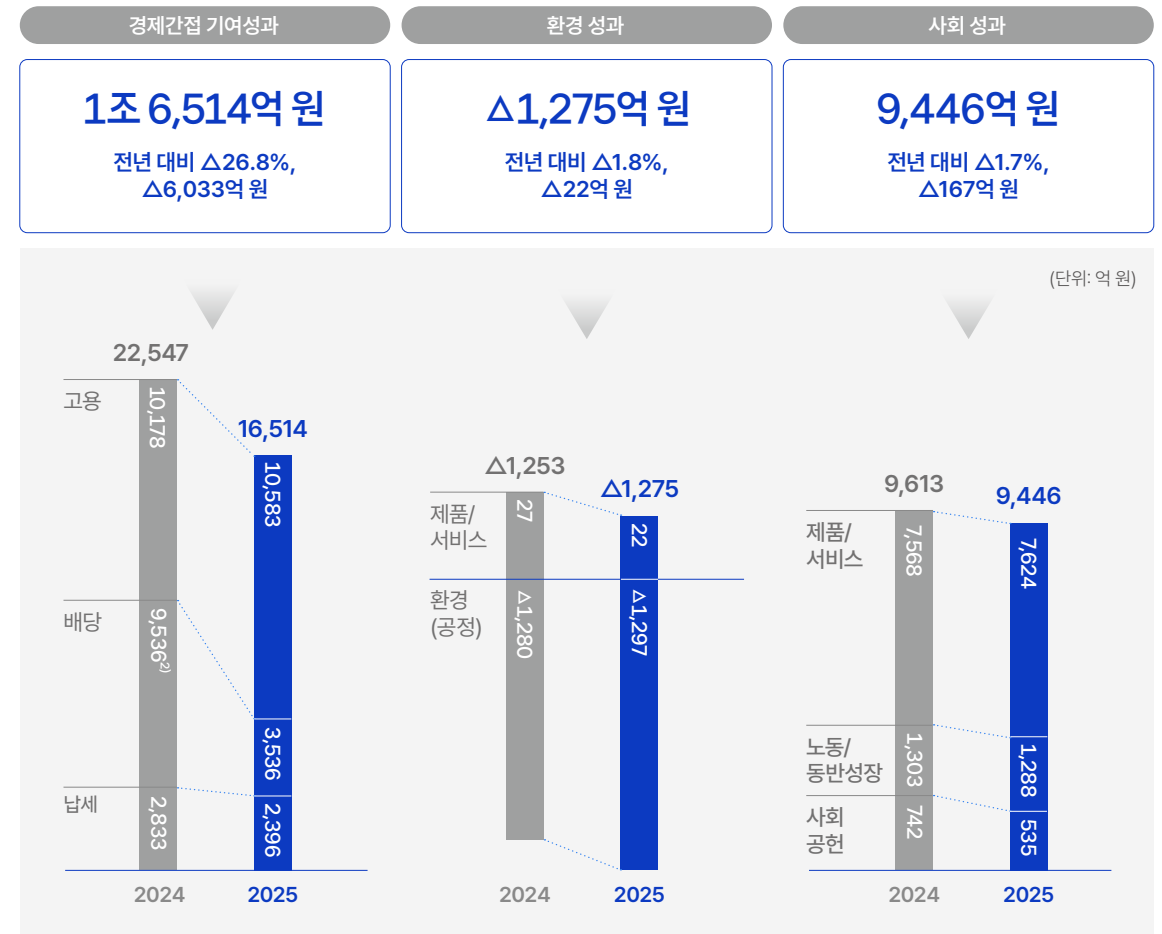
SK텔레콤은 SK그룹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에 기반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을 지향합니다. DBL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SK그룹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방법론에 의거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운영 및 생산, 판매,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CSR 프로그램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며,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5년에 총 2조 4,68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6,222억 원 감소한 수치로, 2025년 경영환경으로 인해,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축소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SV 측정 영역¹⁾



1) 거버넌스 지표는 비화폐적 성과 공표 예정(e.g. 거래소 공시 및 ESG 핵심지표 사항)



2) 2024년 실적 변경: 자사주 소각 실적(2,000억)을 '배당'에 반영

Social Value 창출

Social Value 측정 결과 (단위: 억 원)

		2024년	2025년	증감
경제간접	고용	10,178	10,583	405
	배당	9,536	3,536	-6,001
	납세	2,833	2,396	-437
	소계	22,547	16,514	-6,033
환경	제품/서비스	27	22	-5
	환경 공정(총량)	-1,280	-1,297	-18
	소계	-1,253	-1,275	-22
사회	제품/서비스	7,568	7,624	56
	노동	341	507	166
	동반성장	962	780	-182
	사회공헌활동	609	392	-217
	기부	133	142	10
	자원봉사	0.4	0.3	-0.1
	소계	9,613	9,446	-167
합계		30,907	24,685	-6,222

측정 영역별 성과

경제간접 기여성과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1조 6,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33억 원 감소했습니다. 2025년 경영환경으로 인해 배당과 납세 금액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환경 성과
환경 성과는 전년 대비 감소한 -1,2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업그레이드(싱글랜 기술),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을 통해 환경 공정 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성과
사회 성과는 9,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원 감소했습니다. 2025년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활동 영역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① 허위 로밍호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SK텔레콤은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범죄 시도로 판단하여 음성통화를 차단하는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을 통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② CareVia
(Vision AI 기반 발달장애인 돌봄부담 완화)

돌봄센터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CCTV 영상에서 AI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과 완화 중재 방안을 원격의 행동중재 전문가가 맞춤 가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

지역기반 온실가스 배출 현황¹⁾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 ₂ e	1,101,340	1,149,240	1,166,518	1,173,904	1,360,099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6,394	6,063	5,923	5,940	6,254
고정연소		4,448	4,143	4,352	4,509	
이동연소		1,947	1,920	1,571	1,43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1,094,967	1,143,195	1,160,614	1,167,979	1,353,845
전력(지역기반)		1,094,388	1,142,609	1,160,016	1,167,347	
스팀	tCO ₂ e/ 십억 원	579	586	598	632	
온실가스 집약도 ²⁾		88.7	91.3	91.3	97.4	
직접		0.5	0.5	0.5	0.5	
간접	tCO ₂ e	88.2	90.8	90.9	96.9	

1) 지역기반(Location-based)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4호)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함. 온실가스 배출 검증의견서 참고(p.221)
2) 온실가스 집약도는 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시장기반 온실가스 배출 현황¹⁾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 ₂ e	1,046,153	1,053,142	1,059,935	1,043,431	1,052,000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6,394	6,063	5,923	5,940	6,254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1,039,780	1,047,097	1,054,031	1,037,506	1,045,746
온실가스 집약도 ²⁾	tCO ₂ e/ 십억 원	84.3	83.7	83.0	86.6	

1) 시장기반(Market-based) 배출량: GHG프로토콜(The Green House Gas Protocol)에 따라 2025년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분 을감축량으로 인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p.221 온실가스 배출검증의견서 참고
2) 온실가스 집약도는 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합계는 정부의 사업장 단위 절사 후 합산기준 적용에 따라 직간접 및 세부 에너지원별 합산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기준' 방법론을 따름, p.221 온실가스 배출검증의견 서 참고

에너지 사용 현황(TJ)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에너지 총 소비량	TJ	22,995.3	23,997.3	24,379.4	24,512.0	28,247.2
직접 에너지 소비량		111.1	104.8	102.8	104.5	
천연가스		64.9	58.7	60.2	65.3	
경유		5.4	4.7	8.9	6.5	
실내 등유		11.9	11.5	9.1	9.3	
제트용 등유		5.0	4.0	3.4	2.7	
휘발유		22.0	23.2	19.3	18.0	
LPG		1.9	2.8	1.9	2.6	
간접 에너지 소비량		22,884.2	23,892.6	24,276.6	24,429.0	
전력		22,868.7	23,876.3	24,259.6	24,411.5	
스팀		15.5	16.3	17.0	17.4	
에너지 집약도 ¹⁾	TJ/십억 원	1.85	1.91	1.91	2.04	
직접		0.01	0.01	0.01	0.01	
간접		1.84	1.9	1.9	2.03	

1) 에너지 집약도는 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당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

환경 데이터

에너지 사용 현황(MWh)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에너지 총 소비량	MWh	2,420,773	2,526,147	2,563,710	2,580,406	2,985,033
직접 ¹⁾		30,853	29,102	28,559	29,027	
간접 전력 ²⁾		2,385,616	2,492,531	2,530,422	2,546,533	
간접 스팀 ¹⁾		4,304	4,515	4,728	4,846	
에너지 집약도	MWh/ 십억 원	195	200	201	214	
지역기반 Scope 2 전력소비량	MWh	2,382,157	2,487,119	2,525,010	2,540,968	

1) 직접 에너지 소비량과 간접 스팀 소비량은 환산계수(0.2777778 MWh/GJ)를 사용하여 환산한 값임
2) 간접 전력 소비량은 지역기반 전력 소비량과 태양광 자가발전량을 포함한 전력 소비량

배출량 감축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총 감축량			tCO ₂ e	186,400	272,489	329,606	452,786	449,663
에너지 효율화	사옥	고효율 장비 교체		1,895	1,143	1,143	189	
	통신 장비	싱글 랜 사업		28,632	28,629	28,629	28,629	
		Power Saving		58,859	57,481	63,818	68,655	
		5G 공동망		21,835	60,723	78,044	82,282	
		고효율 장비교체		18,096	25,928	48,903	140,001	
재생 에너지	사옥	녹색프리미엄		55,187	96,098	106,583	130,473	
		태양광 발전		511	208	182	185	
	통신 장비	태양광 발전		1,078	2,278	2,304 ¹⁾	2,372	
기타					307 ¹⁾	3	-	-

1) 전년도 표기 오류로 데이터 정정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MWh)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MWh	123,584	214,587	237,412	289,565	324,598
사옥 녹색프리미엄 사용 실적 ¹⁾		120,125	209,176	232,000	284,000	
사옥 태양광 발전량 ²⁾		1,112	453	396	402	
통신장비 태양광 발전량 ³⁾		2,346	4,958	5,016	5,164	
비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2,300,648	2,316,971	2,331,710	2,296,406	
총 전력소비량		2,385,616	2,492,531	2,530,422	2,546,533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5.2%	8.6%	9.4%	11.4%	11.0%

1) 27개 사옥에 적용한 녹색프리미엄 사용 실적
2) 일부 사옥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가발전 실적
3) 통신국사의 인프라 장비 가동을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가발전 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TJ)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TJ	1,186	2,060	2,279	2,780	2,908
사옥 녹색프리미엄 사용 실적		1,153	2,008	2,227	2,726	
사옥 태양광 발전량		11	4	4	4	
통신장비 태양광 발전량		23	48	48	50	
비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22,086	22,243	22,384	22,045	
총 전력소비량		22,902	23,928	24,292	24,447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5.2%	8.6%	9.4%	11.4%	

*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 중 전기(소비기준) 사용하여 환산(9.6 TJ/GWh)

환경 데이터

재간접(Scope 3)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¹⁾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재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tCO ₂ e	3,322,029	3,237,292	3,210,242	2,584,221	6,146,326 ⁴⁾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1,925,932	1,870,658	1,992,087	1,327,656	
2. 자본재		922,967	682,412	548,573	306,166	
3. 연료 및 에너지 사용		471	136,300 ²⁾	179,796	180,935	
5. 폐기물		218	456	771	586	
6. 출장		962	3,519	2,446	2,367	
7. 통근		3,522	6,362	5,422	2,903	
8. 임차자산		12,979	16,388	10,614	10,057	
14. 가맹점		54,095	79,986	27,056	24,986	
15. 투자		400,883	441,212	443,477	728,565	
온실가스 집약도 ³⁾	tCO ₂ e/ 십억 원	267.6	257.1	251.3	214.4	

1) 2022년은 카테고리 1의 7개 기업 및 카테고리 15의 21개 기업으로 실제 활동자료 기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확대하여, 2021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됨
2) 2023년도부터 사용 전력의 원료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추가 산정함. 이에 따라 해당 카테고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함
3) Scope 3 온실가스 집약도는 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4) SBTi 승인을 받은 2025년 Scope 3 목표

용수 사용 현황 및 집약도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용수 취수량 ¹⁾ (=용수 사용량)	m ³	640,831	675,296	710,778	672,704	715,460
상수도		599,741	631,570	669,496	641,240	
지하수		41,090	43,726	41,282	31,464	
용수 방류량			652,262	683,731	649,440	
하수도 ²⁾			652,262	683,731	649,440	
용수 소비량 (=용수 취수량-용수 방류량)			23,034	27,047	23,264	
용수사용 집약도 (=용수 사용량/매출)	m ³ / 십억 원	51.6	53.6	55.6	55.8	
Data Coverage ³⁾	%	100	100	100	100	

1) 용수 취수량과 사용량이 동일함
2) 일반 사옥의 하수도 사용량은 다음과 같음
• 하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지하수 사용량
단,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사옥 4곳(부산데이터센터, 전주, 대전부사, 광주우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 하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량+지하수 사용량-냉각탑 투입량(별도 계측)
3) SK텔레콤 27개 사옥에 대해 조사 및 집계

환경 데이터

폐기물¹⁾ 배출량(배출처 및 종류)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총 폐기물 배출량	전사	합계	톤	4,112	5,982	4,399	4,463	4,494 ²⁾
		일반		3,342	4,886	3,689	3,162	
		지정		770	1,096	711	1,301	
	사옥	소계		1,229	1,229	1,175	1,048	
		일반		1,200	1,187	1,149	1,026	
		지정		29	42	26	23	
	네트워크 인프라	소계		2,883	4,753 ³⁾	3,224	3,415	
		일반		2,142	3,699	2,540	2,136	
		지정		741	1,054	685	1,278	
폐기물 집약도 ⁴⁾			톤/십억 원	0.33	0.48	0.34	0.37	
Data Coverage ⁵⁾			%	100	100	100	100	

1) 폐기물은 100% 위탁처리하고 있음
2) 2년 주기로 교환되는 폐축전지량을 고려하여 정정
3) 서비스 종료된(2G, 3G) 장비 집중 철거로 증가
4) 폐기물 배출 집약도는 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당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5) SK텔레콤 27개 사옥과 4개 인프라 본부에 대한 조사 및 집계

기타 환경 데이터(환경경영 교육)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성원 교육	교육 이수율	%	81.5	88.0	88.1	86.4

폐기물 배출량(처리방식¹⁾)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폐기물 배출량	합계		톤	4,112	5,982	4,399	4,463
	재활용 (recycled, reused)	소계	톤	2,991	5,078	3,616	3,818
	재활용 외 (disposed)	소계		1,120	904	784	645
		매립		105	110	236	273
		소각 w/ 에너지회수		187	194	390	298
		알 수 없는 처리방식		828	600	158	73
재활용률(=재활용/총 폐기물 배출량)			%	72.7	84.9	82.2	85.6

1) 국가 통계 정보(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반으로 추정

폐기물 - 폐전기전자제품 상세¹⁾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폐전기전자제품	톤	497	969	1,433	811
재활용 비율(recycled, reused) ²⁾	%	94.1	99.5	99.6	99.6
매립 등 기타 처리 비율 (disposed, landfilled)		5.9	0.5	0.4	0.4

1)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 중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으로 분류된 폐기물로 관련법에 따라 매각·위탁 처리하고 있음
2) 국가 통계 정보(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반으로 추정

사회 데이터

총 고용 현황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미등기 임원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총 임직원 수를 산정했고, 관계사와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 및 임원은 제외했습니다.

총 고용 현황

(2025.12.31 기준)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임직원 수 ¹⁾			5,413	5,579	5,493	5,316 ⁶⁾
고용 형태별	정규직	명	5,143	5,280	5,153	4,881
	계약직		270	299	340	435
성별 ²⁾	남성		4,304	4,377	4,226	4,047
	여성		1,109	1,202	1,267	1,269
연령별	30세 미만		395	434	436	459
	30세 이상 50세 미만		3,205	3,134	3,142	2,888
	50세 이상		1,813	2,011	1,915	1,969
해외 사업장 고용	해외 파견자 수		17	18	15	15
	현지인 고용자 수 ³⁾		27	28	47	34
	해외사업장 총 근무자 수		44	46	62	49
	해외사업장 총 관리자 수		17	18	16	19
	현지인 관리자 수 ⁴⁾		6	6	5	4
	현지인 관리자 비율 ⁵⁾	%	35.3 ⁷⁾	33.3 ⁷⁾	31.3	21.1

1)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과 일치, 등기 임원 및 파견 노동자 수 제외
- 파견 노동자 수: 2022년 223명, 2023년 232명, 2024년 230명, 2025년 107명(파견 노동자 수는 사업보고서 '소속 외 근로자'에서 청소, 건물관리, 경비 등의 도급업체 소속을 제외한 수)

2)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는 0건

3) 해외 사업장별 고용 현황(현지인, 계약직 포함): 미국 13명, 중국 5명,일본 8명, 말레이시아 4명, 기타 4명

4) 현지인 관리자는 차부장 이상 권한 부여 인력

5) 현지인 관리자 비율 = 현지인 관리자 수/해외 사업장 총 관리자 수

6) 총 직원 5,316명(관리자 541명) 중 한국인 제외 국적별 직원 수(관리자 수): 캐나다 7(1), 미국 6(1), 중국 4, 기타 17

7) 데이터 산정 시 오류 부분 정정

사회 데이터

채용 및 이직

연령별·성별 신규 채용 인원수는 SK텔레콤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관계사와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은 제외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조직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진행된 퇴직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체 퇴직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Global AI Company로의 성공적 전환에 적합한 인력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인적 다양성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 구조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 및 이직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입직원 신규 채용		명	540	427	379	301
성별	남성		288	177	169	117
	여성		252	250	210	184
연령별	30세 미만		211	218	223	173
	30세 이상 50세 미만		293	189	124	107
	50세 이상		36	20	32	21
총 이직자			120	77	337	364
성별	남성		100	62	312	283
	여성		20	15	25	81
연령별	30세 미만		8	3	3	8
	30세 이상 50세 미만		72	45	40	267
	50세 이상		40	29	294	89
자발적 이직자 ¹⁾		89	51	42	28	
자발적 이직률 ²⁾		%	1.6	0.9	0.8	0.5
내부 후보자 공고율			25.3	41.3	72.0	81.6

1) 자발적 이직자에는 정년퇴직, 징계, 사망 등으로 인한 퇴사자는 제외됨

2) 자발적 이직률: (평가대상연도 자발적 이직자 수 / 평가대상연도의 전체 입직원 수) x 100

구성원 급여

SK텔레콤은 구성원 전체의 보수 현황을 분기·반기·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녀 급여 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구성원 남녀 평균 근속연수에 의한 것으로 동일 직급 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남녀간 임금 비율¹⁾

구분	단위	비관리직	관리직	임원직
기본급	%	87.0	97.4	93.0
기본급+기타 현금 성과급		87.3	97.0	91.0

1) 남녀 간 임금 비율: 여성급여 평균/남성급여 평균

다양성 존중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여성 인재 ¹⁾	여성 비율(수)	%(명)	20.5 (1,109)	21.6 (1,202) ²⁾	23.1 (1,267) ²⁾	23.9 (1,269)
	여성 총관리자 비율(수)		11.1 (331)	11.8 (319)	12.7 (333)	10.7 (274)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수)		9.8 (56)	9.8 (55)	10.7 (54)	10.0 (44)
	여성 주니어 관리자 비율(수)		11.6 (268)	12.4 (254)	13.4 (268)	11.1 (224)
	여성 임원 관리자 비율(수)		7.0 (7)	8.8 (10)	9.0 (9)	6.3 (6)
	여성 수석창출부서 관리자 비율(수)		11.5 (33)	11.6 (33)	10.7 (26)	10.7 (26)
	여성 STEM ³⁾ 비율(수)		29.1 (276)	31.1 (424)	28.4 (393)	25.2 (282)
특별고용 및 마이너리티	장애인 고용 ⁴⁾	명	59	55	58	54
	행복한울 ⁵⁾		117	117	131	120
	국가보훈자 고용		167	171	170	165

1) 중간관리자: 직책자(팀장급), 주니어 관리자: 입사 13년차 이상 구성원

2) 데이터 산정 시 오류 부분 정정

3)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관련 지식을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 2배수 및 제22조 4, 5항에 의거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경증 남성 장애인은 1/2로 산정, 2025년 장애인 고용 수는 총 174명(SK텔레콤 경증 44명·중증 5명, 행복한울 경증 7명·중증 57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 대비 3.29%를 달성

-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기준 작성에 따른 2022년 ~ 2024년 수치 변경

5) 데이터 산정 시 오류 부분 정정 및 중증장애인 2배수 반영으로 인한 2022년 ~ 2024년 데이터 정정

- 행복한울: 사업 지원 서비스/자동차 세차업/마사지 및 네일 서비스업 등 서비스 업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사회 데이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¹⁾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산휴가 사용자 수 ²⁾	합계	명	150	134	141	158
	여자		45	34	46	58
	남자		105	100	95	100
출산휴가 후 복귀율		%	98.0	100	99.3	100
육아휴직 사용자 수	합계	명	94	109	128	89
	여자		63	73	84	63
	남자		31	36	44	26
육아휴직 사용률 ³⁾	합계	%	16.7	19.4	25.1	31.7
	여자		68.5	71.2	75.0	74.1
	남자		1.1 ⁶⁾	3.3	7.7	13.3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⁴⁾		%	98.9	99.1	93.0	97.3
복귀 후 12개월 이내 퇴사율 ⁵⁾			1.1	1.8	2.3	4.5

1)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대상이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해당연도 기간내 일수에 무관하게 중첩되는 사용자
2) 본인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3)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중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연도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4) 육아휴직 복귀 예상 인원 중 실제로 업무에 복귀한 인원의 비율
5) 해당년도 육아휴직 사용자 중 복귀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 인원/해당년도 육아휴직 사용자
6) 데이터 산정 시 오류 부분 정정

심리 만족도 조사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비스 에이스	응답률	%	68.2(180/264)	72.7(213/293)	69.6(126/181)	77.2(112/145)
	마음건강 도움 긍정 비율		98.9	98.1	98.4	100
	프로그램 만족도		99.4	99.5	98.4	100
서비스 탑	응답률	%	93.7(685/731)	95.4(475/498)	97.3(468/481)	71.2(359/504)
	마음건강 도움 긍정 비율		98.0	94.2	94.2	99.4
	프로그램 만족도		98.2	94.9	94.9	98.8

마인드 케어 프로그램 진단·상담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비스 에이스	진단 참여 인원(총원 대비 비율)	명	1,891(70.5%)	1,784(65.2%)	2,000(77.3%)	1,708(71.6%)
	완화 조치 - 개인상담		318	350	258	181
	완화 조치 - 그룹상담		9	18	17	- ¹⁾
	완화 조치 - 심리자문		16	17	16	8
	완화 조치 - 힐링P/G		353	510	752	- ¹⁾
서비스 탑	진단 참여 인원(총원 대비 비율)	명	2,545(91.0%)	2,622(93.0%)	2,617(100%)	2,304(100%)
	완화 조치 - 개인상담		551	668	596	510
	완화 조치 - 그룹상담		631	767	358	121
	완화 조치 - 심리자문		92	39	84	95
	완화 조치 - 힐링P/G		719	374	170	331

1)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으로 2025년 프로그램 미진행

노사관계

SK텔레콤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및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그에 따라 SK텔레콤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중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95.2%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경영실적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합병, 분할 등 경영상 변동에 대해서는 노사 간 체결한 고용안정 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노동조합 대상 구성원 수	명	2,644	2,630	2,541	2,270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2,484	2,478	2,405	2,161
노동조합 가입 비율(가입 대상 기준)	%	93.9	94.2	94.6	95.2
단체교섭 적용 비율 ¹⁾		100	100	100	100

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노조원인 구성원에게도 확대 적용

사회 데이터

구성원 산업안전 및 보건 현황

SK텔레콤은 고객, 시민, 구성원, 협력사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이자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구성원은 물론 ICT Family사와 협력사에도 강화한 안전 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산업안전 및 보건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성원 산업안전	구성원 근로손실 재해율 (LTIR) ¹⁾	20만 근로시간당 건수	0	0	0	0.02
	협력사 근로손실 재해율 (LTIR)		0.04 ⁴⁾	0.02 ⁴⁾	0.02 ⁴⁾	0.02
	구성원 + 협력사 근로손실 재해율(LTIR)		0.03 ⁴⁾	0.01 ⁴⁾	0.02 ⁴⁾	0.02
	구성원 근로손실 재해 건수 (LTI)	건	0	0	0	1
	협력사 ²⁾ 근로손실 재해 건수 (LTI)		9	4	6 ⁴⁾	4
	구성원 + 협력사 근로손실 재해 건수(LTI)		9	4	6 ⁴⁾	5
	구성원 사망률	%	0	0	0	0
	구성원 사망 건수(산재 대상)	건	0	0	0	0
구성원 보건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률 (OIFR) ³⁾	20만 근로시간당 건수	0	0	0	0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 건수	건	0	0	0	0

1) Lost Time Incident Rate
2) 사내 및 사외 협력사 포함
3)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4) 과거 연도 산정 오류로 데이터 정정

R&D 투자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R&D 비용 ¹⁾	백만 원	374,360	391,843	392,844	355,772

1) 사업보고서 '연구개발비용(연결기준)'과 일치하도록 2022년 ~ 2024년 데이터 정정

Online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매출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목표
Online 서비스 이용자 ¹⁾ 비중	%	71	73	75	76	75
Online 매출 ²⁾ 비중		39	43	45	47	46

1) Online 마케팅 플랫폼(T월드, T Direct 등) 및 Online 부가서비스 이용자
2) Online 마케팅 플랫폼 및 Online 부가서비스 관련 통신비, 서비스 이용료, Marketing을 통한 매출 유입 등의 직간접 Online 매출 총합

사회 데이터

구성원 행복 제고·웰빙 프로그램

유형	주요 프로그램 및 지침내용	대상자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 온도 및 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및 일 2회 측정, 공기질 및 배기팬 가동, 출근 시간 전 일괄 환기를 통해 업무환경 내 분진·CO₂ 관리, 조도 및 소음 기준 관리 - 사옥 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업무 공간(높이 조절형 데스크, 형태 변형 의자, 오픈 스탠딩 회의실 등) 마련	100% (모든 구성원으로 임원, 정규직, 계약직 포함)
 스트레스 관리	- 구성원 심리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마음의 숲' 운영 (업무 스트레스 및 애로사항, 건강, 개인상담 등 제공) - 액티움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음건강 레터, 건강강좌, 웃음운동, 힐링요가 등) 운영 - 헬스케어 안마 서비스, 네일케어 서비스	
 체력 및 신체 단련	- 사옥 내 구성원 체력단련 공간인 '액티움' 운영 및 안마 서비스 '헬스케어' 제공 통해 구성원 체력 증진 및 관리 지원 - 사옥 내 구성원 심신단련을 위한 심기신수련실 운영	
 근무 시간 유연성	- 출·퇴근 시간 자율결정(Flexible Time)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운영 - 선택 근무제 도입(월별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자율적 근무시간 등록 및 몰입 근무)	
 재택 근무 및 집중 업무 공간 제공	더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 근무 제도를 운영	
 단축근무 제도 (Part-time working options)	가족돌봄, 개인돌봄, 은퇴준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단축 근무 제도 운영	

유형	주요 프로그램 및 지침내용	대상자
 육아 및 자녀 교육	사내 어린이집, 수유시설 운영, 출산 경조금 등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100% (모든 구성원으로 임원, 정규직, 계약직 포함)
 출산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 기간 일 6시간 근무 - 출산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20일(전체 유급) 휴가 제공	
 난임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의 유급휴가 제공(6일 모두 유급휴가)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남/여 구성원 대상 - 최대 2년 신청 가능¹⁾ (법정육아휴직 1년 + 회사 자체 지원 육아휴직 1년) * 법정육아휴직 추가 6개월은 사유충족 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의료비 등 주요 복리후생 제도 유지, 법정육아휴직 외 추가 1년은 법정상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자동전환 제도: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사용 가능 - 입학자녀 돌봄 휴직: 초등학교 입학년도 연 1회, 90일 제공	
 가족 Care 제도	육아휴직 이외에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발생시 경력단절 없이 돌볼 수 있는 개인·가족 돌봄 제도 운영	정규직
 Next Career 제도	특히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사외 전문 코칭·컨설팅 프로그램 및 Next Career 휴직 제공	
 장기근속 Refresh 휴가 제도	입사 후 5년에 한번씩 10일에서 30일의 장기 휴가를 부여하여, 구성원이 긴 호흡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원	

1)계약직의 경우 1년 신청만 가능

투명한 공공 정책 참여와 협회비 집행

SK텔레콤은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책임을 명시한 SK그룹의 'SK 컴플라이언스 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공정거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SK텔레콤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지출 현황

구분	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치기부금 총액	백만 원	0	0	0	0
로비자금 총액		0	0	0	0
유관기관 협회 협회비 총액		609	670	1,356	1,124
기타		0	0	0	0

2025년 유관기관 협회 협회비 상위 5개 지출 내역

구분	단위	지위	금액
한국경제인협회	백만 원 ¹⁾	회원사	45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사	20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사	198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사	174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사	100

1) 백만원 이하 반올림

국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선거자금과 특정 정당 및 정치 단체에 로비성 자금을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공익 발전에 보탬이 되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원의 지출 내역과 규모는 해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은 2017년 2월부터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부금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주요 기부처 리스트

프로그램명	금액(원)	추진 기관
사회적가치연구 사업 지원	5,700,000,000	(재)사회적가치연구원
ESG사업 추진	3,000,000,000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대한펜싱협회 후원	2,590,000,000	(사)대한펜싱협회
연말 이웃돕기 성금 후원	1,300,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 상생 사업 지원	600,000,000	수원시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220,000,00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미래인재 육성 사업 지원	185,252,000	고려대학교
장학사업 후원	168,600,000	(사)최경주복지회
끝전모으기 기부	160,000,000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외
법학연구 발전 사업 지원	50,000,000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제3자 검증 의견서

[PRJN-1221682-2026-AST-KOR]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또는 '당사')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또는 '회사')으로부터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본 검증 의견서의 사용대상은 SK텔레콤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입니다.

검증 기준

검증 활동은 당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1가 제정한 국제인증업무기준(ISA 3000)2 등 국제 규격을 반영한 DNV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6.0과 AccountAbility 사의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AA1000AS v3)에 따라 Type 2 제한적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가 AccountAbility 원칙 기준(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토콜은 당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보증을 얻기 위해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 검증 업무 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합리적 검증 업무 절차와 차이가 있으며, 절차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은 합리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DNV는 검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위험을 줄였으나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DNV는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보고서 외부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결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당사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 및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 수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 당사는 SK텔레콤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s)와 관련된 GRI 주제 기준(Topic Standards)을 검토하였습니다.
-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102-8, 102-10, (에너지) 103-2, 103-3, 103-4, (물과 폐수)303-2, 306-3, 306-4, 306-5, (폐기물) 306-3, 306-4, 306-5, (반부패) 205-1, 205-2, 205-3, (고용) 401-1, 401-2, 401-3, (노사관계) 402-1, (훈련 및 교육) 404-1, 404-2, 404-3,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고객 개인정보 보호) 418-1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Appendix의 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 관찰 및 권고사항

검증 수행 결과, DNV는 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 SK텔레콤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회사의 운영 중 관리된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는 회사의 보고서가 중대성 관점에서 GRI Standards의 'in accordance'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검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DNV의 관찰 의견을 AA1000APS(2018) 원칙과 VeriSustain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SK텔레콤은 구성원, 고객, 주주, 협력사, 정부, NGO &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명확히 정의하고, AA1000 SES 기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에 따라 체계적인 참여 및 소통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영향도 평가, 설문 및 간담회, 상시 소통 채널 운영,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고충처리 및 사후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된 이슈를 전사 차원에서 관리·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조직의 ESG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and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revised)

제3자 검증 의견서

중대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식별 및 보고

SK텔레콤은 국제표준(ESRS) 및 평가지표, 미디어 분석, 경영전략 기반 분석 등을 통해 이슈 Pool을 구성하고, 재무적 중요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이중 중요성 평가를 적용하여 총 24개 이슈를 우선순위화하였습니다. 또한 IRO(영향·위험·기회)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슈 특성을 구체화하고, 핵심 이슈 3개와 보고 이슈 7개를 선정하여 ESG위원회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이슈를 고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의 맥락(Context), 대응 전략 및 주요 활동, 중장기 목표와 연계된 ESG KPI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한 대응

SK텔레콤은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전략, 실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의결·심의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자원순환(RE·FINE) 전략 추진,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고객 권익 보호 및 VOC 관리 체계 강화와 같은 주요 활동이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슈별로 최근 3개년 성과와 2030년 목표, KPI를 연계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리 체계의 실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및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된 체계적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향: 조직 활동이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

SK텔레콤은 핵심 ESG 이슈를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관리하며, 중요 이슈와 관련된 밸류체인 상 영향,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이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경우, 사고 발생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Special Report'를 통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주요 활동이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및 관리하고,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하는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뢰성: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기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신뢰할 수 있는 방식과 데이터로 지속가능성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인증 과정 중 발견된 오류들이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수정되었습니다.

완전성: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확인된 모든 정보 중 보고되는 정보

SK텔레콤은 식별된 운영 경계에 대해 적절한 GRI 주제 기준을 사용하여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2025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주요 비재무적 공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고서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중립적인 어조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SK텔레콤은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성과, 과제,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을 중립적이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독립성 및 품질 관리

DNV는 ISO/IEC 17029:2019³⁾ 적합성 평가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적 기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2025년 SK텔레콤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보고서 검증에 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제3자 검증 의견서

한계점

검증은 DNV에 제공된 SK텔레콤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며,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가정 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표본추출(샘플링)과 내부 통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기타 내재적 제한들로 인해 중대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불규칙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회사의 파트너(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DNV는 보고된 재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보가 별도의 독립적인 법정 감사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 법정 공시 및 감사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재무 공개 및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검증은 정의된 보고기간 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이외의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SK텔레콤 관리자 및 검증기관의 책임

SK텔레콤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집계, 준비, 정보의 공정한 표시, 데이터에 중요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의 설계, 구현 및 유지가 포함됩니다.

DNV의 책임은 '검증 범위'에 기술된 관련 정보가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이를 취합한 증거에 기반하여 독립적 검증의견서 형태로 회사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이나 데이터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 습니다.

의견 판단 기준

본 검증 활동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회사의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성 이 높은 중요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한적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회사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피어 리뷰 및 미디어 검토 등
- 중대성 평가 절차와 결과, 주제 기준과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KPI를 통합,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보고 원칙 및 요구사항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
- 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집계 및 보고 전반에 책임이 있는 ESG 팀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수행
- SK텔레콤 본사(대한민국, 서울) 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지속가능성 데이터 샘플링 및 전략 이행 관련 관리체계 검토



AA1000
Licensed Report
000-10/V3-XQSII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6년 6월 26일

Digitally signed
by Kim, So Hyun
Date: 2026.06.26
16:38:22 +09'00'

검증팀장

김 소 현
Kim, So Hyun

Digitally signed
by Chang, Sang Rye
Date: 2026.06.26
16:51:50 +09'00'

검증팀원

장 상 레
Chang, Sang Rye

Digitally signed
by Jung, Jin Seul
Date: 2026.06.26
16:54:16 +09'00'

검증팀원

정 진 슬
Jung, Jin Seul

Digitally signed
by Park, Sang Yeon
Date: 2026.06.26
17:06:26 +09'00'

기술검토자

박 상 연
Park, Sang Yeon

2025년 중요성 평가 이슈풀

No.	구분	이슈풀	정의
1	환경	기후변화 대응(적응 및 완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과 탄소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관리 활동을 시행하는 것
2	환경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에너지 사용 절감/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3	환경	생물다양성 보전	기업 활동이 서식지 파괴, 토양/수질 오염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호 및 복원 조치를 시행하는 것
4	환경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 절감/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포함)
5	사회	복지후생 증진	구성원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 외 다양한 혜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6	사회	노동관행 보장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조합 결과와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
7	사회	안전보건경영 확산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8	사회	인재 채용 및 육성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
9	사회	구성원 포용성 확대	모든 구성원에게 성별/나이/인종/장애 등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 포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
10	사회	인권경영 실천	기업이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11	사회	지역사회공헌 추진	기업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경제/환경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12	사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정보 훼손/변조/유출 등으로부터 정보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고, 임직원/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No.	구분	이슈풀	정의
13	사회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책임 강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효율성,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
14	사회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것
15	거버넌스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구성원의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16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17	거버넌스	디지털 접근성 향상	사용자의 신체적·인지적 제약과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는 것
18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환경/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공급망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실천하는 것
19	거버넌스	기술 혁신	전략적 R&D를 통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 및 생활 영역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
20	거버넌스	주주가치 제고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21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
22	거버넌스	지배구조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23	거버넌스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기업의 재무·비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24	거버넌스	AI 윤리 준수	AI가 책임감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따르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감사의견서

내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우리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감사위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제42기 사업 연도에 대한 회사의 회계 및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인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요청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담당 경영진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감사담당 임원으로부터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 감사결과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며, 또한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타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에 관한 사항

별도 및 연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SK텔레콤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위원 김용  위원 오혜연  위원 김창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가. 당사의 내부감시장치 및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전체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와 5명의 독립이사가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합니다. 전체 4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부감사부서: 회사 내 각 부서 또는 업무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감사, 특별감사, 제보조사를 실시합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동법 제542조의 11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시장치의 운영

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으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습니다.

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다. 내부감사부서는 회사 내 각 부서의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회사규정과 절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

-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SK텔레콤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위원 김용  위원 오혜연  위원 김창보 

감사의견서

외부 감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SK텔레콤(주)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4일

대 표 이 사 유 영 찬 (인)
내부회계관리자 박 종 석 (인)

온실가스 Scope 1&2 검증의견서

서문

(주)디엔비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ISO 14064-1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25-64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경계 : 에스케이텔레콤 국내사업장(통신 장비 포함)
- 운영경계 :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 보고대상 기간 : 2025.01.01 ~ 2025.12.31

검증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회사가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성 평가기준 5%를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결론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련된 정보가 보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 및 보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위: ton CO₂eq)

구분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총 배출량
국내 (지역 기반)*	5,940	1,167,979	1,173,904
국내 (시장 기반)**	5,940	1,037,506	1,043,431

*상기의 '총배출량'은 사업장 단위 절사 후 합산 기준 적용에 따라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 기반(Location-based)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하, 국가 전력망 기준의 전력 사용에 따른 Scope 2 로써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 시장 기반(Market-based)은 GHG 프로토콜 기반, 회사의 녹색프리미엄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 반영된 Scope 2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였으며, GHG 프로토콜에 따른 국가에서 공표된 잔여 배출계수 부재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 배출계수로서 적용.



2026년 6월 08일

대표이사 이 장 섭

(주)디엔비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온실가스 Scope 3 검증의견서

서문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WRI/WBCSD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IPCC Guidelines: 2006’ 에 근거한 온실가스 성명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온실가스 성명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경계 : 에스케이텔레콤 국내사업장
- 운영경계 : Scope 3(기타 간접배출 - 카테고리 1, 2, 3, 5, 6, 7, 8, 14, 15)
- 보고대상 기간 : 2025.01.01 ~ 2025.12.31

검증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2019’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회사가 보고한 온실가스 성명서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검증결론은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적용하여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결론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산정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위: ton CO₂eq)

보고 연도	업스트림(Upstream)	다운스트림(Downstream)	총 배출량
2025	1,830,670	753,550	2,584,221

*상기의 '총배출량'은 소수점 처리로 인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 년 에스케이텔레콤 간접배출(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on CO₂eq)

카테고리		총량 (Total)
업스트림 배출량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1,327,656
	2. 자본재	306,166
	3. Scope 1 과 Scope 2 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180,935
	5. 영업에서 발생된 폐기물	586
	6. 출장	2,367
	7. 종업원 통근	2,903
	8. 업스트림 리스자산	10,057
	14. 프랜차이즈	24,986
다운스트림 배출량	15. 투자	728,565
합계		2,584,221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치리로 인해 ± 1 tCO₂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6 년 6 월 24 일

대표이사 이 장 섭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용수 및 폐기물 검증의견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문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5년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 자료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회사의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경계 : 에스케이텔레콤 27개 사옥 및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첨부 참조)
- 운영경계 :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
- 보고대상 기간 : 2025.01.01 ~ 2025.12.31

검증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2019'의 검증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여 제한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회사가 보고한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검증결론은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적용하여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 인벤토리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결론

회사의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과 관련한 정보를 상기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산정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용수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위: m³, ton)

2025년	상수도	지하수	총 용수 사용량
SK텔레콤 용수 사용량	641,240	31,464	672,704

(단위: ton)

2025년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총 폐기물 배출량
SK텔레콤 폐기물 배출량	2,723	1,301	439	4,463

2026년 6월 08일

대표이사 이장섭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SK텔레콤(주)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인증번호

AK25EM2953

적용표준

ISO 14001:2015 / KS I ISO 14001:2015

인증범위

1.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
2. 에너지 절약사업

위와 같이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에 적합함이
에이케이인증원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증명함

• 인증발급일자 : 2025년 10월 10일

• 인증등록일자 : 2022년 09월 27일

• 인증만료일자 : 2026년 10월 24일



에이케이인증원장

에이케이인증원장 직인

에이케이인증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층(동대문구) 제14호(1400호) (02-6666-1047 FAX 02-6666-1073)

※ 본 인증서는 인증유�효성 이전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됩니다.
- 에이케이인증원은 한국인증지원센터(KA)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증번호 : KAB-EC-36)
- IAF 마크는 AK인증원이 국제인증원에게 부여한 국제인증기관으로서 인정받았음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페이지 1 / 3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SK텔레콤(주)

- 장안사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3길 34
- 미래경영연구원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481-28
- 나이스채용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300
- 분당사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6
- 수유사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38
- 원주사옥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
- 대구태평사옥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로 73
- 대구중동사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4
- 전주사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2길 17-8
- 인천사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7
- 부산안락사옥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412
- 대구신천사옥 : 대구광역시 동구 회광로 1

인증번호

AK25EM2953

적용표준

ISO 14001:2015 / KS I ISO 14001:2015

인증범위

1.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
2. 에너지 절약사업

위와 같이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에 적합함이
에이케이인증원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증명함

• 인증발급일자 : 2025년 10월 10일

• 인증등록일자 : 2022년 09월 27일

• 인증만료일자 : 2026년 10월 24일



에이케이인증원장

에이케이인증원장 직인

에이케이인증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층(동대문구) 제14호(1400호) (02-6666-1047 FAX 02-6666-1073)

※ 본 인증서는 인증유�효성 이전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됩니다.
- 에이케이인증원은 한국인증지원센터(KA)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증번호 : KAB-EC-36)
- IAF 마크는 AK인증원이 국제인증원에게 부여한 국제인증기관으로서 인정받았음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페이지 2 / 3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SK텔레콤(주)

- 광주송정사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308
- 대전부사사옥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82
- 명륜사옥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83
- 보라매사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5길 1
- 성수사옥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6
- 대전둔산사옥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37
- 청주사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46
- 부산부암사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
- 부산테이퍼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0
- 대구분리사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2
- 제주사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13
- 판교사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 광주우산사옥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인증번호

AK25EM2953

적용표준

ISO 14001:2015 / KS I ISO 14001:2015

인증범위

1.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
2. 에너지 절약사업

위와 같이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에 적합함이
에이케이인증원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증명함

• 인증발급일자 : 2025년 10월 10일

• 인증등록일자 : 2022년 09월 27일

• 인증만료일자 : 2026년 10월 24일



에이케이인증원장

에이케이인증원장 직인

에이케이인증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층(동대문구) 제14호(1400호) (02-6666-1047 FAX 02-6666-1073)

※ 본 인증서는 인증유�효성 이전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됩니다.
- 에이케이인증원은 한국인증지원센터(KA)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증번호 : KAB-EC-36)
- IAF 마크는 AK인증원이 국제인증원에게 부여한 국제인증기관으로서 인정받았음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페이지 3 / 3

Index

GRI Standard Index

Statement of use	보고조직 SK텔레콤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보고할 때 GRI Standards 2021 부합보고 원칙을 준수(In accordance with)하여 해당 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GRI 1 used	GRI 1: Foundation 2021
Applicable GRI Sector Standards	보고조직 SK텔레콤은 GICS, 산업분류기준 등에 해당하는 GRI Sector Standards의 발간일 기준 발행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음

General Disclosures

GRI Standard 2021	Indicators	Page
GRI 2: General Disclosures 2021	2-1 조직 세부 정보	7, 132
	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된 기업 목록	233
	2-3 보고기간, 주기 및 문의처	233
	2-4 정보의 재작성	205-212
	2-5 외부 검증	215-217, 221-223
	2-6 활동, 조직의 가치사슬 및 기타 사업관계	7-9, 107-118
	2-7 임직원	7, 209
	2-8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	7, 209
	2-9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131, 133-136, 138-139
	2-10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추천 및 선정	131, 133-136, 138-139
	2-11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	136
	2-12 영향 관리를 위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11, 139
	2-13 영향 관리에 대한 책임 위임	11
	2-14 지속가능경영보고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	139
	2-15 이해관계 상충	133-134

GRI Standard 2021	Indicators	Page
GRI 2: General Disclosures 2021	2-16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37-139
	2-1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종합적인 지식	135
	2-1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평가	135
	2-19 보수 정책	140-142
	2-20 보수 결정 절차	141
	2-21 연간 총 보상 비율	141
	2-22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 대한 성명서	5
	2-23 정책 공약	91
	2-24 정책 공약 내재화	93-95
	2-25 부정적 영향 완화 절차	93-95, 163-173
	2-26 제기된 우려사항 및 조언에 대한 메커니즘	93, 147-148, 150
	2-27 법·규제 준수	FY2025 당기 사업보고서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2-28 가입 협회(이니셔티브)	214
	2-29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방식	182-184
	2-30 단체 교섭 협약	211

GRI Standard Index

General Disclosures

GRI Standard 2021	Indicators	Page
GRI 3: Material Topics 2021	3-1 중요 이슈 결정의 절차	175
	3-2 중요 이슈 목록	176
중요 이슈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요 이슈 관리	20-31, 177-178
GRI 418: Customer Privacy 2016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 입증된 민원	30
중요 이슈 2. 기술 혁신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요 이슈 관리	32-38, 177-178
NON-GRI	관련 토픽 스탠다드 없음	-
중요 이슈 3. 기후변화 대응(적응 및 완화)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요 이슈 관리	39-58, 177-178
GRI 102: Climate Change 2025	102-1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42-45
	102-2 기후변화 적응 계획	42-45
	102-3 정의로운 전환	42-45
	102-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이행 현황	55-58, 205, 207
	102-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205
	102-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205
	102-7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207
	102-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205, 207
	102-9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 제거량	55-58
	102-10 탄소배출권	44

GRI Standard 2021	Indicators	Page
GRI 103: Energy 2025	103-1 에너지 정책 및 목표	58
	103-2 조직 내 에너지 소비 및 자가 발전 현황	205-206
	103-3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에너지 소비	205-206
	103-4 에너지 집약도	205-206
	103-5 에너지 소비 감축 성과	57-58
중요 이슈 4.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요 이슈 관리	143-158, 180
GRI 205: Anti-corruption 2016	205-1 기업 부패 위험 평가	144-145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훈련	147, 150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148
중요 이슈 5.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요 이슈 관리	96-106, 180
NON-GRI	관련 토픽 스탠다드 없음	-
중요 이슈 6. 지배구조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요 이슈 관리	131-142, 180
NON-GRI	관련 토픽 스탠다드 없음	-

GRI Standard Index

GRI Standard 2021	Indicators	Page
중대 이슈 7. 인재 채용 및 육성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대 이슈 관리	73-82, 181
GRI 401: Employment 2016	401-1 신규채용과 이직	210
	401-2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213
	401-3 육아휴직	211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2016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82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76-81
	404-3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점검을 받은 임직원 비율	80
중대 이슈 8. 주주가치 제고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대 이슈 관리	132-133, 181
NON-GRI	관련 토픽 스탠다드 없음	-
중대 이슈 9. 노동관행 보장		
GRI 3: Material Topics 2021	3-3 중대 이슈 관리	80, 211, 181
GRI 402: Labor/Management Relations 2016	402-1 운영상의 변화와 관련한 최소 공지기간	80, 181, 211

GRI Standard 2021	Indicators	Page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2016	405-2 남성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수비율	210
GRI 407: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2016	407-1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에 대한 침해 리스크가 있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80, 181, 211
중대 이슈 10.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		
GRI 303: Water and Effluents 2018	303-1 공유원으로서의 용수의 상호작용	64, 66, 181
	303-2 용수 방류에 관한 영향 관리	64, 66
	303-3 용수 취수량	207
	303-4 용수 배출량	207
	303-5 용수 사용량	207
GRI 306: Waste 2020	306-1 폐기물 발생 및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폐기물 발생 및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69-71
	306-2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69-71
	306-3 폐기물 발생	208
	306-4 폐기물 재활용	208
	306-5 폐기물 처리방법	208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K텔레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정보보호, 기업윤리, 순환경제,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방면의 관리 지표들이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SASB 권고안에 따라 각 항목들의 정성 및 정량적 지표들을 관리하고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ASB 측정 지표들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시되고 있으며, SASB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들은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Activity Metrics

Activity Metric	Category	Unit of measure	Code	Status	Page
무선가입자	정량지표	명 (가입자 수)	TC-TL-000.A	무선 가입자 수 2,175만 명 ¹⁾	-
유선가입자			TC-TL-000.B	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 VoIP 서비스 가입자 포함 330만 명	-
광대역(브로드밴드) 가입자			TC-TL-000.C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약 720만 명 , 유료 TV 가입자 약 950만 명	-
네트워크 트래픽		Petabytes	TC-TL-000.D	연간 처리 데이터 트래픽 631만	104

1) 2025년 연간 실적 자료 기준 핸드셋 가입자 수치

Sustainability Disclosure Topics & Accounting Metrics

Topic	Accounting Metric	Category	Unit of measure	Code	Status	Page
운영상의 배출량	(1) 전체 에너지 소비량, (2) 그리드전기 비율, (3) 재생에너지 비율	정량지표	GJ/%	TC-TL-130a.1	총 에너지소비량 24,512TJ	205
고객정보 보호	광고행위 및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유 정책 및 활동	정성지표	n/a	TC-TL-220a.1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5,028명 이수	25
	고객정보 2차 사용을 위해 수집된 고객 수	정량지표	명(고객 수)	TC-TL-220a.2	총 18,781,594(동의: 15,188,353/미동의: 3,593,241)	24
	고객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과징금 등)	정량지표	KRW	TC-TL-220a.3	13,480,060만 원(과징금: 13,479,100만 원/과태료: 960만 원)	27
	고객정보 관련 (1) 법적 제재 건수, (2) 정보 요청된 고객 수, (3) 공개 비율	정량지표	건 수/%	TC-TL-220a.4	정부기관 통신자료 요청 242,586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45,513건	30
	(1) 정보보안 위반 건수, (2) 개인식별 정보보안 위반 비율(PII),(3) 피해를 입은 고객 수	정량지표	건 수/%	TC-TL-230a.1	가입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사고 1건 발생 (2025년 4월 19일)	30
정보보안	제3자 정보보안 기준 활용을 포함한 정보보안 리스크 식별 및 규명에 대한 경영 접근 방식	정성지표	n/a	TC-TL-230a.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시(가입자의 사전 동의(Opt-in) 방식 하에 고객 개인정보 수집 및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 제3자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시 고객의 선택적 동의 기반으로 정보 제공 등)	24
폐기물 관리	(1) 자원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된 자원, (2) 자원 재이용률, (3) 재활용률, (4) 매립률	정량지표	톤, 무게, 백분율	TC-TL-440a.1	재활용률 85.6%	208
공정 경쟁 & 인터넷 망 중립성	불공정경쟁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과징금 등)	정량지표	KRW	TC-TL-520a.1		사업보고서 417-419p
	(1) 자사 보유 콘텐츠 및 상업적으로 연관된 콘텐츠, (2) 연관성 없는 콘텐츠 평균 다운로드 속도	정량지표	Mbps	TC-TL-520a.2	콘텐츠 유형(자사 보유, 상업, 연관성 없음)으로 별도 구분한 다운로드 속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콘텐츠간 다운로드 속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104
	망 중립성, 유정산직접접속(paid peering), 제로 레이팅(zero rating) 등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설명	정성지표	n/a	TC-TL-520a.3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기술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 관리	(1) 시스템 평균 중단 시간, (2) 시스템 평균 중단 빈도, (3) 고객 평균 중단 시간	정량지표	고객 당 빈도 수, 시간	TC-TL-550a.1	대형 통신장애 발생 건 수 0건	106
	서비스 중단 등 유사상황 대비 정상적 서비스 작동-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성지표	n/a	TC-TL-550a.2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장애로 야기되는 국민 생활 불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장애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경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ERM)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6, 163-173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점점 잦아지는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후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은 기후변화 위험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재무 리스크의 대비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TCFD 권고안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로 구분하여 SK텔레콤의 관련 대응 활동을 공개하며, TCFD 권고안의 권장 공시뿐만 아니라 세부 부문 지침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ESG위원회와 담당조직(GC센터)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는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평판, 급성·만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식별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TCFD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6년 별도의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TCFD Recommended Disclosures		Page	CDP Mapping
지배구조 (Governance)	a) 이사회의 감독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한 설명	39	Module 4
	b) 경영진의 역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	39	
전략 (Strategy)	a) 단기/중기/장기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40-41	Module 3 & 5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의 영향 조직의 경영, 전략 및 재무계획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의 영향 설명	42-45	
	c) 시나리오 고려 시 탄력성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조직의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	46-53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a)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40-41	Module 2
	b)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54	
	c) 전사 리스크 관리 통합 방식 조직의 전사 리스크 관리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의 통합방식 설명	54, 163-173	
지표 및 목표 (Metrics&Targets)	a)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평가지표 조직이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에 대한 설명	55-56	Module 7
	b)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Scope 3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설명	55-57	
	c)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목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기회 및 이행 현황 관리를 위한 조직의 목표 설정	55-5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Framework Indicator		SKT Status & Actions
Policy & Commitment	1) 전세계적인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맞춰 모든 기후 변화 로비를 진행하겠다는 대외 약속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을 포함한 모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이행합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SBTi 기반의 Net Zero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제38기 주주총회를 통해 '2050 Net Zero' 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조직경계 내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측정하고,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직·간접 배출량(Scope1+2)을 47.7%, 기타 간접 배출량(Scope3)을 22.3%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적극적인 탄소 감축을 통해 2050년까지 완전한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후 변화 로비에 대한 약속의 범위를 모든 자회사 및 사업 영역, 그리고 모든 사업 운영 관할 지역에 적용	SK텔레콤의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정책은 매출의 99%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모든 해외법인 및 자회사의 사업 운영 관할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따라 소속 협회, 연합체가 기후 변화 로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산업 유관 협회 및 단체의 회원사로서 각 기관이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을 포함한 모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지원합니다.
Governance	4) 기후 변화 로비에 대한 접근 방식 및 활동의 감독을 위한 이사회 수준에서의 책임 부여	SK텔레콤은 2021년에 ESG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사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서 4인의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실무진으로부터 기후변화 관련 핵심 이슈사항을 보고 받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최고이사결정기구입니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성과 보고를 받고 이를 수시로 심의하며, Net Zero 이행 현황,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을 포함한 주요 공시사항 등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기후 변화 로비 정책 및 실행의 일상적 이행을 위한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의 책임 부여	SK텔레콤의 CEO와 ESG총괄인 GC센터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으로서 기후 관련 로비 및 후원을 포함한 주요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K텔레콤 CEO는 2050 Net Zero 목표 이행 현황, 기후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으며,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ESG위원회가 논의 및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ESG총괄인 GC센터장은 ESG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과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중대한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CEO에게 즉시 보고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전 지역에서의 모든 직간접적인 기후 변화 로비 활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간 모니터링 및 검토 프로세스 수립	SK텔레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기후 관련 기부, 후원을 포함한 모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행합니다. 매월 ESG위원회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심의하며, 모든 직간접적인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활동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도 주요 이슈에 포함이 됩니다.
	7) 기후 변화 로비 정책, 입장 및 활동을 설정하고 검토하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 수립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에 대한 정책,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국내외 통신업계 동향, 정책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잠재적 재무영향 분석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및 관리 체계를 갖추어 이행하고 있습니다.
	8) 회사가 소속된 협회, 연합체의 기후 변화 로비에 대한 입장과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 수립	SK텔레콤은 전사 리스크 관리 및 실행 체계를 통해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정책과 활동을 포함한 Net Zero 전략 이행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이 소속된 협회·단체의 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협회·단체에 대한 SK텔레콤의 역할과 지위, 관여사항 등을 고려하여 목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공식 성명, 간담회 및 협의체 구성 요청, 기부 및 후원 금지, 탈퇴 등의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9) 다음사항에 대한 회사의 1.5°C 부합성 관련 평가 및 조치를 다루는 자세한 연례 검토 보고서 발표: (a) 자체 기후 변화 로비 활동 (b) 회사가 소속되어 있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협회, 연합체 또는 시민 단체의 기후 변화 로비 활동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정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파리협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며,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니터링 절차를 적용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SK텔레콤과 SK텔레콤이 소속된 협회 및 단체의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활동 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파리협약 목표에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Framework Indicator		SKT Status & Actions
Governance	10) 회사의 기후 변화 로비 및/또는 회사가 속한 협회, 연합체 또는 자금 지원 시민 단체의 기후 변화 로비 활동과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 간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보고	SK텔레콤은 소속된 협회 및 단체의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활동 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파리협약 목표에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1)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는 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연합을 만들거나 참여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인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는 2019년 파리협정에 따른 1.5°C 목표 달성을 위한 SBTi 참여를 선언하였으며, SK텔레콤은 공동 참여를 통해 파리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최초 RE100 가입, 2021년에는 자체적으로 SBTi 기반의 Net Zero 목표를 수립하는 등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지지하는 협회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pecific Disclosures	12) 모든 지역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로비 활동에 참여하는 협회, 연합체의 회원 자격, 지원 및 참여를 대외 공개	SK텔레콤은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 정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파리협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며,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니터링 절차를 적용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연간 발간하는 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3) 각 협회, 연합체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공개: (a)연간 지출액 (b)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원회 또는 기타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회, 연합체	SK텔레콤은 당사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 및 단체의 이름과 특성, SK텔레콤 지위 및 역할, 연간 지출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협회 및 단체 중 SK텔레콤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원회 또는 기타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14) 회사의 기후 로비가 (a) 도전적인 공공 기후 정책을 지원하는 데 미친 영향과 (b) 회사의 기후 전략 이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대외 공개	SK텔레콤은 2021년 수립한 SBTi 기반의 Net Zero 목표와 '2050 Net Zero'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기후 관련 기부 및 후원을 포함한 모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이행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SK텔레콤이 3대 Green 전략(Green Operation, Green Energy, Green Asset)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직·간접 배출량(Scope1+2)을 47.7%, 기타 간접 배출량(Scope3)을 22.3%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적극적인 탄소 감축을 통해 2050년까지 완전한 Net Zero 달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입 협회	이슈 및 주제	SKT Status & Actions	지위	FY 2025 총 지출액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설립하여, 중고 휴대폰 재사용 및 IT 기기/통신장비 재활용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익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공익 법인임	• 재단 출연을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의 수행 영역 확대 (재활용 품목 다양화 등 자원순환 영역 확대) • SKT 가입 고객의 휴대폰 분실/파손 시 중고폰을 임대폰으로 제공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 SKT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협력 • 사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체험 이벤트/프로그램 발굴 (노동조합 프로그램 연계 등 사내 유관조직 협업 추진, 대기업 파트너 프로그램 협업)	후원사	30억 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보편적 원칙 이행을 촉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비롯한 유엔의 다각적인 개발 과제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UN 산하 기업협의기구인 UNGC의 한국협회 창립 일원으로서, 지난 2007년 국내 4대 그룹 중 최초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은 UNGC가 제시하는 10대 원칙을 경영 전반에 투영해 왔으며,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개발 계획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 4월 '유엔인권기본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CEO 명의의 천명을 통해 인권 존중 책임 완수에 대한 사내외 의지를 공고히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UNGC 원칙에 기반한 책임 경영을 심화함으로써, 당면한 국내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ESG standard 확산을 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Criteria for UNGC Advanced Level			Page
전략과 운영에 있어 UNGC 10대 원칙 이행	Criterion 1	UNGC 10대 원칙을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편입하려는 노력	233
	Criterion 2	UNGC 10대 원칙에 대한 가치사슬 내 구현	143-151
확고한 인권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3	인권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91-95
	Criterion 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Criterion 5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확고한 노동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6	노동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73-82, 209-214
	Criterion 7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Criterion 8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확고한 환경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9	환경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61-71
	Criterion 10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Criterion 11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UNGC 협회 활동 현황

협회 및 이니셔티브	가입일	목적/비고
UNGC 본부	2007년 5월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SK텔레콤 ESG 체계 고도화 및 국내외 ESG Reputation 제고
UNGC 한국협회	2007년 9월	
UNGC LEAD	2011년 1월	

Criteria for UNGC Advanced Level			Page
확고한 반부패 정책과 절차	Criterion 12	반부패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143-158
	Criterion 13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Criterion 1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유엔의 포괄적인 목표 달성과 이슈 해소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	Criterion 15	유엔 목표 달성과 이슈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을 통한 공헌	119-129
	Criterion 16	유엔 목표 달성과 이슈 해소를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와 자선활동	
	Criterion 17	유엔 목표 달성과 이슈 해소를 위한 공공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129, 214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및 리더십	Criterion 18	유엔 목표 달성과 이슈 해소를 위한 파트너십과 외부 이니셔티브 활동	233
	Criterion 19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추진의지와 리더십	5
	Criterion 20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안전 채택과 관리 감독	139
	Criterion 21	이해관계자 참여	182-184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성과를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작성 근거 및 참조 국제 가이드라인

본 보고서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의 부합(In accordance with) 요건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및 제2호(기후 관련 공시)와 SASB 등 관련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보고의 범위와 경계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라는 표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 개별 기업을 지칭합니다. 재무 데이터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19년부터 K-IFRS16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환경·사회 등의 비재무 데이터는 SK텔레콤의 별도 기준으로 작성했고, 일반적인 서술과 정보에 대해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SK텔레콤의 해외지사, 자회사, 투자회사의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지리적 경계는 매출의 99% 이상이 발생하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대한민국이며, 시간적 경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일부 정성적 활동은 2026년 6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보고된 과거 데이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재산정하였으며, 해당 데이터에 변동 사유를 표기하였습니다.

제3자 검증 및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에 담긴 재무 정보는 독립 감사법인의 회계 감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비재무 정보는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p.215-217)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p.221-222)을 실시했습니다. 미래예측 진술 및 그 한계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면책 고지(Disclaime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

SK텔레콤은 2007년에 사회 윤리와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들과 기업들이 협조하여 발의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시스템 표준인 ISO 26000 준수를 비롯하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행 정보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 주기	1년
문의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 email: sustainability_skt@sk.com
홈페이지	https://www.sktelecom.com/
공시자료	한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 → SK텔레콤 조회)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http://kind.krx.co.kr → SK텔레콤 조회) 영문 뉴욕증권거래소(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 Company Name: SK Telecom 조회)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보고서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현재 또는 과거의 활동, 성과 외에도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 추정치에 관한 사항 등 미래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may", "will", "could", "should", "forecasts", "expects", "intends", "plans", "aims to", "goals", "trying to", "anticipates", "projects", "outlook", "believes", "estimates", "predicts", "potential", "continue", "preliminary", "추진", "목표", "전략", "예정", "전망", "예상", "추정", "기대", "계획"과 같은 단어나 문장,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들은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에 해당합니다. 미래예측 진술은 작성 시점의 현재 계획·추정 및 전망, 그리고 회사가 미래에 처하게 될 정치·경제적 환경 등에 근거하며, 알려지지 않은 위험·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험·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결과나 성과가 미래예측 진술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신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보고서의 일부 정보는 추정과 가정에 기반하여 산정되었으며, 데이터 가용성 및 산정 방법론·기준의 발전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제3자 출처의 정보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나, 회사가 독립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는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맥락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포함이 그 재무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의 미래예측 진술은 작성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작성시점 이후 발생하는 위험·불확실성이나 사건을 반영하여 이를 갱신·수정하거나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 telecom